

T000036884

MONO1201227818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1234-000196-01

이어도 주변해역의 해양·수산·법적·인문학적 기초연구 결과보고서

Ⅱ

2011

국 토 해 양 부
국립해양조사원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제주도 전승 구비문학으로 본 이어도

- 인문학 시리즈 단행본 11를 위한 -

한 림 화(이어도연구회)

제 출 문

국립해양조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제주도 전승 구비문학으로 본 이어도- 인문학 시리즈 단행본 Ⅱ를 위한 - (The View of IEODO, from Oral-Traditional Literature of Jeju Islander's)”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0. 31.

주관연구기관 : (사)이어도연구회

연구책임자 : 한 립 화

요 약 문

I. 제 목

제주도 전승 구비문학으로 본 이어도-인문학 시리즈 단행본 II를 위한-

II. 목적 및 필요성

제주민의 인지적 기록물인 구전문학에서 전해지는 이어도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본문을 탐구함으로써 이어도에 대한 제주 선주민의 실효적 지배의 역사를 추적하는 증거로 제시하고자하는 데에 그 목적 있다. 아울러 이어도의 인문학 분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시리즈 발간 사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III. 내용 및 범위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①기존의 구전자료를 채록한 문건을 중심으로 소리(민요)와 서사문학(설화, 신화) 작품을 수집, ②이어도에 대하여 직접 언급된 자료를 직접 자료, 제주 선주민의 동중국해 및 주변 수역 이용 상황이 나타난 자료를 간접 자료로 분류, ③ 특징과 형성과정을 인문학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민의 의식에 구체화되어 구비문학의 형식으로 표출된 정서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논리적으로 해설한다.

IV. 결과

직접자료 및 간접자료를 통하여 제주 선주민이 이어도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인지에 의하여 이미지가 확고하게 형성된 점을 볼 수 있었다. 다만 구전문학의 전승 특성상 채록 시점에서 시간의 범위가 넓지 않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그렇더라도 소리(민요) 및 서사문학 전반에 걸쳐 주된 원형, 즉 이어도에 대한 이미지는 그대로 보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 결과는 이어도를 연구하는 인문학 분야 기초자료로써 이어도 연구회가 지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단행본(시리즈)으로 출간, 이 분야의 연구 및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SUMMARY

I. Title

The View of IEODO, from Oral-Traditional Literature of Jeju Islander's

II. Purpose

Record the cognitive Jeju-Islander's, which is said in oral literature of IEODO the relevant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writing the list up about the body by exploring indigenous to Jeju to trace the history of the reign of the practical effect to present evidence that the dee is the purpose. Thus, a basis for humanities research projects to contribute to the series is published.

III. Contents and Scope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chieve the first ① select a passage and put on record traditional oral literature materials around the '소리' (traditional folk song) and Narrative (stories, myths) collected works, ② directly mentioned IEODO of data for direct materials, Jeju Indigenous Use of the East China Sea and surrounding waters of the situation presented materials classified as indirect materials, ③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process to organize and analyze the humanities. Based on this awareness is embodied in Jeju-Islander options sentiments expressed in the form of literature, and is concrete and objective and logical explanations.

IV. Results

Through direct materials and indirect materials indigenous to the IEODO consciously. Unconscious cognition is firmly formed by the images that were to be seen. Select a passage and put on record tradition of oral literature, but the nature of time is broad at the limitations that are faced. Even so, the '소리' (traditional folk-song), and epic literature throughout the main round, ie, for IEODO image were able to determine that it is preserving.

V. Plan to Apply th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basic data of the IEODO to study the humanities, continues as the books progress as a business (series) published in this field of research and hope to use them as educational materials.

CONTENTS

I . Introduction	9
II . Main Subject ; The View of IEODO, from Oral-Traditional Literature of Jeju Islander's	13
1. Legendary literature and Mythological Story	16
2. Traditional Folk Song(소리)	27
3. Proverb	170
4.	233
5.	260
III. Conclusion	274

목 차

I. 서론	9
1. 연구 목적과 배경	9
2. 연구방법	9
II. 본론; 제주도 전승 구비문학으로 본 이어도	13
직접자료	
1. 설화	16
2. 소리(민요)	27
간접자료	
3 신화	170
4. 소리(민요)	233
5. 속담	260
III. 결론	274

I . 서론

1. 연구 목적과 배경

제주 섬주민의 인지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인문학적 기록물인 구전문학에서 전해지는 이어도, 혹은 이어도 이미지를 파악할 시점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세계의 판도는 해양운용의 주권확립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채록되어 문자화된 구전문학 전반에 걸쳐 이어도를 추적할 만한 것들을 수집, 선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에워싸인 자연환경적인 지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 섬주민이 인지하고 정형화시킨 이어도와 같은 ‘또 다른 삶터’가 제주도 외 지역에서는 인지되어 설정되거나 그와 같은 사고가 크게 부각 된 바 거의 없다.

그런대도 기존의 구전문학 관련 자료를 채집, 분류하여 기록물로 남긴 이들이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제주 섬주민의 이어도를 구체화해 놓은 실효적 지배의 역사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자료를 확보해 놓았다.

그럼으로 2000년 이전에 제주 섬주민의 구술에 의하여 채집, 문헌화된 구전문학자료에서 이어도를 추적할 만한 증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목록화 함으로써 이어도의 심도 있는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어도의 인문학 분야 기본 자료인 구전문학 단행본 시리즈 발간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2. 연구방법

(1) 일정과 주요 내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방법과 일정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자료를 수집, 분류, 보완, 최종 선택하여 확정하는 순서를 밟았다.

추진일정 내 용	2011 / 3 - 2011 / 10										비고
	3	4	5	6	7	8	9	10	11		
1차 자료 수집											
2차 자료 수집											
자료 취사선택 & 분석										3차 자료 수집 및 최종자료 선택, 확정 *1.2차 수집 시 미비자료	
보고서 작성 & 제출									최종 발표		

자료수집 및 그에 대한 정리의 주 초점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① 제주 구전문학에 나타나게 된 동기로서의 이어도와 제주민의 생활상 해양활동에 동질성을 담보하면서 나타난 특징 추적
- ② 제주 섬주민이 전수해 온 좁은 의미의 설화 및 신화, 소리(민요), 속담 등에서 직접 이어도가 명시되었거나 이와 유사하게 이미지가 정형화된 대상(제주와 강남 사이에 있는 섬, 바람, 돌 등)을 추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료 분류
- ③ 문학적인 해제를 통해 해양생활권역 내 바다에 대한 주도적 이용 관련 역사 추적의 중요성 및 인문학의 친숙성 부각
- ④ 이어도를 '또 하나의 삶터'로 지리적 개념을 정립한 제주민의 해양이미지 진실 규명
- ⑤ 이어도 관련 구전문학이 가진 인문학적 가치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장르별 구분

(2) 자료 수집 및 선택 그리고 획정

이어도 구비문학 자료 최종 목록 표

분류	제 목	출처	소계
직접 자료	1.설화		5편
	1-1이허도	다카하시토오루[高橋亨], “民謡에 나타난 濟州女性-이허도(離虛島)전설-” 『朝鮮』 212號 昭和 8年(1933년), 『제주도의 옛 紀錄-1878~1940년』, 제주시 우 당도서관 편. 1997.	
	1-2이어도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1959.	
	1-3이어도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 大系 -북제주 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	
	1-4이어도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 大系-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5이어도	고은, 『제주도-그 전제상의 발견』, 일지사. 1976.	
	2.소리 [민요]		133수
	2-1 뗏돌 가는 소리	42수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초판 →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 재발간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2-2 방아 짙는 소리	25수	
	2-3 해녀 노 짓는 소리	49수	
	2-4 망건 땀는 소리	9수	
	2-5 양태 찌는 소리	7수	
	2-6 탕건 찌는 소리	1수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 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1』 북제 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 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노래에 드러난 갈 등양상과 현실인식”, 민요학회, 『민요론집』 제 2호. 민속원. 1993

분 류	제 목	출 처	소 계
	소 계		138
간접 자료	3. 신화	고대경, 『신(神)들의 고향(故郷)』, 중명. 1997	17편
	3-1-1고양부 탐라국사		
	3-1-2세신인과 벽랑국 세공주		
	3-2 개로육서도		
	3-3 금백조와 아들들		
	3-3-1 보름웃도		
	3-4 남선비		
	3- 5동서해용왕 (구 삼승할망)		
	3-6 동해용왕마님		
	3-6-1 삼승할망 (용왕마님)		
	3-7물의 신 궤네깃도		
	3-8 백중이		
	3-9 성주안신국		
	3-10 윤동지와		
	3-11 영동		
	3-12 용왕국 진궁아기		
	3-13 자청비		
	3-14 칠성		
4. 소리 [민요]	4-1오돌또기	13수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1963
	4-2갈치낚는 소리	3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4-3서우젓소리	5수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4테우짚는 소리	1수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4-5염불소리	1수	
	4-6성주내는 소리	1수	
	4-7이어도놀래	5수	한가홍, “조천민요의 특이성”, 민요학회, 『민요론집』 제3호. 제주문화. 1994
5. 속담	5 조류, 날씨, 해녀, 어업과 관련된 속담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소 계		91
합 계			229

관련 자료는 이미 채록되어 단행본 혹은 논설문 등으로 발표된 자료로써 출처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수집, 선택하였다.

이러한 자료 정리 범주의 기준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주 사회가 획기적으로 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제주 섬주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조직의 기능화, 기계화가 이뤄졌다. 또한 산업의 변천, 미디어의 광범위한 확산과 그 영향으로 인하여 이어도와 관련된 어업 활동, 항해경험 등에서 발생하는 해양생활구전(비)문학을 낳는 현장성이 달라졌다. 예를

들면 제주 섬주민의 전통적인 구전문학의 승계 현상이었던 일터 접근이 더 이상 특이성을 갖지 않을 뿐더러 일 형태가 달라지는 등 상황이 매우 다르게 변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비록 구술자에 의하여 관련 자료가 채록된다고 할지라도 그 고유성을 담보하는 예는 거의 드문 형편임을 감안하였다.

따라서 채록일시가 1980년대를 벗어나지 않은 것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유념하게 하였다.

자료는 세 번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소리(민요)와 설화, 신화 등 이야기로 크게 분류, 먼저 표를 제작하였다.

최종적으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내용이 직접 이어도를 언급한 것이면 직접자료,
2. 제주 선주민의 항해 궤적을 추적할 만한 내용에 근거를 둔 것, 제주도민의 생활상 중 주변 수역 및 근해, 외해에 대한 지식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적시된 것 즉 이어도를 인지할만한 정황증거로 삼을만한 것들을 간접자료로
대분류하여 우선 목록을 정하였다.

3. 편의를 도모할 방법으로 본문 분류 시 직접자료를 1과 2로 하고, 이를 하부 단위 분류의 중심으로 잡았으며, 간접자료는 3과 4를 부여함과 아울러 직접자료와 마찬가지로 정로로 번호를 매겼다.

그리고 속담은 직 . 간접자료의 범주에 넣지 않고 독립시켜 제주 섬주민인 해양민의 바다를 아는 정도 즉 앞의 척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도구로 자료화를 시도하였기에 해양 관련 상식을 유추하는 자료임을 감안, 제 3의 관련 자료에 5를 부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직접자료에는 1과 2를, 간접자료에는 3과 4를, 관련 자료로 분류한 속담은 5이다.

이러한 분류는 정리에 그 목적이 있을 뿐 우선순위와는 아무 상관도 없음을 밝힌다.

이렇게 목록을 세분화함으로써 자료의 근거가 제주민의 이어도에 대한 이미지 구축의 저변을 들여다볼 여지가 한결 더 선명해지는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유용하게 이용되기 때문이다.

설화 및 신화, 소리, 속담 등 관련 자료를 최종 선택한 기준은, 그 성실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내용을 먼저 확실하게 숙지한 후 합당한 근거로 제시할만하다는 기대치를 충족할 여지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특히 소리인 경우, 표현 양식, 내용 등 매우 유사한 것들이 많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들이면 그 동질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 목록화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럼으로 소리에서는 단어 한 개 정도, 후렴구가 아주 조금 변이된 정도인 동종의 것들을 함께 목록에 넣고 본문을 수록하였다.

II. 본론; 제주도 전승 구비문학으로 본 이어도

각 자료는 장르별 분류를 통하여 목록을 정하고 번호를 부여하였다.

최종 선택된 자료 분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개수는 231 편(개)에 이르며 각 장르별로 최종 선택하여 목록화하였는데, 이 중 직접자료는 138편 (개), 간접자료는 93 편(개)이다.

장르별 편(개)수는 설화 5편, 소리 162수 (직접 133수, 간접 29수), 신화 19편, 속담 45개이다.

이는 정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일 뿐, 자료 가치의 서열이 아니다.

설화와 신화는 각각에 해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리(민요)는 종류별로 묶어 해설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직접자료

1. 설화

신화와 설화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요건을 살폈다.

일반인에 의하여 옛이야기처럼 구술되어 채록된 경우이면서도 이어도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일 경우에 해당되면 여기에 뒀다. 그 목록화 게재는 다음과 같다.

1-1이허도, 1-2이어도, 1-3이여도, 1-4이여도, 1-5이어도 등 5편이다.

2. 소리[민요]

이어도, 혹은 이여도 등의 명칭은, 소리[민요]의 후렴구 등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실 가운데 매우 명료한 의미를 지니고 드러난 경우도 다소 있다.

여기에서는 단지 후렴구 뿐 만이 아니라 본문에서도 이를 적시하거나 은유적인 표현을 한 것들을 분류, 정리하였다.

자료 상 수집된 대다수의 소리가 일자리에서 불러졌음을 그 사실을 통하여 규명할 수 있었다.

일하는 자리에 따라 부르는 소리의 내용이 다름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고 종류별로 개수를 표시하였다. 목록화 자료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2-1 땃돌 가는 소리 42수, 2-2 방아 쪼는 소리 25수, 2-3 해녀 노 젓는 소리 49수, 2-4 망건 땀는 소리 9수, 2-5 양태 짜는 소리 7수, 2-6 탕진 잣는 소리 1수

간접자료

3. 신화

신화는 역사 이전, 더구나 문자기록이 일천한 시대인 고대사회에 정치적, 생활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종의 역사기록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섬의 경우는 그 정형이 조금 다른 면을 보여준다. 즉 제주 섬주민은 현대에 이르도록 문자기록보다는 구전을 통하여 수많은 역사 속의 '사건'과 숨겨진 영웅담을 기록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 전 지역에 예전 해양 이용 혹은 그와 관련된 신화가 풍부하게 산재해 있었음을 이번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차 확인하였다.

제의(祭儀 ritual) 중에 주요 테마로 구술되는 '본풀이'의 경우를 여기에 분류해 넣었다.

이 부분의 자료는 제주 섬주민이 해양민으로써 동중국해, 나아가 태평양자락인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지식의 축적, 인지 등이 표출됨을 감안, 해양생활이 두드러지게 표출된 것들을 택하였다.

자료의 목록화는 다음과 같다.

3-1-1 고양부 탐라국사, 3-1-2 세신인과 벽랑국 세공주, 3-2 개로옥서도, 3-3 고양씨 가문, 3-4-1 금백조와 아들들, 3-4-2 보름웃도, 3-5 남선비, 3-6 동서해용왕(구 삼승할망), 3-7 동해용왕따님, 3-8 삼승할망(용왕따님), 3-9 물의 신 켜네깃도, 3-10 백중이, 3-11 성주, 3-12 윤동지와 신조롱이, 3-13 영등, 3-14 용왕국 진궁아기, 3-15 자청비, 3-16 칠성, 3-17 호종단

4. 소리[민요]

이어도에 대한 규명을 논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주 자료가 제주의 전통 소리[민요]이다.

여기에 간접자료로 분류되어 목록화 된 소리들은 후렴 혹은 본문에 이어도가 명시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 일대의 해역에 대하여 그 이해도를 감안했을 때, 사설에 드러나는 해양 이용에 대한 지식, 인지정도가 매우 두드러진 것들이 있었다.

따라서 제주 섬주민의 동중국해와 그 일대의 해역에 대한 활동, 지식, 인지도를 파악한 것들을 목록화 했는데, 아래와 같다.

4-1 오돌또기 13수, 4-2 갈치 낚는 소리 3수, 4-3 서우젓 소리 5수, 4-4 테우 젓는 소리 1수, 4-5 염불소리 1수, 4-6 성주 내는 소리 1수, 4-7 이어도 놀래 5수

5. 속담

이 장르는 제주 섬주민의 해양이용 경험이 농축된 자료로서 그 가치를 가름할 만하다. 직접자료로서도 간접자료로서도 이어도를 적시하지 않지만 해양이용 경험에서 우러나온 일상생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장르는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수많은 마을 역사지 등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바, 고재환 교수가 편저한 『제주속담사전』에 총망라 된 점을 감안, 목록화 최종 단계에서는 그 본을 썼으며 목록 식별 번호는 5를 부여하였다.

또한 편저자가 해제를 해놓고 있어 이를 해설에 차입하였다.

조류, 날씨, 해녀, 어업과 관련된 속담 45편

1. 설화

1-1이허도
1-2이어도
1-3이여도
1-4이여도
1-5이어도

1-1. 이허도

출처: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 “民謠에 나타난 濟州女性-‘이허도(離虛島)’전설”
『朝鮮』212號 昭和 8年(1933년).
『제주도의 옛 紀錄 -1878~1940년』, 제주시 우당도서관 편. 1997.

채록 ; 모슬포에서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 1932년)

[본문]

옛날 고려시대 충렬왕(忠烈王) 3년 원(元)의 지배를 받아 목관이 와서 통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원말(元末)까지 제주에는 매년 공물을 중국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공선(貢船)은 북쪽의 산둥(山東)에 가기 위해 섬의 서북쪽 대정의 모슬포에서 준비하여 출발했다.

언제인지 모르나 대정에 강(姜)씨라는 해상운송업의 거간인 장자(長者)가 있어서 이 공물선의 근거지를 이루고 그때마다 수척의 큰 배가 공물을 만재하여 황해를 가로질러 출발했다. 그런데 이들 공물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강씨에게는 늙은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슬픔은 이기지 못하고 “아아, 이허도야 이허도”로 시작하고 끝나는 노래를 짓고 이를 불렀다. 그 곡조는 처참하도록 슬펐다.

1-1.의 전체 번역본

출처: 좌혜경(편저), “3.신세가”,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PP42-44.1995.

* 이 글의 원본은 위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 “民謠에 나타난 濟州女性-‘이허도(離虛島)’전설”, 『제주도의 민요』이다.

섬의 노래는 뱃돌 · 방아에도, 뱃노래에도, 혹은 농요, 기타의 노래에도 노래를 부르고 끝에 반드시 소위 전렴, 후렴이라고 부르는 이어도(또 이허도라고도 한다)라는 후렴구가 붙고 있다. 한자어로는 離虛島(이허도)라고 쓴다.

이 이허도는 공상의 섬으로 제주도와 강남, 즉 남지나해의 중앙에 존재한다고 믿어지고 있다. 여기를 지나는 배들은 이 근처에 오면 우선 안심된다는 곳이다. 그래서 섬사람들은 떠나는 배를 향해서는 이허도까지 무사하도록 기원하기도 했다. 또 나간 배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어도에라도 가서 재난은 면하겠지 하며 슬퍼했다. 노래에

강남 가진 해남을 보라
이여島(도)가 반이엥 혼다
이엥 말랑 말아근 가라
말앙 가면 늑이나 웃나
이엥 말랑 말아근 가라
이여 흥편 나 눈물 난다

이 이허도의 후렴은 누군가에 의해서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고려시대 충렬왕 3년 섬이 원(元)의 지배하에 있을 때, 원의 목민관이 와서 제주를 통치할 때부터 원 말까지 제주는 해마다 소와 말, 소고기, 기타의 토산물을 중국에 공물로 헌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공물선은 산동남의 강남으로 향해서 섬의 서북인 대정 모슬포에서 출발했다.

어느 무렵인지는 모르지만, 강씨라고 하는 선원의 우두머리가 있었고 공물선은 그 때마다 수척의 큰 배에 공물을 가득 실어 항해를 횡단하게 했다.

그런데 공물선은 많이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로 중간에 ‘이허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하는 꿈같은 이야기가 섬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있었다.

어느 해 강씨 자신이 나아가 공물선에 타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다.

강씨에게는 노처가 있었다. 그녀는 슬퍼서 참을 수 없었는데, “아아 이허도야 이허도”로 시작해서 마치는 부분의 노래를 만들어 그것을 불렀다.

그 곡조는 슬프고 처참하였다. 같은 탄식을 대정의 과부들은 들어서 동감하였다. 그 외의 부인들 모두 동감하였다. 곧 전도에 확대되었다. 중국과의 교통은 끊어져도 뱃사람이 많던 섬의 부인들은 역시 이 노래를 동감하였다.

이렇게 근본의 의미는 이미 잊혔으나, 지금까지 “이여도야 이여도”는 그녀들의 노래 앞이나 끝에 두어 노래한다. 슬픈 기원 때문에 곡조의 아름다움은 처량하고 쓴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가사의 의미를 모르는 육지의 사람들이 한 번 들어도 쓰고 신 까닭은 절절이 슬픔이 생기기 때문이다.

[해설]

이 설화는 채록자, 채록 시기를 감안할 때,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이어도에 대한 전설을 최초로 채록, 구전문학 안에 문헌으로 등재한 최초의 사례로 본다.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는 일제강점 시기 민족지학(民族誌學, ethnography)을 연구하는 학자로 총독부의 의뢰에 의하여 제주의 인문학분야 기초자료들을 수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1931년부터 2년 동안 제주도에서는 제주해녀[잠수(潛嫂)]들이 주축이 된 ‘제주해녀항일항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섬을 온통 독립운동의 물결로 뒤덮었다. 처음 제주해녀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해산물의 정당한 구매와 가격을 요구한 것이, 당시 일제 지방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립운동으로 번졌던 것이다.

이에 일제식민정부인 조선총독부는 제주도민의 제반사항을 파악하고 그 분위기를 알고자 여러 학자 그룹을 파견하였다고 한다. 그 때 다카하시 토오루가 연구책임자였다는 설도 있다. 그는 제주도민인 이(李)아무개 씨 등을 안내 겸 통역으로 썼다고도 하였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조선총독부는 일본 식민 하의 인문학 분야 학자들을 두루 동원, 두 번에 걸쳐 제주의 전통문화를 광범위하게 수집,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카하시 토오루는 구전자료를 수집하면서 제주도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는데, 이후 그 현장연구를 토대로 현지자료조사에 대한 논설문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 논설문 중의 하나가 위 자료이다.

또한 그는 ‘여다(女多)의 섬 제주’를 전설 속의 여전사 부족인 아마조네스([Amazons], 그리스어: Ἀμαζόνες) 사회에 빗대는 논설문도 발표 하였다.

그럼으로 채록자에게는 이 이어도의 전설을 채집하기 이전에는 이어도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었다고 본다면, 이 채록본은 이어도를 현대에 규명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 가치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채집자가 최초로 접한 이어도에 대하여 제주 섬주민이 전하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순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설화의 채집자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설화의 핵심은 이야기의 시간을 나타내는 그 역사성에 있지 않고 제주 섬주민이 잃어버린 ‘또 다른 삶터’의 존재인 이어도의 확인에 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시간의 무대인 고려시대 때 실제 있었던 사건인 제주 섬에 대한 원(元)의 지배 역사를 기술한 것은 ‘이어도로 사라지는 제주 섬주민’의 근거를 확고히 하자는 장치로 ① 채록자인 다카하시가 삼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이 설화의 ②구술자가 자신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고 이야기의 사건이 허구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실제 역사를 차입,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구전자는 채집자를 향하여 이야기 속의 ‘사건’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할 목적으로(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또한 그 신빙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제 역사를 거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비문학의 전승과정뿐만 아니라 구전자료상에 나타나는 특성 중의 하나에 속한다.

이야기는 남편을 잃은 늙은 아내의 깊은 슬픔을 처절하게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제주 섬과 중국 본토 사이에 자리 잡은 이어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점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고향으로 돌아올 의지가 있다면 남편은 돌아왔을 텐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설화를 접하는 이는 이어도의 실체에 다가들게 마련이라는 당위성이 엿보인다. 매우 현실적으론, 이야기를 접하는 이라면 당연히, 이어도 암초에 강씨가 탄 배가 좌초되었을 것이라든가, 전설에 따라 이어도 낙원을 발견한 강씨 일행이 거기에 안주해버렸다고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이 설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고대 어느 시기까지 이어도가 제주 섬주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위하여 이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살기 좋은 땅이었을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장 피에르 베르낭(Jean-Pierre Vernant)이 정리하고 해설한 '그리스신화'에 보면,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이끄는 전사들이 아프리카 북부 지방 '고토파겐'에 상륙한 후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는 망각의 열매, 로토스(lotos)를 먹고는 환각에 빠져 고통스러운 전투며 고향에 돌아갈 일이며 모든 걸 잊고는 그 곳에서 지내려고 했다. 이에 오디세우스는 전사들의 의식을 일깨워 무리를 이끌고 귀향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처럼 제주 섬주민도 중국을 향하여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이어도를 발견하거나 거기에 정박하면 저도 모르게 안주하고 말아 제주 섬으로 귀향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제주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평생 돌아오지 않은 이를 그리워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신화적 상상체계를 갖추었다.

그에 더하여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설화에 내장된 제주 섬주민의 동중국해 상의 활동에 있다.

제주 섬과 중국 사이에 넓게 자리 잡은 대양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고대 제주 섬주민이 그 바다를 몸소 체험한 경험이 많다는 걸 뜻하기도 한다.

중국의 강남은 오나라 시대 지금의 베트남까지를 아우르면서 그 아래쪽 해안지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명칭이었다.

고대 동중국해상의 항해루트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중국의 그 지역과 제주 섬 사이의 항해코스가 매우 발달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를 '동중국해사단항로' 또는 일부학자들은 '이어도항로'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대에 제주 섬주민이 그 대해를 항해할 수 있었다는 점은, 조선술(造船術, shipbuilding), 항해술(航海術, seamanship)이 매우 발달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인 동시에 이어도의 실체적 인지 및 지식도 지리적으로 상당히 축적되었음을 의미한다.

1-2. 이어도

출처: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서. 1959.

채록 ; 조천리에서 (진성기, 1959년)

[본문]

옛날 조천리에는 고동지라는 사나이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해에는 중국으로 국마진상을 가게 되었다. 그날따라 바람 한 점 없이 바다는 잔잔하여 고동지는 동료 배들과 함께 말을 잔뜩 싣고 순풍에 돛을 달아 배는 조천포구 수진개를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배가 수평선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폭풍이 불어 닥쳐 배는 나무 조각처럼 흔들리며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고동지는 동료들을 모두 잃고 자기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표류하

여 도착한 땅은 ‘이어도’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어도’에는 큰 태풍 때 고기잡이 간 어부들이 수중고혼이 되는 바람에 이른바 파부들만 사는 섬이었다.

파부들은 고동지가 표착하자 환영이 대단하였다. 파부들이 저마다 고동지에게 자신의 집에서 살기를 바라니 정말로 딱한 일이었다. 할 수 없이 고동지는 매일 파부들의 집을 바꿔가면서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와서 처마에서는 낙숫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불현듯 고향의 아내와 부모 형제가 그리웠다. 아내를 보고 싶은 생각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 날 밤은 초승달이 반달이었으나 달이 유난히 밝았다. 바닷가를 배회하면서 멀리 수평선 너머로 아내의 이름을 열백 번도 더 외쳐 불렀다. 점점 더 달 밝은 밤이면 고향이 그리워졌고, 고향이 그리워지면 바닷가를 찾았다.

바다는 부드러운 가락으로 노래를 불렀다. 고동지도 파도의 가락에 따라 스스로를 달래며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다.

이어도 (ㅎ)라 이어도(ㅎ)라
이어 이어 이어도(ㅎ)라
이어 말(ㅎ)린 나 눈물 난다
이어 말랑 말랑근 가라
강남을 갈거면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엿 해라

그 소리 사설은 강남으로 가는 절반쯤 길에 ‘이어도’가 있으니, 나를 불러 달라는 애절한 내용이었다.

이어도 주민들이 이 고동지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여 들었다. 많은 주민이 그의 처지를 동정하여 흐느껴 울었다. 어느새 이어도 노래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 고동지는 뜻밖에 중국 상선을 만나 귀향하게 되었다.

이때 ‘이어도’의 한 여인이 고동지를 따라 제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고향에서는 태풍으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고동지가 살아 돌아오자 잔치를 벌였다.

‘이어도’에서 고동지를 따라 온 여인을 마을 사람들은 ‘여돛할망’(이어도의 할머니라는 뜻)이라고 불렀는데, 세상을 떠난 후에는 마을 당신(堂神)으로 모시게 되었다.

지금 조천리 ‘장귀동산 당’이 바로 그 여돛할망을 모신 당이다.

[해설]

이 이야기에서는 이어도가 낙원 혹은 살기 좋은 이상향과 같은 이미지로 전혀 부각되지 않은, 파부들만 사는 섬으로 묘사되어 있다. 매우 흥미로운 설정이다.

이는 제주 섬주민이 원초적으로 이어도를 막연하게 상상의 섬, 이상향 등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생활터전으로 당연하게 생각해왔음을 나타낸다.

해양활동 중에서도 대해의 항해는 남성애 국한된 생활이었음이 잘 드러나 있어 제주 섬주민의 상고대 생활상의 전통적인 활동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시기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제주도에서 중국에 조공하던 때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시간대에 이 이야기가 생겨났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화자(話者)는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를 차입하여 ‘옛 이야기’를 구술하는 습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듣는 자들이 알고 있어서 공감할 만한 역사의 사건을 빌려와 쓰기 때문이다.

구비전승 과정에 이러한 화자의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요소를 지닌다.

이어도가 한 바다 가운데 존재한다고 인지하는 상황에서는 어부의 신분 등 주로 해상활동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거친 바다에서 희생된다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이러한 이야기의 구도를 가진 듯싶다.

여기에 소개된 이야기는 여러 에피소드가 다 생략된 간추려진 것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어도 주민인 한 여성이 왜 고동지를 따라 나서게 되었는지 등 사건의 중간과정이 생략되어 세밀한 묘사가 없다는 점으로 미뤄보더라도 큰 줄거리 위주로 이야기를 엮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여성이 제주 섬에서 어떻게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왜 당신(堂神)으로 모시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이야기의 에피소드가 생략되는 경향은 이 이야기가 채록될 당시의 분위기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

화자(話者)는 채집자가 알고자하는 의도에 맞는 이야기만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의도를 짐작해 보면, 채집자는 ‘여돛할망’ 당신이 누구이며 왜 그 당이 이 마을에 있는지를 전제한 질문의 답을 얻으려는 데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제주 섬주민이 섬기는 대다수의 신들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가 아니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여 억울하게 이 세상을 하직했다는가 했을 때, 그 영혼을 달래어 평안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신으로 추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돛 할망’이 마을의 당신이 된 경위를 짐작해 보건데, 이미 가정이 있는 남성을 따라 왔다는 것 때문에 도덕적인 사회규범을 중시하는 주민들에게는 부정한 여성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따라서 그 여성의 삶은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매우 세세하게 관찰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인격을 갖추었는지, 어떤 심성의 소유자였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주시했을 터이다.

일부 신앙민들에 의하면 그 여성은 평생 헌신적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러기에 사후에는, 이어도에서 온 여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이어도에서 온 거룩한 여성’이라는 의미로 ‘여돛할망’이란 신위를 바로 제주 섬주민인 마을사람들이 부여하고 신중히 그 영혼을 모셨던 것이다.

‘여돛’은 ‘이어도의’의 제주어식 줄임말이며 ‘할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성 노인, 다른 하나가 극존칭으로 사용되어 ‘거룩한 여성’ 혹은 ‘존경하는 여성’의 뜻을 지닌다. 제주도의 여성 신을 모신 당을 일컬어 ‘할망당’이라고 할 때는 후자의 의미이다.

이 이야기가 증거 하듯 제주 섬주민의 삶 속에는 이미 상고시대부터 이어도가 또 하나의 제주 섬주민의 삶터로 각인되어 있었다고 본다.

이어도에서 제주 섬으로 건너온 사람에 대한 매우 소중한 구전 기록이다.

1-3. 이어도

출처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 大系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203-206.

채록 ; 동김녕리에서 (현용준·김영돈, 1977년)

[본문]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편이 아내를 버려두고 무인도인 ‘이어도’로 가서 칩을 정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는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 부탁하였다.

“아버님, 배 한 척만 지어 주십서.”

“뭘 하젠?”

“남편을 찾아 보쿠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 선홀고지(편집자 주 ; 조천읍 선홀리 꽃자왈로 동백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나무가 뿔뿔이 들어선 천연림)로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지어주었다.

어느 화창한 날을 택하여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남편이 살고 있는 이어도를 향하여 배를 띄웠다. 이어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며느리가 노를 저으며 어서 ‘이어도’에 가자고,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소리[노래]를 불렀다.

드디어 힘겹게 이어도에 이르렀다. 과연 남편은 새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남편은 아버지와 본처가 귀향할 것을 설득하자 하는 수 없어 가족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기로 결정을 내렸다.

온 가족이 한 배에 타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파가 몰아치니 다 몰사 당하고 말았다.

그 후, 그 고향 사람들은 풍파를 만나 몰사한 그 가족들을 불쌍하게 여겨 당제(堂祭)를 지내듯 늘 제사를 올렸다.

[해설]

마치 제주 섬주민이면 누구나 이어도를 넘나들면서 살았다는 듯이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 익숙할 만치 이어도는 제주 섬 주민에게는 친숙한 또 하나의 생활터전이라는 사실적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다고 본다.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실화인지 가공인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제주 섬

주민의 의식에 그 섬의 존재가 온전히 각인되어 대를 물린다는 사실 그 너머에 있는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사고가 중요하다.

해양 활동 그 중에서도 원양 항해 등 위험을 무릅쓴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긴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일대기인 이 이야기가 암시하는 바는 정말로 크다.

제주의 수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와 유사한 해양생활상을 체험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결말을, 어떤 이는 슬픈 생을 마감한다.

지금도 바다는 제주 섬 주민의 알찬 생활터전이다. 그럼으로 미지의 세계인 바다를 제주 섬과 이어도 사이에 두고 삶의 모험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약간의 모순을 안고 있음을 눈치 챌 것이다. 한 남성이 본부인을 버려두고 ‘무인도’인 이어도로 가서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어도를 무인도로 묘사하고서도 그 곳의 여성과 혼인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정이다.

이러한 이야기 구성은 일종의 극적 장치에 해당한다.

이어도는 바로 이런 섬이다. 직접 그 곳에 가보지 않은 이에게는 무인도인 동시에 그 곳을 체험한 이에게는 유인도라는 이분법적인 그러나 매우 모순된 이중적 증거 제시인 셈이다.

이 개념은 직접체험에서 얻어지는 사물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고대시대에 어느 시점에서는 유인도였을 이어도가 또 하나의 제주 섬으로 우뚝 바다 가운데 나왔어 제주 섬 주민의 생활공간이었던 시기가 있었을 법하다는 추론을 하게 한다.

옛날 옛적 한 옛날에는 지구의 지붕인 히말라야가 솟아있는 티베트 일대가 바다였다는 사실로도 이 추론의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1-4. 이어도

출처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 大系-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232-233.

채록 ; 서귀포시 대포동에서(현용준·고광민, 1981년)

[본문]

어느 한 남편이 군대에 출정을 나갔는데, 비교적 나가며는 혼 번 돌아 오도 못 하고.

옛날에 무슨 전화가 시카(있을까). 뭇이 아무것도 었는(없는) 때에 춤 펜지도 전하기가 곤란하주. 펜지도 사름이 날랐거든. 그럴 때에 혼 번 나가며는 소식 없이 혼 세상 다 믹치는 사름덜이 많거든, 그 군대에 나가면.

그러면 ‘어떻사(어떻게야) 지난(지내서) 이제도 죽어신 디(죽었는지) 살아신 디 모른다.’ 그 부인네는.

그러면 그 ㄱ래·방에(맏돌·방아) 홀 때에다 노래를 그렇게 부른다. 그 남편을 생각하는, 서방을 생각하는 견지에서 노래를 그렇게 멘드는데, 이어도라 혼 섬이, 이어도엔(이어도라고) 호민 섬 도째주게(島字이지).

이 섬이 어느 부근, 아마도 그 혼재(혼자) 있는디, 있으니까 여기서민 어디 오끼나와라던

지, 어디 중원(中原) 어디 무슨 섬이라든지 이런 디가 있으며는 군대에 가서 요디나(여기에 나) 부떠서(붙어서) 살아보지 안 흥는가? 이렇게 쪼르는 말인데, 그 이어도라는 섬이 어디 있는 것을 알아지민(알게 되면) 거 합격인디, 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주. 이어도 말 흥되 이어도가 아니고 무슨 어디 섬을 이어도라고 했는지 모르주.

[해설]

옛날 제주 섬 주민들에게 이어도는 그리도 친근하였다. 그러기에 제주 섬 주민에게 있어 중국과 제주를 오가는 이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지 않았다. 이어도에 정착하였다고 매우 단호하게 규정하였다.

이런 결정적 ‘사건의 처리’ 이면에는 제주 섬 주민이 원초적으로 본능에 추적된 이어도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군대에 간 남편, 조공선 뱃사공으로 간 남편은 일반 제주 섬 주민과는 달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국가에서 차출한 인력으로 공인의 몸이었다. 이들은 가족과 헤어져 그 임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기에 기다리는 뫼은 제주 섬에 남은 가족 특히 부인에게 명에처럼 자위했다.

이 설화에서도 이어도는 한 바다 가운데 홀로 존재하는 섬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이어도’라고 표현해도 그 섬의 이미지는 똑 같다.

여기에서 추리해 본다. 이어도는 있었다. 제주 섬 주민 누구나 다 알 만치 널리 알려진 외딴섬이었다. 제주 섬을 떠난 이들이 어찌다 거기에 정착하면 다시는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섬이 이어도이다. 이어도가 어디엔가 있지만 제주 섬에서는 그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을 뿐이었다. 떠나야 한다. 그래야만 이어도를 발견할 것이다. 그렇지만 떠날 수가 없기에 슬픔은 깊어지고 대를 이어 그 사실을 물렸던 것 같다.

실제 역사에서 보면, 고대에는 한반도 혹은 일본 그리고 제주도를 거쳐 중국에 이르는 ‘동중국해사단항로(東中國海斜斷航路)’가 열려 있었다. 이 항로는 서해중부횡단항로로 서해한 가운데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오월지부(吳越之富)의 땅 양자강 하구의 영파(寧波;주산군도)’ 그리고 탐라국 제주섬을 경유, 주로 일본을 잇는 해로로 마치 절벽의 비스듬한 경사면처럼 서해를 건넌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학계에서는 장보고가 이 해로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항해술, 조선술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해상왕이 되었다고도 한다. 그가 주로 이용한 뱃길을 ‘남중국항로’라고도 한다. ‘동중국해사단항로’가 일본, 제주, 영파(양자강하류)를 일직선으로 잇는 뱃길이라면 전도의 청해진에서 제주 섬을 지나 영파 혹은 양주를 잇는 해로로 보다 남쪽에 치우쳤다 하여 그렇게 불려오고 있다.

‘한민족사를 해륙사관으로 정립하자’(『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2002.)고 주창한 윤명철(동국대) 교수는 이 항로에 대하여 그 뱃길 한가운데 이어도가 있다하여 ‘이어도항로’로 규정하고 있다.

1-5. 이어도

출처 : 고 은, 『제주도-그 전체상의 발견』, 일지사, 1976. pp.67-69.

채록 ; 제주시 산지포에서 (고은. 채록연도 미상)

[본문]

산지포(山地浦)의 한 늙은 어부는 그의 동료와 함께 근해어로(近海漁撈)에 나섰다가 극심한 격랑을 만나서 표류되고 배는 없어져버렸다. 겨우 배의 널조각 하나를 붙들고 상어 새끼들이 지나가고 있을 무렵 그 상어새끼에 쫓기면서 그의 삶을 붙들고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곧 그의 의식이 사라지고 그의 몸은 시체가 되어서 상어새끼들의 아기자기한 밥이 될 것이다. 마치 一七(십칠)세기의 끝레가 「하는 대로 버려두라. 가는대로 버려두라(Lais-sez fair Laissez passer)」라고 외치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살아 있는 한 힘을 다하여 헤엄쳐 갔을 때 더 이상 헤엄칠 수 없는 완전무력(完全無力)의 상태에서 죽어가는 것 같은 고독과 절망이 그 어부의 마지막에도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그 때 그 어부의 극의(極意)의 시야에 하얀 절벽으로 이루어진 「이어도」가 바로 저쪽 바다 위에 떠 있지 않은가.

「이어도다! 이어도다! 이어……」

라고 말한 뒤 그의 의식은 전혀 그의 몸속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늙은 어부는 의식을 잃어버린 채 뜻밖의 어떤 주조류(主潮流)를 만나서 그 조류에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게 그는 제주 산남(山南)동단(東端)의 표선(表善)의 바다 기슭에 표착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시체가 또 떠내려 왔는가 하고 살펴보았을 때 아직도 숨이 남아 있어서 신방에 빌고 몸을 녹여서 재생시켰다.

그는 얼마 동안 가료하다가 그의 집 에월(涯月)로 돌아갔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늙은 아내와 아들은 아마도 바다의 충격 때문에 병어리가 되었거나 바다 귀신이 씌어져서 영원한 침묵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방고래를 허물면서

「말 좀 합서! 말 좀 합서!」

라고 외쳐도 늙은 고기잡이 폐인은 허황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윽고 어부에게 임종이 다가왔다. 아들의 귀를 잡아 다녀서 그 자신의 유일한 씨앗인 아들의 귀에 대고

「이어도! 이어도를 보았다!」

라고 말하고 숨을 끊었다.

늙은 어부는 작은 메밀밭 복판에 파묻혔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았다는 이어도에 대한 감동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다음 마을을 떠나서 해매어 다녔다.

그는 결국 그 「이어도」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그의 아버지가 보았다는 이어도를 그 자신이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광인(狂人)이 되어서 후줄후줄 울어대고 히히히히 웃어대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도 그 자신이 「이어도」를 보았다고 말하고 광인(狂人)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미쳐

서 죽어가고 「이어도」는 계속해서 제주도 일주(一周)의 마을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해설]

이 설화는 시인 고은이 직접 채록, 수필 형식의 글로 발표한 것이다.

하얀 절벽으로 이뤄진 이어도를 봤다는 어부의 증언은 지금도 눈에 선할 정도로 선명하다.

이어도를 목격한 어부는 다른 이에게 말하면 자신을 미쳤다고 할까봐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 묻고 살았다.

사막에 떠오르는 신기루처럼, 요즘 대도시의 영상이 대지에 나타나는 이미지처럼, 그가 본 이어도도 바다 한가운데 나타난 허상이었을까?

그랬을 것이다. 틀림없이 허상이었을 것이다.

다만 왜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어부에게 나타난 허상이 이어도였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지 않는가? 만일 그 어부가 제주 섬주민이 아니어도 이어도가 나타나 죽음 직전의 그를 스스로 구했을까?

답은 매우 간단한 데 있다.

그는 이어도의 실체를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제주 섬주민이었다. 그에게 바다에서 어부로 활동하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무의식 세계에는 지금은 해상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은 이어도일지라도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어도를 평생 그리워하다가 죽어간 아버지를 그 아들이 하얀 메밀꽃이 핀 밭에 묻었다는 건 아마도 이 이야기를 채록하여 글 쓴 시인의 영감이 반영된 것이리라. 죽어간 이가 본 하얀 절벽으로 이뤄진 이어도와 그가 묻힌 하얀 메밀꽃밭은 연상작용(聯想作用)에 의한 동질성을 내포하는 적절한 표현이다. 꽃이 하얗게 핀 메밀꽃밭은 바람에 일렁여 마치 바다에 파도가 이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가진다.

그런데, 그 이어도의 실체를 들은 전 제주도민이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점은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어렵지 않다. 이 글을 쓴 고은이 우선 이어도의 실체에 대하여 풀리지 않은 의문을 가진 데에 그 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인 고은은 1960년대에 청년의 몸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 들어와 도서관을 세우는 등 문화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남서해 중심 어딘가에 이어도가 있어 제주 섬주민이면 누구나 다 그 실체를 안다는 그 사실이 도리어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현재적 의미로만 본다면 이어도가 또 하나의 제주도여서 바다에 나갔다가 사라진 이들, 특히 남성들이 가버린다는 그 섬에 대하여 허황된 이야기로나 들렸다는 게 당연하다. 그 이야기를 믿는 제주 섬주민을 광인(狂人)으로나 설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을 그였다고 생각된다.

비록 지리학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어도 실체설도 있다.

윤복현 인터넷 논객은, “바다가 된 서해는 1만년 이전에는 육지였다. 바로 박제상의 [부도지]에 기록된 마고문명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마고와 관련되는 고인들은 서남해 지역이 세계최다로 밀집되어 있다. 제주도는 세계최고의 토기가 출토된 지역

이며 창조신을 마고로 삼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주장은 공감하는 이들이 수 많다.

제주의 마고는 설문대이다.

이어도는 현재 지리적 관점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불가사의한 실체이다. 마치 아틀란티스와도 같은 고대 존재설에 입각하여 생각해 보면 그 존재 가능성은 신빙성을 얻고도 남는다.

이 설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이어도를 증언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2. 소리[민요]

* 사대소리는 제주 전역에서 불려지는 소리임에도 이어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특징을 지닌다. 그런데도 2-3-24은 이어도를 노래하고 있다.

** 2-3-28 이어도가 어떤 곳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 대다수의 원문은 단어와 단어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나 여기에서는 편의 상 의미가 통하는 범위 안에서 띄어 썼고 낱말의 뜻이 통하도록 표준어 맞춤법에 맞춰 일부 고쳐 쓴 경우도 있다.

**** 원문에 제목이 붙어 있지 아니한 소리는 본문을 참조, 적절한 대목을 인용하여 새로이 제목을 붙였다.

***** 원본의 본문에 [청취불능] 등의 자구는 임의로 지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소리의 원형을 따지거나 미 청취 분을 보강할 목적으로 재 채록을 시도하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기 표현된 소리의 사실만으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을 원본으로 삼은 경우, 원문은 후렴구가 각절 혹은 소리 앞뒤로 오는 상황을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라고 고쳐 썼다.

이는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덧붙인 경우이다.

***** 망건, 양태, 탕건은 만드는 과정을 보면 코바늘을 사용한다. 더구나 망건과 탕건은 뜰 때마다 매듭을 지어나가는 형태로 짠다. 그럼으로 원문에는 작업과정인, ‘못는다’ 즉 맺는다고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해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 ‘짜는 소리’로 표기하였다.

***** 설화 편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民謠에 나타난 濟州女性-‘이허도(離虛島)’전설”,은 이어도를 배경으로 노래하게 된 사연에 얹힌 설명으로 그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 글은 번역본으로 좌해경(편저), “ 3. 신세가”,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PP42-44.

1995.에도 실려 있는데, 앞서 밝힌 대로 이 글의 원본저자는 다카하시 토오루이다.
본문 중에,

강남가진 해남을 보라
이여島(도)가 반이엥 혼다
이엿말랑 말아근 가라
말앙 가면 늬이나 웃나
이엿말랑 말아근 가라
이여 흥면 나 눈물 난다

이 이허도의 후렴은 누군가에 의해서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라는 대목이 있다.

이는 이어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어주고 있다.

***** 소리에겐 해설을 각 장르의 맨 앞에 붙여 가사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 2-1 멧돌 가는 소리 42수
- 2-2 방아 찧는 소리 25수
- 2-3 해녀 노 젓는 소리 49수
- 2-4 망건 짜는 소리 9수
- 2-5 양태 짜는 소리 7수
- 2-6 탕건 잣는 소리 1수

여기에 목록화 된 소리의 직접자료 수는 133수이다.

2-1 멧돌 가는 소리[그레 그는 소리]

[해설]

예전 제주섬의 여성 일 가운데 멧돌을 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였다.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일은 연자마나 나무 방아에서 했지만 보리쌀처럼 알맹이가 굵은 곡식을 여러 조각 내는 일이며 가루를 내는 일, 두부와 같은 갈무리 음식의 재료를 만드는 일 등이 순전히 멧돌작업이었다.

그러면 왜 멧돌 작업을 하는 소리에 이어도가 삽입되었는지 살펴보자.

멧돌은 혼자서 혹은 둘이서 조용히 앉아 작업한다. 그리고 일자체가 단순하여 멧돌을 돌리면서도 깊은 사색에 빠지거나 여러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 작업환경이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갔거나 아니면 공무로 육지로 출장을 갔거나 이어도항로를 따라 외국으로 간 가족의 생사여부는 물론이고 궁금한 안부를 깊이 생각하

게 만들었을 것이다. 자연히 그리운 이에 대하여 설움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염원이 노랫말에 질게 반영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뱃돌 가는 작업 시에 아래와 같이 이어도항로로 떠난 이를 반영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어도는 제주섬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정착하는, 또 하나의 제주섬이기 때문이다.

2-1-1① 이어도 흐라

출처 :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 1963 초판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 재발간. p.107.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이어 이어 이어도 흐라
 이어 흐텐 나 눈물 난다
 이어 말은 마랑근 가라
 강남을 가건 해남을 보라
 이어도가 반이엔 해라

[표준어 역]

이어도여 이어도여
 이어 이어 이어도(島)여
 이어 하는 소리만 들어도 나 눈물 난다
 이어도 말은 말고서 가라
 강남(江南) 가는 해남(海南)길로 보면
 이어도(島)가 절반(切半)이라더라

- 이어도(離於島, 離虛島):濟州島の 西南海中에 있다는 섬
- 강남 : 江南(中國)

2-1-1② 이어이어 이어 동 흐라

출처 :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초판

→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 재발간. pp.147-148.

이어이어 이어동 흐라

ㄱ랑 줍술 ㄴ이 잇이 떡엿

놈의 어떻 말 엇이 살라
말을 ㄱ랑 우심을 혼들
속광 셈사 어디사 가리
좁쌀 만이 살을 때 시민
놈의 집도 사람이 살라
낭 지레 가도 청포도 치매
물 지레 가도 청포도 치매
줄아 입을 옷이나 시민
놈의 집도 사람이 살라

[표준어 역]

이어 이어 이어도여
가랑좁쌀 뉘 없이 먹고서
남의 어머니 말없이 살려드나
말을 하여 웃음을 한들
속과 셈이야 어디 갈거나
좁쌀만큼 살 집이 있으면
남의 집도 사람이 살겠느냐
같이 입을 옷이 있으면
남의 집도 사람이 살겠느냐

- 의 : 뉘, 죽대기, 피
- 속 : 마음
- 셈 :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사실
- 살을때: 살 힘(道理)

2-1-1③ 몸은 족곡 소리 큰 새야

출처 :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초판
→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 재발간. p.227.

이어 이어 이어 동 흐라
몸은 족곡 소리 큰 새야
고진 가난 위김새러라

[표준어 역]

이어 이어 이어도여
몸은 작어도 소리 큰 새여
고지(高地)엔 가서는 위김새더라

- 高地 : 높은 山麓
- 위김새 : 고지새

2-1-2 이엿 문은 저성 문이어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4

*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이 나타남

이여 이여 이어도 흐라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흐라
혹은 이여이여 이어도 ㄱ레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ㄱ레

이어도 짚은 저성 짚이어
가난 올 충 몰르더라
신단 보선에 불 받아 농곡
입단 옷에 풀 흐영 농앙
애가 카게 자들려도
다신 올 충 몰르더라

2-1-3 이엿 말라 눈물이 진다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4

*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이 나타남

후렴구 : 이여 이여 이어도 흐라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흐라
혹은 이여이여 이어도 ㄱ레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ㄱ레

이엿 말라 눈물이 진다
눈물이 지른 한강수 웅다
눔이나 운들 나 무사 울리
ㄱ렌 보난 지남석 ㄱ레여
지남석도 모다들른
개뻘고나

2-1-4 이엿 말랑 말아근 흐라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p.4-5

*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이 나타남

후렴구 : 이여 이여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여이여 이여도 ㄴ레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ㄴ레

이엿 말랑 말아근 흐라
이여 흐른 나 눈물 난다
말랑 가른 뉘이나 웃나
대로 한질 놀p로 가라
놀래 물론 아기네덜아
나신더래 배우래 오라
식 술 적의 불르단 놀래
아홉 상지 반이여마는
반상지만 더 배왕 가라

2-1-5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5

*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이 나타남

후렴구 : 이여 이여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여이여 이여도 ㄴ레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ㄴ레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말고 가는 즈손의 곁에
즈식이나 웃이민 흐라

2-1-6 만리장성 잣 아니 들런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5

*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이 나타남

후렴구 : 이여 이여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여이여 이여도 ㄱ레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ㄱ레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만리장성 잣 아니 둘런

근심으로 날 새이더라

2-1-7 강남 가건 해남을 보라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5

*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이 나타남

후렴구 : 이여 이여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여이여 이여도 ㄱ레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ㄱ레

이여 흐난 나 눈물 난다

나 눈물은 여의주 러라

나 눈물마다 여의주마다

덕이나 들엉 덕이나 들엉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강남 가건 해남을 보라

2-1-8 방축 뒤엔 연꽃이라라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6

*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이 나타남

후렴구 : 이여 이여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여이여 이여도 ㄱ레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ㄱ레

이여도 문은 이문이여
이문 뒤엔 방추강여
방추 뒤엔 연꽃이라라
연꽃 귀경 좋아라마는
연꽃 귀경 흐젠 흐난
못 돌아오더라

2-1-9 이여도 섬의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502-503

- *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여 어어허영 이여도 ㄱ레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여 흐덜 어덜 간다
이여도 섬의
전생 곳인 나난 어떻
내 설움은 간다
간군훈 집의 씨집은 가난
유기전답을 날 아니 준덜
흐를 촌녁 밀 닷말 굴안
ㄱ레방이야 날 아니 주리
주먹 삼매 다섯을 만들안
사랑 앞에 심 으신 반추
씨아바님 두 개 씨어머님 두 개
님은 가도 그대로 잇네
흐나일랑 서방 반착 나 반착
산아산아 우리 조선 산아
씨동생은 아니 주난 입 내물고 눈 멜라간다
웃 입어라 웃 입어라
이연 흐명 흐저 살쟁 흐다
비단처록 웃 입어라
서울서도 들어온 새야

2-1-10 이어이여 이어도 흐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510-511

* 이 소리도 역시 2-1-9처럼,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
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어이여 이어도 흐라
이어이여 이어도 흐라

날랑은 낳은 어머니
날랑은 날 무사 난고
가난 흐고 서난흔 집의
가난 흐고 서난흔 집의
씨덕을 들어와 보난
씨덕을 들어와 보난
흐를밤의 밀 닷 말 ㄴ난
흐를밤의 밀 닷 말 ㄴ난
주억 삼매를 다섯을 받안
주억 삼매를 다섯을 받안
씨아바님 둘 드러두고
씨아바님진 둘을 드러
씨어머님 둘 드러두고
씨어머님진 둘을 드러
님과 나는 반착이로고나
님과 나는 반착이여
씨동생은 아니 주어 부난
씨동생은 아니 주어 부난
눈 델르고 입 빼죽 혼다
눈 델르고 입 빼죽이여

2-1-11 아이고 애야 말도 말라

출처 :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노래에 드러난 갈등양상과 현실인식”,
민요학회, 『민요론집』 제2호, 민속원. 1993. p.398

성님성님 스촌 성님
시집살이가 어땀 데가

아이고 애야 말도 말라
고추장 단지가 매웁뎡 혼들
요 씨넱살이보다 더 매우라

뉘 두서 꼬리 감음만 혼다

시누인 베룩이 닷 돼
시어명은 눈물이 엇어
시아방은 신싸래 엇어
가라 오라 드리는 집의
눈 어두웁 연 삼년 살고
말 물라근 연 삼년 살고
귀 막아근 연 삼년 살아
아홉 삼 년 사난 가랜 말 엇어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2-1-12 대천 바당 가운데 들엉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535-544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전성 굿게 날 낳은 어멍
무사 날 나근 엇는 씨덕의
씨집을 가난 흐를 밤의
밑 닷 말을 굴아도 노난
주억 삼매가 다섯일러라
씨아바님전 둘을 디리고
씨어머님전 둘을 디런
임광 나는 혼착씩이여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간간 놀젠 놈의 첩 들언
어디 간간 놀아니 혼다
놈의 첩광 소낭괴 뵈롭은
소린 나도 살을 매었나

전처 소박 양첩 혼 놈은
대천 바당 가운데 들엉
돌진 밤을 새는구나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벵든 낭군 녹저 두곡
약탕관에 불 걸어 두곡
어린 즈식 좀 들와 두영
새벵돌 보명 줄도망가는 년
대전 통편 내여 노앙
목벨 년이 돼는구나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이여 방해랑 고들배 곶앙
즈녁이나 붉은 제 혼다
본데 즈녁 어둑은 집의
오늘이엿 붉은 제 흐리

ㄱ랑 줍썰 니 엇이 먹으멍
놈의 어멍 말엇이 살라

씨앗이엔 튼으렌 가난
같은 밧되 메마꽃 ㄱ찌
희번듯이 나앗아 서라
나여히에 요만이 고난
임여히엔 언매나 좋으카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앞문으로 받은 펜지를
뒷문으로 열려 보난
씨앗의 잡년이 죽었다고
펜지를 받으난

씨왓의 잡년이 죽엇젠
펜지 받으난 췌궤기 반찬에도
맛 웃던 밥이 소곰 반찬에도
문절문절 잘 넘어 가더라
으으허어어어 이여도 흐라
무신 뺑에나 죽엇더냐
나력뺑에도 죽엇더라
이여도 흐라 그년 저년
잘 죽엇더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못 노갯네 못 흐갯네
주석잡기는 못 홀러라
이여도 흐라 이여도 흐라
흐를 밤을 건나 보난
내돈 천냥이 간디도 없더라
이여도 흐라

요물 아퀼 은광 금이
굴랏건마는 은광 금은
소용이 엇어 지연 즈석배궤
보배가 엇다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울동불동 저기 천왕사
보아라 우리도 죽으민
저기 저 모냥 저꼴이 된다

대천바당의 치 웃인 배를 노난
풍파는 만나지난 이것저것도
못 동기연 이연중감중
나무아미타불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어멍신디라근에 날 가퀼 호난
청대섬회랑 춘 이실 지연
놀개가 젓언 못 놀더라

다심 어멍 개년의 딸년
검은 공즈는 개 주어 두언

훤 공조로 날 배리더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궂인궂인 나 어멍 신 우젠
곤곤 늬의 어멍 잇어도 산다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멧사십리 해당화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꽃이 진다고 서러움을 따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오는 멧년 요때만 오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멧사십리 해당화는
흔번 다시나 오건마는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우리 인생은 흔 번 가민
다시 돌아 몬 올 우리 인생이여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무사 못 오던고 여이여
물이 지편 못 오던가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산이나 노판 못 오던가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견지 싫어서 못 오던가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견지 싫어서 못 오시거든
버스를 타고서 건너나 읊서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산이 노판 못 오시거든
비영길 타고서 건나나 오심
이여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물이 지퍼서 못 오시거든
연락선 타곡 건나나 오심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가시오름 강당장 칩의
승시재해를 디리젠 호난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세곶방에도 새글렀더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튼은 독도 삼십릴 가고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벳긴 개도 옹공공이 주끄더라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2-1-13 이여 ㄹ레 고들배 곶앙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555-563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이여 ㄹ레 고들배 곶앙
즈넉이나 붉은 데 흐라

우리 어멍 날 날 적원
전생 곳게 날 난 어멍
팔재 곳언 구월에 나난
국화 꽃도 나 밋을 삼앙
우는 것인 눈물이로고나

밤이 오랑 밤이 가는 소님
어느 므실 누겐줄 알리
올래 배곶되 청버드남의
이름 생맹이나 씨고 가소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나주원님은 나주 자랴 흐네
호조판손 호조 자랴이여
직주원님은 선새 자랴 흐네
벨도진은 돈지 자랴
조천진은 국매 자랴 흐네
벨방진은 소섬 자랴이여
수산진은 청산 자랴
서귀진은 소남 자랴이여
대정원은 가파도 자랴
맹월진은 대 자랴이여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이엿 말은 말고나 가게
이엿 말 흐민 나 눈물 난다

스랑스랑 나 놀던 스랑
간간 놀젠 놈의 첩 드난
어디 간간 나 놀아서니

놈의 첩광 소낭윗 녀름
소린 나도 살을 매 엇네
지서명광 오름엿 돌은
둥글다도 살을 매 난다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흐룻 저녁 밀 닷 말 줄안
주먹 삼메 다섯을 흐난
씨아바님 두 개를 다리꼭
씨어머님 두겔 다리꼭
흐나 남은 건 임 반착 나 반착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전처 수박 양첩 흐 임아
대천바당 한가운 디 들엉
가를 유유히 돌진 밤 세계

가랭 흐영 날 보내여 두영
올만 네경 지드리더라
임도 나를 생각흐는 디
내 혼자 짝스랑이나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흐룻 저녁 식 소님이 오란
가고 난에 아기를 배연
낳고 보난 아덜이로고나
아방 좇지 못 흐염고나
어떤 학재 넘어가단
식 사름이 땡겨시문
삼수벤이 흐 가지 공 흐니
넵을 흥 재 분맹도 흐다

그 아기가 점점 크라나난
물 아래에 옥돌도 ㄴ트꼭
제비생이 알뜰도 ㄴ트꼭
옥곰 밋되 민화소요
댕기 밋되 풍기소로고나
어머님아 어머님아
놈의 집 아이덜은 아버지가 잇는 디
나는 무사 아버지가 었어
어머님이 흐시는 말씀
홍가라고 흐거든마는
아버지가 아니 좃아 온다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동의 와당 암춤 북 때꼭
서의 와당 수춤 북 때영
부모님께 미음을 끌영
남푼 ㄴ득 ㄴ저 가난
아가아가 매놀아가
아들 아긴 어떻흐문 좋고
어머님아 그 말씀 맘서
나도나도 생각을 흐민
대천바당 혼이나 엇수다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가시오름 강당장 칩의
식쿨 뱅이 새 글럼서라
먼침 나고 말제 난 동성
우 알을 못 좃안 해매염더라

한숨산에 나물 비영
수심산에 집을 짓영
한숨 수심으로 양토를 싸고
눈물로랑 베겔 싸고
이벨이란 말이 웬말인가

흔 술 두 술 철을 몰랑
부모 은혜 못 가꿨더니
이삼 십이 건당 흐난
태산 ㄴ쁜 뱅이 들언
좃는 것은 냉수로고나

부르는 건 어명이여

밀쌀로랑 저고릴 호영
좁쌀로랑 동전을 둘앙
곰을 엇인 저고릴 입언
서울이엔 들어를 가난
죽지고름은 건불럼서라

이여이여 이여도 호라
이여이여 이여도 호라

울멍 밥을 손으로 먹언
무정호난 성 아니 군다
우리 어멍 무덤인 가난
당배추가 어랑어랑 호네
다심 어멍 무덤인 가난
쓴 누물이 개똥을 칠호연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어편 어멍 낚는 아긴
팔즈 종안 잘도나 사느고
우리 부몬 날 무사 나근
밤낮으로 눈물이 난다

구쟁기 님은 씨아방에
좁북 님은 씨어명에
매홍이 님은 씨동심에
코생이 님은 씨누이에
몽게 님은 남편네에
어멍 호민 나 살아지코
씨누이야 씨가령 말아
너도 가민 씨집을 간다

2-1-14 궤짝이 바당의 떠오란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577-581

이여이여 이여도 호라

대한민국 오대산은
두만강과 한라산이
금강산과 백두산과
지리산을 놓안 오대산이여
두만강과 낙동강물이
대동강과 한강이로고나
진주도사 남강을 놓앙
오대강이라고 호읍니다
적주섬은 탐라국이여
한라산이 생겨나서
이 언덕 저 언덕 이 굽부리 저 굽부리
아흔아홉 굽부리 꿩기 때문에
범도 왕도 못 낫수다
적주산은 맹산이 돼연
관광지가 됩으로서
관광객이 날마다 읍니다

윗날윗적 목스님네 때에
영천이 목스님이 들어오션
적주 실적이 떠나고 물언
짐녕 스굴에 구레가 이십니다
해해마다 처네 호나 썩 먹읍니다
영천이 목스 호시는 말쑤
나줄 군술 다 거느려다
총광 활을 다 준비호연
짐녕 스굴에 등대를 호니
무당 불린 처네를 놓안
처네 주마 빨리 나오라
구렁이가 웃하늘에 세 부찌고
알 특은 땅에나 대연
처넬 먹젠 호고나 잇네
영천이 목스 호시는 말쑤
성방 이방 나줄님덜 총광 활을 쏘게
총광 활을 쏘앗더니
무신 영이라 아니나 죽으리
죽고 나니 나줄 군속 들어 온다
그으니믈 동산에 오경 뒤홀 보지말라 호엿더니
성방 호 분이 뒤돌아 보안
판대섭에 피가 부뻗구나
들어오란 판청마당에 가난

관대섭에 피 부튼 성방
아덜님이 죽었구나
영천이 목스님 아덜 삼형제
그 날 그 시간에 죽었구나
그 뒤호론 죄주가 펜호연
잘도 살아 가십니다

정의덴 열루니란 바당의
케짜이 바당의 떠오란
건전 보난 처네총각이
들었구나
열루니 옷막실에 논이 잇언
그 논밧뒤 간 씨집 장깁 보내언
그 논 이름을 혼인죽이라 호읍니다

한라산은 멍산이 돼언
이 굼부리 저 굼부리 이 언덕 저 언덕
다 굼어봐도 멍산이로고나
관광객덜이 오문 한라산 출입
성산일출 돌 귀경 가곡
열루니에 혼인자 귀경
짐녕 스쿨에 귀경을 갑니다
이여이여 이여도 호라

가문 가곡 말며는 말지
초신 신고서 씨집을 가나

부모 읍는 존식이 왜난
가련 호고 적막도 호네

남선비도 제 욕은 간의
아덜 일곱성제 애 내염서라
이여이여 이여동 호라

가진 호문 만나건마는
나 존유 엇인 때문에
눈에 숨숨 어리는 어머님
언제나 만냥 실통정 호리

2-1-15 우리부모 이어도 섬이 살앙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588-589

질초 멩천 곤룡포 장사
곤룡포 풀레 나오란 보난
도득놈이 옛보암서라
닭이 울거든 닭이엿 말라
닭은 보난 인닭이라라
이녁 부모가 잘 살아시문
이어이여 이어도 흐라

어린 즈식 떼어나 농곡
빙든 가장 살릴적의
약탕관에 불 걸어 두고
새백 돌 춘 뱀뚝에 도망을 가네
대전 통펜 목 빌 년아
빙든 가장 생각을 말고
어린 즈식 생각을 흐문
춘 뱀뚝에 도망질 가나

질곳 집의 도실낭 심건
씨냐 드냐 맛 볼 인 서도
지녕 살 인 흐나토 엿네

먹어 보라 대접엿 물가
먹어 보라 시접엿 물가
서울 물은 인석은 물이여
물의 맛이 혼맛이라라
간댕 흐문 내 어딜 가리
이어이여 이어도 흐라

이어이여 이어도 흐라
이엿 말에 나 눈물 난다
우리 부모 이어도 섬이 살앙
죽언 보난 이어도 생각

2-1-16 이어이여이여 이어랜 말가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525-526.

-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어이여 어어이 이어동 헐라
이어이여 어어이 이어동 헐라
본디 저녁 어둡는 집의
본디 저녁 어둡는 집의
오늘이엿 붉은 때 헐리야
꺾랑 줍술 너 엿이 먹영
다슴 어멍 말 엿이 살라
다슴 어멍도 말 엿이 산다
어멍 시민 옷 반반 입나
이어이여이여 이어랜 말가
아방 시민 신 반반 신나
이여 호민 나 눈물 난다
다슴 어멍 개년의 딸년
이어랜 말도 말 아니 혼다
나 눈물로 나 반반이여
이엿 소린 글소리 좋아
원 어머님 요 동산이
이어랜 말은 말아랭 혼다
원 어멍 죽은 무덤에 당배추가 어랑어랑
제섬 말은 놈의 말이여
다슴 어멍 죽은 무덤엔 개늬물이 어랑어랑

2-1-17 이엿 놀랜 나 놀래런가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539.

-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여이여 어허어 이여동 흐라
이여이연 이여동 흐라
이엿 놀랜 나 놀래런가
좁쌀만이만 살을메 시민
이여이연 이여동 흐라
놈의 집을 사름이 사느나

2-1-18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547-548.

-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 흐민 눈물이 난다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나 놀래랑 물 넘엉 가라
우리 어멍 날 무사 나근
나 놀래랑 물 넘엉 가라
절 일적마다 날 울리던고
산도 물도 내 넘지말앙
물 일적마다 날 울리던고
요깃 올레 지 넘엉가라
설룬 어멍 날 올랭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나 전승이 날 올리더라
우리 어멍 날 설앙 날 때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어느 바당 계역국 먹엉

2-1-19 이엿 놀래라그네 불러나 보저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772-773.

이여이여 이여도 굴앙
이엿 말라그네 말아근 가라
말아근 가민 늬이나 웃나
대로한질라그네 놀래로 가라

갈이올이라그네 쉼 아니 세난
나도 입에라그네 굴을 말한다

어멍 보민 굴을 말 한다
어멍 웃인 틈으로 가라
어멍 웃인 질호로 가라

질긋 집이라그네 도설낭 심영
갈이올이라그네 맛 불 인 하도
나 일 도웰 인 흐나이 웃나

어떤 사름은 팔즈나 좋앙
고대광실 노픈 집의
등맞이로 나누원
이내늬의 팔재는 무신늬의 팔재

전성 곳영 구월에 나난
구엿꽃도 나 벗이더라
나 벗이더라 나 벗이더라

이엿 놀래라그네 불러나 보저
요 ㄴ레야 정ㄴ레 소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2-1-20 내사 울영 어느 날 새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776-778.

이어이어 이어동 흐라
뉘은 울영 날이나 샌다
내사 울영 어느 날 새라

놈의 첩광 소남의 브름
소린 나고 살을 메 웃나
살을 메 살을 메 웃나

저 산 뒤에 나 부모 잇당
서룬 아기 소리로 압서

질긔 집이랑 도설낭 싱건
같이올이라그네 맛 볼 인 하도
나 일 도웰 인 흐나이 웃영
전생 굿영 구월에 나난
구엿꼇이 나 벗이더라

어떤 사름은 팔제나 좋앙
고대광실 노픈 집의
등맞이로 누리멍 살리
요 내 팔제는 어떤 날에 나난
집의 드난 정그레 소리
밧된 드난 우김새 소리
요런 집에도 어둠도 시랴
이엿 말이랑 말아근 가라
같이올이도 셈이나 세난
나도 입에라그네 꼴을 딸 한다

울고 가민 놈이나 웃나
대로한질랑 놀레로 가라

울멍 밤이랑 손으로 먹영
무정흐난에 섬 아니 진다

2-1-21 어서 죽영 혼으로 오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778-780.

이여이여 이여동 헐라
이엿 팔랑 팔아근 가라
팔앙 가민 놈이나 웃나
대로한질 놀레로 가라
놀레로 놀레로랑 가라

같이올라그네 셈 아니 세민
나도 입이라그네 굴을 말 잇나
어멍 보민 굴을 말 한다
어멍 웃인 질호로 가라
어멍 웃인 질호로 가라

질긋 집이랑 도설낭 싱건
같이올이라그네 맛 볼 인 하도
나 일 도웰 인 헐나이 웃어

울고 가민 놈이나 웃나
대로한질로그네 놀레로 가라
놀레로 가라

같이올이라그네 셈 아니 세난
나도 입이라그네 굴을 말 잇나

간간 놀젠 놈의 첩 들언
어디 간간이라그네 놀 아니 헐라
놈의 첩광 소남의 벼름
소린 나고 살을 메 웃나
살으 메 웃나
어서 죽영 혼으로 오라
이여이여 이여동 헐라

2-1-22 이엿 딸랑 녀령 가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813-814.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돛이사 울영 날이나 샌다
내사 울영 어느 날 새리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엿 딸랑 녀령 가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내사 울민 날이나 새카
돛이사 울민 어느 날 새코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엿 딸랑 말아근 가라
말아근 가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날 난 어멍 날 두영 가도
성 준 아방 날 두영 가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2-1-23 요 ㄴ래 곶앙 요 놀레 불르멍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831.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가난 흐고 서난흔 집의

이여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어떤 날에 남을 흐난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요 ㄱ래 곶암 요 놀래 불르멍

이여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가난 흐고 서난흔 집의

이여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2-1-24 이여 이어도 흐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846-848.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이여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가난 흐고 서난흔 집의

어느 날랑 요 ㄱ래 댜 곶라

이어도 흐라 이여 이어도 흐라

어떤 날엔 나를 나난

요 ㄱ래에 요 놀래 불르멍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이여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가난 흐고 서난흔 집의

이여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집인 드난 정ㄱ래 소리

이여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고진 드난에 우김새 소리

이여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물엔 드난에 숨바질 소리

총각 차라 물에나 들게

이여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해는 다 지고 일락 서산에 간다

이여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요 놀래여 놀래나 불르라

이여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옛 말도 말아근 가라

가시오름 강당장 집이

이여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꼴단 보난에 요 ㄱ레도 다 꼴앗저

2-1-25 이 ㄱ레 꼴아사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862-863.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 ㄱ레 꼴아사

우리 식귀털

오늘 즈낙 범벅 흥영

먹을 츠레여

이여도 흐라

2-1-26 독은 울어그네 날이나 새건만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863-864.

-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독은 울어그네 날이나 새건만
흐당 말핀 늬이나 웃나
내사 울어그네 어느날 썰까
이 놀레로 산 념영 가카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들엔 가된 푸십새 소리로그나
산엔 가된 새소리여

이연이연이연 이여동 흐라

정신 츠령 요 ㄱ레 골자
보리를 흐여당 골아근
범벅이나 흐영 먹자

2-1-27 내사 운덜 어느 날 새리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876.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독은 울영 날이나 샌다
내사 운덜 어느 날 새리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깊은 울영 세월 가느디
우리 청춘 늙어지기만 혼다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어멍 보민 곶을 말 한다
어멍 엇인 질호로 가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깊은 울영 날이나 샌다
내사 울영 어느 날 새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2-1-28 이 ㄹ레 저 ㄹ레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901.

이 ㄹ레 저 ㄹ레
지남석도 곶암시민
곶아진다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도 흐라 지남석도
곶암시민 곶아지라

2-1-29 날랑 죽건 닥빳 디 묻엉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926.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독은 울엉 날이나 샌다
내사 울엉 어느 날 새리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무정 흐난 성 아니 진다
성 아니 진다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도 흐라

날랑 죽건 닥빳 디 묻엉
닥이랑 나건 종이닥 나게
일천선비 글발에 놀라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말아근 가라

2-1-30 물엔 들민 숨비소리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980-982.

-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말아근 가라

이여도 흐라 이여도 흐라

독은 울엉 날이나 샌다

내사 울영 어느 날 새리
울명 밥을 손으로 먹영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독은 울영 날이나 샌다
날이나 샌다

대로한질 노래로 간다
내사 운덜 어느 날 새리
어느 날 새리

울명 밥을 손으로 먹어도
무정 흐민 성 아니 진다
어명이사 날 울랭 흐라

나 노래랑 성 넘어 든다
나 전성이 날 울리는고나
날 울리는고나

(청취불능) 씨게나 웨건
양석 쌍 들라

집인 들민 청그레 소리
고진 가난 우김새 소리
물엔 들민 숨비 소리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도 흐라 이여도 흐라

날랑 죽건 닥밧 되 물어그네
닥이랑 나건 종이닥 나건
이여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일천선비 글발에 놀라

집엔 가민 정ㄴ레 소리

요ㄴ레 보난 지남 ㄴ레로고나아
지남석 ㄴ레

2-1-31 이어 이어도 요 ㄴ레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1037.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어이어 이어동 헐라
나 놀래랑 산넘엉 가라

이어이어 이어도 ㄴ레

ㄴ레 방에야 이어동 ㄴ레

이어 이어도 요 ㄴ레야
혹이나 나라

혹이나 나라 혹이나 나라

정ㄴ레 소리 잘 울리어 간다
이어이어

2-1-32 씨집살이나 말 웃이 살져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1048.

이어이어 이어도 헐라

서툰 어멍 날 무사 나근
이런 곳에 이런 고생을

날 흐랜 흐는고

어떤 사람은 팔재나 종앙
고대광실 노픈 집에
팔재 좋게 살아가곡
날 ㄱ픈 사람은 보리 골아당
보리밥을 먹는구나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ㄱ랑좁쌀 녀 옷이 먹엉
씨집살이나 말 옷이 살져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2-1-33 혼저 돌리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1064-1065.

나 놀래라그네 산 넘엉 가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이여이여 이어동 흐라

나 놀래라그네 산 넘엉 가라
느네들 조랍지 말앙 혼저 돌리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2-1-34 이어도 흐멍 골암건마는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1065-1067.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날랑 울렁 어느 날도 새리
이여이여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 ㄱ레옌 자금이나 뇌사 굴쥬
너미나 배연에 못 굴로구나

정신 출렁 흔저나 곱서
흔저나 곱서

이여도 흥명 골암건마는
폴도 아프곡 못내나 홀로구나

어어어아 조라옴은
무사 영 조라우니
이 내 몸은 무신 팔재랑
앗앙은에 요 ㄱ레 굴멍
나 살랜 흥염싱고
팔재 곱언 촌에서
영 사는구나
아이고 우리 어멍
어떤 날에 날 나근에
요 ㄱ레 굴멍 날 살랜 흥염싱고

이연이연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날랑 두어근에 어느 날 도시리리
요만 아니 흥영 사는 사름도

신 살곡 원 살건마는
아이고 무슨 놈의 복력이나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2-1-35 이여 소리에라근 곶을 말 난다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1137-1142.

-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여이여 어허허어 이여동 흐라
이연이연 어허허어 이여도 흐라
이연 말도 말아근 가라 ~어허어 말아근 가라
이여 흐난 눈물이 난다 어허어 눈물이 난다

이연 말도 말아근 가나네~ 에헤에 놈이나 웃나
이연 말도~ 어허어 어시맨 흐라
말고 가는~ 어허어 놈이나 웃나
이여이여 어 이여~ 어허어 이여도 흐라

ㄱ랑좁쌀 뇌 어시 먹언 어허어 놈의 어떻 말 어시 살라
이여 소리에라근~ 곶을 말 난다

가나 오나~ 어허어 썸 아니 세난
오름에 돌광 어허어 놈의 첩으랑
나도 입에~ 에헤에 곶을 말 난다

놈의 첩광 소남의 브름~ 어허어 소리 나고 기 난다
산댕 하나 못 산댕 하나~ 에헤에 붉은 양지에 지미나 보라
소리 나고 기 나도~ 어허어 살을 매 었나

이연 말로 말고 가는~ 어허어 대로한질 놀레로~ 가라
지서어멍광 오름에 들은~ 어허어 둥글당도 살을 매 난다

이여 ㄱ래 ㄱ들배 ㄱ라근 어허어 즈낙이나 붉은 때 흐라
스랑 자세~ 에헤에 첩으로 말아
본디 즈낙 어둡는 집에~ 에헤에 오닐이엔 붉은 때 흐라
스랑 자세~ 에헤에 첩으로 말아

유월 더위라근 더위엿 말라~ 어허어 정칠월 더위가 한 더위러라
스랑 자세~ 에헤에 첩으로 말아

실폰 일을~ 어허어 그린 듯 흐난
산해 목재~ 에헤에 밋으로 들라
성골만~ 어허어 가시엄더라
산해 목재 밋으로 들라~ 어허어 밋으로 들라

날랑 죽건 닥밧디 문엉~ 어허어 나 가슴에 종이랑 나건
일천선비~ 에헤어 글발에 놀라
종이랑 나건~ 어허어 일천선비 글발에 놀라
글발에 놀라~ 어허어 글발에 놀라

이연이연~ 어허어 이여동 흐라
이연이연~ 어허어 이여동 흐라
울멍 밥이랑 손으로 먹엉~ 어허어 무정흐난 성 오르더라
이연이여~ 어허어 이여동 흐라
성이라그네~ 에헤에 오르고~ 느령~
이여 소리에~ 랑 어허어 눈물이러라
울멍 밥이랑 손으로 먹어그네~ 에헤에 무정흐난 성 오르더라

구시월에~ 에헤에 수가지 먹언
성이라근 오르고 느려~ 어허어 니에 신물 나리여 혼다
목을 단장 말 몰람서라~ 어허어 말 몰람서라
요 나이랑~ 어허어 땃 나이 러랜
올아도사~ 어허어 못 먹을 여름
요 네 일사~ 어허어 버칠소냐
짐이 되엿 열지나 말라~ 어허어 열지나 말라
산 앞의서 죽 쓰던 각시~ 이히이 산 뒤에 가도 궁글팡에 앉나

말 몰람서라~ 어허어 말 몰람서라
이연 말도~ 오호오 말아근 가라

지미 덕애~ 에헤에 먹음도 쏘도
흐덴 흐나 만덴 흐나 붉은 양지 지미나 보라~ 어허어 지미나 보라

지미 덕에~ 에헤에 먹음도 씹도
지미 덕에라근~ 어허어 먹음도 씹도
늑로 신물 나더니 흐라 어허어 늑로 신물 나더니 흐라
늑에 신물~ 나리어 혼다
나 것 어시 늑의 것 먼언~ 어허어 털풀 물에 지미엥 흐라

이여 소리~ 에헤에 나 눈물 난다

이 때 늑댄~ 에헤에 저 때로 가난
가마귀도~ 어허어 어명아 운다
저 산 늑꼰 당산매더라~ 어허어 당산매더라
생이도~ 어허어 어명아 운다
당산 ㄱ찌~ 에헤에 늑꼰냥 말라
우리 성제~ 에헤에 어명아 엇다
저 산 늑꼰 당산매더라~ 어허어 저 산 늑꼰 당산매더라
우리 성제~ 에헤에 어딜 강 좃리
당산 ㄱ찌 늑꼰냥 말라~ 어허어 늑꼰냥 말라

이연이연이여~ 어허어 이여동 흐라

늑꼰냥 말라~ 어허어 늑꼰냥 말라
가나 오나~ 어허어 딸 어시 살라
늑도 가민 저 산 늑간 당산매더라~ 어허어 저 산 늑간 당산매더라
씨누이야 씨거둥 말라~ 어허어 너도 가민 씨넉에러라

이연이연~ 어허어 이여동 흐라

이연 말도 말아근 가라~ 어허어 말아근 가라
이여 ㄱ레~ 에헤에 ㄱ들배 곶앙
즌악이나~ 어허어 붉은 때 흐라
즌악이나 붉은 때 흐게~ 에헤에 붉은 때 흐게
놀레 모른 애기네덜아~ 어허어 나신더레 배우레 오라
배우레 오라~ 어허어 배우레오라
본디 즈낙~ 어허어 어둡는 집에
오늘이엔~ 에헤에 붉은 때 흐라

2-1-36 임광 나는 혼착씩이어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1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245-246.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 소리의 문맥이 통하도록 문단을 조절하였다.

이어 ㄱ레 고들배 굴앙
마의 정당 췌정당 줄에
발을 걸련에 유울엄서라
즈녁이나 붉은제 흐라
흐를 즈녁 밀 닷 말 굴안

이어이어 이어도 흐라

ㄱ레도사 지남석 ㄱ레
굴아 가도 지남석이어

시아바지 둘 드리고
시아머니 둘 드리고
임광 나는 혼착씩이어

질긋 집의 도실낭 상건
흔 일이나 도엘 인 웃다

이어이어 이어도 흐라
이어이어 이어도 흐라

2-1-37 이어 굴아나 보카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1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214-215.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어이어 이어도 흐라

이여 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 방에 골아나 보카
ㄱ레도사 지남석 ㄱ레
요 ㄱ레야 골아나 보게
ㄱ레도 지난흐더라
골아 가도 지난도 흐네

하영 먹젠 산전에 올란
하영 먹젠 산전에 올란

머의정당 췌정당 줄에
머의정당 췌정당 줄에

발을 걸련 유울엄서라
발을 걸련 유울엄서라

이여이여 이여도 ㄱ레
이여이여 이여도 ㄱ레

지픈 물은 가다나 온다
지픈 물은 가다나 온다

노픈 낭게에 여뻔 올매
노픈 낭게에 여뻔 올매

본디 아니 올지도 말라
본디 아니라근 올음도 올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날만 못흔 정네도 산다
날만 못흔 정네도 산다

날만 못흔 시네도 산다
날만 못흔 시네도 산다

어느 짱을 구덕에 담앙
어느 짱을 구덕에 담앙
정궁저로 저이명 살리
정궁저로 저이명 살리

2-1-38 이어 이어도 이어도 흐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1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270-272.

-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어이어 이어도 흐라
이어이어 이어도 흐라
이연이연 이어도 흐라

나 놀레랑 물 넘영 가라
나 놀레랑 산이나 넘영 가라

이연이연이연 이어도 흐라
산 넘은 된 아방이 산다
나 놀레랑 산이나 넘영 가라
물 넘은 된 어명이 산다
이연이연 이어도 흐라

둑은 올민 날이나 샌다
요 뚝비도 굴양도 아돌 풀젠 흐난
나 놀레랑 놀레 불렁 요 ㄱ레 골자

이연이연 이어도 흐라
이어이어 이어도 흐라

ㄱ렛놀레 물이나 넘영 가라
나 놀레랑 산이나 넘영 가라

이연이연이연 이어도 흐라
이어이어 이어도 흐라

요 ㄱ레도 무썽무썽 잘도 먹나
게메 팔이쭈기 요 ㄱ를이 몬드라지 잘도 골아지는 ㄱ레로고나 이어도 흐랑
이연이연 이어도 흐라
ㄱ레 제운 나 아기로고나 요 ㄱ레야 나 설룬 중 몰라그네

이여 이여도 이여도 흐라
내사 올영 어느 날 새라
독 올엄시민 다 곶아질로고나
이여도 흐라
아이고 ㄱ레도 석상에도 ㄱ못 톨아지명 게먹엄고나
요 ㄱ레 곶아그네 동네 근방상 방에 지젠
어느 무슨 소상에 떡 흐랜 흐여시라
정도 못 존디게 흐랜도 흐여시라

옛날 식은 무사 벗어나지 못 흐연 요 노릇 흐랜도 누게가 흐여싱고
즈칭 흐영 재판 앞이 들어간 무사 아념다도 이여도 흐라

이연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2-1-39 이여랜 말 말 아니 흐라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138.

채록 : 표선면 성읍리, A이선옥(여, 1913) B:조을선(여, 1915) 1989. 5. 26.

-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연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 흐난 눈물이 난다

이여랜 말 말 아니 흐라
말앙 가민 늬이나 웃나
말앙 가민 늬이나 웃나
어멍 시민 옷 반반 입나
모른 질랑 모르텡 흐멍
아방 시민 신 반반 신나
아는 질도 물으멍 가라

다습 어멍 개년의 딸년
가건 가랜 보내여 두엿
나 눈물로 나 반반이여
울만 흐난 지드리더라

2-1-40 이엿 말도 말아근 가난에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p.200-201.

채록 : 남원읍 하례리, 현갑봉(여, 1924-1990), 고태평(여, 1921) 1989. 5. 17.

-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연이연~ 이어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엿 말도~ 말아근 가라

이엿 말도~ 말아근가라

가나 오나~ 셈 아니 세난

가레 오레~ 셈 아니 세난

나도 입에~ 굴을 말 난다

나도 입에 굴을 말 난다~ 굴을 말 난다

산땡흐나 몬 산땡흐나~ 붉은 양지 지미나 보라

산땡흐나 몬 산땡흐나~ 붉은 양지 지미나 보라

이엿 말도 말아근 가난에~ 놀이나 웃나

지미 덕에 먹음도 썸도~ 니로 신물 나리여 한다

이연이연~ 이여동 흐라

나리여 한다~ 나리여 한다

놀레 모른 애기네덜아~ 나 신더레 배우레 오라

나 것 잇엉 놈 주민 좋쥬~ 나 것 잇이 놈의 거 먹엉

울멍 밥이랑 손으로 먹엉~ 무정흐난 성 오르더라

무정흐난~ 성 오르더라

성으라그네~ 오르고 느려

서울시젠 오르고 느려~ 요덜 시젠 혼 시젤러라

ㄱ랑좁쌀 니 잇이 먹엉~ 놈의 어멍 말 잇이 살라

ㄱ랑좁쌀~ 니 잇이 먹엉

오름엿 돌과 깃어멍은 등글당도 살을 메 난다~ 살을 메 난다

오름엿 돌과~ 깃어멍은

놈의 첩광 소냐고 브름은~ 소린 나꼭 살을 메 엇나
소냐고 브름과 놈의 첩이라그네~ 소린 나도 살을 메 엇다
이엿 소리에~ 나 눈물난다
이엿 소리에~ 나 눈물난다
눈물이어~ 나 눈물난다
눈물이어 눈물이 난다

2-1-41 이어도 흘랑아 이어도 ㄱ레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335.

채록 : 애월읍 고성리, 양정숙(여, 1933) 강경옥(여, 1936), 1989. 2. 16.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어이어~ 이어도 흘랑
이어도 흘랑아 이어도 ㄱ레
이어이어이어 이어도 흘랑

나 소리랑~ 산 넘엉 간다
이어이어이어이어 나 놀래랑 산 넘어 가라
이어도 ㄱ레여 이어도 ㄱ레
잘도 갈아진다 어~ 이어이어 이어도 흘랑
소린 나도 살을 메 엇엉
이어도 흘랑 나 놀래랑 물 넘어 가라

이어도 흘랑아 이어도 흘랑
이어이어이어~ 이어도 흘랑
이어도 ㄱ레여 이어도 흘라

이어이어이어~ 이 ㄱ레 소린 정ㄱ레 소리여
이어도 ㄱ레여 이어도 흘라
이 ㄱ레 소리랑 물 넘엉 가라
집원 드난 정ㄱ레 소리
이어도 사나 이어 이어도 흘랑
나 소리에 잘 굴아진다
이어이어이어 나 놀래랑 물 넘어 가라

이어도 ㄱ레여 산 넘엉 가라
이어이어 이 ㄱ랜 정ㄱ레 소리여

2-1-42 이어도 ㄱ레여 이어도 ㅎ랑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353.

채록 : 애월읍 광령리, 정임인(여, 1922) 변임생(여, 1912). 1989. 3. 6

-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연이연~ 이어동 ㅎ라
이어이어이연~ 이어도 ㅎ라

울멍 밥은 손으로 먹언
울멍밥은~ 손으로 먹엉

무정 ㅎ난~ 성 아니 지리여
무정 ㅎ민~ 성 아진다

이연이연~ 이어동 ㅎ라
이어이어이연 이어동 ㅎ랑

요 ㄱ레는 지남석이여
요 ㄱ레랑~ 지남석 ㄱ레로고낭
가민 어멍 보리여마는
이어도 ㄱ레여 이어도 ㅎ랑
아니 가난 그리멍 살자
아니 가민 놀래로 부짱
지레 죽고 배 벨락 까지멍
지레 죽곡 배 벨락 ㅎ지 말랑
벗른 멘내 두 말을 지고
벗른 멘내 두 말을 지고

2-2 방아 찼는 소리

[해설]

뛰니뛰니 해도 카타르시스에는 쿵쿵 찼는 방아 일이 제격이다. 그러기에 이어도에 대한 상념도 자질구레한 것일지라도 매우 긍정적으로 표출해낸다.

방아 찼는 일이 제주도에서는 전적으로 여성의 일이어서 여성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그동안 내면에 쌓인 분노의 원인에 대하여 거침없이 뱉어내고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여성만이 가족을 잃고 상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제주섬의 경우, 고대로부터 남성이 전통적으로 뱃일을 전담하였다. 생업을 위한 어로행위에서부터 공무로 인하여 먼 항해를 해야 하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리무중인체' 집안의 가장인 남성 누군가를 잃고 여성이 그 역할까지 도맡아야 해야만 했다. 이 때의 그 상실감과 분노를 어떻게 새겨야 했을까. 방아찼기가 제격이었다.

아니면 남성의 바깥나들이 그 와중에 어디 이어도라든지 집안 여성들이 모르는 세상에서 처첩을 하여 동행해 온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던 것 같다. 그럴 경우에도 좀체 잊지 못할 분노와 상심이 사무치게 마련이다.

이제는 추측하기조차 어려운 여러 정황들이 제주 섬살이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간곤한 삶이 제주사람 유전자에 새겨져 방아를 찼을 때도 극적으로 사설로 표출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어도는 제주 섬주민 중에서도 여성들에게는 정신적으로 기댈 최후의 안식처였을 수도 있다. 남성들만 가는 그곳에 여성들도 가고 싶었을 것이다. 가서 행복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분노를 키웠고 이를 삭일 절호의 기회가 방아찼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땀들을 갈면서 깊이 사고하고 눈물짓는 것에 비하여 가슴에 맺힌 한을 다소나마 풀어버릴 일자리인 방아 찼는 시간에 제주여성들은 이어도를 동경했을 지도 모른다.

살이 쓴 지 단 지 구분할 겨를조차 없이 살아가는 나날들이 제주여성에게는 너무 벅차 이어도를 동경했을 것만 같다.

사설을 들여다보면 불수록 구구절절이 제주 섬여성의 섬살이 역사를 승화시킬 목적으로 이어도를 지향하는 일손 넘어 그 심상이 적나라하게 노래되어지고 있다.

2-2-1 씨냐 득냐 이어도 흐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586-587

이어이여 이어도 흐라
질긔 집의 도실낭 싱건
씨냐 득냐 이어도 흐라
맛 불 인 하서라마는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몰을 타고 꽃밭되 드난
 몰밭 마다 상내가 난다
 이어이여 이어도 흐라
 진진 담배통 즈른즈른 담배통
 물어나 앓앙 소리나 흐라
 이어이여 이어도 흐라

빙든 낭군 녹저나 두엇
 약탕관에 불 때여 두꼭
 이어이여 이어도 흐라
 우는 아길 때여 농꼭
 빌레에 췌도 때여 두엇
 이어이여 이어도 흐라
 이년아 저년아 요 잡년아
 보까나 불카 짓어나 불카
 방엿혹에나 뺏아근
 허풍 보롬에나 불려 불카
 이어이여 이어도 흐라

밀 닷 말을 곶안 주억 삼매 맹글안
 씨어머님 두 개 씨야바지 두 개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먹다도 안네단 남은 건
 우리 두갯이 흐나 시난
 반드기 벌런 먹엇고나

2-2-2 이어도 방에

출처 :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초판
 →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 재발간, p.178.

이어도 방애 고들배 지엇
 즈낙이나 붉은제 흐라
 본디 즈낙 어두군 집이
 오늘이엇 붉은제 흐라

[표준어역]

이어도 방아 부지런히 짚어서
 저녁밥이나 밝은 때 하라

본시 저녁이 어두운 집에
오늘이라고 밝은 때 하라

· 고들배: 連달아, 繼續, 쉬지않고, 부지런히

2-2-3 이어도 소리 에헤에 날 올려 간다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425-433.

* 이 소리는 세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세 사람을 [A], [B], [C]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여이여 어허어어 이어도 흐라
이여이여 어어어 이어도 흐라
이연 말도 말아근 가라 대로 한질 놀래로 가라
이어도 흐라 어어어 이어도 흐라

산엔 가민 꽃생이 소리 집에 들민 정ㄴ래 소리
대로 한질 이히이 놀래로 가라
나 전생이 날 올련가 어허어 나 팔즈가 날 올련가

이어도 소리 에헤에 날 올려 간다
이연 말도 말아근 대로 한질 놀래로 가라
이여이여 어허어 이어도 흐라

앞동산에 피는 곳은 연에 열년 피건마는
전승 구진 이히이 날난 어멍
옛날도 송년 지난 보리 혼 바리 심영 트멍에 좁저 둬서
어덜 가난 어허어 올 충을 몰라
조지 지성 툄다다 그네 불에 기시련도 보까 났저
하도 도올린 보리도 욥안 ㄴ래 벌러질로구나
경흔 때에 치메곤 방우리멍 밧을 샀건마는

이어도 흐라 어허어 이어도 흐라

옛날 어른덜 산 때에 들은 말로 어허어
가마귀ㄴ루 필개 ㄴ지 간 바파단 먹었저
미녕 아정 봄 나민 동촌더레 걸으멍
요새엔 채나 있저마는

우리 어멍네 살아난 생각 흐민
 두 설 난 거 떼어 뒀근 어허어
 재수 굿이민 못 바깥 오민 즈낙 굿으멍 살았져
 기영도 스몓 혼 땃틀씩 걸으멍 흐여당
 우리 맥이멍 살려 놔도
 어멍 설 운중 모른 아기덜
 옛날은 놀만 불영 산 앞이 쫄 물 산 뒤에 가꼭

나 소리를 어어랑 산 넘영 가라

옛날옛적에 우면 가네 감제씨 바파당 망덱이에 났단
 요새엿 년 난것덜은 가끈보리밥 먹어도 이디 아팡 저디 아팡
 혼저 매어 노멍 크난
 요새에 송년이랑 마랑 옛날은 사둔 오민
 보리 비영 뻥상 영빈 짓영 났져
 칠 년 한기에도 날텔 몬 몰류더라 혼다

이여동 흐라
 어멍 칩의랑 가건 석 덜 열흘 장마나 지라
 이여도 흐라 어허어 이여도 흐라

씨집이엔 가노랜 흐거들랑 어욱밧들로 질이나 나라
 손이나 베영 되돌아오게
 가리 오리 썸 아니 세여
 서룬 어멍 어허어 거리에 개똥을 찹쌀로 줬던 나 어멍아
 전승 구진 날 난 어멍은 날 버령 간다
 가난 올 줄 모르던 나 어머니로구나
 성 준 아방은 날 버령 아니 간다

오뉴월이 덥다 혼덜 정칠월이 한더위러라
 혼저 ㄱ래 곶아사 밤해여 먹영
 물질 가꼭 검질 메레 가꼭 흐느네
 이 아기덜아 분시 모른 아기덜 어느 제랑 요글 디
 물방에 보리 물 서꺼 놓아도
 물질 강 오라사 이 방에 지느네

이연 말도 말아근 대로 한질로 가라
 이여동 흐라 어허어 이여동 흐라
 가시오름 강당장 칩의 식콜 방에 새 글럼더라
 이여 이여 이여 이여도 흐라

아덜 다섯 딸 다섯 나난 열 므슬에 사돈을 혼난
동의국이 내 국이더라 어허어 팔도강산 유람을 간다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어동 흐라 어허어 이어동 흐라

산에 강 솔피 타당 방에 지영 우려동 솟으난 칼칼하게 써라
밭디 강 물웃 파당 어허어 솟앙 먹으멍 살았저 그 승년에
부채 어른덜은 보리쌀 혼 사발 아점 물웃 바꾸레 호강으로 오라났저
물웃 솟앙 개역 무청 먹젠 호여도 보리 혼 줌 어성 개역도 못 혼더라
구제기 혼 사발에 밧 하나씩 풋죽 혼 사발에 밧 하나씩 사났저
그 시절은 우린 몰라도 우리 시절엔
담돌 만씩혼 구제기 혼 구덕 지영 가근
지슬 혼 말 받아다네 뇌뒹네 물질 가부난
부채 ㄱ뜬 도덕놈은 혼 말치 썩 솟안 맥이더라
그 지슬 반앙 오랑 솟앙 먹영 물질 가건
눈에 허깨 낭 늘치름 닷 밧 썩 나멍 살았저
난 두어랑도 므룩 밧디도 지슬 사례 가오랏저
우리 큰 딸 두 설 난 거 떼어 뒹네
지슬 바꾸레 가단 내 막으난 밤새낭 아자네
그 내그셨저

이어동 흐라 어어어 이어동 흐라

물웃 혼 사발 솟은 거 주민 일만사 배고판 디 밧 혼나 썩 주멍 사 먹었저
설룬 아기덜아 난 아매영 승년을 지어도 물웃은 먹영 못 살커라라
감제 두블 전분 토육 호여당 떡 혼난 썩은 내만 팍팍 나멍 못 먹더라.
아이고 우린 저 바당에 강 툷 비어당 솟아근 는쟁이 농앙 범벅해연 먹으멍 살았저
는쟁이민 원 좋주 보리 쌀 혼 방울이민 툷 혼 박세기 썩 노멍 솟안 먹었저
사름 혼 세상 삶도 베라벨풀 다 보멍 사는 구나
두물레기 캐어당 데와근 일곱 식귀가 혼 사발 썩 먹어불민
두물레기도 못 참예 호였저
아이고 사름 멩도 짐도 이 고생 호멍 누게 살랜 호여시라
구제기 잡아근 행계썩에 싸먹으멍도 살았저 두어
그렇게 굶으멍 살암시난 늙었구나
아이구 사름 베민혼 적은 혼 입이라도 소섬 둥어귀 굴이
아구리도 무사 경 커져신고

2-2-4 삼시 죽장 이어도 흥영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p.14-15

*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어도 흥라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흥라
혹은 이여이여 이어도 방에

삼시 죽장 이어도 흥영
짙을 방에 다 짙여 가도
일콰으로 나 아니 주언
죽은 보리 밀 닷 꿔 라라

2-2-5 이여이여 이어도 방에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9

*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어도 흥라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흥라
혹은 이여이여 이어도 방에

방엔 보난 굴묵낭 방에
절권 보난 도애낭 절귀

2-2-6 식 콜 방에 새 글럼서라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9

*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어도 흥라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흥라
혹은 이여이여 이어도 방에

하늘 황제 딸이여마는
식 콜 방에 새 글럼서라
지황제 딸이여마는
다섯 콜에 비 잠안 사서라

2-2-7 치 잡은 이 사공이라라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10

*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여이여 이여도 방에

요 방에에 열 놈이 가도
비 잡은 이 사공이라라
흔 배에 열 놈이 가도
치 잡은 이 사공이라라

2-2-8 일천 시름 다 짙는 방에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12

*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혹은 이여이여 이여도 방에

이 방에야 이 방에야
흔 칸에는 옷 짓는 방에
흔 칸에는 밥 짓는 방에
스방 좁쌀 다 짙는 방에
함덕 곡석 다 짙는 방에
일천 시름 다 짙는 방에

2-2-9 이여도 방에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497-498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식 쫄 방에 새 글럼서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가시오름 강당장 칩의
숨시 제와 디리젠 흐난
식 콜 방에 새 글림서라
전생 곳인 이 내 몸 가난
요숫 콜도 새 글림서라
쿵덩쿵덩 물방애야
백 년 천 년 물방애로다
이여이여 이여도 방에

드리 손당 큰 애기덜은
피 방에 지레 다 나감 서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방에

죽성 ㄱ다시 큰 애기덜은
틀 드래 장시로 다 나감 서라
이여이여 이여도 방에
이여도 방에

2-2-10 백 년 천 년 물방애로다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572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방에

가시 오름 강당장 칩의
식 콜 방에 새 글림 서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방에
전생 곳언 이 내 몸 가난
요숫 콜로 새 글림 서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방에

쿵덩쿵덩 물방에로다
쿵쿵쿵쿵 물방에여
백 년 천 년 물방에로다

드리 손당 큰 애기덜은
피방에 지레 다 나가곡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방에
죽성 ㄱ다시 큰 애기덜은
틀 드레 장시로 다 나간다
이여이여 이여도 방에

2-2-11 이연이연 늠이나 웃나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536-538.

이연이연 이연이연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말랑 말아근 가라
이연이연 늠이나 웃나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ㄱ랑좁쌀 뇌 엇이 먹영
다심 어멍 말 엇이 산다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 흐난 나 눈물 난다
이여랫 팔 말 아니 흐라
말고 가민 늠들이 웃나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날랑 죽건 닥밧되 문영
나 우의랑 종이탁 나건
비여다가 대백지 짓영

일 천 선비 글밭에 놀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어떤 낭은 팔제가 종앙
대성전의 대들보 메영
일 천 선비 절 맡으더라
어떤 낭은 팔제가 굿영
질긔 집의 드덜팡 메영
가는 오는 발판이더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 흐난 나 눈물 난다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소낭긔 보롬팡 놈의 첩은
소린 나도 살을 멘 옷나
오름엿 돌팡 지서명은
등글당도 살을 메 난다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2-2-12 이 즈낙이엿 붉은 데 흐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775-776.

가시 오름 강당장 칩의
식 쿨 방에 새 글러 온다
전성 굿인 이 내 몸 가난
아흠 콜도 새 맞아 온다

어여뱅이 고들배 지영
즈낙이나 붉은 데 흐라
본디 즈낙 어둑는 집의
이 즈낙이엿 붉은 데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2-2-13 구엿 꽃도 나 벗이더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780-781.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가시 오름 강당장 칩의
식 쿨 방에 새 글러간다
흥~

전성 곳언 구월에 나난
구엿 꽃도 나 벗이더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동

식 쿨 방에가 새 글러간다

2-2-14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819-821.

-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식 쿨 방에 새 글럼 서라
가시 오름 강당장 칩에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식 쿨 방엔 새 글럼 서라
흥당 말민 놈이나 웃나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무정호난 성 아니 진다
하영 먹젠 군산에 올란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마의 정당 꼭 정동 줄에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발을 걸런 유울엄더라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이엿 말랑 말아근 가라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울명 밥을 손으로 먹엿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무정 호난 성 아니 진다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호당 말민 늬이나 웃곡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독은 울엄 날이나 샌다
드르엘 가민 물아기 소리
내사 운덜 어느 날 새리

이여이여 이여동라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고진 가난 우김새 소리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이여이여 이여동 하라

집원 드난 정그레 소리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엿 말랑 뵈령 가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2-2-15 이 방애야 흑을 돌랑 음음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902.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이 방애야 흑을 돌랑 음음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음음

이방애야 흑을 돌랑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흑을 돌라 흑을 돌라

지엄 시난 흑을 돌라

가시오름 강당장 칩의

식 콜 방애 새 글림 서라

이여이여 이여이여

우리 삼성계 들어사난

새 골라 점저음음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2-2-16 이어도 흐라 음~음~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961-964.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여화동동 요 뱅일러라

이어도 흐라 음~음~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남도 ㄱ레 들혹일러라

정즈나무 절귀로

오동나무 혹이나 돌탕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가시낭 절귀로 정즈낭 혹이나 돌라라

이어도 흐라 음~음~

가시 오름 강당장 칩의

식 콜 방에 새 글러 가는고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음~음~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나 노래랑 산 넘엉 든다

대로한질 노래로 가라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가시 오름 강당장 칩이

다섯 콜 방에 오동동이

새 맞아 가는고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어엿 말랑 말아근 가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우리 집이 말жат 똥 아기

팔즈 굿엉 어찌나 흐리

이렁 좌시 첩으로 말앙

산매 목재 밋으로 가라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음~음~

가시 오름 강당장 칩의
다섯 콜 방에 새 맞아 간다
식챗 딸랑 우리 집의
셋째누리로 구논이나 호카
계저든에 기영이나 호쥬

어느 누계 새 굴아 보리
가시 오름 진 좌시는
들어나 간다 이어도 호라

가단 보단 비발아기
어르단에 장판테레
호로록히 곱으레나 둔나
진 훈장은 손 것언 오단
들어감더라
승시 조해 들젠이나 호난
잡은 독이 꼬기육 혼다
벳긴 개가 풍풍 좃고
기시런 듯이 올레레나 둔나

2-2-17 요 방에야 소리나 나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1043-1044.

이여이여 이여동 호라
이여이여 이여동 호라

가시 오름 강당장 칩이
식 콜 방에 새 글럼 서라
이여이여 이여동 호라
가시 오름 강당장 각시
식 콜 방에 새 글럼 서라

이여이여 이여동 호라
이여이여 이여동 호라

요 방에야 소리나 나라
이여이여 이여동 호라

나 인심이 언매나 흐민
유월 방에 나 혼자 지리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큰 년이랑 비치락 들렁
요 방에에 지올염더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식 쫄 방에 새 글럼 서라
새 글리게 팔게 흐라
쿵쿵 짙는 방에 소리여
이여이여 이여이여
나 인심이 언매나 흐민
유월 방에 나 혼자 지리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이여

2-2-18 이엿 말랑 굴리영 한다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1046.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엿 말랑 굴리영 한다 음
검은 오름 강당장 집이
식 쫄 방에 새 글럼 더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음

ㄱ랑 좁쌀 뇌 엿이 먹영
씨집살이 말 엿이 살저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음음

서른 어멍 날 무사 나근
이런 때에 날 나랜 흐던고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음음

2-2-19 오동동이 새 맞암 서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1064.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흔 콜 두 콜 다섯 콜 방에
오동동이 새 맞암 서라
가시 오름 강당장 칩의
흔 콜 두 콜 다섯 콜 방에
오동동이 새 맞암 서라

이여이여 이여동 흐라
이엿 딸랑 딸리어 가라

2-2-20 느네 아방 이여도나 부떠싱가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1077.

이여도 방에 이여도 방에
느네 아방 이여도나
부떠싱가 이여도 방에

이여도 방에 이여도 방에
세 콜 방에 새 글럼더라
가시 오름 강당장 칩의
세 콜 방에 새 글럼더라

2-2-21 이여도 흐라 이여 방에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1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242-243.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이여 방에 고배 지영
이여 방에 이어도 방에
즈낙이나 붉은 때 흐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이여 방에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가시 오름 강당장 칩의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식 콜 방에 새 글러 서라

전성 곳인 요 내 몸 가난
전성 곳인 요 내 몸 가난
요숯 콜로도 새 맞아 간다
요숯 콜도 새 맞아서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이여이여 이어도 방에

2-2-22 흐랑흐랑 이어도 흐랑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1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273-277.

-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니 받거니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 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어도 흐랑 이어도 흐랑
식 콜 방에 새 글러 간다
이연이연 이어도 흐라
요 방에는 보난에
굴묵낭 방에로고나
요 방엔 보난 식 콜 방에

새 글러 간다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음음 이어도 흐라

이연이연 이어도 흐라

굴묵낭의 방에로고나

요 방에를 보난두어

이어도 흐라 으음으음

슬랑슬랑 실허지라

이어도 흐라 으음으음

초벌 석벌 벗어나지라

짙염시민 혼곳이 내려니

돌랑돌랑 짙여 간다

와리지 말앙 짙여그네

실켓이랑 능거나 보져

이어이어 이어도 흐라

이연이연 이어로고나

석 콜 방에 새 글럼서라

으음으음 이어도 흐라

이어이어 이어도 흐라

슬강슬강 짙여진다

아이고 게메도 어떤 쓸산디

하도하도 짙젠 보난

술이 굶어 노난

펠롱펠롱 까지지 안흐연

이걸로랑 어디 뒤편이라 두어

이연이연 이어도 흐라

맹질 땀 두어도

두루 실행 재판님도

게으름땀이 피땀쟁 흐곡

부지런이 들이치라

슬랑슬랑 슬강슬강

짙여지라

이여도 흐라 으음으음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흐랑흐랑 이여도 흐랑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으음으음 이여도 흐랑

술강술강 싹허도 지라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여도 흐라 으음
이방엔 보난 굴묵낭 방에로코나
요 방에야 저 방에야
술랑술랑 짙여 지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그만저만 흐염시만 다 짙여 간다
이여도 흐라 으음으음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능글 솔에 밥 먹어 보라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그만저만 흐염 시난
다 짙여 점수다
게메말이쥬기 마는도 흐꿈만 더 짙여 보라
술랑술랑 돌랑돌랑
짙여 지라
돌랑돌랑 퀴어난 어디 흐여 지커라
짙당 보민 다 헐어만 불고
그만저만 흐염 시난 다 짙여 젓수다
다 짙여 젓건 설러불쥬기
믄 밭사 지꼭 어디 뒹커라
그만저만 흐염 시난 다 짙여 젓수다

이여도 흐라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방에여

2-2-23 죽을 때 꺾장 스랑 혼다고 해여 두고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p.178-179.

채록 : 표선면 가시리, 오이생(여, 1915-1989). 1989. 3. 19.

이여도 흐라 이여도 흐라
이여 방에 고들베 지영
즈낙이나 붉은 때 흐저
본디 즈낙 어둑은 집에
오늘이엔 붉아나 흐라
이여 방에 이여 방에

가스름에 강당장 칩의
식 콜 방에 새 글러 간다
전생 곳인 우리 성제 들어 사난
태도 맞고 골도 맞고

이여도 흐라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흔 믈술에 세 칩 흔 눅아
흔 믈술에 세 칩 흔 눅은
갓을 벗어 공장에 들고
대천 바당 한가운데
배채 들러서 치질이여
치 어슴도 배질이러라
이여동 흐라 이여동 흐라

집 세 거리 이신 눅은
살앙간이나 잇건마는
각시 세 개 해인 눅은
아적 조반도 굶어서 혼다
아적 조반도 굶어서 혼다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곤썰 ㄱ치랑 능귀나 보고
피썰 ㄱ치랑 줌진 스랑
스랑스랑은 내 스랑이여

이어도 흐라 이어도 흐라

간다드니 왜 왔더냐
돌아 사면 후회할 길을
돌아 사지를 말 아니 해여 말 아니 해여
흔 해에랑 옷 세 벌 입었
보리비단 능라비로
사모관대 다 출렁 놀 땐
돌아사도 아널 듯 해연
셋바람에 입은 옷 호사
죽을 때 깃장 스랑 흔다고 해여 두고
각시 세 개 흔연 나사난
한강 바닷 한가운 되랑
치 엇은 배질이러라
치 엇은 배질이러라

2-2-24 가실소냐 이어라 음음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p.248-249.

채록 : 안덕면 대평리, 앞소리: 장순자(여, 1931) 뒷소리: 정태숙(여, 1924), 1989.5.19.

이어이어 이어도 흐라
이어이어 이어동 흐라
이어라 흐민 눈물이 난다
이어라 흐민 눈물이 난다
이연 말도 팔아근 가라
이연 말도 팔앙 가라

올명 밥은 손으로 먹었
올명 밥은 손으로 먹었
무정 혼난 성도 엇만
무정 혼난 성도 엇만
가실 소냐 이어라 음음
가실 소냐 이어라 음음

가시 오름 강당장 칩의
가시 오름 강당장 칩의
식 풀 방에 새 글럼 서라

식 콜 방에 새 글럼 서라
전성 굿인 이 내 몸 가난
전성 굿인 이 내 몸 가난
다섯 콜도 새 콜라 온다
다섯 콜도 새 콜라 온다
이어라 음 음
이어라 음음

가난 홀고 서난 혼 집은
가난 홀고 서난 혼 집은
뽕은 드난 더 서난 혼다
뽕은 드난 더 서난 혼다
이어이여 이어 허라 음
이어이여 이어 허라

간간 놀젠 늬의 첩 드난
간간 놀젠 늬의 첩 드난
어디 간간 놀암 서니
어디 간간 놀암 서니
소남엿 뽕과 늬의 첩 드난
소남엿 뽕과 늬의 첩 드난
소린 나고 살을 매 웃나
소린 나고 살을 매 웃나
살을 매 음음
살을 매 음음

이어이여 이어도 홀라
이어이여 이어도 홀라

강남 독은 목소리 좋앙
강남 독은 목소리 좋앙
소남에 앓안 조선국도
소남에 앓안 조선국도
지울렘 더라 이어라 음음
지울렘 더라 이어라 음음

독은 울민 날이나 샌다
독은 울민 날이나 샌다
내사 울어 어느 날 새리
내사 울어 어느 날 새리

이여이여 이여라 음
이여이여 이여라 음

강남서도 놀아 온 새여
강남서도 놀아 온 새여
일본서도 놀아 온 새여
일본서도 놀아 온 새여
청대회께 천지슬 넘어
청대회께 천지슬 넘어
놀개 젓언 못 놀암 더라
놀개 젓언 못 놀암 더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라
이여라

2-2-25 은 방엿귀 아홉일러라

출처 :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노래에 드러난 갈등양상과 현실인식”,
민요학회, 『민요론집』 제2호, 민속원. 1993. p.399

얼어 먹젠 어린비 가난
빌어 먹젠 바맹이 가난
돌아 서난 도노미더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서도노미 강좌수 칩의
은 방엿귀 아홉일러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상 아덜에 메뉴리 들언
집밭이사 날 아니 준덜
방에 비차락사 날 아니 주라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아침 저녁 물 방에 징잉
가메솟되 죽이랑 쭈난
접시 셋이 모지래 더라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어는 제랑 강 도령 오건
설운 서담 다 흥여 두영
백탄 불에 일음 녹듯

이여이여 이어도 흐라

사르륵이 녹아나 지저
사르륵이 못 녹거든
나온 질로 돌아나 가져

2-3 해녀 노 젓는 소리

[해설]

제주해녀의 물질을 보면 두 가지 작업 형태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는 갯바위로부터 물속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형태의 ‘갯물질’(갯물질, 갯물질)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배로부터 바다속으로 입수하는 형태의 ‘뱃물질’이다.

이런 제주섬 안에서의 물질 말고도 해녀들이 직접 노를 저어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 제주섬을 떠나 타지로 가서 물질을 하는 소위 ‘출가물질’이 있다.

여기에 수록된 소리들은 주로 배를 타고 제주섬에서 물질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제주섬을 떠나 타지로 출가물질을 가는 도중에 노를 저을 때 부르는 소리들이다.

그런 배경을 안고 불러진 노래들이니 그 가사에는 해녀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 가족관계, 가족의 생활태도 등이 잘 반영되어 있다.

뱃물질 혹은 타향으로 오가는 과정에 노를 저으면서 제주해녀들이 굳이 이어도를 부르는 것으로 후렴을 삼고 사실에 옮긴 점은 참으로 신비롭다.

이는 이어도에 대한 태생적 그리움의 결과라고 봐진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이어도를 부르면 힘이 솟는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입증한다.

그 고된 상황에서 힘을 줄 아무 것도 없었다면 오늘날 제주여성들은 해녀사회를 구축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행히 원초적 그리움의 대상으로 제주 섬주민의 유전자 깊숙이 아로 새겨진 좋은 그곳 또 하나의 제주섬 이어도가 있다는 건 참으로 긍정적인 실존이다.

고달픈 현실을 배척하지 않고 오롯이 받아들여 보dana은 생활로 승화하는 제주해녀의 역동적인 삶이 이어도에서 힘을 얻는 여기 노젓는 소리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2-3-1 이어 이어 이어동

출처 :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초판
→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 재발간. p.170.

* 원본의 표준어 역을 다소 정정하였다.

이어 이어 이어동 흐라
물도 싸난 여이가 나고
이내 몸은 여이명 살라
어명 신 디 날 가랭 흐민
앗진 살디 밥이여 마는
물도 아니 좇인대 가라

[표준어 역]

이어 이어 이어도여
물도 써면 여울이 나타나고
이내 몸은 여위면서 살라
어머니에게 날 가라고 하던
술에 밥을 끓이고 있지마는
밥물도 찾아들기 전에 가라고 하네

- 여이 : 여울
- 여이명 : 몸에 살이 빠지면서

2-3-2 이어사나

출처 :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초판
→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 재발간. pp.172-173.

* 원본의 표준어 역을 다소 정정하였다.

**원본의 한자는 한글을 앞에 쓰고 괄호 안에 넣었다.

이어사나 이어사나
요 네 상창 부러진덜
요 내 홀목 부러지랴
한라산에 끝은 낭기
엇인 말가 이어사나
우리 선양 가는 디랑
매역 좋은 여곳으로

놈의 선양 가는 디랑
감태 좋은 엉덩개로
이어사나 이어사나

[표준어 역]

이어사나 이어사나
요 내 노(櫓)야 부러진들
요 내 손목이야 부러질 소냐
한라산에 곧은 나무가
없다는 말인가 이어사나
우리 배가 가는 곳에는
미역 좋은 여울 끝으로
남의 배가 가는 곳에는
감태 좋은 언덕 끝으로
이어사나 이어사나

- 상창 : 노(櫓)의 윗부분 곧 손잡이
- 선양 : 배 선낭 할망이이라고도 함(선왕;船王)

2-3-3 이어이어

출처 :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초판
→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 재발간. pp.218-219.

* 원본의 표준어 역을 다소 정정하였다.

**원본의 한자는 한글을 앞에 쓰고 괄호 안에 넣었다.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산은 첩첩 천봉인데
물은 출렁 한강수라
요 절 고개 저 절 고개
몽클 몽클 들어 온다
무엇 먹고 술켰느냐
구름 먹고 술켰느냐
벼름 먹고 술켰느냐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표준어 역]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산(山)은 첩첩(疊疊) 천봉(千峰)이요

물은 출렁 한강수(江水)라
요 나불이 저 나불이
뭉글 뭉글 들어 온다
무엇 먹고 살졌느냐

구름 먹고 살졌느냐
바람 먹고 살졌느냐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 절고개 : 큰 물결, 나불

2-3-4 이어 싸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10

*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어 싸 이어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어 싸

총각 차라 물에 들게
양식 싸라 섬에 가게
우리 선관 가는 되랑
메역 좋은 여 곳으로
놈의 선관 가는 되랑
감테 좋은 흥동개로
요 벨 타고 어딜 가코
진도 바당 풀로 간다

2-3-5 이어 싸 소리엔 닷 올라 온다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11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총각 차라 물에 들게
양식 싸라 섬에 가게
이여 싸 소리엔 닷 올라 온다
뒤여 싸 소리엔 배 솟아 온다

2-3-6 이여 싸 이여 싸나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12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요 네 젓엉 혼저 가게
우리 배는 잼도 채곡
늬의 배는 뜸도 뜨다
수덕 좋고 제수 좋은
우리 배야 혼저 가게
멩지 바당 실 뵈롬 불라

2-3-7 들물은 나민 서해 바당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12

뗏저 뗏저 호매선 뗏저
괴주 바당에 호매선 뗏저
쌀물은 나민 동해 바당
들물은 나민 서해 바당

2-3-8 들물 나민 베 버치곡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13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들물 나민 베 버치곡
쌀물에 베 올타 가게

2-3-9 너른 바당 앞을 재연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14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너른 바당 앞을 재연
흔 질 두 질 들어 가난
저승 질이 왓닥 갓닥

2-3-10 모진 광풍 불질 말라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14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탕 땡기는 칠성판아
영영 사는 땡정포야
못 훔 일이 요 일이여
모진 광풍 불질 말라

2-3-11 혼 질 두 질 수 지픈 물 속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p.214-215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혼백 상지 등에다 지곡
가심 앞의 두렁박 차곡
혼 손에 빗창을 쥐곡
혼 손에 호미를 쥐곡
혼 질 두 질 수 지픈 물 속
허위적 허위적 들어 간다

2-3-12 일 천 간장 시르르 혼다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17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전복 좋은 여 곳으로
미역 좋은 웅택으로
감태 좋은 작지왓으로
얼금설금 들어 가난
홍합 대합 비죽비죽
케여서랑 맛을 보난
일 천 간장 시르르 혼다

2-3-13 여 뛰는 건 베로구나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17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산 뛰는 건 웅매로다
여 뛰는 건 베로구나
요 바당에 은광 금이
번질번질 깔려서도
노끈 낭귀 울매로다

2-3-14 벚을 삼앙 놀젠 헤라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18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한강 바당 네를 짓영
이 섬월 가민 점복이 시카
저 섬월 가민 진주가 시카
풍덩 빠전 들어간 보난
웨기덜은 모다나 들영
벚을 삼앙 놀젠 헤라

2-3-15 물도 싸민 여율이 나곡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19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물도 싸민 여율이 나곡
물도 들영 나 앓일 것가
난 미영도 여을 안 난다

2-3-16 낭도 사민 ㄱ를이 난다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19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물도 싸민 여율이 난다
낭도 사민 ㄱ를이 난다
요 내 몸이 여이여 진털
어느 누게 알아 주리야

2-3-17 나간 바당 물 아니 썬다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p.219-220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물도 싸민 여율이 난다
섬 발튼 잠으레 가난
나간 바당 물 아니 썬다

2-3-18 태완 난 건 안여 밧여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20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설룬 부모 날 날 적의
뿔에 태완 날 나 선고
태완 난 건 안여 밧여
숨은 여로 정들라고
태완 낫나

2-3-19 이 몸을 아정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 1965. p.226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이 내 몸을 이 몸을 아정
한강 바다 띄와 농곡
쌀물 들물에 띄와 농곡
흔 질 두 질 수 지픈 물에
반송 반절 출입이라라
요 금전아 돈아 흥정
돈의 전체 아니른사
요런 고생 무사 흥리

2-3-20 강남 바당 비 저 오람시메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p.232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강남 바당 비 저 오람시메
격주 바당 배 놓지 말라

2-3-21 요 믋를을 젓고나 가게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pp.232-233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지붕에도 믋를이 싣나
이팔 청춘 믋를 웃일 말가
젓고나 가게 배겨나 가게
요 믋를을 젓고나 가게
아니나 젓영 몬 가더라
젓일 데로 젓어나 가게

2-3-22 요 네 젓엉 저 바당을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34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요 네 젓엉 저 바당을
어디엥 가리 이여 싸나
내 손이 몽글던지
요 네착이 몽글던지
요 네착 젓엉 어디엥 가리
젓어 보게 젓어 보게
젓일 만이 젓어 보게

2-3-23 이여 싸나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36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젊은 사름 젓는 네랑
심은 데로 고향 천리
갓다 오곡 이여 싸나
늙은 사름 젓는 네랑
연애 연방 곁아 주라

2-3-24 이여 싸 소리에 닷 둥겨 농곡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pp.238-239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사디 소리에 배 넘어 간다
 이여 싸 소리에 닷 둥겨 농곡
 우리 배 임젠 신수가 좋앙
 혼 물거리에 돈 만량 시끄곡
 이물대 고고리 봉기만 푼앗저
 여기여차 사디로구나
 사디 소리에 배 넘어 간다

2-3-25 물때 점점 늦어 간다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p.239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 도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아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요 년 저 년 잠을 년아
 대동강에 목 빌 년아
 아기 날 때 마루 꿰듯
 요 네착을 둥겨 보자
 쓸물에는 동해 바당
 들물에는 서해 바당
 허리칸에 화장아야
 물때 점점 늦어 간다

2-3-26 강남보단 더 멀고나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p.240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우리 갈 틈 배려 보다
서월보단 더 멀고나
강남보단 더 멀고나

2-3-27 벼롬받이 쉼 물살에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p.241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산담 ㄴ쁜 절 고개에
젖다 남은 네로구나
벼롬받이 쉼 물살에
젖다 남은 네로구나

2-3-28 이어도 가자 이어도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p.242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점복 한 이어도
매역 한 이어도
점복이영 매역이영
호여당 우리 아들
공부시기키여 이여 싸나
이어도 가자 이어도

2-3-29 바당 곳은 굼굼 호고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p.247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바당 곳은 굼굼 호고
고향 산천 뒤에 두영
지픈 바당 창창흔 므르
설은 낭군 냉겨 두영
얼음 ㄱ튼 물살에다
무신 일로 이 모양안고

-30 바닷물절 툇곡 가게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47

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은 이여 싸 이여 싸나

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은 이여 싸

은 좋곡 청멩흔 날에

| 네 젓엉 어덜 가코

|당 물절 툇곡 가게

:수질 흥명도

!향 생각 어땡흥코

-31 강남서도 들어온 갈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49

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은 이여 싸 이여 싸나

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은 이여 싸

남서도 들어온 갈치

본서도 들어온 갈치

점 7 뜬 너의 밥을

서 덜컥 물영 가라

2-3-32 물이 지평 문 오켜경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p.254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산이 노팡 문 오켜경
물을 툇근 건나 읊서
물이 지평 문 오켜경
베를 툇근 건나 읊서

2-3-33 임 실은 벤 아니 오고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상). 일조각. 1965. p.255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칠산 바당 실벼름 불라
설룬 동성 배 놓아 가게
칠산 바당 뜨고 온 것
임 실은 벤 아니 오고
조기선만 뜨고 온다

2-3-34 데국 가건 물룻 망데기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62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주가 끝날 때마다, 그리고 각행이 끝날 때 가끔 후렴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혹은 이야도 사나 이야도 사나
혹은 이여 싸 이여 싸나
각행이 끝날 때 가끔
차라차라
혹은 이여 싸

데국 가건 물룻 망데기
더저 불랜 흥시쿠데
불안 보난 닷 아니 건전
물룻 망데기 더저 부난
우린 무싱 거 먹영 살코

2-3-35 이여도 싸나 아하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477-478

이여도 싸나 아하 이여 싸 어허
이여 싸나 어허 이여도 싸나 어허
이여도 싸나 예예 이여도 싸나

이물에는 으으 이 사공아 아하
고물에는 으으 고 사공아 아아

이여도 싸나 예예 이여도 싸나 예예
이여도 싸나 예예 이여도 싸나 예예

허리때 밋되 이히 화장아야 아하
물 때 점점 어어 늦어나 간다 아하

이여도 싸나 아아 이여도 싸나 허잇
이여도 싸나 어어 이여도 싸나 어어

이 네 젓엉 어어 어덜 가리 이이
진도 바당 아아 골로나 가자 아아

이여도 싸나 아아 이여도 싸나 허엇
이여도 싸나 으으 이여도 싸나 아아

요 바당에 예에 은과 금은 으으
쌍엇건만 아हत 나 재주가 아아
모자란에 예에 높은 낭에 예헛
올매로고나 헛 이여도 싸나 차라차
이여도 싸나 아아 잘도 간다

2-3-36 탐라국에 불로초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487-496

이여도 사나 아어으 이여도 사나 아허
이여 사 아하아 이여도 사나 아하

[진시왕 불로초, 서귀포 전설]

윗날 윗적 어으 진시왕은 어으
만리성을 어으 둘러놓고 오호
삼 천 궁네 어으 모여 놓앙 아하
노념놀이 어으 흐시는다 헛
이기어 ㄱ라 호 이기어 ㄱ라 호
이어 사아나 이여도 사나 하

서씨는 으흐 진씨왕끼 으흐
보고를 으흐 흐시는다 하
탐라국에 예헤 불로초를 으흐
캐여다가 아하 늘그막에 예헤
잡수시면 예헤 임금님은 으흐
천 년 만 년 예헤 사십니다 아하
진씨왕은 으흐 허급을 으흐
흐시는다 아하 이여도 사나 하
진씨왕은 으흐 좋아라 아하
탐라국에 예헤 불로초를 으흐
캐여 오라 아하 명령을 으흐

내와 간다 헛 이기여 ㄴ라 헛
이기여 ㄴ라 헛 요만지고 오호

아니나 가민 으호 열팔 지영
배가 가려 으호엿 서씨는 으호
동남동녀 어허 오백 멧을 으호
실러 놓고 으호 삼백 석의 이히
균량미를 으호 실러 놓고 호
허리띠 밋되 이히 화장아야 아하
돛 돌아라 아하 물밀어라 아하
탐라국을 으호 불로초를 으호
캐레 가자 아하 이어도 사나 헛
이기여 서라 헛 이기여 서라 헛
노를 잡고 오호 탐라국에 에헤
들어오는 으호 현상이여 어허
이어도 사나 하

탐라국에 에헤 들어오란 아하
어느 포구 우호 가느냐 아하
흐시른 으호 서귀포로 오호
입항 하고 오호 기영 흐연 어허
윗날윗적 어허 서씨가 아하
입도 흐신 이히 포구라서 어허
서귀포로 오호정흐신 아히
서귀포란다 아하 이어도 사나 이히
이기여 서라 헛 이기여서라 헛

탐라국에 에헤 불로초를 으호
찾아 보니 이히 불로초는 으호
전해 엇고 오호 어디로나 아하
가실손고 오호
동남동네 으호 오백 멧을 으호
다시 실렁 어허
일본에 에헤 사국으로 오호
입도 흐야 아하 오백 멧을 으호
남녀남녀 어허 짝을 지완 아하
일본 백성 으호 씨전중을 으호
흐엿다는 으호 진씨왕의 이히
전설이여 어허 이어도 사나 헛
이기여 서라 헛 이기여 서라 헛

[마라도 전설]

우리 제주도 오호 마라도 에헤
전설이 이히 뒀음더라 아하
이여도사나 하
앞으로 오호 백오십 년 어허
전에로다 아하 이여도사나 하
가과도에 헤에 해녀덜이 이히
저 마라도 오호 해천영업 어허
가실적의 아하 풍파가 아하
홀연간의 이히 일어난에 에헤
마라도를 으호 나오지를 으호
못내 홀연 어허 그 날 밤의 으호
그 마라도에 오호 줌을 자니 이히
선주의 이히 몽에다 아하
백발 머리 이히 나와 놓고 오호
꿈에 선몽 오호 들어나 간다 에헤

이여도 사나 헛 이기여 사라 헛

꿈에 선몽 오호 들이는데 에헤
너희덜이 히 가실려른 하아
이 마라도에 해 인재 죄수 으호
흔 사람을 으호 주어 놓고 오호
가시어야 아하
이 바당이 이히 해쳐지고 오호
너희덜은 으호 가실수가 아하
이실거다 아하
꿈에 선몽 으호 들어나 간다 헛
이기여 서라 헛 이기여 서라 헛
예 뛰여 야 뛰여

요 꿈을 으호 보신 선주는
어느 사람을 으호 요 마라도로 오호
두고 가리 이히 근심걱정 어허
헛시다가 아하 아기엽개를 으호
두고 갈 수 으호 배끼나 아하
홀 수 엇다 아하 요령 쓰고 오호
모두다 아하 저 배에 에헤
올라 놓고 오호

아기엿개 보고 호호

저 설덕에 에헤 요 내 통대를 으호

두고 와서매 에헤 ㄴ저 오라 아하

헛시는다 헛

이기야 ㄴ라 헛 이기야 ㄴ라 헛

요 말들은 으호 아기엿개는 으호

죽어질 줄을 으호 몰라 놓고 으호

저 설덕에 에헤 꺾여 느리자 아하

맷사공은 으호 노를 젓고 으호

저 마라도를 으호 떠나가니 이히

아기엿개 으호 양손 들르고 으호

방바닥이역 어허 설덕 바닥을 으호

땅을 치며 어허

나를 데려 어허 가웁소서 어허

울며불며 어허 베려 봐도 으호

홀 수 옛이 이히 그 아기엿개는 으호

두고 왔져 어허

뒷 해에 에헤 삼월 돌은 으호

가서 보니 이히 그 설덕에 에헤

빼구리만 아하 스리슬쩍 아하

남았고나 아하

요만 헛민 이히 어찌 헛료 으호

요 아기엿개를 으호 요 설덕에 에헤

모셔 놓고 으호

일 년에 에헤 맷 번씩 으호

할망당으로 으호 모셔서 어허

할망당을 으호 땡기는 으호

전설이여 어허

이여도 사나 헛 이기여 ㄴ라 헛

이기여 ㄴ라 헛

요 물 아래 에헤 은과 금은 으호

깔렸건만 아하

높은 낭에 에헤 울매로다 아하

이여도 사나 하 이여도 사나 하

어떤 놈은 으흐 나는 아긴 이히
 팔죽 전성 으흐 요리 좋아 아하
 고디광실 이히 높은 집이 이히
 부귀영화 아하 누리고야 아하
 살건마는 으흐
 우리 부모 오호 나신 아긴 이히
 두렁박이 이히 종스가 아하
 웬일이야 헛
 이기야 ㄱ라 헛 이기야 ㄱ라 헛

이만 짓고 흐 아니나 가민 흐
 얼말 짓고 흐 진도 바당 흐
 한글로나 흐 배가 가리 흐
 이 뛰여 야 뛰여

흔 므를랑 으흐 높지 놀고 오호
 흔 므를랑 으흐 낮이 놀멍 오호
 느직느직 으흐 지고나 가자 으흐
 이여도 사나 하 이여도 사나 하

흔착 손에 헤 빗창 들고 흐
 흔착 손에 헤 두렁박을 흐
 매여 놓고 흐 안녀밧녀 흐
 숨은 녀로 흐
 요 내째 꾸를 흐 녹일라고 흐
 우리 부모 흐 날 낳더냐 헛
 이기여 저라 헛 이기여 저라 헛

해 다 지고 헛 저문 날에 헛
 골목골목 으흐 연긴 내연 으흐
 초롱초롱 으흐 청새초롱 으흐
 불 뵈히고 훗 설으시던 으흐
 낭군님이 히
 즈낙 식스 으흐 츠레를 알아 하
 우는 아기 이히 젓을 주멍 흐
 즈낙 밥을 으흐 짓는구나 헛
 이기야 ㄱ라 헛 이기야 ㄱ라 헛
 서 뛰야 어허 야 뛰여 어허

요 내님을 으흐 놈을 준덜 어허

요 네 상착 아하 놉 줄 내가 아하
아니로다 아하 이기야 ㄱ라 헛

요 네 상착 아하 부러진덜 어허
부산 항구야 아하 가시야 나무가 아하
엇일 수가 아하 아니로다 아하

요 벤드레 예헤 꿰어나진덜 어허
인천 항구 으호 지름줄이 이히
엇일 소가 아하 아니로고나 아하
지고나 가자 헛 이기야 ㄱ라 헛
이기야 ㄱ라 헛

요 목 저 목 호 훌튼 목이여 호
시리청청 어허 감겨나 들라 하
올라 가는 호 요 내 배야 아하
솔솔 가는 으호 잡나무 배야 아하
솔솔 가는 으호 솔나무 배야 아하

이여도 사나 하 이여도 사나 하

수덕 좋고 오호 영급 좋은 으호
서낭님아 아하 앞 발로랑 아하
허우 치꼭 오호 뒷발로랑 아하
자두 잡앙 아하
생복 좋은 으호 좋은 질로 오호
가고나 보자

이여도 사나 호 이요도ㄱ라 히
이기여 처라 헛 뒤여라 처라 헛
이기여 봐

2-3-37 이여도 싸나 처라처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504-510

이여도 싸나 아하 이여도 싸나 아하
이여도 싸나 아하 이여도 싸나 아하

어기영 어허 어기여라 어허
어기여라 하아
이여도 싸나 헛
이여도 싸나 헛

앞 이물에 예헤 이 사공아 아하
뒷 이물에 예헤 이 사공아 아하
물 때 점점 어허 늦어나 간다

이여도 싸나 하아 이여도 싸나 어허
이여도 싸나 어허 쳐라쳐라 허
저라도져 어기어차
저라도져

어기여 싸나 하아 말 모른 곳디
전지전지 어어 아니 가민 어어
여기를 어어 어디라고 으으
내가 왔나 아

이여 싸 이여도 싸나
이여도 싸나 어긴녀라

우리 어멍 어어 날 날적에 예에
가시나무 으으 몽긔지에 예에
손에 켜이 으으 박일라고 으으
날 낫던가 헛

이여도 싸나 어허 어여 싸 아아
이여도 싸나 쳐라쳐라
차라차라 잘도 간다
잘잘 가는 으으 참나무 배야 아하
술술 가는 으으 술 나무 배야 아하
메역 좋은 으으 여 곳으로 으으
득달 헛게 예헤 헛어나 줍서 어허

쳐라쳐라 잘도 간다
여야차라 치여라 백여라
술술 간다 잘도 간다
잘도 간다 이여 싸나

귀는 듯이 이히 잘도 간다 아하
이여 싸 하 어긴녀라 어허
어긴녀라 어허 이여 싸나
이 물엔 어어 이여 싸로 오호
굴려 가라 헛

치를 잠은 으으 선주야 사공 으으
뱃머리만 어어 발루와나 주소 으으
젓거리로 으으 젓어 간다 어허

이여 싸나 이여 싸나
이어도 싸나 여가여 ㄱ라

흐당 말민 에에 놀이나 웃나 아하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흔 맛를만 더 에에 젓어나 가게 에에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 처라쳐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 이어도 싸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이 넬 젓엉 에에 어딜 가리 어어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진도 바당 어이 골로나 가리 헛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헛
이어도 싸나 싸여도 싸
이여 싸 이여 싸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요 물 아래 에헤 은과금은 으흐
깔렸건만 어어 높은 남의 에에
올때로다 으으
이어도 싸나 에에 이어도 싸나 에에
이어도 싸나 에에 이어도 싸나 에에

저 산천은 으으 해년마다 에에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푼릿푼릿 으으 쭈어나 지고 으으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이 내 몸은 으으 해년마다 으으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소곡소곡 으으 늙어나 진다 으으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이여 싸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쳐라쳐 쳐라쳐

2-3-38 이어도 차라 히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512-514

이어도 싸나 허어 이어도 싸나 허어
이어도 싸나 히 저라 백여

요 네를 젓엉 으 어디로 가리 히
진도바당 흐 끌로나 가져 히

이어도 싸나 하아 이어도 싸나 하아
이어도 싸나 흐으 아여도 싸나 히

이물예랑 으흐 이 사공아 허어
고물예랑 으흐 고 사공아 히
허리떼 밋되 으흐 화장아야 하
물 때 점점 어허 늦어나진다 히

이어도 차라 히 이어도 싸나 하
이어도 싸나 하 이어도 싸나 하

이 네 줍수털아 흐 즈팩질 준빌 허어
어서 혼자 어어 혼착 손에 흐으
두렁박 들런 어허 혼착 손에 흐으
호미를 들런 하
혼 자 두 자 이히 들어 가민 이히

매역을 켈까 아하 전복을 딸까 하

이어도 싸나 에에 이어도 싸나 에에
이어도 싸나 히

요 네 상척 어허 부러지민 어허
한로산에 에헤 끝은 목이 히
엇일소냐 히

이어도차라 히 이어도 사나 어허
이어도 사나 어허 이어도 사나 히

요 벤드레 에헤 끓어 지민 어허
부산 항구 흐으 녹보 줄이 히
엇일 소냐 으흐 이어도 사나 히
쳐라도백여 히 이어도 사나 허어
이어도 사나 허어 이어도 사나 히

놈의 고대랑 아허 아기랑 배영 어허
허리 지닥 어허 배지닥 팔앙 어허
열두 신 빼 히 들랑 거려 히
요 네 상척 히이 양 곳 잡앙 아하
해천듯이 히 저라 백여 허
지여라 백여 히 이어도 하라

요 물 아래 어허 은과 금은 으흐
깔렸건만 으흐 높은 낭개 히
올때로다 으흐
이어도 싸나 아하 이어도 싸나 히
저라 백여 저라 백여

2-3-39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543-547

이어도 사나 으아 이어사 으아
물에나 돌민 이히 쓸물에는 으어
동이와당 으어 이어도 사나 으어

이어도 사나 으어

우리 배는 으어 잘도 간다 으어
이어도 사나 으어 이어도 사나 으어
뱃동알을 으호 놔를 줌을 으호
이 네착을 으호 놔를 주랴 으호
이어도사 아아 이어도사 으어

폐역 좋은 으호 여 곳으로 으호
초급 항여 으호 주소서 으호
듬북 좋은 으호 수덕으로 으호
초급 항여 으호 주소서라 으호
감태 좋은 으호 검둥개로 으호
아다루를 으호 시켜주세 으호

이어도 사나 아하 이어도사나 아하

제주섬 중 으호 제주 돌암 으호
조반 징심 으호 굶으멍 으호
버은 금전 으호 조반 날에 예헤
임이나 아하 술값에 예헤
다 들어 어허 가드라 아하

이어도사 아하 이어도 사나 아하

이물에랑 아하 이 사공아 아하
고물에랑 으호 고 사공아 아하
허릿대 밋되 으호 화장아야 으호
복만 덩덩 으호 울림저라 으호
물 때 점점 으호 늦어간다 으호
이어도사 으호 이어도사 으호

우리야 배는 으호 소나의 배라 으호
어서어서 어허 가나 보자 으호
잘도 간다 아하
이어도사 으호 이어도사 아하

2-3-40 ㄴ째 가자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597-600

이어도 사나 이어 싸나
이어 싸 이어도 싸나

요만 짓고 아니나 가면
얼말 지여서 배가 가려
이어도 싸나 하 이어도 싸나 하

지고나 가자 ㄴ째 가자
물 때 점점 늦어나 지니
지고나 가자

이어도 싸나 이어 싸나 하
이어도 싸나 하

영급 좋고 수덕 좋은
서낭님아 손을 쑤서
이어도 싸나 하

점복 좋은 여 꽃딜로
고동 좋은 여 꽃딜로
손을 쑤서
이어도 싸나 하

우리 부모 날 날적에
어떤 날에 나를 낫나
앗녀 밧녀 숨은 녀캐로
요 내 뻘꾸를 녹일라고
흔 시상을 날 낫던가
이어도 싸나 하 이어 싸 하
이어 싸 하

흔착 손에 빗창 들고
흔착 손에는 두렁박을
메여 놓고 저 바당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느리는 요 내 몸이여
이어도 싸나 하 이어도 싸나 하

설은 부모 요 세상에
나를 낳고 요 내 뺨꾸를
요 바당에 녹이라고
날 낳던가
이어도 싸나 하 이어도 싸나 하

우리 부모가 날 낳적이야
잘 살라고 낳건마는
나의 팔즈 나의 전생
나를 울려 가는구나
이어도 싸나 하 이어도 싸나 하

지고나 가자 지고나 가자
해가 지고 다 저문 날에
골목골목 연긴 내연
초롱초롱 청사초롱
불 붙혔다
이어도 싸나 하

어느제랑 요 넬 젓고
집으로나 돌아가서
우는 아기 젖을 주며
저녁밥을 지어노랴
이어도 싸나 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바당에 몸을 바쳐
살아 봐도 못내 살고
아이고 삼월 달 나시면은
울산 해천업 가시는다
이어도 싸나 하 이어도 싸나 하
요 뺨꾸를 녹이면서 버은 금전은
집을 사리요 밧을 사랴
설우시던 아기씨덜
공부시기라고 뇌둔 건가
설은 낭군님 식전아침
술값에다 다 들어 간다

이어도 싸나 하 이어도 싸나 하
이기여라

요 벤드레가 끊어나 지면
인천 항구야 지름 줄이
없을 수가 아니로다
요 네 상척 부러진덜
부산 항구에 가시야 나무가
없을 수가 아니로다

지고나 가자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2-3-41 이어도 사 히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441-455.

이어도사나 이여사 하

우리 해녀덜 팔즈는
어떤 날에 나를 나고
이여 싸 헤
두렁박을 집을 삼곡
한강 바당 밧을 삼곡
짚은 바당 한강 물 속
흔 밧 두 밧 헤 갈아 간다 헤
갈아 온다

갈아가 보니 통통 곱은
요 네 허리 정대 ㄱ찌
몰라진덜 어느야 누구
아를 소냐 이어도 사 히
이어도사 하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진도 바당 한 골소로
나는 간다 히 이어도 사 헤
이어도 사 하

요왕님아 선왕님아
수덕 좋고 영급 좋은
요왕 할망 앙
우리야 가는 디 고동 생복
갈린 딜로 나수아줍서 헤
이어도 사 히

이어도 사 하

서툰 어멍 날 날적에
어느 바당 머역국을 먹어 놓고 흥
나를 설안 나실테가

이어도 싸 하 아여도 싸

구시 월 수가지 먹언
나를 설안 나시던가

옥이단장 몬 흘려라
이어도 사야 히 이어도 사 히
이여 싸 히

우리야 산덜사
얼마나 살거나
막상이 살아도
단 팔 십 못내 사는
초로 ㄱ튼 호 우리야 인생 헤
이어도 사 어어 이어도 사 헤
이여 싸 하

어떤 사름 팔즈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헤
남전북답 쌓인 돈에
부귀영화로 잘살건 헤
마는도 오
우리야 팔자는 날날마다
한강 바당에 오란 앓어 시
진 놀레 즈른 놀레 히
날을 샌다 히

이어도 사 히 이어 사 하

아구 저라 서를세라
불쌍도오 흘세라 히
가련도 흘세라
우리 해녀덜
불쌍 흥고 적막흔
요 해녀덜 어덜 가민
돈 벌엉 흥 살아지코

이어 싸 히 이어도 사 히
이어 싸 히

아이구 저라 우리가
살저 흥니 고생이여 히
죽저 흥면 청춘이여
이어도 사 히 이어 사 히

요 세상에 여즈로 나고
일부 종스 웨 못 흥여 히
형구종신 몸이 되어
날날에 요런 가탄 히
날을 세워 히 이어도 사 히

이어 싸

님아님아 정든 님아
날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몬 가시고 시
탈뎡이 히 나는구나 헤
이어 사 시
만음소서 삼춘님아
요 소리도 히 받아줍서 히

여기여라 여기여라
여기여라 어어 여기여라 히

우리가 살면은
멧 백 년을 살런 말고 히
막상이 살 봐도 히

단백 년도 못 사는
초로인생 아니로구나 히
이어도 사 시
한강 바당 짚은 물 속
짚음 앞음 혼 발 두 발
바라간다 하 바라온다 해
얼건마는
혼 품 안에 눈 낭군도
나의 심중 몰라나 주네 히
이어도 사 해

아기아기 물 아기는
나의 품에나 줌을 자고
각시각시 새각시는
신랑 품에나 줌을 잔다 시
이어도 사 해 이어도 사 해

우리나 해녀 아무리 잘 나도
한강 바당 종스로구나 히
어차 혼면 한강 바당에
집을 삼고 사
혼 굴레로 백물레를
입에다 물어
감테 이불 덮어나 놓고 히
베개베개 먹돌 베개
베여 놓고
스신요왕에 줌을 자는 우리나라 해녀 히
이어도 사 시 이어도 사 해

영집 좋고 수덕 좋은
요왕대신 선왕님광
공론 혼명 부동 흡서
대명천지 붉은 날에 시
청새초롱 닮은 눈에
동의 와당 쌀물 나민
건너나 가고 히
들물나민 서의 와당
건너나 가고 시
이어 사 시

열다섯에 물질 배왕
스물다섯 나난 상군 호여
원착 뜯지에 테왁 메곡
늑단 손에 서수나 빗창
둘러 심어 영 물 아래 강
전복 떼영 올름톨름
버슨 금전 얼마나 메와근
우리 아덜 시
대학 공부 시겨나 볼까

물로 뱅뱅 돌아진 섬에
삼 시 굶영 해 물질 해연
흔 푼 두 푼 메왔더니
낭군님 술값도 부족이여
어기야 처라 처라처라

흔 목을 지영 우리나라 갈 길
어서 가자 히 어기여라 히
어기여라
요목조목 울덜목이
허리나 알로 감겨나 들명
어서나 가자

앞 이물로 여술 피멍
뒷 고물로 뱀이나 감앙
눈이 밝은 선왕님아
고동 생복 깔린 델로
오닐날랑 해
가거들랑 지 부저근
땃을 눕서 영겁 존 사람 시
어기야 차라 시 어기야 차라 시

소서낭은 영가지로
망태 거리 호여나 줍서
이삼십 땡 가운데도
불턱 상군 호여나 줍서 히
개만 장완 시겨 줍서 시
오죽 좋은 알골으로
요왕 할망 골로로 시경
전배 독선 시겨 줍서 시

이여 사 시 이여 사 시

맹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서뤄 말라
놀이 좋은 정녀남은
입만 드러 히 지는 구나 시
맹년 이 철 춘삼월 나면
꽃도 피영 만발이여
잎도 피어 만발이여 히

꽃과 굴이 고운 녀를
열매나 굴이 맺어놓고 히
가지가지 먹진 정은
인정 없이 떨어진다 시

이어도 사 시 이여 사 해
초승 돌은 반달이라도
천하 각국 비취련만 해
요 내 몸은 춘 몸이라도
임 가신 곳을 아니 비춘다 히
이여 사 시 이여 사 해

우편국 배달부야
급살 땡을 맞았느냐 히
우리 임이 간 곳이
영도 몰라 가는 구나 시
이어도 사 하 이여 사 하

악마야 우수야
황금만 알았지
생 사람 죽는 줄도
몰라나지네 사 이여 사 시
이여 사 해

날 나준 우리나라 부모
나를 아니 살려나 주고
못내 나신 황금전이
나를 살려 히 주는 구나 시

여기야 차라 여기야 차라

차라차라 혼 목을 쉬영
어서나 가자 헛이여
헛이여 하

젊은 가정 심은 노랑
고향천리 회성 만들고
늑신네가 심은 노랑
연해연방 골아나 주소 시

이여 사 시
이어도 사나 이여 사
이어도 사 시 이여 사 시

우리가 가며는
얼마나 가련말고
이여 사 시 이어도 사 해

서룬 어멍 날 낳는 날은
해도나 돌도 어스 날에
나를 난가 시 이여 사 해
이어도 사 해

나도 나난 메역국 먹언
날 키웠던가 이어도 사 하
어떤 어멍 낳는 아긴
남답북답 쌓여진 돈에
이별 없이 잘 사느고 시
이여 사 해

흐당 봐도 바짝 뭇른
우리나 해녀 인생이여 어
사람은 날 때에도 빈손에 나곡
갈적에도 빈 손에 가는
우리나 인생 적막 흐다 시
이어도 사 시 이여 사 시

흐단 보난 손은 보난 소스랑 되곡
발은 보난 곰배발이 되엿고나
입은 보난 작박보리
눈은 보난 곰박눈이

되었구나 시
삼단 같은 나이나 머리
다부속이가 다 되었져 히
이여도 사 시

정절부인도 죽어지면
공동묘지 혼 팽이여 어
어와 잡년도 죽어지면
공동묘지 혼 팽이여
먹다 죽은 이 몸이나
기다 죽은 밧갈쇠나
죽어나지면 허 빈 손으로 가는 인생
초로인생 토란잎에 이슬굴이
어차 흐면 메기로구나 시

어기야 차라 처라쳐라
어기야 차라
요목조목 울덜목이
허리나 알로 감겨들명
흔목을 쉬영 어기야 차라
차라차라 헛 이여 어

이여 사 아 이여 사 아
이여도 사야 이여도 사나
우리 잡군 요만 흐민
홀만 흐네 이여 사
이여도 사 이여도 사

쳐라쳐라 처라쳐라
요목조목 울덜목이로구남이야

2-3-42 이여도 사나 헛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936-938.

이여 사나 으으 이여 이여 으으
이여도 사나 헛 교라디야 헛
이여 사나 으으 이여 사나 으으

이어이어 으으 이어 사나 으으
고라디아 헛
나고 가자 헛 회고 가자 헛
이어이어 으으 이어도 사나 헛

메역 좋은 으으 여 곳으로 으으
감태 좋은 으으 움동개로 으으
어서 가자 헛 이어도 사나 헛

이어 사나 으으 이어 사나 으으
이어도 사나 헛

이물에는 으으 이 사공아 아아
고물에는 으으 고 사공아 아아
허릿 간에 에에 화장아야 헛
물 때 점점 으으 늦어감져 으으

이어이어 으으 이어도 사나 으으
이어 사나 헛

여 곳으로 으으 회고 가자 아아
느도 나도 으으 ㄱ짜 가자 아아
흔들흔들 으으 회고 가자 헛
고라디아 헛 이어도 사나 헛

성님성님 으으 스촌 성님 으으
씨넉살이 으으 어쩍디가 으으
아이고 애야 아아 말도 말라 아아
장독 닳은 으으 씨야방에 어어
암푹 닳은 으으 씨어멍에 에에
구쟁이 닳은 으으 씨누이에 에에
물구렁 닳은 으으 낭군님에 에에
살자 훗니 으으 고생이고 으으
죽자 훗니 으으 청춘이라 헛
이어도 사

고치장 단지가 아아 맵다 혼덜 어어
이보단도 으으 더 맵느냐 어어
이어도 사나 헛 이어 사나 헛

흔들흔들 회고 가자 아아
여 곳으로 으으 회고 가자 아아
느도 나도 으으 회고 가자
이어도 사나 헛

이어이어 어 이어 싸나 어
이어 싸나 어 이어 싸나 어

날랑 죽건 어어 탁뱃디 문영 어어
탁이랑 나건 어어 종이닥 나건 어어
일천선비 이이 글밭에 놀라 아아

이어이어 어어 이어 싸나 어어
이어도 사나 헛

흔들흔들 으으 회고 가자 아아
느도 나도 으으 ㄱ찌 가자 어어
이어 사나 헛 이어 사나 헛

2-3-43 해천영업을 가실 적이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1029-1032.

이어도 사나 이어 사나

저 마라도 할망당의
전설이어 이어도 사나

이어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 사나 이어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 사나

저 마라도 할망당의
전설이어 이어도 사나
백오십 년 전에도다
가파도에서 저 마라도로
해천영업을 가실 적이
홀연이 광풍이 일어나서

그날에 배가 돌아 못내 온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백발노인 할아버지가
꿈에 선물 디려나 간다
꿈에 선물 뿔을 디려느냐 호시문은
너이덜이 이 마라도를 뜨랴 호문
인재지숙을 두고 가야
호시는다 이어도 사나
선주는 깨고 보니
몽이더라 이어도 사나

이만 호문 어느 누구
이 마라도에 인재지숙 들어나 갈까
노인네가 돌아나 간다
이어도 사나
선주가 묘한 꾀를
내여 놓고 이어 싸나
아기엿개 내여 보내 가는 구나
아기엿개야 저 설덕에 요 내 통대
두고 와시난 ㄱ저 오랜
일러간다

아기엿개는 그 말 듣고
그 통대를 가지려고
배로다 설덕테레 내려 간다
내리거니 무정호고도 적막하게
선주는 가파도로 돌암구나
이어도 사나

아기엿개는 그 설덕에 나놓고
삼촌삼촌 나를 실려 가읍소서
손가락을 열 개 들고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호는구나
무정 호신 선주덜은
가파도로 돌아나 온다

뒀 해에 삼월 둘은 가서 보니

아기엿개는 그 설덕에 빼구리만
스리슬짝 남앗도다
이여 사나

요 아기엿개 마라도에
빼꿀 남은 그 설덕에다
할망당으로 무어나 두고
일 년 열두 돌 혼돌혼돌
할망 밥을 얻어 먹고 흐시는
마라도의 전설이여
이기여사 저나 가리 지어라 백여 헛
이기여사 헛 이기여사
야 뛰어라 헛

2-3-44 이어도 싸나 헛 이여 싸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1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220-227.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나 받거나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여 싸 이여 싸
이여 싸 이여 싸

요 벨 젓고 어덜 가리
이여 싸 이여 싸
진도 바당 혼 골로 가든 이여 싸
이여 싸 이여 싸 이여 싸나

흔착 손에 빗창 꿰곡
이여 싸 이여 싸
흔착 손에 테왁을 꿰영
이어도 싸나 헛 이여싸
흔 질 두 질 들어간 보난
어기여차 이어도 싸나
저생도가 분맹 흐다 헛

이여도 싸나
이여라차 이여라차
쳐라쳐라 이여도 싸나
요 네 착을 젓언 보난
이여 싸 이여 싸
아니 젓엉 이여 싸
이여도 싸나 이여 싸

요 물 아래 은과 금은 깔렸건마는
어기여라 어기여 어기여라
형세 나쁜 문 흐더라
이여 싸 이여도 싸나
이여라차 이여라차
쳐라쳐 잘도 간다

우리 어멍 날 날 적의
이여 싸 이여 싸
해천영업 태움서로 날 낫던가
이여 싸 이여 싸 이여 싸나

가시남의 풍고지에
이여도 싸나 이여도 싸나
손에 켜이 백엿구나

어기여 어기여라
이여 싸 이여 싸
이여도 싸나 헛 쳐라쳐라 헛
요 년덜아 혼 머들만
잘 넘어 간다 어기여
젓어 도라 앞을 사게 이여 싸
어기여 어기여라 이여 싸나

우리 베에 서낭님아
이여 싸 이여 싸나
앞발로랑 허위 멍
이여도 싸나 이여 싸나
뒷발로랑 오동치멍
어기여 어기여라

여 곳들로 득달호게 이여도 줍서

이어도 싸나 이어도 싸나 처라쳐라
 고동 생복 한덜로나 가게나 흡서
 어기여라 어기여라 어기여라
 이어 차 이어라 차
 이어도 차 이어도 싸나

우리 베는 춤나무로
 이어 싸 이어 싸
 짓인 베라 잘도 간다
 이어 싸 이어도 싸나
 춤매 새끼 늑는 듯 가네 이어 싸
 어기여라 어기여라
 늑의 베는 소낭귀 베라
 이어 싸 이어 싸
 썩은 남의 덕더리 ㄱ찌
 이어 싸 이어 싸

요년덜아 혼믈 지라
 어기여라 헛 혼믈만
 가고 보자 이어 싸 이어도 싸
 져어 보자 이어도 싸 이어 싸나
 요 네 상척 꿇어진덜
 어기여라 어기여라
 가시낭기 엇일소나
 어기여라 어기여라
 요 네 벤드레 꿇어진덜
 이어 싸 이어 싸
 부산 항구 아사노가 엇일 손가
 이어도 싸나 이어 싸 이어도 싸나

백여라 백여 뒤여 차
 뒤여라 차라
 정든 님 주젠 엇 사다 놓앗더니
 시시리 동풍에 다 녹아 간다
 차라 차 이어도 사나 헛 이어도 사나 헛
 요 네 굿댕 타령 맘서
 이어 싸 이어 싸

하령도 좁은 목에
 이어 싸 이어도 싸나

기다리던 요 년덜아
어기여라 어기여라
이여 싸 이여 싸
어기여라 어기여라
요 낫뎡이 뺏을 먹고
이여 싸 이여도 싸나
등긱등긱 술찌 싱고
이여도 싸나 이여도 싸나
빚롬통을 먹어 싱가
어기여라 어기여라
구름통을 먹엇던가
이여 싸 이여 싸
등긱등긱 잘 올라 온다
이여도 싸나 이여 싸
이여라 차 이여 차

쳐라쳐라 넘어나간다
잘도 간다 요 년덜아
잘도 간다 요 년덜아
일심동력 젓어나 줍서

이여 싸 이여 싸
이여 싸 이여 싸
이여 싸 이여 싸

선두사공 뱃머리만
어기어 어기어
돌려 줍서 젓거리로
어기여라 어기여라
우경 간다 이여 싸
이여도 싸나 이여 싸나

어기여차 소리엔
어기여 어기여라
베 올려 가는구나
베 올려 가는구나
뒤여 차 소리엔
어기여 차 어기여
베가 느려 가는구나

어기여 어기여라
어기요라 이여 싸
어기여 이여 싸

물에 들레 들어 갈 적
이여 싸 이여 싸
숨비소리 기가 맥혀 몬 살갓네
이여 싸 이여 싸 이여도 싸나
우리 어멍 날 날 적의
어기여라 어기여라
무신 날에 낳앗던고 이여 싸

어기여라 어기여라 이여 싸
이여라 차 이여 차 이여 싸
쳐라쳐라 잘 넘어 간다 이여 싸

2-3-45 이여 싸 이여도 사나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p.68-71.

채록 ; 구좌읍 동김녕리, 앞소리:김경성(여, 1939)뒷소리:여럿. 1989. 1. 23.

이여 싸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여 싸나 이여 싸 이여도 사나

요 넬 젓엉 어딜 가리
요 넬 젓엉 어딜 가리
진도 바당 혼 골로 가세
흔착 손엔 테왁 심고
흔착 손엔 테왁 심고
흔착 손엔 빗창 심어
흔착 손엔 빗창 심어
흔 질 두 질 들어간 보난
흔 질 두 질 들어간 보난
저성도가 분명하다 히
저성도가 분명하다

이어도 사나 쳐라쳐라

이여도 사나 쳐라쳐라
흔목 지엄 어서나 가자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우리 어멍 날 날 적에
우리 어멍 날 날 적에
가시나무 몽고지에
가시나무 몽고지에
손에 꿩이 박으라고
손에 꿩이 박으라고
날 낚던가 이여도 사나 헛
날 낚던가 이여도 사나
쳐라쳐라 흔저 짓엉
쳐라쳐라 흔저 짓엉
앞을 사자 이여도 사나
앞을 사자 이여도 사나

가민 가고 말면 말지
가민 가고 말면 말지
초신을 신고 시집을 가리 헛
초신을 신고 시집을 가리

이여도 사나 쳐라쳐라
이여도 사나 쳐라쳐라
잘도 혼다 이여도 사나
잘도 혼다 이여도 사나

요 내 상척 부러지면
요 내 상척 부러지면
선흘곳 디 곁은 남이
선흘곳 디 곁은 남이
없을 소냐
없을 소냐
요 내 흘목 뿌러지면
요 내 흘목 뿌러야지면
부산 항구 철도병원
부산 항구 철도병원
없을 소냐
없을 소냐

요 벤드래 끊어지면
요 벤드래 끊어나지면
부산 항구 남충천이
부산 항구 남충천이
없일 소냐
없일 소냐

이여도 사나 처라쳐라
이여도 사나 처라쳐라
넘어야 간다 이여도 사나
넘어 간다 이여도 사나
요 물 아래 고동 생복
요 물 아래 고동 생복
깔렷건마는 성세 나빠
깔렷건마는 성세 나빠
못 흘러라 히 이여도 사나
못 흘러라 이여도 사나
쳐라쳐라 넘어야 간다
쳐라쳐라 넘어야 간다

우리 성제 져는 노는
우리 성제 져는 노는
노도 맞고 등도 맞고
노도 맞고 등도나 맞아
백만사가 다 맞아 간다
백만사가 다 맞아 간다
이여도 사나 헛 처라쳐라
이여도 사나 처라쳐라
넘어나 간다
넘어야 간다

훈목을 지영 늬 줄 내가
훈목 지영 늬 줄 내가
아니로구나 이여도 사나
아니로구나 이여도 사나
뒤네야 져영 남을 준덜
뒷네야 져영 남을 준덜
요 내 상척 남 줄 내가
요 내 상척 남 줄 내가
아니로구나 헛 이여도 사나

아니로구나 이어도 사나
쳐라쳐라 넘어야 간다
쳐라쳐라 넘어 간다

우리 배에 선두 사공
우리 배에 선두 사공
뱃머력만 돌려 놓소
뱃머력만 돌려 놓소
젓걸이로 우경 가자
젓걸이로 우경 가자
이어도 사나 헛 쳐라 쳐
이어도 사나 쳐라 쳐
잘도나 간다 이어도 사나
잘도 간다 이어도 사나
이어 사
이어 사

요 네 굿댕 타령 말소
요 네 굿댕 타령 말소
흔서 중에 놀던 내여
흔서 중에 놀던 내여
이어도 사나 쳐라쳐라
이어도 사나 쳐라쳐라
넘어나 간다
넘어나 간다

요 낯둥아 저 낯둥아
요 낯둥아 저 낯둥아
슴통을 먹었느냐
슴통을 먹었느냐
지름통을 먹었느냐
지름통을 먹었느냐
둥긔둥긔 잘 올라오네 히
둥긔둥긔 잘 올라오네
이어도 사나 쳐라쳐라
이어도 사나 쳐라쳐라

믈믈믈믈 혼 댕믈 썩
믈믈믈믈 혼 댕믈 썩
무두봉에도 댕믈이 잇나

무두봉에도 깃들이 잇나
바당에도 물 깃들이여
바당에도 물 깃들이여
상일에도 깃들이 잇나 히
상일에도 깃들이 잇나
이여도 사나 처라처라
이여 사나 처라처라

율로 뱅뱅 돌아진 섬에
율로 뱅뱅 돌아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요 물질 해영
먹으나 굶으나 요 물질 해영
정~든님 술값에
정든님 술값에
다 나간다 히 이여도 사나
다 나간다 이여도 사나
처라처라
처라처라

우리 배에 눈이 맑은
우리 배에 눈이 맑은
서낭님아 앞발로랑
서낭님아 앞발로랑
허우 치명 뒷발로랑
허우야 치명 뒷발로랑
거두 잡아 고동 생복
거두야 잡아 고동 생복
좋은 달로 득달 하게
좋은 달로 득달 하게
해어나 줌서 히 이여차라
해어나 줌서 이여차라
처라 처
처라 처

2-3-46 물 아래랑 요왕님아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p.210-211.

채록 ; 서귀포시 보목동, 앞소리:김순향(여, 1919)뒷소리:한진생(여, 1916). 1989. 5. 17.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앞발로랑 허우 치명
앞발로랑 허우 치명
뒷발로랑 거두치명
뒷발로랑 거두치명
물 아래랑 요왕님아
물 아래랑 요왕님아
물 위에랑 서낭님아
물 위에랑 서낭님아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허릿대 밋 디 화장아야
허릿대 밋 디 화장아야
물 매나 점점 늦어 간다
물 매나 점점 늦어 간다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두렁박을 가슴에 안고
두렁박을 가슴에 안고
유리 안경 이망에 걸고
유리 안경 이망에 걸고
장도 빗창 구불에 차고
장도 빗창 구불에 차고
수십 발을 들어가니
수십 발을 들어가니

고동생복 깔런건마는
 고동생복 쌓엿건마는
 내 숨이 찼라서
 내 숨이 찼라서
 몬 흐리라 처라쳐라
 몬 흐리라 처라 혼 목
 치어라 배겨 헛 고라사이
 젓어 보라 이어쳐라
 잘 넘어 간다 잘 넘어 간다
 잘 넘어 간다 잘 넘어 간다
 젊은 년이 젓는 노는
 젊은 년이 젓는 노는
 호양천리 다 돌아 들고
 호양천리 다 돌아 들고
 늙신네 젓는 네는
 늙신네 젓는 네는
 석은 나무 덕더리어
 석은 나무 덕더리어

이어도 사나 처라쳐라
 이어도 사나 처라 지어

요 노 방애 꿇어나 지면
 요 노 방애 꿇어지면
 부산 항구 로프 줄이
 부산 항구 아사노이
 없을 말가 요 네 상착
 없일 소나 요 네 상착
 부러나 지면 한락산의
 부러지면 한락산의
 가시나무 없을 소나
 가시나무 없을 소나

쳐라쳐라 지어라 지어
 처라 혼 목 지어 보자
 쿵쿵 저라 어서나 가자
 어서 저라 이어 저라
 저라저라

2-3-47 이어도 하야 간다간다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p.245-247

채록 ; 안덕면 대평리, 정태숙(여, 1922) 임정숙(여, 1924).1989. 5. 19.

이어 씨 이어도 사나
이어 씨 이어도 씨나
이어도 하야 간다간다
이어 씨 이어도 사

나는 간다 너를 두고
간다간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내가 가면
너를 두고 내가 가나
아주나 가리 아주 간들
내가 가면 아주 갓지
잇을 소냐 이어 하야
잇을 소냐 이어 사

이어도 하야 이어도 하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씨

세월아 세월아
이어도 사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가지를 말어라
아까븐 요 내 청춘
아깝은 내 청춘이
다 늙어 가는고나
다 늙어 가는다

이어 씨 이어도 하야
이어 씨 이어도 씨

전이전처 대마도
전이전처 대마도
사서나 고래도
사서나 가네 고래도
들어나 가렌 배에 탕저
들어나 가렌 배에 탕저

일등이나 먹으멍도
 일등 흥여난 이 내 몸은
 젓어나 낫저 이여도 하야
 젓어나 낫저 이여도 싸
 이여도 사야 절절이
 이여도 사 이여도 사

가는 배는 잣나무로
 절절이 가는 배는
 지은 배여 술술이
 참나무로 지은 배여
 가는 배는 술나무로
 술술이 가는 배는
 지는 배여 이여도 하야
 술나무로 지는 배여
 이여도 하야 우리 배랑
 이여 싸 이여 싸

가거들랑 여 곳 좋은
 우리 배랑 가거들랑
 허당으로 가그네
 허당으로 가그네
 구제기 점복 일등으로
 구제기 점복 일등 생활
 배 자원 줄수나 자원
 시겨 줍서 줄수나 자원
 시겨근 개말 자원
 시겨근 개말 자원
 허여그네 들어나 읊서
 시겨 줍서 들어나 읊서
 이여 사야 이여도 하야
 이여 싸 이여도 사
 요 내 상착 부러나 지면
 요 내 상착 끊어나 지면
 언제 흐리 에주하리
 언제 흐리 에주 하리
 가그네 이여도 하야
 가그네 이여 싸

이여 하야 간다간다
 이여라 싸 간다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젊은 년이
내 갈소냐 젊은 년이
지는 노가 뭇루나 없이
지는 노가 뭇루나 없이
지렌 말가 이어도 하야
지렌 말가 이어라고라

이어도 하야 배또롱을
이어라고라 요 목 저 목
하늘을 배우멍 지어나 보자
울던목을 갱겨 노멍
이어 사 이어 사
이어라 싸 이어라 싸

저 산천에 푸습새는
저 산천에 푸습새는
해년마다 갖다 왔다
때가 돼면 오련마는
호련마는 우리 인생
우리나 부모 혼 번 가면
혼 번 가면 다시나 오리
다시 올 줄 영 모르네
만무로고나 이어 사야
이어나 싸 이어라저

구라사사 구라사사
고라도꾸 사야 고라사
남으 안티 기십을 지렌
남으나 배안티 기십을 지라
말과 두어 이어 사야
요 목 조 목 울던목을
이어 사 이어 사야
강겨 노먼 이어라 저라
이어 사야 혼 배 탈이
이어 사 이어 싸

혼 집 살이 내 이 속을
이어사 혼배 살이
몰라지고 이어 하야

흔짓 살이 살아 봐야
이여 하야 이여 하야
요 내 목을 알건마는
이여 하야 간다
이여 싸 이여 싸
간다네 돌아를
이여 싸 이여 싸
가누나 이여 사야
이여 싸 이여 싸

2-3-48 이여도 사나 이기여 저라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p.264-265.

채록 ; 대정읍 하모리, 이의철(여, 1923)외 다수. 1989. 5 . 24.

이여 싸나 이여도 싸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 싸나 야세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 싸나 요 물 아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구제기 전복 깔렸건만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높은 낭의 열매더라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라 저라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지고나 가자 젓으라 젓으라
젓어나 가자 이여도 사나
아췌야 이여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고물에는 고 사공아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물에는 이 사공아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한장에는 화장아야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어서 속히 물 떠나 점점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늦어나 간다 지어라 저어라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기여 저라 저라저라
저라저라 이여도 사나
아썰라
아씨여라

흔 뭇물랑 돌귀 가명
이여도 사나 이여 싸나
흔 뭇물랑 늦취 가명
이여 싸나 이여 싸나
진너 가자 요 내 상착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부러지면 부산 항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끝은 남이 없을 소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요 내 밴드래 끊어지면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인천 항구
인천 항구 이여 싸라
없을 소나 지어라 지어
없을 소나 지어라 지어
흔 목 저서 갈디나 가자
이여 싸나 어서 가라
아니나 지고 몬 가더라
아니나 지고 이여 싸나
요 목 저 목 홀턴목을
이여 싸나 이여 싸나
허리나 알로 감겨 들라

이여도 사나 이여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 사나
 이어 사 이어 사나
 이여 사나 이여 사나

산아산아 높은 산아
 이여 사나 이여도 사나
 가운 덜로 길이나 나라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웨로 나가는 요 내야 정네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념고나 가자 이기여 저라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아니나 지고 몬 가더라
 이여도 사나 몬 가더라
 이기여저
 이여도 사나

우리야 배는 술나무 배난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술락술락 잘도 나간다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참매 새끼 나는 듯이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잘도나 간다 지여라 저라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아니나 지고 몬 가더라
 념어 간다 이여도 사나
 요만 지영 아니나 간 배
 이여라 저라 이여도 사나
 진도 바당 혼 골로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념어 간다 념어 간다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잘 념어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간다네 잘 올라
 이여 사나 이여도 사나
 간다네 봉살여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저 고개로 임만 넘어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가는구나 이기여져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저라저라 저라저
저라저라 이어도 사나

2-3-49 언제 혼 번 돌아오나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 pp.288-289.

채록 ; 한경면 용수리, 앞소리:이화규(여, 1931) 뒷소리:고순옥(여, 1933). 1989. 5. 28.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부령 청진 가신 임은
부령 청진 가신 임은
돈을 벌영 오건마는
돈을 벌영 오련마는
공동 산천 가신 임은
공동 산천 가신 임은
언제 되면 돌아오나
언제 혼 번 돌아오나

이어도 사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야 이어도 사나

이어 사나 저 산천에
이어 사나 저 산천에
푸썩새는 해년마다
푸썩새는 해년마다
돌아나 나고 갓다 왔다
오건마는 갓다 왔다
호건마는 우리 인생
호련마는 우리 인생
혼 번 가면 언제 다시

흔 번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나 처라 배겨
돌아오나 처라 배겨

이여라 처라 차귀섬도
이여라 처라 차귀섬도
멀긴 흐다 강남 보당
들어 간다 강남 보당
더 멀구나 서월보다
더 멀구나 서월보다
더 멀구나 이어도 사나
더 멀구나 이어도 사나

처라 배겨 아니 지영
처라 배겨 아니 지영
몬 가더라 이어도 사나
몬 가더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흔저 지영
이어도 사나 흔저 지영
갈 디 가꼭 우는 아기
갈 디 가꼭 우는 아기
젖을 준 덜 나까머리
젖을 준 덜 나까머리
신랑 놨은 즈녁 밥을
신랑 놨은 즈냐 밥을
흐고 준 덜 처라 배겨
흐고 준 덜 처라 배겨
이여라 처라 아니 지영
이여라 처라 아니 지영

몬 가더라 이어도 사나
몬 가더라 이어도 사나
우리 부모 날 날 때에
우리 부모 날 날 때에
주야장천 요 내 촛록
주야장천 요 내 착을
허리 빠지게 흐렌 말가
나릴라고 흐렌 말가
처라 배겨 아니 지고
처라 배겨 아니 지고

몬 가더라 이여라 쳐라
몬 가더라 이여라 쳐라

요 목 조 목 울던목가
요 목 저 목 울던목가
울들목이 정녕 흥네
울들목이 정녕 흥네

이여도 사나 이여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 사나

2-4 망건 짜는(맏는) 소리

[해설]

망건은 제주도의 특산물 중의 하나인 말의 꼬리털 즉 말총을 뽑아 뜨게 바늘과 비슷한 도구로 한 땀 한 땀 매듭지으며 엮어 완성하는 것으로 예전 남성 전용의 머리 띠였다.

작업은 혼자 하며 고독한 일이었다. 때문에 소리 또한 조용하기 이를 데 없다. 혼잣말 하듯, 그러나 분명히 이어도를 부르며 온종일 앉아서 실보다 가느다란 말총 한 올을 손가락에 붙잡아 걸고 망건을 짜 나갔던 것이다.

그 답답한 작업 과정에 이어도가 없었다면 정말로 힘들기는 몇 갑절 더했을 터였다.

이 소리들을 나직이 음미하노라면 마음 둘 길 없는 제주 섬 어느 여성의 섬세한 손길 건너 아픈 그리움이 있음을 느끼고도 남는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찾아 쫓는다. 제주 섬 여성에게 있어 이어도는 희망의 끈인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인증이기도 하였다.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아스라이 잊었지만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이 치올라 오는 희망스런 거기, 이어도. 나직이 불러보면 그 섬은 어느새 눈앞에 선연히 그 실체를 펼쳐놓는다. 그렇지 않았겠는가.

2-4-1 이여이여 이여도 맹긴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92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여도 맹긴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맹긴

굴마기랑 물 먹어 가듯
굴막굴막 걸려나 지라
메역이랑 입 넘어 가듯
메죽메죽 입 넘어 가듯
흔 들 육 장 시백인 땡긴
모리 장애 장 보래 가게

2-4-2 이연이연 이여도 땡긴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92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여도 땡긴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땡긴

어느 곱이 나 아니 올리
어느 밋디 나 아니 올리
설튼 부워 땡 짝큰 몸에
내사 아니 낳테만 훔칠

2-4-3 일천 시름 나 믿은 망긴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92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여도 땡긴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땡긴

요 망긴아 나 망긴아
흔 간에는 옷 믿은 망긴
흔 간에는 집 믿은 망긴
정의 줍쓸 나 믿은 망긴
함덕 집석 나 믿은 망긴
일천 시름 나 믿은 망긴

2-4-4 요 맹긴아 못아나 지라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92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여도 맹긴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맹긴

요 맹긴아 못아나 지라
흔 들 육 장 시백인 맹긴
장 또 장의 시백인 맹긴

2-4-5 이 메 노판 저 메로 가난

출처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93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여도 맹긴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맹긴

이 메 노판 저 메로 가난
더구 노픈 당산메라라

2-4-6 콩 꽃에도 눈이나 싹나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93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여도 맹긴
혹은 이연이연 이여도 맹긴

콩 꽃에도 눈이나 싹나
눈 웃인 건 눈독이라라

2-4-7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499-502

* 이 소리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른 소리를 채록한 것으로 한 연씩 주거니 받거니 노래 해, 원문에는 가창자 두 사람을 [A], [B]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가창자의 표시를 지웠다.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이년 맹긴 못아나 지라

훈 돌 중장 시백인 맹긴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이년 맹긴 못아나 지라

정의 좁솔에도 눈이나 잇나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이년 맹긴 못아나 지라

논둑에도 눈이나 잇나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이년 맹긴 못아나 지라

성님성님 스춘 성님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이년 맹긴 못아나 지라

씨집살이 어멍흙디가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이년 맹긴 못아나 지라

말도 말고 이르도 말라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이년 맹긴 못아나 지라

장둑 ㄱ쁜 씨아방에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이년 맹긴 못아나 지라

암툭 ㄱ쁜 씨어명에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이년 땡긴 못아나 지라

물꾸럭 ㄱ뜰 서방님에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이년 땡긴 못아나 지라

코생이 ㄱ뜰 씨누이에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이년 땡긴 못아나 지라

못 살키여 못 살키여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이년 땡긴 못아나 지라

2-4-8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520-522

이 땡긴아 이 땡긴아
흔 달 죽장 시백인 땡긴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정의 좁쌀에도 눈이나 잇나
논 독에도 눈이나 잇나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장독 닳은 씨아방에
암푹 닳은 씨누이에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매홍이 닳은 씨누이에
코생이 닳은 씨누이에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물꾸럭 닳은 서방 늬에
못 살키여 못 살키여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이연 이여도 맹긴

양지 박박 얹은 놈아
주리주리 탕 놈아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이연 이여도 맹긴

밥상 받고 타령을 말라
너의 각썬 돌암 서라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이연 이여도 맹긴

어느 마니 돌아 서니
감태 동산 들앗더라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이연 이여도 맹긴

2-4-9 이 맹긴아 장보래 가게

출처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p.566-568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맹긴 못아나 지라

이 맹긴아 장보래 가게
흔 돌 죽장 시배긴 맹긴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맹긴 못아나 지라

정의 좁쌀에도 눈이나 있나
눈 독에도 눈이 있저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맹긴 못아나 지라

성님성님 스춘 성님
씨집살이 어땡 흠디가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장독 ㄱ뜬 씨아방에
암퇘 ㄱ뜬 씨어멍에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메홍이 님은 씨누이에
구살 ㄱ뜬 씨아지방에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물꾸럭 ㄱ뜬 서방님에
못 살키여 못 살키여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박박 얹은 요 내 놈아
주리주리 배인 놈아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너의 각시 둘암 서라
한 질레레 둘암 서라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어디 만이 둘암 서니
감태 동산 둘암 서라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얼굴 곱고 속 궂인 각시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난전밭되 개탕쉬여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이연 땡긴 못아나 지라

2-5 양태 짜는 소리

[해설]

양태는 동그란 판자에 대나무를 쪼개어 미끄러지게 다듬은 실처럼 가느다란 올들을 방사형태로 동그렇게 펼쳐놓고 다른 대의 올로 가로로 엮어 잔 것으로 갖의 태두리를 일컫는다.

이 작업은 혼자서 하며 원통형 작업들을 살살 돌려가면서 대의 올을 위아래, 좌우로 짜기 때문에 결는다고도 한다. 이렇게 짠 양태는 일찍이 제주 특산품의 하나로 일차 작업 후 통영으로 보내어 갖으로 완성되면 조정에 진상하고 시정에 내다팔았던 남성 전용 모차이다.

이 작업과정도 집중력을 요구할뿐더러 혼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쌓이게 마련이었다.

무엇인가 의지하여 무료함을 달래면서 작업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을 법 하다.

역시 힘의 원천으로 작용한 것은 이어도이다.

일의 형태는 달라도 일을 하는 환경은 같기에 망건을 짜던 양태를 짜던 바늘을 쥔 손아귀의 힘 못지않게 마음을 추스를 희망이 필요했을 것이다.

오랜 옛날 태고 적부터 제주 섬주민의 삶에 각인된 이어도는 양태틀을 돌리는 몸짓에도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작업의 결과로 얻어지게 될 가정경제의 다소 윤택함은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먹을거리를 보장했을 터, 이어도는 주문인 동시에 소망을 비는 기도이기도 하였다.

2-5-1 이여이여 이어도 양태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96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어도 양태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양태

각단 밧되 불 부떠 가듯
요 양태야 못아나 지라

2-5-2 이연이연 이어도 양태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96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어도 양태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양테

걸려 지라 걸려 지라
훈 코 두 코 신랑 코여
요 님의 양테 걸려 지라
훈 코 두 코 구물 코여
닐 모리 장날이여
쉬지 말앙 훈저 흐라
훈 코여 두 코여
훈 코여 두 코여

2-5-3 어서 재게 돌아가라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96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어도 양테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양테

나 동침아 돌아가라
서월 사름 술잔 돌듯
어서 재게 돌아가라
이 양테로 큰 집 사곡
늙은 부모 공양 흐곡
어린 동생 부양 흐곡
일가 방상 고적 흐곡
이웃 스춘 부조 흐게

2-5-4 요 양테야 돌아나 가라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97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어도 양테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양테

요 양테야 돌아나 가라
훈 돌 죽 장 시백인 양테

흔저흔저 돌아나 가라
요 양테를 흔저 흔여사
쌀도 나곡 밥도 나퀼
인정 웃인 요 양테야
스정 웃인 요 양테야
웨우 팽팽 늑다 팽팽
돌아가라 돌아나 가라

2-5-5 팽팽팽팽 돌아나 가라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97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어도 양테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양테

요 양테야 못아나 지라
요 양텔 흔여사
쌀도 반앙 밥흔여 떡곡
웨기도 사당 반찬도 흔곡
팽팽팽팽 돌아나 가라
요 양테야 돌아나 가라

2-5-6 이 코 저 코 흔나 들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297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어도 양테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양테

흔나 들 흔나 들
이 코 저 코 흔나 들
동침 쫄렁 흔나 들

2-5-7 혼 코 두 코 실랑코야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p.40-41.

채록 ; 조천읍 신촌리, 김단일(여, 1910). 1989. 1. 31.

이년이년 이여도 흐라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나 양태야 나 양태야
어느 제랑 해여 그네
장 보레 가리 어멍 해영
이년이년 혼 코 두 코 실랑코야

이연이연 이여도 흐라

나 양태야 혼저 해영
장 보레 갈 걸 혼저 해영 장 보레 갈 걸
어느 제랑 어느 제랑
궂곡 잣곡 다 해영 가리
어느 제랑 장 보레 가리

이연 이연 이여도 흐라

이년 말에 눈물이 난다
눈물 소에 배 매오 도난
중천도로 내 넘엄더라

이연이연 혼 코 두 코
실랑코야 어느 제랑
어느 제랑 다 믋끄리
넬 모리랑 장더레 갈 걸
어느 제랑 다 해영 가리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어멍
이 양태랑 못 믋끄민
어느 제랑 이 양태도
다 믋까근 장더레 가리

요년요년 어느 제랑
다 해여 보젠 ㄱ자도록
다 아니 해연 어느 제랑
므끄리야 아이고 아이고

2-6 탕건 짜는 소리

[해설]

탕건은 망건을 두른 위에 쓰는 모자로 상투를 간추리는 역할을 했다.

이 것 역시 예전 제주도 특산물 중의 하나였으며 여성 전용 일로 생산되던 물품이었다.

망건을 짜는 것과 똑 같은 재료인 말총이나 사람의 긴 머리칼을 쓰지만 그보다 작업량이 많았다. 때문에 더 많은 작업시간이 필요했고 따라서 그만큼 긴 인내심을 요구했다.

탕건 작업을 할 때 불렀던 소리가 단 한편에 불과한 것은 망건 작업과 같아 따로 사설을 하지 않으면 구분이 어려워 따로 채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때문이다.

탕건을 짜내는 작업의 지남함을 잊으려는 의도에서 불렀을 소리의 노랫말에는 한 코라도 놓치면 그걸 다 풀어 다시 작업해야 하는 고달픔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360코를 자세히 확인하는 그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그토록 섬세한 작업을 하도록 지탱해준 인내의 근본을 이어도에 두고 있음은 망건 일, 양태 일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이어도는 제주 섬 여성의 섬세한 손길에서 맥이 풀리지 않을 단단한 미래로 이끄는 구심점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이제도 이어도는 제주 섬주민의 눈앞에 삼삼하게 어리는 실체이다.

2-6-1 이여이여 이어도 탕건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p.323

노래가 시작될 때와 각수가 끝날 때마다 후렴구

이여이여 이어도 탕건

혹은 이연이연 이어도 탕건

한 코 두 코 걸럼시난

삼백 예순 코를 댈치난

장을 보게 뒤흔고나

[간접자료]

3. 이어도 신화

* 간접 자료는 고대경의 책 『신(神)들의 고향(故郷)』을 원본으로 삼았다. 원본에는 원저자의 주해가 있어 신화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여기에서는 경우에 따라 부분 혹은 전문을 그대로 차입, 인용하였다.

- 3-1-1 고양부(高良(梁)夫)의 탐라국사
- 3-1-2 세신인과 벽랑국 세공주
- 3-2 개로육서도
- 3-3 금백조와 아들들
- 3-3-1 보름웃도
- 3-4 남선비
- 3-5 동서해용왕(구 삼승할망)
- 3-6 동해용왕따님
- 3-6-1 삼승할망(용왕따님)
- 3-7 물의 신 궤네깃도
- 3-8 백중이
- 3-9 성주
- 3-10 윤동지와 신조롱이
- 3-11 영등
- 3-12 용왕국 진궁아기
- 3-13 자청비
- 3-14 칠성

3-1-1 고양부(高良(梁)夫)의 탐라국사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증명, 1997. pp.41-51.

[본문]

『죽음이 없는 나라가 있다』

당시 중국에서는 해동(海東)에는 삼신산(三神山)이 있는 섬나라가 있어 불사초(不死草)가 자라고 그 곳 사람들은 신선처럼 오래 산다고 믿었다.

진시황(秦始皇)이 서불(徐市; 서시라고도 함)을 파견한 이후인 고을나(高乙那) 13세 위왕(偉王) 때 한(漢)나라의 무제(武帝)도 탐라(耽羅)에 불사초가 자란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파견했다.

사신은 금광초(金光草)와 옥지지(玉脂芝)를 구하여 돌아가

『삼신산(三神山)에는 기이하고 신기한 화초가 많이 있다』
고 아뢰었다.

육지지는 뿌리가 없이 자라는 식물로 명산에서 나는 불사초였다. 가장 좋은 것이 말모양, 그 다음이 인간의 모양, 가장 좋지 않은 것이라도 육축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15세 후왕(厚王)에 이르러 왕은 아우 청(淸)·계(季) 형제와 같이 신라에 입조(入朝)하였다. 이 때에 남쪽 하늘에 객성(客星)이 나타나 다른 나라의 사신이 조회할 징조라고 했는데 마침내 이들이 도착하였으므로 신라왕은 크게 기뻐했다.

후왕에게 星象(성상)을 움직였다 하여 성주작(星主爵)을 주고 청은 친 아들과 같이 사랑한다는 뜻으로 왕자작(王子爵)을 주고 계는 도내직(徒內職) 벼슬을 주었다.

신라 석탈해왕이 즉위한 다음해 17세 선주왕(善主王)은 사신을 보내어 석(昔)씨가 박(朴)씨의 왕위를 이어받은 것을 축하하였다.

① 20세 문성왕(文星王) 때였다. 바다에 파도가 넘치고 비바람과 안개가 자욱하며 뇌성이 진동하여 불이 일어나 바다 물을 끓게 하였다.

독기 찬 화염이 바다에 떨어져 남으로 달리는 조류는 붉은 불기운을 이끌고, 북에서 오는 조류는 흰 거품을 품었다.

또 물결이 침을 뿌리는가하면 뱀은 독기를 쏘아 사람을 상하게 하는 변이 여러 해 계속하였다.

이에 산신령과 해백(海伯(주해신 主海神))에게 제사하였으나 신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은 나라 사람들이 한라산(漢拏山)북쪽에 단을 설치하여 목욕재계하고 소머리를 삼신(三神)의 영전에 바쳐 제사를 지냈다. 이로부터 바다가 맑아지고 하늘이 개이며 풍년이 들고 백성들이 화락하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삼성(三姓)신사를 세워 춘추로 제향을 모시게 되었다.

35세 원왕(遠王)은 지금의 한경(翰京)면 죽도(竹島)에서 저절로 소리가 나는 신죽(神竹)을 얻어 신라의 신문왕(神文王)에게 바쳤다. 신문왕은 이것으로 피리를 만들어, 비가 올 때 불면 비가 개고 가물 때에 불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에 불면 바람이 자고 파도가 일 때 불면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러므로 이 피리를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이름 지었다.

38세 치도왕(致道王)때 남번국(南蕃國)사람들이 신라사람 김암(金巖)의 병법을 배우고자 하여 천지(天地)의 이기(理氣)를 살피고 바다를 건너 탐라에 표착하였다.

탐라에서 이들이 가지고 온 화완포(火浣布) 2단(段)을 얻어 그 사유를 물었다. 하나는 빙잠(氷蠶)고치로 직조한 5색 무늬의 비단인데 요(堯)임금시대에 해인(海人)이 바쳐서 임금의 옷을 만들었던 것이고, 하나는 불쥐(火鼠)의 털로 짠 비단인데 위(魏) 명제(明帝) 2년에 서역(西域)에서 조공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비단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오히려 새 물건과 같이 세탁이 되므로 화완포라 이름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빙잠은 길이가 7촌으로 비늘과 뿔이 있는데 서리와 눈이 와야만 실을 토하여 고치를 짓고, 불쥐는 남황화구(南荒火丘)에 있는 것으로 백모(白毛)길이가 두 자이고 무게가 백 근인데 물에 닿으면 죽는다 하였다.

45세 자견왕(自堅王): 갑오(甲午)년이 원년이고 5년 재위하였다. 무술(戊戌)년 12월에 태자(太子) 말로(末老)를 고려에 보내어 입조(入朝)하였다.

한편 이도(二徒)에 자리 잡은 양을나(良乙那)는 왕위가 1백8세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양을나는 기원전 2332년에 나라를 열고 고조선(古朝鮮)의 단군(檀君)조와 국교를 가졌다. 요순에 공물을 바치기도 했다.

제위 1백 년 만에 습지니 2세 을나왕이 즉위하자 단군(檀君)이 사신을 보내와 즉위를 축하했다.

② 4세 을나왕은 기원전 2104년 즉위했는데 이 해에 벽랑국이 사신을 보내 하례했다. 54세 을나왕 때에는 발조선(發朝鮮(발해渤海))과 통교하다. 91세 을나왕 때 고구려(高句麗)가 사신을 보내 가(珂;산호라고도 하고, 전복과 소라 껍질을 곡옥형태로 갈아 가공한 장신구라고도 함)를 구한 이후 계속해서 94세 을나왕 26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사신을 보내왔다.

93세 을나왕 20년(A.D 477)에 사신을 백제(百濟)에 보내 공물을 바치고 은률(恩率)의 작(爵)을 받다.

96세 을나왕 때인 559년 양탕(梁宕)이 신라에 사신 광순사(廣巡使)로 가니 안무사(按撫使)로 부계량(夫繼良)이 수행했다. 이때에 신라조정으로부터 중상(重賞)과 작록의관(爵祿衣冠)을 받았으며 양(良)성을 양(梁)으로 고쳐 쓰게 되었다.

108세 을나왕이 907년에 즉위했으나 6년 만에 왕이 연로하여 삼신인(三神人)이 사석(射石;활을 쏘아 돌을 맞히는)하던 법을 취하니 고자견(高自堅)이 비로소 나라를 받았다고 한다.

세 신인은 고려(高麗) 때까지 그 영(靈)이 남아 나라를 지켰다.

고려 때 송(宋)나라 사람 호종단(胡宗旦=고종달이)이 지맥과 물혈을 끊기 위해 탐라에 왔다.

그는 섬 동쪽 구좌(舊左)읍 종달(終達)리로 상륙하여 서쪽 한경(翰京)면 고산(高山)리까지 섬을 살살이 뒤지며 지맥을 누르고 물혈을 뚫다.

제주에서는 이때 지맥·물혈이 끊겨 큰 인물이 나지 않아 왔다고 한다.

그러나 호종단이 배를 띄워 돌아갈 때였다. 삼성혈(三姓穴)의 신(神)이 사나운 매로 변신하여 날아올라 그 배의 돛대위로 내려앉았다. 배가 막 차귀도(遮歸島)앞에 다다랐을 때인데 큰 바람이 일며 물결이 소용돌이 쳤다. 배는 풍랑을 이기지 못하여 차귀도 암석사이에 침몰했다. 땅을 좌우하던 호종단이었지만 바다는 이기지 못하여 수장되고 말았다.

이런 연유로 고산 앞바다의 이 섬을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 하여 차귀도(遮歸島)라 부르게 됐다. 그 영이(靈異)함을 기려 광양당(廣壤堂(삼성혈 三姓穴))은 국당(國堂)이 됐다. 배가 나가려던 포구의 인근에 차귀당(遮歸堂)이 설립돼 사람들이 섬겼으며 이 당이 있는 산을 당산봉(堂山峯)이라고 부르게 됐다. 두 당은 호국신사였다.

3-1-2 세 신인(神人)과 벽랑국 세공주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증명, 1997. pp.41-51.

[본문]

천지가 개벽하고 여신·설문대가 제주도(濟州島)를 만들었으나 아직 사람들은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5천여 년 전이었다. 한라산 북쪽 기슭 땅 속에서 세 신인(神人)이 홀연히 솟아나왔는데 이 구멍을 모흥혈(毛興穴(지금의 삼성혈 三姓穴))이라고 했다.

1) 일부 문헌에는 「고양부씨의 신이」 라고 나와 있는데 마을들(고산리향토지 등 참고)에서는 대부분 「한라산 수호신이」 라고 함.

그들은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梁)乙那)·부을나(夫乙那) 세 형제였으며 풍채가 좋고 도량이 넓어서 인간사회에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그들은 가죽옷을 입고 육식을 하면서 항상 사냥을 일삼으며 생활했으나 가업은 이루지 못했다.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자주 빛 흙으로 봉한 나무함이 동해 쪽으로부터 떠올라서 머물어 떠나지 않았다. 세 사람이 내려가 이를 열어 본즉 안에는 새알 모양인 옥함(玉函)이 있고, 자주빛 옷에 관대를 한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또 옥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나이는 15, 16세요, 용모는 품위 높고 아리파움이 보통이 아니었고, 각각이 아름답게 장식하여 같이 앉아 있었다.

또 망아지·송아지와 오곡의 종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해안가에 내려놓았다.

세 신인은 모두 즐거워서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하늘이 우리 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하였다.

사자는 두 번 절하고 앞드려 말하기를

『나는 동해 벽랑국(碧浪國)의 사자올시다. 우리 임금님이 이 세 공주를 낳으시고 나이가 다 성숙하여져도 아들의 배우자를 얻지 못하여 항상 탄식함이 한 해를 넘었습니다. 근자에 우리 임금님께서 자소각에 오르시어 서쪽바다의 기상을 바라 보시더니 자주빛 기운이 하늘을 이어 상서로운 빛이 서리는 것을 보시고 신의 아들 세 사람이 산에 내려와 있어서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어서 하고 있으니 신(臣)더러 명하여 세 공주를 데려가라 하셔서 왔으니 좋도록 짝짓는 예를 올리시고 대업을 이룩하소서』

하고 홀연히 구름을 타고 사라져 버렸다.

세 신인은 곧 목욕재계하여 하늘에 고하고 차례대로 그녀들과 결혼하여 물 좋고 기름진 땅을 골라 활을 쏘아 땅을 정하니 고을나가 사는 곳은 제일도(第一徒)라 하였고, 양을나가 사는 곳은 제이도(第二徒)라 하였고, 부을나가 사는 곳은 제삼도(第三徒)라 하였다.

이로부터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오곡의 씨를 뿌리고, 송아지 망아지를 치니 날로 번성하여 부유하게 되어서 드디어 인간의 세계를 이룩하여 놓았다.

지금도 삼성혈에는 세 개의 구멍이 남아 있다. 또 성산(城山)읍 온평(溫平)리에는 이들이 세 여인을 맞았다는 황루알 바닷가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혼인지(婚姻池), 혼인후 며칠을 묵었다는 동굴이 있으며 제주시 화북(禾北)동에는 이들이 그때 화살을 쏜 삼사석(三射石)이 있다.

고을나는 1천여 년을 살았다고 한다. 9백세 나던 해에 일 이 삼도(一·二·三徒)가 정립되고 탐라국(耽羅國)을 세워 재워하니 해수로는 기원전 2천3백37년이였다.

일도리(一徒里)는 주위가 5백리였다. 이때 탐라국의 사람들은 장수했으며 여자가 많았다고 한다.

재위한지 1백32년 만에 아들 건왕(建王)에게 자리를 물려주니 기원전 2천2백5년이였다.

당시 한라산에는 큰 못이 있었다. 그 못 가운데 슬기로운 용이 있어 세 개의 알을 낳았다. 두 알은 용이 되고 한 알은 몸은 거북이요 머리는 뱀 모양의 영물이 됐는데 천년 후에 세 뱀을 가진 흰 사슴이 되었다.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니

『이는 장수할 상서로운 징조다』

하고 그 못을 백록담(白鹿潭)이라고 이름 지었다.

2세 건왕은 4백39년을 재위하고 아들 삼계왕(三繼王)에게 승계했다. 삼계왕은 6백44년 후에 아들 일망왕(日望王)에게 물려줬고 그는 1백88년을 재위했다.

5세 도제왕(島濟王) 때는 바닷가에서 큰 거북이 나왔다. 그 거북의 등에 별무늬 아홉 점이 있고 턱밑에 여덟 개의 푸른 털이 있었다. 이 거북이를 바다 건너 기자조선(箕子朝鮮) 문혜왕(文惠王) 염(炎)에게 보냈다.²⁾

도제왕은 1백60년을 재위한 후 세 아들 언경(彦卿)·유경(有卿)·대지(大之) 중 언경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언경왕은 1백52년 간 왕위에 있다가 보명왕(寶明王)에게 이어졌는데 그는 신통한 힘이 있어 능히 만균(30만근)을 들었다고 한다.

왕위는 행천왕(幸天王), 환왕(歡王)³⁾으로 이어졌는데 환왕 때 중국의 침략으로 기자조선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여 바다 건너 탐라국까지 피난 왔다.

그들로 인해 중국의 뛰어난 문물이 전래됐으나 장수를 하는 것은 탐라국 사람뿐이었다고 한다.

10세 식왕(湜王)⁴⁾때 중국은 춘추(春秋)시대로 서로 침략하는 일이 많았으나 탐라는 사방이 바다여서 높은 풍랑 때문에 침략을 받지 않았다. 이때 탐라는 불사초를 먹고 사는 곳이라는 소문이 중국에 퍼졌다.

11세 육왕(煜王)⁵⁾이 즉위하나 재위 중에 진시황이 서불(徐市)을 보내어 삼신산(三神山=한라산)의 불사초를 구하게 하였다. 그는 해안을 지나가다 서불과차(徐市過此)라는 글을 새겼는데 아직도 서귀포(西歸浦) 해안가에 이 글귀가 남아 있다(한다). 서불은 이 글을 새겨두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설]

고.양.부 세 성씨는 제주 섬 토박이 성씨이다.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는 삼성혈에서 땅속에서 솟아났다고 신화는 전한다. 따라서 이들 세 을라를 세 신인(神人) 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들은 단군이 고조선 나라를 세운 이듬해에 탐라를 세웠다고 ‘탐라왕세기’에 전해지는데 위의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신화를 통하여 지상의 섬이었던 이어도가 화산활동 혹은 지진에 의하여 물속으로 잠겼을 거라고 추론되는 사건을 어렵프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① 에 묘사된,

“20세 문성왕(文星王) 때였다. 바다에 파도가 넘치고 비바람과 안개가 자욱하며 뇌성이 진동하여 불이 일어나 바다 물을 끓게 하였다.

독기 찬 화염이 바다에 떨어져 남으로 달리는 조류는 붉은 불기운을 이끌고, 북에서 오는 조류는 흰 거품을 품었다.”

2). 고씨대동보 63p.

3). 해양왕 또는 동양왕이라고 했다. 주나라가 쳐들어오니 기자조선 사람들이 바다 건너 탐라로 피난 왔다.

4). 일명 공성왕.

5). 일명 두연왕. 진시황 원년에 즉위 28년에 서시를 보내, 금당포를 지나다가 석벽에...

는 상황은 해저화산활동 즉 바다 속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자연현상이 구비전승 및 문헌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미뤄보면 제주 섬에 탐라국 건국 이후에도 일정 시간동안 이어도가 해상에 있었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②의 “4세 을나왕은 기원전 2104년 즉위했는데 이 해에 벽랑국이 사신을 보내 하례했다.”

라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거론된 4세 을나왕은 양을라 계열의 네 번째 왕을 일컫는다.

양(良 후에 梁)은 고(高)보다 앞서 탐라국을 다스렸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한다. 그보다는 고, 양, 부가 각각의 씨족왕국을 이뤘다가 후에 세 씨족이 왕국을 통합, 탐라국을 건국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벽랑국은 고, 양, 부 세 신인의 처가 본향이다. 구비전승과 문헌 양쪽에서 증거하기를, 세 신인이 벽랑국에서 제주 섬으로 온 세공주와 혼인을 하여 비로소 탐라국을 건국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바로 벽랑국이 이어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앞서 고은 시인이 채록하여 수필로 남긴 이어도 이야기에서 보듯, 어부가 보았다는 흰 절벽의 이어도와 파도가 벼랑처럼 일렁이는 땅이란 뜻의 벽랑국은 그 뜻과 이미지에서 일치한다.

죽어가는 어부가 이어도를 증거한 이면에는 제주 섬주민이면 누구나 다 벽랑국 세공주를 선조로 두고 있기에 무의식적 원형(Archetype)과 원시심상(Primordial Image)으로 그 실체를 대물리며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화는 이어도가 화산활동에 의하여 수면 아래로 사라졌을 가능성과 제주 섬주민 선조의 본향 상실에 대한 원초적 원인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예를 사실적으로 증명하는 한 본보기이다.

이 신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원본의 원저자 해설을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미니해설]

제주도 원주민의 시조로 알려진 고(高)·양(良(梁))·부(夫) 삼을나(三乙那)가 태어난 곳은 모흥혈(毛興穴)이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털이 무성한 구멍’에서 솟아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새삼스럽지도 않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라는 천부지모(天父地母)의 사상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서, 그것도 구멍을 통하여 태어났다는 것은 ‘용의 겨드랑이에서 나왔다’거나 ‘알 속에서 나왔다’는 등 이른바 토렘(totem)신앙의 흔적으로 보이는 다른 지역의 탄생설화보다 훨씬 논리적일 뿐더러 오히려 과학적이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에 나오는 ‘벽랑국’이라는 것은 푸른 파도 너머에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상징적으로 쓰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본(日本)이라는 설이 있고 제주와 연륙항로 중 하나였던 강진인근의 한 섬이라는 설도 있다.

세 여신이 올 때 가져 온 땅아지와 송아지, 또 오곡의 씨앗은 이들과의 교류로 인해 당시까지 수렵문화였던 제주에 농경문화가 유입된 것을 표현한다고 해석하는 데는 이렇다 할 이견이 없다.

고을나(高乙那)가 먼저인가 양을나(良乙那)가 먼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헌마다 달리 나와 있어 두 성씨의 후손들의 논란의 대상이 돼 왔었다.

신화가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세 성씨가 서로 다른 땅을 차지함으로써 지역적으로 정립하며 임금이나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세 성씨는 어떤 시기까지 이때 나누어 가진 땅에서 서로 군주로서 생활했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가문은 서로 조상들이 '王(왕)'이라는 족보나 관련 자료를 모두 갖고 있기도 하다.

흥미로운 것은 삼을나(三乙那)가 탐라(耽羅)를 세운 시기가 단군왕검이 고조선(古朝鮮)을 세운 때인 기원전 2333년과 거의 같은 무렵이라는 것이다.

『제주고씨대동보(濟州高氏大同譜)』에 수록된 「왕세기(王世紀)」에 의하면 고을나(高乙那)가 왕이 된 것은 2337년으로 고조선(古朝鮮)의 건국시기보다 4년이 앞서 있다. 또 양(梁)씨 문중의 「제왕세기(帝王世紀)」는 양을나(良乙那)가 고조선(古朝鮮)의 건국시기보다 불과 1년이 뒤진 기원전 2332년에 건국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을나의 경우 재위한 것은 9백세 때였다고 하므로 세 신인이 태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5천2백31년전의 일이다.

고씨와 양씨가문의 「왕세기」의 기록은 다른 지역에서 기록된 사서와 연대가 다른 부분이 많다. 물론 5천여 년 전이라는 삼을나(三乙那)의 탄생시기도 마찬가지다.

제주대학교의 이청규(李清圭)교수(고고학)는 도내에서 농경과 관련된 토기가 출토된 시기를 보아 삼을나가 도읍하던 시기는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여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당(廣壤堂)은 제주에서 가장 큰 신당이였다. 이 당은 유교제례가 일반화된 조선조 이전에는 탐라국(耽羅國)의 국당(國堂)으로 여겨졌으며 이곳에서 나라의 제의가 치러졌을 것으로 보인다.

옛 문헌과 사적으로 보아 광양당과 삼성혈(三姓穴)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유교 정책으로 당은 삼성사(三姓祠)로 변했으며 제의도 유교식으로 바뀌어 옛 왕족인 고(高)·양(梁)·부(夫) 세 성씨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기 제의 중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도백(道伯)을 초헌관으로 함으로써 옛날 탐라국시대의 모습을 어느 정도 재현하고 있다.

호종단(胡宗壇)을 바다에 수장시킨 신화는 원래 광양당의 신화였으나 이 당이 삼성사로 바뀐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당의 신화에 삼성신화가 접목되어 현재의 신화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3-2 개로목록서도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중명, 1997. pp.316-320.

[본문]

한라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긴 내가 있어서 그 하구를 사람들은 「내끼」 또는 천미천(川尾川)이라고 불렀다. 내가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꼬리부분의 하천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 하천을 끼고 세 마을이 있었는데 성산읍 신흥리와 신천리, 표선면 하천리였다. 세 마을은 원래 같은 마을이었으며 예로부터 ‘내끼 삼(三)마을’이라고 불렸다.

이 마을들을 수호해 온 개로육서도는 금백조의 세째 아들이었다.

시절이 좋고 꽃도 잘 핀 어느 날 그는 동부인을 하여 한라산으로 구경을 갔다. 인근 마을 토산리 ‘새금상’까지 갔던 그는 먼발치에서 어여쁜 처녀를 보고는 한 눈에 반하고 말았다.

『나는 사냥을 하다가 갈테니 당신 먼저 내려가시오』

처녀에 홀딱 반해 버린 육서도는 큰 부인을 앞서서 가라고 보내 놓고 새금상의 처녀와 둘이 손잡고 구경을 하며 내려왔다.

눈치 모를 큰 부인이 아니었다. 먼 산길을 혼자 내려오노라니 시기심으로 애가 타고 목이 말랐다. 물을 찾지 못한 큰 부인은 산돼지 발굽에 고인 물이라도 먹기 위해 엎드렸다. 체통이 있는지라 맨 입으로는 못 먹고 보릿짚을 대고 빨아 먹었다. 그래도 몸에서는 지린내가 났다.

뒤늦게 와서 부인의 몸에서 지린내가 나는 것을 발견한 육서도는 몹시 화를 냈다.

『목만 가시지 말고 몸도 씻으시오』

육서도는 큰 부인을 허랑방탕 천미천 한가운데 버려두고 거기서 살도록 했다.

천미천은 여름철이 되어 큰 비가 오면 영락없이 물이 넘쳐 내가 터지는 곳이었다. 마른 하천의 돌투성이 속에서 살게 된 큰 부인은 평소에는 목이 말라하다가도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물에 흠뻑 젖어버리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사람들은 이 여신이 사는 곳을 ‘자운당’이라고 불렀다. 이 여신은 무서운 여신이 아니었다. 집안에 어린애가 아프거나 궂은 일이 생기면 이곳에 찾아와 빌곤 했다. 그때마다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와서 대접을 하곤 했으나 비가 내릴 때면 금방 쓸려가서 제대로 먹여보지도 못하곤 했다.

한편 ‘육서도’와 같이 내려 온 작은 부인 새금상 처녀는 내끼 지경에서 멀리 내려다 보이는 표선 앞바다의 푸른 물결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표선리에는 남자답고 늠름한 ‘저바당한집’이 살고 있었다.

육서도가 같이 살자고 하소연했으나 마음은 벌써 바다로 가곤 했다.

『마음이 벌써 저바당한집에게 갔는데 어찌 당신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이왕 맺은 인연이니 제일이 돌아오면 제사상이나 같이 받고 일배(一盃) 한 잔씩 합시다』

새금상 처녀는 육서도를 두고 신천리 바닷가로 내려가 버렸다.

개로육서도는 슬펐지만 보내줄 수 밖에 없었다. 새금상의 처녀가 반한 저바당한집은 바로 개로육서도의 형이었다.

바닷가로 간 작은 부인(새금상 처녀)은 잠수(해녀)들을 보살피고 오는 배 가는 배를 돌봐 주면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세 부처는 따로 살게 됐는데 이 여신이 사는 곳을 가리켜 사람들은 ‘고춧당’이라고 불렀다.

[해설]

이 신화를 이어도를 증거하는 간접자료로 삼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저바당한집’이라는 신의 이름에 서해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바당한집’은 제주지역어로 ‘저(먼 서해) 바다의 큰 어른’이란 뜻이 담겨 있다.

제주 사람들의 오랜 언어 습관으로 매우 압축하여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런 습관은 교류하는 범위가 마을 단위로 협소한 데서도 기인한다.

또한 '새금상' 여신이 '저바당한집'의 '표선 앞바다의 푸른 물결에 반해' 그를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써 새금상이 표선 앞바다에서 물질을 했다는 의미이다. 새금상은 원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해녀 즉 잠수의 수호신이다.

표선 앞바다는 제주 해양민에게 의미 있는 장소이다. 제주섬을 창조한 설문대가 마지막 토목공사를 한 곳이기도 하다. 표선 백사장은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조간대인데 설문대 신화에 의하면 설문대가 모기 등 해충이나 들끓던 늪지대를 살기 좋은 바닷가 마을이 되도록 그 토대를 하룻밤의 공사로 닦아주었다고 한다.

제주해녀의 시조를 상징적으로 설문대로 본다. 그럼으로 '새금상'이 해녀였으며 후에 해녀의 수호신이 된 것은 당연하다.

'저바당한집'은 영등처럼 서해의 '이어도'에서 제주로 들어온 큰 어른은 아니었을까.

이 신화의 원본에 붙은 '미니해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이 글을 읽으면 이어도 뿐 아니라 제주섬 신들의 이름 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미니해설]

신의 이름 앞부분의 「개로」는 천미천의 옛이름이다. 신의 이름은 곧잘 인근 지명에서 따서 붙여지곤 한다. 천미천은 한라산의 동쪽에서는 하천의 모습을 갖춘 유일한 하천이다. 이 내가 흐르는 곳은 경사가 완만하여 하천의 굴곡이 심하며 이때문에 홍수가 나기 일쑤인 곳이다.

개로육서도의 큰 부인이 사는 집은 하천의 한가운데 돌무더기가 있는 곳이다. 이 하천이 옛부터 심하게 범람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원래 하천의 신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원래 내끼마을의 신 개로육서도의 작은 아내 고춧당신이 표선리 본향당신을 사모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하천리가 표선면 지역으로 편입된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를 연상케 한다. (신평·신천·하천은 원래 한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셋으로 나뉘고 읍·면 단위로는 신평·신천리가 성산읍, 하천리가 표선면이다.)-조판과정에서 삭제.

마을이 분리된 것은, 주민들에 의하면 조선시대인 1609년 김치(金緻)판관이 제주에 왔을 때 동서방리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당시 정의(旌義)읍이 면으로 나뉘었는데 천미천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인 신평·신천리지역은 좌면, 서쪽인 하천리 지역은 동중(東中)면이 됐다. 이때의 구분이 이어져 신평·신천리는 성산읍, 하천리는 표선면 소속이 됐다.

그렇지만 이 세 마을은 모두 성산읍의 읍소재지와 중심 상권과도 멀었기 때문에 생활권으로는 오히려 표선면과 가까운 편이다. 그러니까 3백90년전 행정구역의 개편 당시 어떤 형태의 아쉬움이 신화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어쨌든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마을이 갈렸다. 그렇지만 생활권은 여전히 안바뀌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저바당한집에게 반하여 바닷가로 내려갔다』는 식으로 패러디한 신화

적 표현이 재미있다.

(개로육서도 신화의 앞부분에도 원래 김녕리 케네깃도나 토산리 보로뭇도처럼 용왕국으로 추방되어 용왕의 막내딸과 결혼하여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다. 결국 같은 내용의 신화가 마을마다 전래되며 변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개로육서도의 정적(情敵)이 된 저바당한집은 그의 아버지라고도 하며 형이라고도 한다. 부자간이라거나 형제간이라는 것은 같은 핏줄, 즉 송당리 금백조여신의 후예들이라는 뜻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서열이나 항렬은 단지 전파된 순서의 선후를 가려주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그 이외의 별 의미는 없다.)

3-3 금백조와 아들들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중명, 1997. pp.296-300.

[본문]

소천국과 금백조는 모두 열여덟 명의 아들과 스물여덟 명의 딸을 낳았다. 그들이 다시 아이들을 낳아 손자들이 삼백일흔여덟으로 가지가 벌어졌다.

금백조의 자손들은 구좌(舊左)읍 덕천리, 안덕면 덕수리, 성산읍 신평·신천·하천리, 제주시, 표선면 성읍리, 구좌읍 한동리, 조천읍 교래리, 조천읍 대흘리 고평동, 조천읍 와흘리·북촌리, 제주시 동회천동·도련동·삼양동·도두동·아라2동·화북동, 구좌읍 김녕·세화리, 표선면 토산리 등지에 흩어져 각각 마을수호신이 됐다.

한편 금백조여신과 관련, 구좌읍 세화(細花)리에는 김녕(金寧)리나 송당(松堂)리와는 또 다른 내용의 신화가 전래되고 있다.

서울 남산 송악산에서 태어 난 백조아기는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눈에 거스르는 짓을 많이 하여 요왕국으로 귀양을 갔다.

요왕국에 사는 열 두 명의 외삼촌은 백조아기씨가 불쌍하여 한 사람이 하나씩 열두가지 부술(符術)을 가르쳐주었다. 또 백조아기가 요왕국을 떠날 때는 파란 주머니에는 파란 가루, 하얀 주머니에는 하얀 요술가루를 담아 내주고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청 부채·백 부채를 선물로 주었다.

백조아기가 선창가로 나가보니 제주(濟州)로 가는 배가 있었다.

『저기 가는 선주, 사공님아. 나도 같이 데려가기가 어떻습니까』

『여자란 것은 꿈에만 실려도 사물(邪物)인데 우리 가는 길에 무엇 때문에 횡방을 놓느냐』

매정하게 거절당한 백조아기는 바닷가에 앉아서 청부채를 들어 동쪽으로도 흔들고 서쪽으로도 흔들었다. 동으로 부치면 동풍이 일고 서로 부치면 서풍이 불어 가던 배도 돌아오고 오던 배도 돌아갔다.

濟州로 가다가 바람에 불려 돌아 온 사공들은 그제 서야 애기씨 앞에 엎드렸다.

『아이고, 애기씨 상전님아, 이 배를 탑서』

『아니다. 너희들 좋은 기술로 가는 길에 내가 어떻게 횡방을 놓겠느냐』

『그래도 오르십서』

통사정을 하니 백조아기씨는 못이기는 척 배에 올라 ‘별진 고달도’를 거쳐 제주도 별도

(禾北동) '수진포'로 들어왔다.

한라산에 올라가 보니 천자할아버지가 상서화리(웃세화리 細花) '손드락 ㅁ르'에 사는 것을 알았다.

조천(朝天)읍 교래(橋來)리 뒷숲을 거쳐 내려와 돛배남마루(돛배오름)에 앉아 쉬고 있었더니 허상잔 집 따님아기가 물 길러 나타났다.

『애기씨 요기나 조금 해 달라』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백돌래떡에 백시리, 청감주에 계알안주를 먹고 닭을 잡으면 안전지(날개 안쪽 살)나 먹습니다』

허상잔 집 딸에게 잘 얻어 먹고 길까지 물어 본 백조아기는 허상잔따님아기에게 주머니 하나를 끌러 주고 자신의 신앙민으로 삼았다.

『죽을 지경이 당하면 이 주머니를 내놓고 날 생각하면 세번까지는 살려줄 것이다』

교래리 들판으로, 산굼부리로, 새미오름을 거쳐 웃밤동산 알밤동산 안돌오름 밖돌오름 송당머리로 구좌읍 평대리 지경까지 내려왔다.

평대의 갯마리 명동소천국신이 지달피 바지에 산달피 윗도리를 입고 뇌눈이 반둥갱이(네 눈박이 사냥개)를 데리고 쟁사냥을 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면 천자할아버지 있는 곳을 잡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길 인도할 사람을 보내주겠습니다』

백조아기가 앉아 있는 사이에 집으로 뛰어 간 명동소천국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운문대단으로 수놓은 옷에 남색 비단 쾌자를 입고 꽃무늬 전대를 매고 나타나 아가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웃명동이 알명동이지경을 내려와 소천국집에 당도하니 집 한 쪽에는 소 뼈, 또 한 쪽에는 말 뼈가 쌓여 있는게 보였다.

『아이고 쇠도독놈 말도독놈 사는 곳이로구나』

집이 난 백조아기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소천국에게 손목을 잡히고 말았다. 소천국이 접탈하려하자 파란 주머니에서 파란 가루, 하얀 주머니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푸하고 입으로 불었다. 가루를 뒤집어 쓴 소천국이 노릇노릇 죽어갔다.

『더러운 놈 잡아던 손목인들 남겨둘 수 있으랴』

은장도로 손목을 깎아낸 백주애기는 물명주전대로 손목을 감고 천자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어디서 왔느냐』

『서울 남산 송악산에서 온 백조가 되옵니다』

『어떻게 왔느냐』

『할아버님전에 버릇물이나 떠놓으며 살려고 왔습니다』

『기특하다. 오는 길에 무슨 일이나 없었느냐』

『명동소천국이 접탈하려고 했습니다』

『꽤 씹하구나』

화가 난 천자 할아버지는 신당의 심부름꾼 당하니 당소미들을 부르고 마흔 여덟 상단골 신앙민, 서른 여덟 중단골 신앙민, 스물여덟 하단골 신앙민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열고 갯마리 명동소천국을 대령시켰다.

『내 자손 오는데 작폐를 했으니 너희 자손은 나 있는데 못 오고 내 자손은 너 있는데 못

간다. 새로 사돈은 맺지도 못할 것이고 이후로는 땅 가르고 물 갈라 밭들여 놓지 못한다』 하고 엄명을 했다.

그 후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 불화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얼마 후 강남천자국의 대장군 ‘금상님’이 별방(下道)바닷가로 들어와 백조아기씨의 낭군이 되었다. 금상님은 육식을 했기 때문에 백조아기가 신앙민들에게 열두 흉함을 불러 일으켜서 소도 바치고 돼지도 바치게 했다.

3-3-1 보름웃도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증명, 1997. pp.311-315.

표선(表善)면 토산(兎山)리 당의 본향신 ‘보름웃도’는 송당리 금백조여신의 자손이었다. 표선리의 본향신 ‘저바당한집’ 하천리의 ‘개로육서도, 세화리 ‘도노름한집’, 토산리의 신인 ‘보름웃도’는 모두 형제였다.

막내인 보름웃도가 부모에게 미움을 사서 요왕황저국으로 귀양 갔다가 용왕의 딸 ‘신중부인’을 아내로 맞았다.

용왕의 사위가 된 보름웃도는 식성이 너무 왕성하여 요왕국에서도 미움을 샀다. 사위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용왕국의 창고가 모두 바닥이 날 판이었다. 용왕이 생각을 하니 사위가 밭기는 하되 쫓아낼 구실이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신중부인을 불렀다.

『「여편이 종부(從父, 從夫)를 한다」는 말은 열 다섯 십오 세가 되기 전에는 네 조상을 지키고 열 다섯 십오 세가 넘으면 남의 조상을 위한다는 말이다. 이제 너도 남편을 얻어 부인이 됐으니 남편의 고향으로 가서 시부모님을 위하여라』

『저는 대국에 살아 고래 방아질도 못해보고 농사도 못 짓습니다. 소국으로 가면 무엇을 하여 먹고 살겠습니까』

그도 그럴 법한 일이었다. 용왕과 용왕부인은 각각 청(靑)주머니 백(白)주머니를 허리에 끌러 주며 말했다.

『이 주머니를 열면 왼쪽 눈에 청겉이, 오른쪽 눈에 흑겉이, 병이 들어 눈이 안 보이는 법이다. 잘 대접을 받거든랑 주머니 입구를 닫아 병을 낳게 해주면서 먹을 요량을 하여라』

또 신중부인의 언니들은 종창·부스럼·버짐·경기·경풍을 일으키는 열두가지 부스럼 주머니를 선물로 내 주었다.

용왕국을 출발한 배는 구좌읍 하도리 별방으로 들어왔다. 때마침 송당리의 당신인 금백조가 팽나무 아래서 쿵을 불리고 있었다. 신중부인이 주머니를 열자 쿵각지가 하나 금백조의 눈에 들어갔다.

앞이 안 보이게 된 금백조는 아들이며 며느리들을 불러 눈에 쿵각지를 빼내라고 했으나 아무도 빼내지 못했다.

느긋이 배를 탄 보름웃도와 신중부인이 금백조에게 가서 부채로 살살 부치니 쿵각지가 도로록 금백조의 치마위로 떨어졌다.

『누가 났느냐』

『제가 났습니다』

눈에 안개가 걷혀 볼 수 있게 된 금백조가 묻자 보름웃도가 대답했다.

『기특하다. 그 공으로 무엇을 주랴』

『땅도 한 쪽 물도 한 쪽 주십시오』

그래서 보름웃도는 토산리에 자리잡게 됐다.

어느 해 보름웃도는 한라산으로 구경갔다가 오백장군의 딸을 만나 새 살림을 차렸다. 임신중이었던 큰부인 신중도는 보름웃도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다가 목이 말라 산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 먹었다. 물을 빨아 먹는데 돼지털이 콧구멍으로 들어가 정신이 몽롱해졌다.

보름웃도를 찾아 간 신중부인의 몸에서는 지린내가 났다.

『부인 몸에서 웬 종경내(지린내)가 나오』

『오다가 목이 말라 산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 먹었더니 그렇습니다』

『대부인이 부정한 짓을 했구나』

보름웃도는 신중부인을 나무도 물도 없는 마라도(馬羅島)로 귀양을 보내버렸다.

작은 부인은 큰 부인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형님은 어데 갔습니까』

『부정이 만만(가득)하여 대정(大靜) 마라섬으로 귀양 정배 보냈소』

『형님 귀양정배를 안 풀어주면 나도 소국(高嶺)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수 없게 된 보름웃도가 말했다.

『석달 열흘 백일이 지나면 풀어주겠소』

그러나 석달 열흘 백일이 지나도 풀어줄 기색이 없자 작은 부인이 큰 부인을 찾아 마라도로 건너갔다.

『형님 죄 풀리러 왔습니다』

『내 죄를 풀리려거든 짓걸레도 일곱, 짓지성귀(기저귀)도 일곱, 조각 삼보살(보뎃웃)도 일곱, 삼만관속 육방하인 사람도 일곱이 와야 된다』

큰 부인은 그 사이에 일곱아기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 작은 부인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다시 마라도로 갔다.

『형님은 그동안 물을 못 마셔 목이 마울테니 해각(바닷가)으로 내려가서 개보말(고동)이나 잡아먹으며 오십시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길로 가겠습니다』

그때 큰 부인이 바닷가를 따라오면서 지꾸섬, 설피섬, 가파도 등의 이름을 지어 붙였다 한다.

또 위미리 떼미밭의 고망물, 올리소 등도 모두 그 때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 작은 부인은 일곱 아기를 데리고 산길로 오다가 삼동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정신이 팔려 한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까마귀가 날아와서 혼자 남은 아이의 눈 한 쪽을 파 먹어버렸다. 토산(兎山)에 돌아와서 야 아이가 하나 없는 것을 알게 된 작은 부인은 허겁지겁 돌아가서 길가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남편과 큰 부인 앞에서 아이를 어르고 달랬다.

이때 한쪽 눈이 없어 병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본향당신에 죄를 지으면 눈 한쪽이 병신이 된다고 한다.

큰 부인 신중도가 돌아오기는 했으나 보름웃도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여 같이 살지 않

았다. 그래서 큰 부인은 본향신과 다른 곳 서당밭에 좌정했었다.

그런데 이 마을 동짓 하르방이 미신타파운동에 따라 당나무를 잘라버려 지금은 본향당의 한쪽 구석으로 모시고 있다. 동짓하르방은 그 죄 때문에 한쪽 눈을 항상 찡그리고 다녔다고 한다.

눈이 빠진 이 아이를 부모님 앞에서 어르면서 달래던 일이 관습이 되어 도내 어느 곳에서든 큰 곳을 할 때면 '아기나청 상마울'이라는 부분으로 재현되고 있다.

[해설]

이 두 편의 신화는 상호 모순되는 설정이 참 많다. 금백조는 3-3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제주 섬에 들어온 신으로 그녀의 아들들이 신이 되어 각 마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바다 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가 펼쳐지는 상황을 보노라면, 특히 3-3-1에서 보는 것처럼, 보름웃도가 못된 아들로 부모에게 낙인 찍혀 용왕국으로 추방당하였다고 한다. 그에다 추방된 용왕국의 딸과 혼인을 하여 다시 제주 섬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 용왕국이 어디였을까? 이어도는 아니었을까?

같은 내용의 신화가 제주 섬의 여러 마을에 널려 있다. 이야기는 전해지개 마련이다. 혹은 같은 체험을 여러 마을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다.

여기 등장하는 용왕국이 이어도라고 한다면 이 두 신화가 감춘 수수께끼는 쉽게 풀린다. 제주 섬에서는 탐라사람의 외가인 이어도[벽랑국]로 아이들의 혼육을 위해 보냈을 수 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외가 특히 외할머니는 그 어떤 손주도 녀그러이 받아 길러 인간을 완성시킨다. 그런 생활과정의 에피소드가 후대에 전해진 이야기일 수 있다.

제주 섬의 말썽장이 한 아이가 버릇을 고칠 목적으로 이어도 외가로 아이를 보냈는데 매우 훌륭하게 성장하여 그곳 여성과 혼인하여 금의환향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아름다운 원시심상의 대물림이다.

3-4 남선비[문전본풀이]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중명, 1997. pp.201-211.

[본문]

남선마을에 사는 남선비와 여산부인 사이에는 아들 일곱 형제가 있었다.

두 내외가 부지런히 일했지만 흉년이 겹치는데다 식솔이 너무 많아 끼니 잇기가 힘들었다. 식량은 떨어지고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지 못하는 통에 늘 책을 사달라고 울었다.

하루는 여산부인이 명주바지에 좋은 의상을 마련하고 돈 백냥·은백냥을 남선비 앞으로 내왔다.

『이게 웬 돈이요』

『양태(갓양태)를 만들어 팔아 모아 둔 돈입니다.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 곡식과 책을 사 오소서』

남선비는 테우를 만들어 타고 남선고을을 떠나 오동(梧桐)나라로 곡식을 사러 갔다. 선창에 배를 대니 웬 고운 여인이 쳐다보고 있었다. 주막집 구일의 딸 노일자대였다.

『이 동네에 곡식 팔거나 있습니까』

『나를 따라 오소서』

여인이 앞서 가는데 뒷모습이 교태로와 남선비는 그만 여인에게 홀딱 반하고 말았다.

『여보 부인, 주막이나 들렀다가 갑시다』

『우리집으로 가시지요』

노일자대가 따뜻한 방에 모셔 놓고 온갖 애교를 다 펴니 남선비는 고향생각은 잊어버렸다. 술을 마시며 돈을 다 쓰니 쓰고 간 것, 두루마기, 명주도포는 물론 타고 간 배까지 다 팔아먹었다.

돈이 떨어지자 쫓겨난 남선비는 방을 빌리지도 못해 수수대를 잘라 기둥을 세우고 나무 들쪼귀에 거적문을 단 초막집을 지어 목숨만 연명하고 살았다. 노일자대가 매일 채(겨)죽만 썰주니 그것을 먹고 눈까지 멀고 말았다.

고향에서는 여산부인이 삼년을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를 않아 매일 바다에 나가 기도를 했다.

이제는 모두 자란 일곱 형제가 어머니에게 짚신을 만들어 드렸는데 하루 저녁에 일곱 켄레씩 신이 닳고 다음날에는 다시 맨 발로 다녔다.

『우리 어머니가 밤행(외도)을 하는게 아닐까』

막내가 의문을 제기하자 의심스러워하게 된 형제들이 그 날은 밤에 어머니를 몰래 따라나갔다.

어머니는 돌투성이 바닷가를 밤새 헤매느라 짚신 일곱 켄레가 다 헐었다.

『죽었거든 의복이나 머리나 걸려 올라오라』

줄에 열레기(큰 빗)를 달아 매 바다에 던지며 기도를 했으나 아무 것도 걸리지 않았다. 바다에서 죽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이를 본 형제들이 말했다.

『어머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 가 보겠습니다』

『나하나 죽는 건 그만이지만 그러다가 배가 물에 빠져 너희 칠형제가 모두 죽으면 누가 대를 이으랴. 내가 가마』

일곱 형제가 한라산에 들어가서 큰 나무 일곱 동을 잘라 왔다. 나무를 잘라 묶어 테우를 만들고 동남풍이 불 때를 기다려 배를 띄웠다.

바람을 타고 정처 없이 가다보니 멀리 선창이 보였다. 이제는 남의 배가 돼 버린 남선비의 배도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테우는 줄이 먹고 남아 있었다.

남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한 여산부인이 길가에 앉아서 울고 있으려니 웬 여자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요 새, 저 새, 너무 약은 체 하지 마라. 똑똑한 남선비간에도 노일자대에게 속아 전배 독선(船)다 팔아먹고 체죽(겨죽)단지에 순가락 걸치고 말뚝으로 불 켜서 살며 죽을 날만 기다린다. 요 새, 저 새 약은 체 마라. 후워』

기장 밭에서 새를 쫓는 여자아이가 자꾸만 곡식밭으로 날아드는 새떼를 쫓기 위해 주막집에만 드나들다 신세 망친 남선비를 빗대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애야, 그 노래 한 번만 더 들려다오』

『아고 주인이 알면 노래만 부른다고 욱들어요』

『구술·댕기 줄터이니 한 번만 더 불러 봐라』

『남선비가 돈 다 쓰고 비술이 초막으로 쫓겨나 체죽이나 먹는 신세가 됐구나』

여산부인이 물어 물어 남선비의 처소를 찾아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초라한 행색으로 앉아있었다.

『피곤해서 그러니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부인이 알면 큰 일 나요』

『부엌이라도 빌려주면 점심이나 지어 먹고 가겠습니다』

여산부인이 부엌에 가보니 술에는 채 가루가 가득 넣어 있었다. 술을 씻어 쌀밥을 짓고 옥돔도 굽고 아홉 가지 해물 젓갈로 상을 차려 남선비에게 갖다 줬다.

한두 번 사양하다가 상을 받은 남선비가 밥을 한 숟갈 뜨니 옛날 밥맛이요, 옛날 숟가락 감촉이 들었다.

『아고 나 옛날 먹던 밥맛이로구나.』

『밥은 알고 사람은 모름니까. 여산부인입니다』

그 때야 부인을 알아 본 남선비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때 밖에 갔다가 돌아와 얘기를 듣던 노일자대는 꾸집한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고 형님 왔습니까』

속셈이 있는 노일자대가 여산부인에게 깡뚝이 형님예우를 했다.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고향으로 간다고 하니 노일자대도 따라 가겠다고 나섰다. 노일자대에게 구박만 받았던 남선비지만 같이 가겠다는 걸 말리지는 못했다.

선창으로 가던 중 노일자대가 목욕이나 하고 가자고 제안하여 연화못으로 두 내외를 데려갔다. 남선비는 남탕으로 보내놓고 여탕에 여산부인과 같이 간 노일자대는 등을 밀어주는 척 하다가 등을 떠밀어 수장시키고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여산부인의 머리를 하고 나왔다.

『노일자대는 야단을 쳐서 고향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그 못된 년 잘했소』

눈 먼 남선비는 노일자대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고향으로 가는 배를 띄웠다.

여산부인의 옷을 입고 모양새를 낸 노일자대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길을 몰라서 남선비의 뒤만 줄줄 따라 다녔다.

어머니의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본 일곱 형제들이 마중을 나갔다. 큰 아들은 두루마기를 벗어 길에 깔고 셋 아들은 갓을 벗어 놓고 부모님을 맞았다. 셋째 아들은 저고리를 벗고 네째 아들은 두건을, 다섯째 아들은 옷감을 풀어놓고 여섯째 아들은 수건을 깔았는데 막내아들 녹두생이는 어머니 앞을 가로 막았다.

『아버지는 어서 오십서마는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기들아 웬 말이나. 아버지 찾으러 파도를 건너갔다오고 온갖 고생하다보니 얼굴이 달라질 수 밖에 더 있느냐』

그도 그럴 법한 소리였다.

집에 오기는 했으나 고간(庫間)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른 노일자대는

『너희대로 저녁밥을 지어 먹어라. 멀미해서 밥을 못 먹겠다』

하고 핑계를 댔다.

할 수 없이 어머니로 맞아들였으나 미심쩍은 녹두생이는 형들에게 자기의 피를 얘기했다. 형제들은 고간에서 수없이 독을 열었다 덮었다 했다.

방안에 누워서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들어쥔 노일자대는 다음날이 되자 밥을 하는데 수없이 독 뚜껑을 열며 곡식을 꺼내 밥을 하니 너무 많아 술이 넘쳤다. 밥상을 놓는데도 아들 사발은 아버지에게 가고 아버지 수저는 아들 앞에 놓았다. 그제야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안 형제들은 밥을 먹다 말고 슬퍼하며 밖으로 나갔다.

형제들이 눈치 챈 것을 안 노일자대는 갑자기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방안을 뒹굴었다.

『아고 배야, 아고 배야』

『부인 왜 그러시오』

『심화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 사도전거리(큰 길)에 가서 문점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선비가 집밖으로 나서자 노일자대는 일론 일어나 사도전거리로 달려가서 맥(망태기)을 뒤집어쓰고 앉았다.

『저기 오는 게 남선비아니오』

『아니 나를 아십니까』

『물어 볼 필요 없이 그냥 돌아가시오. 처방이 없소』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 일곱 형제 간을 내 먹이면 좋겠소』

낙담한 남선비가 집으로 돌아오니 먼저 셋길로 와 있던 노일자대가 말했다.

『아들이야 또 나면 되지만..., 죽일 수야 있습니까. 다른 점장이에게 가 보세요』

이번에는 삼도전(세거리)거리에 나가 봤더니 바람구덕(바구니)을 뒤집어쓰고 있던 노일자대가 말했다.

『아하, 남선비가 또 문점하러 오는구나.』

『어떻게 잘 아시오』

『아들 일곱형제 간이나 내 먹이지 않으면 백약(百藥)이 무효요』

집에 돌아오니 노일자대가 또 말했다.

『한 번에 셋씩 세 번이면 아홉을 넣기는 하지만....., 아고 아고』

비명소리를 듣다못한 남선비가 부엌으로 나와 칼을 갈았다.

뒷집의 청태산 마귀할망이 남선비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찾아왔다가 물었다.

『웬 칼을 갈고 있습니까』

『부인이 병에 걸렸는데 아이들 간을 내 먹여야 합니다. 아이들이야 또 낳으면 되지만 부인을 죽일 수야 있습니까』

마귀할망에게 이 얘기를 들은 형제들은 슬퍼하며 산으로 도망갔다. 막내아들 녹두생이가 피를 내어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님 왜 칼을 가십니까』

『너희들 간을 내어 어머니에게 줘야 겠다』

『아버님이 어떻게 일곱형제를 다 죽이겠습니까. 제가 형님들을 죽여 간을 내 올 테니 아버님은 저만 죽이십시오.』

산에 올라가 고민을 하다 보니 새끼 일곱 마리를 거느린 산돼지가 나타났다. 새끼 하나는

씨로 남겨두고 여섯 마리를 잡아 먹은 다음 간만 가지고 내려왔다.

녹두생이가 간을 노일자대에게 주니 노일자대가 말했다.

『네 앞에서 먹을 수 있느냐. 잠시 나갔다 오너라.』

녹두생이가 나오면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에 구멍을 내고 밖에서 보고 있으려니 노일자대는 입에 피만 바르고 간은 요 밑으로 넣었다.

『어머니 좀 어떻습니까』

『살아질 것 같다. 하나만 더 먹으면 다 낫겠다』

『죽기 전에 어머니 머리에 이나 잡아드리겠습니까』

『중병 걸린 환자 머리에 이는 잡지 않는다』

『그러면 방이나 치워 드리겠습니까』

『중환자 있는 방을 누가 치운다고 하더냐』

『내가 치운다고 했소』

녹두생이가 화를 벌떡 내며 요를 걷어치우니 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설운 형제들 간 찾으러 오시오』

녹두생이가 간을 들고 나오며 소리치니 형제들이 죽일 기세로 집으로 들어왔다.

집이 난 남선비는 도망가다가 정낭에 걸려 죽었다. 뒷걸음으로 도망간 노일자대는 머리를 풀어 변소 간에 목을 매 죽었다.

형제들은 노일자재를 토막 내 원수를 갚았다. 두 다리는 잘라 변소 간의 디딤돌로 썼다. 머리털은 잘라 바다로 던지니 패(해조류)가 됐다. 손톱·발톱은 굵벚이 되고 배꼽은 굴뚝이 됐다. 하문(下門)은 전복이 됐다. 그 밑에 구멍은 말미잘이 됐다. 남은 것을 뺏아서 공중에 흩뿌리니 악한 여자의 살인지라 이·벼룩·모기·각다귀·뱀·지네 등 독한 짐승·벌레들이 됐다.

어머니를 찾아 나선 형제들이 오동나라로 가보니 어머니는 바다 속에 잠겨있었다. 형제들이 7일 동안 용왕에게 기원을 하니 바닷물이 낮아졌다. 이때부터 밀물과 썰물이 생겼다.

어머니의 시체를 건져놓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꼭새가 날아가다가 이 소리를 듣고 내려왔다.

『소 한 마리만 구해 오면 도리가 있다』

일곱 형제는 소를 잡아 일곱 토막으로 나누고 꼭새 위에 올라타 고기 한 점씩 입에 넣어 주며 서천꽃밭까지 날아갔다.

환생꽃을 구해다 어머니를 되살려내고 어머니 죽어 누웠던 흙은 파다가 시루를 만들었다. 형제들이 모두 하나씩 구멍을 뚫어서 이런 연유로 시루 구멍은 일곱 개가 됐다.

옥황상제에게 축원을 하니 모두 집안의 신이 되었다. 남선비는 정낭에 걸려 죽었으니 정살귀신이 됐다. 여산부인은 죽어 추운 바다 속에서 사철을 있었으니 따뜻한 부엌에서 살라고 조왕할망을 시켰다.

위로 네 형제는 동·서·남·북, 다섯째는 중앙을 지키게 되고 여섯째는 뒷문전(門前)신, 녹두생이는 앞의 일문전(一門前)신이 됐다. 노일자대는 변소에서 죽었기 때문에 축도(廁道)부인이 됐다.

[해설]

이 신화는 고대 제주 섬 주민의 서해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동중국해사단항로가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더구나 ‘이어도 항로’라고 관련학자에 의하여 명명된 고대 제주 섬주민이 선호했던 서해 항로이다.

이 항로가 선호된 상황은 위 신화에서 남선비가 집을 떠나 노닐자대(노닐저대라고도 한다)를 만나 제주 섬에 있는 가족을 잊어버리게 된 원인인, 쌀을 구하러 오동(梧桐)나라로 간다는 내용으로 간추려져 있다. 오동나라는 오나라를 일컫는데 여기에서는 말의 리듬을 타는 가운데 나타난 표현이다.

고대 제주 섬 주민은 남선비의 예로 보는 바와 같이 서해를 넘어 양자강 하류인 곡장지대 오나라를 오갔다고 본다.

서해에 대하여 능수능란하게 배질을 했던 고대 섬주민은 이어도의 실체를 잘 알았다고 짐작할 만하다.

남선비의 ‘가족 모두 집과 관련된 신들이 되는데 일부 본에 따르면 일곱 형제는 죽은 후 복두칠성이 됐다고도 한다.’는 것이다.

복두칠성은 뱃사람들이 원양항해 할 때 뿐 아니라 고기잡이를 할 때에도 어둔 밤의 길라잡이로 삼는 제일 별자리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보건데, 이 신화는 고대 제주 섬 주민 한 가족의 비극사를 다루고 있지만 이어도항로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덧붙여 둘 것은, 이 신화의 내용이 조선시대의 ‘이춘풍전’과 많이 닮았다는 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평양에 장사를 하러 갔던 이춘풍은 그 유명한 평양기생에게 빠져 돈을 탕진하고 드디어는 기생집의 하인노릇을 하게 된다. 결국 유능한 아내의 활약으로 개과천선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구도는 남선비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 이 원문의 지자가 해설 편을 통하여도 설명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 신화가 단순한 신화가 아닌 증거로, “제주시 아라2동 속칭 걸머리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남선비가 이 마을에 살다가 신이 됐다고 하여 남선비와 여산부인을 신으로 모시는 ‘알새미당’에서 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고 덧붙여 해설하고 있다.

이토록 이어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신화일망정 자세히 보면 각처에 이어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3-5 동서해 용왕(군웅(軍雄))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중명, 1997. pp.223-227.

[본문]

천지가 개벽하여 해도 둘 달도 둘이던 시절 지상에서는 대별왕·소별왕이 태어나 해 하나 달 하나를 떨어뜨려 질서를 잡고 서로 경쟁을 하여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고 대별왕이 저승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바다에는 아직 주인이 없었다.

동해바다에는 동해용왕, 서해바다에는 서해용왕이 살고 있었는데 서로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늘 싸움을 하는 통에 바다가 평온한 날이 없었다.

두 용왕 중에는 서해용왕이 힘이 세어 동해용왕은 번번이 눌러서 바다 속으로 도망치곤 했다.

동해용왕은 서해용왕을 이길 방법을 찾느라 날마다 고민을 했다.

이 때 땅 위에는 천황제석과 지황제석 사이에 태어난 거인 왕장군이 살고 있었다. 왕장군은 거대한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어내다가 팔아서 살아가고 있었다.

어찌나 큰 나무를 베는지 나무 쓰러지는 소리로 용궁이 흔들릴 정도였다. 용궁물이 육지까지 흘러오는 데는 바다 밑에서 3년, 바다 위에서 3년, 물가에서 3년을 와야 할 정도로 먼 거리였으므로 용궁이 울릴 정도면 왕장군이 얼마나 큰 나무를 쓰러뜨리는지는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게 웬 소리냐』

『땅 위에 왕장군이 나무를 베는 소립니다』

『그러면 어서 가서 왕장군을 모셔 오도록 해라』

동해용왕은 왕장군을 불러다가 서해용왕과 대적을 시킬 속셈이었다.

왕장군이 숲속에서 나무를 하는데 초립동이(草笠童)이 나타났다.

『너는 누구냐』

『나는 동해용왕의 아들이요. 동해용왕과 서해용왕이 싸움을 하는데 매양 우리가 밀리기만 하니 왕장군의 도움을 받으러 왔소』

『나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다. 그러나 바닷물 만은 무서우니 어떻게 너를 따라 가겠느냐』

『저하고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초립동이 왕장군을 업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니 물길이 저절로 훤히 열렸다.

용궁으로 들어가니 동해용왕이 기뻐하여 말했다.

『잘 왔소. 내일은 내가 서해용왕과 싸움을 하겠는데 내가 짐짓 저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서해 용왕이 의기양양하게 물 위에 떠 있을 것이니 그 때 화살로 쏘아 죽여주소』

다음날 동해 용왕은 서해용왕에게 싸움을 걸었다. 힘이 비슷했으나 이 날도 서해용왕이 우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동해용왕은 싸우다가 힘이 다 한 듯 물속으로 숨어들어 갔다.

물 위에 혼자 남은 서해 용왕은 우렁찬 포효를 지르며 힘껏 위세를 뽐내다가 왕장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다.

이때부터 바다는 동해용왕이 다스리게 됐다. 기뻐한 동해용왕은 왕장군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다.

초립동으로 변장했던 용왕의 아들은 왕장군에게 말했다.

『이제 용왕이 불러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 볼 터인데 그 때는 모든 것을 마다하고 연갑(硯箱)을 달라고 하시오. 그 속에는 우리 누이가 있는데 그러면 만사가 편할 것이오』

동해용왕은 아니나 다를까 왕장군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왕장군은 초립동이 말해 준대로 연갑을 달라고 했다.

동해용왕은 난색을 표했으나 약속을 했으므로 할 수 없이 연갑을 내주었다.

왕장군이 인간세상으로 돌아와서 사는데 그 연갑 속에서는 밤마다 월궁의 선녀와 같은 여인이 나와서 같이 배필이 됐다. 또 왕장군이 원하는 것이면 옷이든 음식이든 무엇이든 갖

고 와서 큰 부자가 됐다.

두 부부가 3년을 사는 사이에 아들 셋을 낳았다. 큰 아들의 이름은 왕건[王建]이라고 지었으며 셋아들은 왕빈(王賓), 막내 아들은 왕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집안에 걱정이 없어지자 용왕의 딸이 왕장군에게 말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니 이제 용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방님은 아이들과 함께 군웅(軍雄)이 되어 사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병사(兵士)의 신·벼슬의 신이 되었다.

강남천자(江南天子)국에서는 천자군웅이 됐으며 日本주년국에서는 효자군웅, 조선(朝鮮)에서는 역신군웅이 됐다.

금조좌랑 병조좌랑 호조좌랑 어영대장 삼정승 육판서 팔도도감 십대신 각읍 수령을 차지했으며 문과·무과급제를 좌우했다. 양반집에서는 사당에 위패를 모시게 됐으며 무당집에서는 당주에 위패를 모셨다. 배 짓는 집에서는 선왕(船王)군웅이 됐으며 사냥하는 집에서는 산신(山神)일월(日月, 조상이라는 뜻)이 됐다.

[해설]

동서해 용왕이라는 표현은 제주 섬 주변 수역 및 원해를 흐르는 해류(海流, current)의 은유적 표현이다.

힘차게 대해를 흐르는 해류를 용에 표현한 것은 문학표현 상의 백미이다. 태평양의 시작점에서 대만을 휘돌아 서해로 밀고 올라오는 길에 거기 목잡고 있는 제주를 감싸 도는 대마난류(warm current)의 큰 흐름인 쿠로시오해류를 흑조류(黑潮流 Kuroshio Current)라고 부른다. 한류(寒流, cold current)가 제주에 닿는 것은 서해 즉 황해(Yellow Sea; 공식적인 학술표현이다)냉수와 리만해류(Liman Current)가 흘러 내려오다가 북한지역에서 갈라지는데 이 쯤 흐르면 한류와 난류가 조금 섞인다. 그 해류를 동한해류라고 한다. 동한해류는 난류도 되고 한류도 되는 미지근한 해류이다.

이 해류를 제주 섬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청룡 등 은유적으로 표현하곤 하였다.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가. 제주 섬 주민만큼 주변의 자연현상을 매우 극적으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들이 드물다.

그 해류의 흐름이 군대가 전투 중에 몰려오는 것과 같다 하여 군웅(軍雄)이라고도 했다.

또한 ‘동해용왕의 딸이 왕장군의 아내가 되었다’ 함은 ‘나라간의 전쟁이 치열했을 때 정략적으로 행해지던 정략결혼’에서 힌트를 얻은 듯, 해류가 제주 섬을 감싸 도는 양상을 두 용맹스런 나의 군대가 화해하고 그 왕족이 혼인을 함으로써 화평을 누린다는 신화적이면서도 실제적 현실을 적절하게 그러나 매우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았다.

이렇게 서사적이고 흥미진진하게 해류의 동향을 표현할 정도로 제주 섬주민들은 주변 수역의 모든 사물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도가 수중화산활동에 의하여 물밑으로 사라졌다면 제주 섬주민의 외가이며 또 하나의 제주도인 그 섬의 경황인들 마음에 사무치도록 새겨 대물림 하지 않았겠는가.

3-6 동해용왕 따님(구 삼승할망)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중명, 1997. pp.67-76.

[본문]

이 세상에 아기들의 생명을 가져 온 것은 원래 동해용왕(東海龍王)따님아기였다.

먼 옛날 동해용왕과 서해용궁부인이 결혼했으나 아이가 태어나질 않았다. 후사를 걱정한 두 부부는 옥황의 석불님에게 기원하여 귀여운 딸을 얻게 됐다.

그러나 이 아기는 태어난 날부터 아홉 살이 되도록 날마다 울기만 했다. 다섯살부터는 딸을 익히니 노상 거짓말만 하여 사람들을 괴롭혔다. 나쁜 딸을 동네방네 옮겨 불목을 시키고 근거 없는 모함을 하여서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용궁사람들의 원성에 못 이겨 용왕은 이 아이를 죽여 버리기로 했으나 용궁부인이 만류했다.

『어찌 이 내 속으로 난 자식을 죽일 수가 있으오리까. 차라리 무쇠철갑을 만들어 먼 바다로 띄워버림이 어떠합니까』

차마 딸을 죽일 수가 없었던 이들은 아기를 무쇠상자에 담아 바다위로 띄워버리기로 했다. 쫓겨나게 된 따님아기는 기가 막혀 용궁부인에게 물었다.

『어머님아, 난 인간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인간에 아직 생불왕(生佛王)이 없으니 생불왕으로 들어 서 얻어먹고 살아가거라』

『생불은 어떻게 주며 환생은 어떻게 시킵니까』

『아버지 몸에 하얀 피 석달 열흘, 어머니 몸에 검은 피 석달 열흘...』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으냐』

벼락같은 용왕의 고향소리에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무쇠상자의 문이 철커덕 닫히고 말았다.

정월 초아흐렛 날 무쇠상자가 동해바다에 띄워지니 물속에서 3년, 물위로 올라와서도 3년, 물가에 닿아서도 3년, 꼬박 아홉 해를 헤매었다. 작은 너울 큰 너울에 휩쓸려 하염없이 떠다니던 상자는 금백산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큰 파도가 치자 비로소 육지에 올려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물상자인 줄 알고 뜯어보았더니 보물은 보물인데 웬 아리따운 아가씨가 앉아 있었다. 열여덟 살이 된 동해용왕따님아기였다. 앞이마는 햇님이요 뒷이마는 달님이었다. 두 어깨에는 온하수 별빛들이 오송송이 박인듯한 아기씨였다.

『너는 귀신이나 사람이나』

『어찌 귀신이겠습니까. 나는 동해용왕 딸로서 인간에 생불왕이 없다하니 생불왕이 되려 왔습니다』

이때부터 아기씨는 동서남북 사해팔방(四海八方) 이십사 방 산천(山川) 해상(海上)도중(道中)으로 돌아다니면서 집에서건 물에서건 산중에서건 들에서건 아무데서나 생불을 주었다.

젊은 아가씨들은 들판에서 놀다가 느닷없이 애를 배어 망신살이 뻗었다. 제대로 임신한 부인이라도 석 달이 지나면 유산이 됐다. 일곱 달 만에 아이를 낳기도 하고 팔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또 어떤 부인들은 열두 달, 스물네 달이 지나가도 아이를 못 낳아 꿈꿨대었다. 어디로 낳아야 될 지도 몰라 옆구리며 배를 마구 찌어 아이는 못 낳고 부인들의 목숨만 위태로워 졌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들이니 제대로 자랄 리도 없었다. 어찌다 제 때 태어난 아기라도 기를 줄을 모르니 자라면서 불량배가 되는가 하면 부자·형제간 불목하고 심술이 많았다.

하는 모양이 모두 동해용왕따님아기 아홉 세까지 부모슬하에서 한 행동을 그대로 닮아왔다. 그러니 인간 세상이 복잡해지고 부인들은 견딜 수가 없어졌다.

일을 벌여 놓은 따님아기는 감당할 수가 없어지자 연못가의 수양버들 나무 밑으로 달려가 앉아 비새(雨鳥)처럼 울고 있었다.

3-6-1 삼승할망(용왕따님)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중명, 1997. pp.77-81.

금백산 대사중이 시주를 받으러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집집마다 돌아다녀도 누구하나 내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일이고』

하고 집안을 잘 살펴보니 아기 죽어서 우는 부인, 유산돼서 고통하는 부인, 형제간에 싸움하여 피 흘리는 가정, 부자간에 불화한 가정, 제삿날에 친족들이 싸우는 가정, 집들이 딸이 아니었다.

금백산 대사님은 어이가 없어서 절로 돌아와서 석불법전에 문안을 드렸다. 석불님은 다시 천지왕에게 모든 이야기를 올리니 하늘 궁전에서 간담회의가 열렸다.

『저승에나 인간에나 어느 누구 인간에 생불왕으로 들어 설만한 이가 없겠느냐』

지부사천왕(地府四天王)이 말을 하되,

『인간에 명진국따님아기가 있는데 탄생일을 보니 병인년 병인월 병인일 병인시 정월 초사흘날입니다. 부모에 효심하고 일가 화목하니 이 아기씨를 생불왕으로 들여세우는 게 어떻습니까』

『그도 그럴 듯하다』

천지왕옥황상제가 사자를 명진국에 보내 아기씨를 데려오도록 했다.

명진국따님아기가 노각성자부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옥황상제가 떠보느라고 『총각머리 등에 진 처녀가 어찌 대청 한가운데로 들어오느냐』

하고 야단을 쳤다.

명진국따님아기 말을 하되

『남자 여자 구별이 있는데 어쩐 일로 총각머리 등에 진 처녀를 부릅디가』

『똑똑하고 당차구나. 그만하면 생불왕으로 들어설만 하다』

옥황상제가 앞뒤 사정애기를 하고 생불왕으로 내려가라고 말했다.

『옥황상제님아 철도 때도 모르는 미숙한 소녀가 어찌 생불을 주고 환생을 줍니까』

『아비 몸에 흰 피 설달 열흘, 애미 몸에 검은 피 석달 열흘, 살 살려 석달, 뼈 살려 석달, 아홉달, 열달 준삭(準朔) 채워 아기엄마 늦추인 뼈 당기고 빠듯한 뼈 늦춰 열두 궁문(宮門)으로 해복시켜라』

이렇게 해서 명진국따님아기는 족두리를 쓰고 남색 저고리에 환색 바지, 자주색 치마에 물색 명주속곳을 입고 한 손에는 번성꽃, 한 손에는 환생꽃을 들고 사월 초파일날 청구름,

백구름, 노각성자부줄을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사해(四海)를 다 돌아다니다가 골목으로 들어서니 어떤 비슬이 초막에서 용쓰는 소리가 들렸다. 참문사이로 보니 배가 항아리만한 가난한 아낙네가 례 문고리를 잡고 『날 살려줍서』 하며 울고 있었다.

명진아씨는 여인이 불쌍하여 들어가서

『몇 삭이나』

물으니

『준삭이 지났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열두 궁문을 열어서 아기를 해산시키고 목욕단장까지 시키노라니 구삼승할망이 이를 보고 달려들었다.

『내가 뿌린 썬데 어느 년이 거뒀들이느냐. 요년 나 한테 맞아봐라』

구삼승할망은 명진아씨를 마구 때려 싸움이 났다.

명진아씨는 금백산에 올라가서 하소연했다.

『생불할망은 하나외에는 필요없습니다. 인간에 생불할망이 있는데 무슨 일로 저를 다시 보냈습니까』

옥황상제는 신·구삼승할망을 불러다놓고 꽃을 나눠주고 말을 하되

『인간에 정해진 자는 꽃이 충도 안먹고 싱싱하여 예쁘게 피고 열매가 여느니라』
했다.

구할망의 꽃이 먼저 피었으나 금방 시들고 충이 먹었다. 명진아씨의 꽃은 늦게 피었으나 점차 무성해져 4만5천6백가지로 번성했다.

구할망은 화가 나서

『옥황상제님아 인간에서 제가 먼저 무수한 고생을 하면서 초벌 잡초를 다 매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해 봐라. 동으로 뻗은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동가지 서가지 남가지 북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기 씨를 놓을 적에 어떤 데서 놓겠느냐』

『나이 젊은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동하면 아무데서나 씨를 놓습니다』

『몇 개월을 잉태시키겠느냐』

『바쁘면 삼·사개 월, 늦으면 십이 개월입니다』

『해산하면 아기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배꼽줄을 북 뜯어서...』

『그만두어라』

구할망의 무지에 역정이 난 천지왕은 이번에는 명진아씨에게 물었다. 꽃 사발을 살펴보니 명진아씨의 꽃사발은 가지가지 번성하고 열매가 무성하여 벌써 가을이었다.

『동으로 뻗친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동청목(東靑木)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놓을 때 어떤 데에서 놓겠느냐』

『반드시 집안에서 남 모르게 놓겠습니다』

『몇 개월을 잉태시키겠느냐』

『보통 9개월7일, 늦어도 십 개월에 탄생시키겠습니다』

『탄생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열두 신(身)뻘를 주물러주고 아기낳는 어명보다 해산시키는 제가 땀흘리며 궁문을 열고 아기를 낼 적에 자세히 살펴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면 부자가 될 것이고 서쪽이면 가난하고 남쪽이면 장수하고 북쪽이면 단명할 것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우선 가위로 배꼽줄을 새치반으로 끊어 명실로 매고 목욕시킨 후 삼일간을 두어서 아기 젖을 내려주면 좋을 듯합니다』

『그 일을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인간세계는 원래 넓고 커서 혼자로는 담당할 수 없을 듯합니다. 구덕할망, 엄개할망, 뉘할망, 침하르방, 골고루 갖춰서 인간에 보내야 옳을 듯합니다』

『잘 알았소. 동해용왕따님아기는 서천꽃밭으로 보내라』

시험에 합격한 명진아씨가 삼승할망이 됐는데 구삼승할망이 반발을 했다.

『저는 싫습니다. 인간세계 공이 들고 정이 들었습니다. 저가 공이 든 세계니 틈틈이 돌아와서 상받아 먹겠습니다』

『그거는 정든 땅이니 배고프면 돌아보시오』

이렇게 해서 삼승할망은 어린이의 산육을 맡게 되고, 아이들의 탄생과 살았을 동안의 생명은 삼승할망이 차지하고 죽은 아이들의 영혼은 구삼승할망이 차지하게 됐다.

[해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바다가 인류의 본향이며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원고향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 신화는 제주 섬 주민의 풍부한 바다에 대한 상식을 나타내고 있어 흥미롭다.

바다에서 태어나 섬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제주 섬 주민만이 구사할 수 있는 신화이다.

이렇듯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죽는 과정에 남의 도움이 절실함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기도 할뿐더러 육아의 성스러움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이 신화의 표현 속에는 제주의 역사가 은근슬쩍 숨어 있어 있다.

“삼승할망인 명진국따님아기가 태어난 시기는 ‘병인년 병인월 병인일’이다. 천지가 열리던 것이 갑자년 갑자월이고, 고·양·부씨가 도읍하던 것이 을축년 을축월이었다. 그러므로 삼승할망의 출현은 천지개벽과 나라가 형성된 다음의 세번째 단계로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라고 이 신화를 해설한 원본의 저자는 그 숨은 역사에 대한 답을 찾아 놓고 있다.

이 신화는 단지 육아에 대한 과정 뿐 아니라 제주 역사, 제주 섬주민의 해양 지식 등을 수수끼쳐처럼 서술하고 있어 현 시대에 이어도를 찾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해내고 있다.

3-7 물의 신 궤네깃도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증명, 1997. pp.301-305.

[본문]

금백조와 소로소천국의 여섯번째 아들 궤네깃도를 태운 무쇠상자는 용왕국으로 내려가 산호나무 가지에 걸렸다.

평화롭고 조용했던 용왕국에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이변이 생겼다. 낮에는 웬 통소소리가 바다속에서 들리고 밤이 되도 날이 어둡지를 않았다.

용왕이 이상히 생각하고 큰 딸을 불러 말했다.

『큰 딸아기야, 나가봐라. 웬 조화냐』

큰 딸이 나가 봤으나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도 이변은 계속됐다.

『둘째 딸 아기가 나가 봐라』

이번에도 아무 것도 보이질 않았다.

『셋째 딸 아기가 나가 봐라』

막내딸이 나가 봤더니 산호나무 가지에 무쇠상자가 걸려 있는 게 보였다.

『산호수 상가지에 웬 상자가 걸려 있습니다』

용왕은 이번에도 차례대로 시켰다.

『큰 딸아기가 상자를 내려봐라』

큰 딸과 둘째 딸이 내리려고 힘을 써 봤으나 꿈쩍도 안 했다. 그런데 막내딸이 상자를 드니 가뿐하게 들렸다.

상자는 옮겼는데 이번에는 여는 것이 문제였다. 큰 딸과 둘째 딸이 상자를 열려고 해 봤으나 뚜껑은 열리지 않았다. 작은 딸이 꽃당혜를 신은 발로 세 번 돌아가며 툭툭 차자 무쇠상자가 스프르 열렸다.

상자 속에는 옥같은 도령이 책을 한아름 받아 안고 붓과 벼루를 옆에 놓고 앉아 있었다. 용왕국 대왕이 딸을 곁었다.

『어느 국에 사느냐』

『조선 남방국 제주도에 삽니다』

『어찌 하여 왔느냐』

『강남천자국에 국난이 났다 해서 세변을 막으려 가다가 풍파에 밀려 왔습니다』

궤네깃도가 거짓말을 했는데 용왕은 이 자가 천하의 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위로 맞아들이기로 했다. 연회를 베푼 용왕이 딸들을 선보였는데 큰 딸·작은 딸을 선보일 때까지 아무말이 없던 궤네깃도가 셋째 딸이 나타나자 허우 덩씩 웃었다.

작은 딸 방으로 들어 간 궤네깃도는 칠첩 반상기에 융숭하게 식사를 대접해도 먹지를 않았다.

『조선국 장수님은 무슨 음식을 잡습니까』

『우리나라는 나라는 작지만 돼지도 잡으면 통째로 먹고 소를 잡아도 통째로 먹는 법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용왕은

『사위 하나 못 먹이라』

싫은 생각이 들어 그대로 대접하게 했다.

케네깃도가 시도 때도 없이 소와 돼지를 잡아 먹으니 하루에 75마리의 소·돼지가 없어졌다. 창고가 점점 비어서 아무리 풍족한 용왕국이라도 견디낼 재간이 없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나라가 망할 판이었다. 케네깃도의 왕성한 식욕을 견디다 못한 용왕은 두 내외를 내쫓아버리기로 했다. 무쇠상자를 만든 용왕은 자기의 딸도 함께 넣어 띄워버렸다.

『여자라 한 것은 출가외인이니 남편 따라 나가거라』

무쇠 상자는 강남천자국의 흰 모래 사장으로 떠올랐다. 그날부터 강남천자국에도 풍운조화가 일기 시작했다. 낮에는 큰 소리로 글 읽는 소리가 들리고 밤에는 불이 흰하게 밝혀졌다. 천자가 점장이를 불러 점을 치도록 했다.

『천하 명장이 천자국을 도우러 온 듯 합니다』

마침 천자국에서는 남·북적이 강성하여 국경을 침범하려는 참이었다.

점장이의 말을 들은 천자는 사모관대를 하고 북향사배하여 상자의 문을 열었다.

상자에서 나온 케네깃도는 무쇠 투구·갑옷에 언월도, 비수검과 나무활, 기치창검을 받고 군졸을 거느려 싸움판으로 나갔다. 첫 번째 나가서는 머리가 둘 달린 장수를 죽이고 두 번째 나가서는 머리가 셋 달린 장수의 목을 베었다. 세 번째 나가 머리가 넷 달린 적의 장수를 쳐부수니 다시는 대항할 장수가 없었다.

감격한 천자가 군신들을 모아놓고 포상을 하려고 했다.

『천하에 없는 장수로다. 땅 한 조각, 물 한조각을 배어드릴 테니 땅세·국세를 받아먹고 사십시오』

『아닙니다』

『그러면 천금의 상을 내리고 만호후(萬戶侯)를 봉하리다』

『그도 마외다』

『그러면 소원을 말하십시오』

『소장은 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관솔을 베어 전선 한 척을 짓고 산호수와 양식을 한 배 가득 싣고 군졸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경상도 칠십칠 관, 전라도 오십삼 관을 지나 일 제주, 이 거제(巨濟), 삼 남해(南海), 사 진도(珍島), 오 강화(江華), 육 완도(莞島) 섬을 돌아 제주도로 돌아왔다.

마침 썰물을 만나서 소섬(牛島) 「진질각」 해안으로 배를 대었다. 소섬의 모래사장으로 올라가서 둘러보니 말이나 소만 키울 만한 곳이었다.

본섬으로 올라 와 종달리에 오고 보니 소금이 가득하여 염전이나 해 먹을 곳이었다. 들판을 거슬러 올라 비자림에 올라가서 대포를 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송당리에 있던 아버지 소천국과 어머니 백주또가 포소리에 깜짝 놀라 하녀를 불렀다.

『어찌하여 방포 일성이 크게 나느냐?』

『세 살 난 때 죽으라고 무쇠상자에 담아 띄워버린 아드님이 아버지를 치러 들어옵니다』 하고 고했다.

『그 새에 무쇠상자가 다 녹아 없어졌을 터인데, 여섯째 아들놈이 살아올 리가 있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 소리를 내며 여섯째 아들 케네깃도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알송당[下松堂] 고부니마을로 도망가다 죽어 신이 되고, 어머니는 겁이 나서 도망치다가 웃손당[上松堂] 당오름에 가서 죽어 당신(堂神)이 되어 매해 정월 열

사흔 날 제사를 받아먹게 됐다.

[해설]

자식을 무쇠상자에 넣어 바다에 띄웠다는 것은 전형적인 신화 해석에 따르면 '죽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만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신화의 요점은 케네깃또가 물에 빠졌는데 용왕국에 이르러 왕의 신임을 얻고는 공주와 결혼하여 고향 제주도로 귀향하는 것이다. 즉 성공한 남자의 무용담인 셈이다.

케네깃또라는 이름의 의미는 '커다란 동굴에 사는 높은 사람'이란 뜻이다.

지금 전설에 의하여 큰 뱀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김녕리의 '사굴'의 원래 명칭이 '케네기 당'이다. 이 신화의 주인공이 그 당의 신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제주 사람들은 높은 사람을 일컫거나 신위를 말할 때 '도'(제주 지역어의 발음 상 된소리또가 된 것임)라고 한다.

이렇게 추론한 결과로 미뤄 보면, 김녕사굴이 오랜 옛날에는 왕궁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어느 시점부터 제주의 신화들에는 제주의 사람들이 용왕국에 갔다가 성공하여 돌아와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들이 수많이 등장하고 있다.

제주도와 중국 사이 서해상에는 유인도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라. 제주사람이 갔던 그 용왕국은 어디일까. 대부분은 중국 아니면 오키나와 열도의 어디라고 막연하게 상상한다.

그보다는 서해에 대하여 1만년 혹은 2만 년 전 풍경도 상상해 봄직하다. 상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모습의 서해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남서해의 중간에 자리 잡았던 또 하나의 제주섬 이어도가 수증화산활동에 의하여 그 일부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형태가 다소 달라져 버렸을 것이다. 아직은 사람이 살만한 그런 땅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원풍경(原風景, original landscape)이 배경이 되어 훌륭한 지도자에 대한 신화는 탄생했고 대를 물리면서 그 역사를 구비전승하는 과정에서 이어도가 용왕국으로 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도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다. 그 성장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듯 은유적인 표현으로 변용을 시도해버린다.

이 신화를 채집하여 정리한 원본의 저자도 그 해설에,

“신화 속에서 물에 가라앉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삶으로 되살아나는 일종의 통과례이다. 그래서 케네깃또가 상자에서 나올 때는 어린 소년이 아닌 성장한 남자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용왕국으로 변한 이어도가 완전히 물속으로 잠긴 그 때는 언제쯤이었을까, 끊임없이 상상을 해본다.

3-8 백중이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중명, 1997. pp.353-356.

[본문]

옥황상제가 천지운행과 일기를 좌우하였지만 비를 내리는 것은 용왕들의 권능이었다. 그래서 비를 내릴 때가 되면 옥황상제가 용왕들에게 요청을 하여 그대로 비가 내리곤 했다.

사해(四海)에 용왕이 모두 있었는데 동쪽 바다에는 광덕(廣德)요왕, 서쪽 바다에는 광신(廣神)요왕, 남쪽 바다에는 광청(廣靑)요왕, 북쪽 바다에는 흑(黑)요왕이 살았다.

옥황상제의 지시는 밤에 내려지는데 그 말을 매년 용왕의 사자인 거북이 '부원군'이 용왕에게 전달하곤 했다.

거북사자는 바다 일을 관장하여 어선이나 운반선 각종 배의 운을 좌우했고 잠수들의 바다 일을 도와 굶은 일이 있게도 하고 막아주기도 했으며 일하는데 편하게 물길을 터주기도 하는가하면 바다에 빠져 죽는 자의 영혼을 인도하기도 했다.

거북사자는 위엄을 보이기 위해 배 앞에 임금 왕(王)자를 새기고 등 뒤에는 날 용(勇)자를 달고 다닌다.

모습은 의젓한데 머리는 작아서 가끔 멍청한 짓을 하기가 일쑤였다.

인간 세상에는 그 때 백중이라는 목동이 살고 있었다. 낮에는 산에서 소·말들을 방목하고 밤에는 바닷가로 내려와 가축들을 지키곤 했다.

어느 날 밤 그 날도 백중이는 바닷가에 내려와 있다가 옥황상제가 용왕의 사자 거북이에게 비를 내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말았다.

『요왕, 요왕』

옥황상제가 바다를 향해 용왕을 부른 후 거북이가 나타나자 말했다.

『이 마을에는 비를 다섯 자 오 치를 주어 흘러넘치게 하고 저 들판에는 햇빛이 쨍쨍하여 날이 좋도록 하시오』

백중이가 가만히 었들자니 자기가 있는 마을에 큰 비가 내려 다 죽게 될 판이었다. 다섯 자 오 치의 비가 내리면 사람이고 집이고 말이고 곡식이고 모두 물에 잠겨 버리고 말 터였다.

피를 낸 백중이는 옥황상제가 올라가기를 기다려 그 목소리를 흉내 내어 용왕을 다시 불렀다.

『요왕, 요왕』

용궁 깊은 곳으로 돌아가던 거북사자 부원군이 무슨 일이고 하여 다시 물 위로 돌아왔다.

『아까는 내가 잘못 말했소. 저 들판에는 다섯 자 오치 풍우대작(風雨大作)하고 이 마을에는 날도 좋고 시절도 좋게 하시오』

원래 어눌한데다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었던 거북이는 옥황상제가 말하는 줄만 알고 그대로 용왕에게 고했다.

다음날 먼들에는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어 큰 물난리가 났지만 마을 인근에는 날이 맑고 시절이 좋았다.

밤에 바닷가를 지키던 백중아가 옥황상제가 마을로 피해를 주려고 할 때마다 저지를 하니 마을에 육축은 번성하고 사람들은 난리를 겪는 일이 없이 평안히 살았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보면 들통이 나게 마련이다.

옥황상제가 지상을 내려 보다가 번번이 자기가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게 됐다.

화가 난 옥황상제가 용왕을 불러 야단을 쳤으나 용왕도 영문 모를 일이었다.

그 날 밤 옥황상제는 다시 내려와서 거북사자에게 『비를 내리라』 하고 지시를 하고는 올라가는 척 하면서 몰래 숨어서 봤다.

목동인 백중이가 엿보고 있다가 나와 자신의 말을 거꾸로 하는 게 아닌가.

『허, 거 몹쓸 놈이로고.』

옥황상제는 벼락장군을 불러 번개를 쳐서 백중이를 처벌하도록 했다.

사람들은 백중이의 죽음을 슬퍼하여 매해 제사를 지내게 됐다. 백중이가 음력 7월 보름날 벼락을 맞아 죽었기 때문에 제사는 그 전날인 7월 14일에 지내 백중이의 혼을 위로하고 우마의 번성을 기원하여 목축신으로 섬겼다.

이에서 비롯되어 「백중날」 밤에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물맞이를 가는 풍습도 생겼다.

말을 목장에서 방목하는 사람들은 이날만은 목장으로 올라가서 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백중이가 썼던 말고삐를 제사상 위에 올려 제사를 지내곤 했다.

마을에서 지내는 백중제의는 많이 남았으나 목장에서 지내는 백중제의 전통은 오랜 세월을 흘러 내려오고 있으나 지금은 거의 없어져서 제주시 회천(回泉)동 등 일부 마을의 공동목장에서만 희귀하게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해설]

위 본문의

“사해(四海)에 용왕이 모두 있었는데 동쪽 바다에는 광덕(廣德)요왕, 서쪽 바다에는 광신(廣神)요왕, 남쪽 바다에는 광청(廣靑)요왕, 북쪽 바다에는 흑(黑)요왕이 살았다. 옥황상제의 지시는 밤에 내려지는데 그 말을 매번 용왕의 사자인 거북이 ‘부원군’이 용왕에게 전달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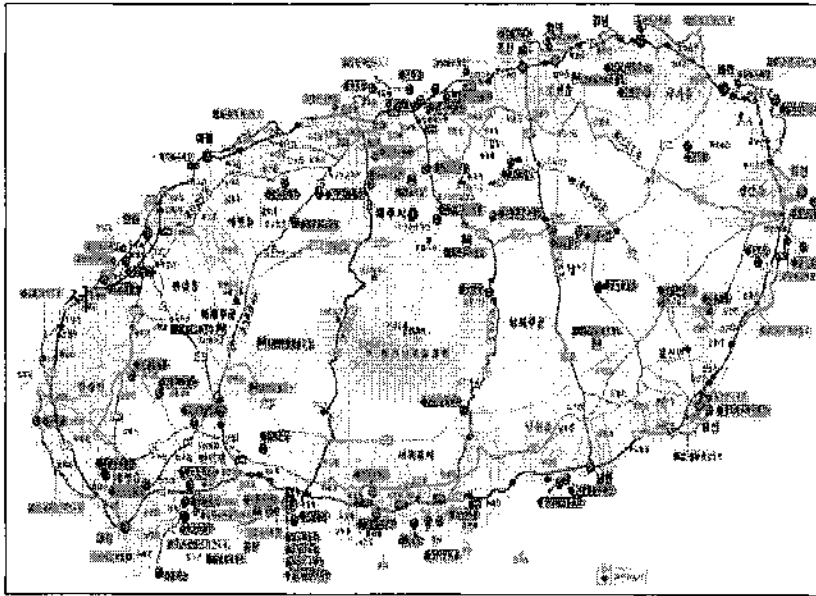
거북사자는 바다 일을 관장하여 어선이나 운반선 각종 배의 운을 좌우했고 잠수들의 바다 일을 도와 굶은 일이 있게도 하고 막아주기도 했으며 일하는데 편하게 물길을 터주기도 하는가하면 바다에 빠져 죽는 자의 영혼을 인도하기도 했다.

거북사자는 위엄을 보이기 위해 배 앞에 임금 왕(王)자를 새기고 등 뒤에는 날 용(勇)자를 달고 다닌다. 모습은 의젓한데 머리는 작아서 가끔 멍청한 짓을 하기가 일쑤였다.”
라고 서술한 대목은 이어도 해역을 제주 섬주민이 잘 숙지하고 있다는 해양지식 차원에서 해학적으로 바다의 상황, 특히 해류의 이동을 풍자한 표현으로 매우 재미있다.

바다의 상황은 육지에 사는 인간에게는 지금도 흥미로운 자연현상 중의 하나이다.

동쪽바다의 해류는 해변 위로 그리 날뛰지 않고 바다 깊이 흐른다는 뜻에서 광덕(廣德)요왕(용왕)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서해의 다소 탁하면서도 장엄한 느낌을 표출하는 물흐름이 광신(廣神)요왕이라는 이름을 낳았다. 또한 남해는 그 물빛이 맑아 광청(廣靑)요왕, 북해에 물결이며 그 색깔이 짙은 청색을 띤 것이 검게 보이니 흑(黑)요왕이라 칭하였다.

여기에서 동서남북 방향의 표시는 한반도 육지부의 방향 인식과는 다소 다르다.



남

위 지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섬의 방향 체계는 육지부와는 다소 다르다. 육지부의 남쪽이 제주섬에서는 북쪽이 된다. 육지부의 동해가 강원도 앞 바다인데 반해 제주섬의 동해는 성산 앞바다를 일컫는다.

이어도 해양종합기자가 자리 잡은 대해는 제주섬에서 보면 그 방향은 동남쪽 방향이다.

이러한 제주 섬주민의 방향인식과 주변 바다의 물흐름인 해류(조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표출된 결과가 위 신화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사시사철 제주섬을 감싸고 도는 해류는 제주 섬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봄은 남동해로 치올라 오는 대마난류가 가져다 준다. 이 해류는 반드시 이어도 해양기지를 곧추 휩쓸어 제주 섬으로 올라와 모슬포(대정) 앞 바다에서 양쪽으로 나누어지면서 한 줄기는 서북방향에서 북쪽으로, 다른 한 줄기는 남동방향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그럼으로 해류는 제주 섬살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는 농경이 이에 달렸기도 하였다. 아래 덧붙인 해설은 위 신화의 원본에 붙어 있는 원저자의 서술이다. 제주섬의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원본해설]

제주섬에는 만물의 기가 가장 왕성해지는 음력 7월 보름을 앞두고 「백중제」를 치르거나 「백중」과 관련된 갖가지 풍습이 남아있다.

백중제는 「마불림제」라고도 한다. 「마불림」이라는 말의 뜻은 ‘장마 때 집안에 찬 습기를 제거한다’는 뜻과 ‘말(馬)을 불린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이때가 되면 두 종류의 풍습이 모두 벌어지는데 집안의 이불·의복등속이나 신당(神堂)에서 제를 치를 때 쓰이는 물색 옷을 꺼내 말린다. 또 제의를 지내면서 육축의 번성을 기원하기도 한다.

백중이라는 목동의 신화는 이러한 제의의 유래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 신화도 구전자에 따라 다르게 전해지고 있다.

구좌읍 김녕리 인근에서는 목동 '백중'이 원래 비의 신이었으나 옥황상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벌을 받고 그 이후로는 용왕이 (직접) 비의 신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곳에서는 백중이가 벌을 받기 전에 물에 빠져 자살했다고도 한다.

차귀마을(현재의 한경(翰京)면 고산(高山)리)에서는 '백중'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을의 신당을 설립한 목동 「법성」의 이야기인 것으로 전래된다.

이 곳에서는 또 이 신화에 따라 '차귀본향놀이'라는 민속놀이가 전래되고 있다. 놀이의 내용은 목동인 법성과 거북이가 용왕을 농락하는 것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놀이였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모두 같은 주제에서 변이된 신화로 보인다.

(제주 섬에는) 목축신은 둘이 있다. 우리는 농경신 '자청비'의 신화에서 머슴인 정수남도 목축신이 됐음을 알고 있다. 두 신들의 차이는 '백중'이 목축시대의 신이라면 '정수남'은 농경시대의 목축신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다.

제주시 동회천(東回泉)마을에는 아직도 공동목장에서 제의를 지내는 관습이 남아있다. 이 마을의 축산농가 주민들은 7월14일이면 마을공동목장으로 올라간다. '백중'이 목동이였기 때문에 제의는 (제주의 전통) 목동인 '테우리'가 제관이 되어 치른다.

'백중제'는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 '한가위'보다 더 제주적인 마을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3-9 성주 안신국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증명, 1997. pp.367-369.

[본문]

성주 안신국은 집은 맨 처음 지은 신이었으며 인간들에게 집 짓는 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 집을 지을 때마다 성주신(城主神)에게 제의를 지내 고마움을 표하고 새 집에서는 굿은 일이 없도록 기원하곤 했다.

안신국은 하늘나라 천궁대왕과 땅 위의 옥지부인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스물일곱 살 나던 해에 두 살 위인 부인 귀아시와 결혼했다. 부부가 화목하여 그 사이에서 아들이 다섯 형제, 딸이 다섯 형제 태어났다.

결혼한 후 소나무 씨를 받아 해동국 안동 땅에 와서 큰 산, 작은 산에 모두 씨를 뿌려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예는 일곱이 되서 안동땅으로 돌아와 보니 그 때 뿌렸던 소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울창한 숲이 돼 있었다.

안동땅의 백도래밭으로 간 안신국은 열두 가지 연장을 만들어 큰 나무들을 베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 집을 지었다.

집이 다 되자 안신국은 상(上)성주신으로 들어서고, 큰 아들은 동쪽 성주로 금성을 맡고, 둘째 아들은 서쪽 성주로 화성을 맡고, 셋째 아들은 남방 성주로 목성을 맡고, 넷째 아들은 북방으로 수성을 맡고, 다섯째 아들은 중앙으로 토성을 맡았다.

성주신들이 좌정해서 그 집안에는 화재가 일어나거나 홍수에 휩쓸리는 재앙으로부터 집을 보호했다.

다섯 딸들도 각각 집의 조상신들이 됐다.

이들이 돌보는 집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가 됐다. 소도 새끼를 낳으면 황소를 낳고, 말이 새끼를 낳으면 역마(驛馬)가 되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영주(英走), 닭이 새끼를 낳으면 봉황이 됐다.

안신국이 집을 지을 때 썼던 일 잘하는 목수가 '강태공서목수'였다. 강태공서목수는 도술에도 능했는데 한 곳에 살지 못하는 성격이라 이 산 저 산으로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신이었다.

[해설]

이 신화는 얼핏 봐서는 이어도와 명 관계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세심히 살펴보면 제주 섬주민이 이어도를 넘나들었던 고대 사회를 엿볼 만한 답이 들어 있다. 바로 신화의 원문에 나타나는 집 잘 짓는 목수 '강태공서목수'가 그 열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낚시질로 소일하거나 낚시로 고기를 잘 잡는 이를 가리켜 '강태공'이라고 일컫는다. 그 별명의 시원이 바로 이 신화이다.

강태공은 사실 "중국 주(周)나라 초기의 명재상 태공망(太公望)의 별칭이다. 그는 초야에 묻혀 낚시질을 하며 소일하다가 주나라 무왕의 발탁으로 세상에 나와 음학무도(淫虐無道)한 궁중생활을 하고 학정을 펼쳤던 은나라 왕을 토벌하고 주나라를 세웠다는 인물이다. 업적이 하도 뛰어나서 후대에 소설화된 「강태공전」에서는 그가 온갖 도술을 펼쳐 은나라를 멸망시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처럼 도술사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 신화에서는 신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원문해설에서)

이 강태공의 신화는 육지부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위 신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주신은 육지에서 먼저 발상하였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제주 섬은 기후가 온화하고 바위그늘, 동굴 등 집자리가 많아 제주 가옥 건축사로 보면 건축에 의한 건축물로서의 집은 가장 나중에 나타났다고 봐진다.

제주 섬주민이 고대로부터 능숙하게 중국을 드나들면서 왜 강태공과 같은 이가 제주신화에 가장 늦게 나타난 점을 이해했을 것이다.

오랜 옛적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아가며 인지하는 과정은 거의 같다.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거나 가장 낮은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특이하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어도의 존재도 제주 섬주민에게는 잘 알려진 곳인 동시에 섬을 떠나지 않으면 직접 접할 수 없는 낮은 땅이었기에 그에 대한 표출도 매우 이중적인 것이다.

3-10 윤 동지와 신 조름이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중명, 1997. pp.370-371.

[본문]

바다에서 올라 온 미륵신으로 어로생활을 하는 주민들을 잘 살게 해 주는 돌미륵이 있었다.

옛날 제주시 화북(禾北)마을에 사는 윤 동지는 상선(上船)도 아홉, 중선(中船)도 아홉이나 되는 부자 선주였다.

윤 동지는 힘이 장사인 「신 조룡이」를 종으로 부렸다. 신 조룡이는 날이 좋으면 한 쪽 손에 배 하나씩을 들고 바다로 내려놓아 고기 잡으러 나가고 날이 꺾어지려고 하면 한 어께에 배 하나씩 매고 개말 위로 올려놓아 폭풍에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했다.

하루는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낚으려고 낚싯줄을 바다에 들이치고 있었다.

낚싯줄이 팽팽히 당겨져서 큰 고기인 줄 알고 열심히 끌어올렸더니 고기가 아니라 눈도 없고 코도 없는 큰 돌미룩이었다.

낚싯줄을 떼어내고 그 돌미룩을 바다에 던져 넣고는 다시 낚싯줄을 들이치면 또 그 돌미룩이 걸려 올라오곤 했다.

한나절을 이렇게 되풀이 하다가 이상하게 생각한 윤 동지는 그 돌을 싣고 화북포구로 돌아와 선창에 올려놓고 다시 고기잡이를 나갔다. 그 때부터는 고기가 많이 잡혔다.

미룩 돌을 선창에 던져 놓은 윤 동지는 그 후 까마득히 그 돌을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병이 들었다. 얼굴이 허물어지고 피부가 갈라지는 병이었다.

갖가지 약을 써도 낫지를 않아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 문점을 했다. 요왕(바다)으로 올라 온 은진 미룩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 때야 바닷가에 버렸던 돌덩어리를 생각해 낸 윤 동지가 그 곳으로 나가보니 큰 미룩돌이 아무렇게나 내버려져서 몹시 더럽고 금이 가 있었다.

윤 동지는 그 돌을 마을 입구로 옮겨 굿을 하고 제사를 지냈다. 그 후로는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과세를 하고 수호신으로 모셨는데 그 때부터는 윤 동지 집안에 궂은 일이 생기지 않고 큰 부자로 살게 됐다고 한다.

신 조룡이가 죽자 마을주민들은 그 미룩 돌 옆에 신 조룡이의 형상을 한 돌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제를 지내게 됐다.

[해설]

먼 인도에서 발상한 불교가 한반도에는 육로로 전해진 과정이 뚜렷하다. 그러나 제주섬에는 바닷길을 따라 전해졌다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이 신화는 그 과정을 매우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주에는 불상을 바다에서 건졌다는 이야기가 아주 흔하게 널려 있다. 실제로 어부 혹은 해녀(잠수)들에 의하여 불상이 건져 올리기도 했다.

이 신화에서 묘사된 내용은 실제로 건져 올린 불상 이야기라기보다는 ‘부처님 입멸 후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나 중생을 구원한다는 미륵불’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본다.

예전, 바다를 근거로 공무를 수행하던 제주 섬주민에게 있어 바다의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삶터이기도 했다.

‘동중국해사단항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섬주민은 능숙하게 서해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넘나들면서 삶을 영위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바닷길을 잃고 다른 나라 땅에 표착하기도 하였다.

제주 섬주민에게 있어 미래지향적인 미륵신앙은 바닷길을 통하여 유입된 가장 낙관적인 외래신앙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 해상에 놓인 이어도의 존재는 제주 섬주민에게는 서양에서 일컬어지던 유토피아나 천국보다도 더 소망하고픈 삶터로 각인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3-11 영등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중명, 1997. pp.233-237.

[본문]

봄바람의 신인 영등대왕은 난파당한 어부들을 구해 준 고마운 신이었다.

제주에 봄이 오게 된 것은 영등대왕이 사람들을 위해 죽은 후부터였다고 한다.

영등대왕은 원래 성은 황 씨요 이름은 영등이었는데 무휴(無)에서 솟아났으며 민간 사람도 아니고 저승사람도 아니고 바다인 요왕[龍王]의 사람도 아니었다.

영등은 바다 깊은 곳에서 동정국의 아기씨와 서정국부인의 서녀(庶女)와 놀기를 즐겨했다.

음력 2월이 가까운 어느 추운 날 큰 고동나팔을 불며 놀고 있었는데 바다 위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영등이 황급히 바다 위로 올라 와 보니 한림(翰林)읍 한수(翰洙)리의 어부들이 탄 배가 풍랑에 휩쓸려 사람을 잡아먹는 외눈박이 거인들의 땅으로 떠밀려 가고 있었다.

그것을 본 영등대왕은

『저 사람들을 구제해서 살려야 한다.』

소리쳤다. 큰 바위 위에 올라앉은 영등은 배를 인도하여 동굴처럼 움푹 패인 바위 밑으로 숨겼다.

선원들이 배를 바위 밑에 대고 바람을 피하고 있으려니까 외눈박이들이 그 곳에 도착했다.

『금방 좋은 요깃거리가 이리로 불려 왔는데 어디로 갔느냐』

『무슨 소리냐. 나도 그런 걸 찾으려고 나와 앉았는데 아무 것도 못 봤다』

영등대왕이 시치미를 떼자 그들은 할 수 없이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다. 외눈박이들이 돌아간 후 영등은 어부들에게 배를 내어 놓아 보내며,

『이 배를 타고 가면서 ‘가남보살(觀音菩薩), 가남보살’을 외우며 가라』

하였다. 배의 뒤로는 순풍을 보내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외눈박이 땅을 떠나 한수리 가까이 온 어부들은 마을 앞 ‘한곶’이 보이자 안도하였다.

『고향에 다 왔는데 가남보살을 안 외운들 이제야 무슨 관계가 있으랴』

뜻을 내린 어부들은 한가히 배를 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가남보살, 가남보살” 소리를 그 만든 직후부터 홀연히 광풍이 불어 와 그들을 다시 외눈박이 땅으로 불려 보내고 말았다.

『아이고, 대왕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때 내가 뭐라고 하였더냐...』

영등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일은 이미 그르쳐 버린 걸 어찌랴.

『이번에 가면 ‘한곶’이 보여도 ‘가남보살, 가남보살’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후에도 영등달 초하룻날은 나를 기억해라』

한수리 어부들은 무사히 고향에 도착했다.

어부들의 냄새를 맡은 외눈박이들은 이번에는 개를 데리고 나타났다. 영등이 탄전을 피웠으나 외눈박이들은 속지 않고 그를 세 도막으로 찢어 죽여 바다에 던져버렸다.

영등의 다리는 한수리 ‘빚골물’바다로 올라왔고 잔등은 지금의 성산(城山)인 ‘청산’으로, 머리는 우도(牛島)로 떠밀려왔다.

영등은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 제주에 봄바람을 불어 보내주는 신이 됐다.

제주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를 ‘영등대왕’이라고 부르며 영등이 죽은 음력 2월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은 매해 영등대왕의 은공을 기려 ‘영등굿’을 지내게 됐다.

음력 2월 1일은 바람이 된 영등신이 섬 북서쪽 마을인 한수리로 들어 와 보름동안 도 전역을 돌며 바다에는 해산물의 씨를 뿌리고 논·밭에는 곡식들의 씨를 뿌렸다.

이에 따라 음력 2월 1일에는 한수리에서 ‘영등환영제’를 치르고, 13·14일등 이 기간 중에는 제주시 건입(健入)동·구좌읍 송당(松堂)리·하도(下道)리, 성산읍 신양(新陽)리·온평(溫平)리·오조리 등지에서 환영제를 열고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우도에서 환송제를 치러 영등신을 떠나보내게 됐다.

영등대왕이 씨를 뿌리기 전에는 사람들은 아무도 밭을 경작하거나 고기를 잡지 못했다. 2월1일부터 15일까지는 ‘영등달’이라고 하여 바다에 어로 작업을 나가지도 않았으며 축제를 벌이고 놀았다.

빨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기간에 빨래를 해서 밖에 널면 옷에 벌레가 생긴다고 하며 또 농사를 지으면 흉년이 들고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일었다.

해산물도 이 기간에는 잡지 않는데 보말(갯우렁이)·소라 등을 잡아 보면 속이 텅텅 비어 영등대왕이 오면서 잡아먹기 때문이라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영등이 나가는 15일 무렵에는 흔히 대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눈물이 비가 되어 내렸다. 그러나 이 비는 봄비가 되어 이 기간이 지나면 제주는 확연한 봄이 된다.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영등은 해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제주를 찾아오는데 주민들은 영등제를 지내는 날이 청명하면 마음씨는 좋지만 외복이 남루한 영등, 추우면 옷이 많은 영등, 비가 오면 우장 쓴 영등이 들어온 것을 알아보곤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등과 친숙해진 사람들은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영등나장’, ‘영등도령’ 등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부르게 됐다.

[해설]

이 신화는 음력 2월 1일부터 15일에 이르는 보름 동안 제주 섬 전역에서 치러지는 ‘영등굿’의 ‘본풀이’이다.

이 영등굿은 제주 섬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의례로, 1986년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71호로 등재되었으며 해마다 음력 2월 14일이면 제주시 건입(健入)동 사라봉 기슭에 자리 잡은 ‘칠머리당’에서 굿이 치러진다.

영등굿은 제주섬의 봄맞이 행사이기도 하였다. 이 굿을 할 시기가 되면 황사가 대대적으로 제주섬을 뒤덮을 만치 북쪽에서 내리 불던 바람이 남서쪽에서 불어오고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자연현상이 뚜렷하다.

제주섬이 농경을 생업으로 삼던 1980년대 후반까지는 농사를 짓던 어로에 종사하던 이 영등굿을 치렀다. 그런 의례 덕분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영등신화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다.

이 영등에 대한 신화야말로 이어도의 상실 시점을 짐작하게 하는 가늠자 구실을 하고 있

다. 더구나 영등에 대한 신상명세가 나타나 있어서 흥미롭다.

자연현상으로 거의 다 지상에서 모습을 감춘 이어도의 존재를 제주사람들이 잊을만한 시점에서 이 신화는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닐까.

본문의

“영등대왕은 원래 성은 황 씨요 이름은 영등이었는데 무휴에서 솟아났으며 민간 사람도 아니고 저승사람도 아니고 바다인 요왕[용왕,龍王]의 사람도 아니었다.

영등은 바다 깊은 곳에서 동정국의 아기씨와 서정국부인의 서녀(庶女)와 놀기를 즐겨했다.

라는 설명을 보면 성씨는 물론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영등이 일반인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닐뿐더러 바다 어디의 사람도 아니라는 표현에서 제주 섬주민들 사이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구출해 준 그는 누구인가 잠시 망설이게 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조금 창의적인 생각을 곁들여 다시 들여다본다면 그 표현 자체에 답이 있지는 않을까. 예전대, 당시 한수리 어부들이 직면한 위기는 언제부터인가 시작되어 이어도를 바다 밑으로 야금야금 가라앉히고 있는 해저지진 혹은 해저화산폭발을 직면했다고 볼 수도 있다.

영등이 ‘무휴’에서 솟아났다 함은 혼돈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뜻이다. 이를 자연현상으로 풀면, 지진 혹은 화산폭발로 인하여 뺨안 먼지로 뒤덮인 정황을 떠오르게 한다.

한수리 어부들을 큰 바위 밑의 바위그늘에 숨겨준 긴박한 상황으로 보면 영등이 그 때까지도 지상에 남아있는 이어도의 일부라고 추측할만한 ‘바위그늘 집자리’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기거하던 이어도의 생존자였을 수도 있다.

‘동정국 아기씨’와 ‘서정국 서녀’는 이야기의 표현기법 상 언어의 연상작용에 의한 리듬을 중요시한 것으로, 실제로는 그 큰 바위(지상에 솟아있던 본래 이어도의 잔재로서 조금 남아있을)를 감돌아 제주 섬으로 치오르는 해류를 의인화한 표현이다.

그러면 한수리 어부들을 구원한 이의 이름이 왜 황씨에다 영등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 구원자의 이름은 아마도 한수리 어부들이 구출된 후 아주 후대에 이르러 붙여진 것 같다. 제주섬에 전해진 최초의 외래 신앙이 불교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원본의 해설자가,

“영등대왕에 대한 제의행위가 외부에서 전래된 신앙이 아닌가 추측을 넣고 있다.영등이라는 이름은 신라(新羅)·고려(高麗)시대에 성행했던 국가행사인 「연등회」를 연상시킨다. 연등회는 불교행사로 알려지고 있으나 학자들은 원래 풍년기원 행사였으나 불교에 융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에서 지내는 영등굿이 당시 육지에서 전래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전라도 남쪽의 해안마을에서도 영등신에 대한 제의를 치르고 있으나 이같은 신화가 전래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어 그 의례를 지내는 데에서 그 이름을 차입했다는 것이다.

이 신화는 제주 섬주민의 원시심상에 이어도의 이미지만이 아로새겨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정립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12 용왕국 진궁아기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중명, 1997. pp.-.

[본문]

한라산신 아홉 형제 중 셋째인 서귀포(西歸浦)시 호근동의 본향당신은 가죽옷을 입고 버선을 신고 장도칼을 둘러매고 사냥을 하면서 내려 왔다.

서귀포 위쪽 시오름 봉오리에 다다르니 각록이 달린 사슴무리들이 수만 마리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앞에 가는 것들은 다 놓아두고 맨 뒤쪽에서 따라가는 사슴을 잡아 약들기(도시락주머니)에 담아 들고 고근산 윗녘 빌레넷가까지 왔다.

넷가에서 머리를 감고 목욕한 후에 올라와 보니 세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땅 차지, 물 차지, 단골(신앙민) 차지 하러 내려왔습니다』

신선들에게 물어보니 이곳이 바로 호근리 마을이었다. 지남석과 나침반을 놓아 샅을 만한 자리를 찾아보니 ‘마블림동산’으로 헐이 뻗어 있었다.

마블림동산은 물이 없어서 좌정할 만한 터가 아니었다. 큰당동산으로, 법환리 ‘붉은 밭’으로 돌아다니던 한라산신은 먹을 물도 좋고 밭 먹일 물도 있는 호근리 ‘돌흙’지경에 자리를 잡았다.

딸 일곱 형제를 낳았는데 막내딸이 말을 잘 안 듣고 심술이 꺾었다. 한 살 때에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쥐어뜯고 두 살 때에는 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겼다. 세 살 네 살이 돼 가니 형제간, 동네사람들 간에 불화를 야기했다.

일곱 살이 나던 해에는 건디다 못한 부모들이 작은 대바구니에 넣어서 서천꽃밭으로 죽으라고 던져버렸다.

심술은 꺾은 아이였지만 똑똑하기는 그지없었다. 마침 대정(大靜)고을의 형방이 말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말 도둑을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었다.

『대정 형방 놈이 말 찾으러 동쪽으로 가는구나』라는 말은 서문 밖 탕자나무에 목이 걸려 죽어있구나』

동쪽으로 가다가 아이가 바구니 속에서 하는 말을 들은 형방이 서문 밖으로 가보니 정말 거기에 말이 죽어있었다. 신통하게 생각한 형방은 아이를 말 뒤에 싣고 관아로 들어갔으나 귀찮아서 말뿔 위에 버려두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 자리에서 죽은 아이는 옥(감옥) 할망신이 됐다.

아홉형제 중 네째인 중문(中文)동 하로백관(漢摯山神)은 처음에 천제연 물아래 자리 잡았으나 사냥쟁이(사냥꾼)들이 나들고 개공달이들이 목욕을 해대서 부정이 만만하였다.⁶⁾

그 때 목수질 잘하고 불미질(대장장이) 잘하는 임씨집 임 도령이 있었는데 정시(地官)의 말을 듣고 「도람쥐께」(박쥐가 사는굴)로 하로백관을 모셨다.

이 하로백관은 폐자에 구실동이 겹저고리에 대홍단 겹치마, 가막창신 은비녀, 늦가락지 차려서 ‘진궁부인’과 결혼을 했다. 진궁부인이 임신을 하니 일천 가지 음식을 해봐도 밥에선 밥내(냄새)나고 물에선 물 내가 나서 먹지를 못했다.

하로백관이,

6).진곤(乾坤)에 떠다녔다.

『무엇을 먹고 싶느냐』

하면

『신산만산 낙용산에 가서 돌콤돌콤 연드래(달래)나 새콤새콤 정갈리나 산듯산듯 오미자나 따 먹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진궁부인은 산에 갔다 오는 길에 사냥꾼들이 산짐승을 잡아 나눠먹고 있는 것을 보고 고기를 한점 얻어먹고 돌아왔다.

『네 몸에서 어찌 종경내(지린내)가 나느냐』

『신산만산 낙용산에 갔다가 사냥쟁이들이 분육(分肉)을 햄시니 산뜻하게 사시미 한 점 얻어먹었습니다』

『부정하다. 진궁으로 내려가라』

쫓겨난 진궁부인은 여자아이를 하나 낳았다.

진궁아기는 커 갈수록 행실이 나빠서 무죄상자에 담아 요왕(龍王)황제국으로 귀양정배를 보냈다. 바다로 떠내려가 산호가지에 걸리니 요왕황제국의 개들이 짖어댔다.

요왕국에 들어간 진궁아기는 남자로 오인되어 용왕의 막내사위가 되었다. 그런데 석 달 열흘을 기다려도 술도 안 먹고 내외법(房事)도 지키지 않았다. 막내딸이 아버지에게 여쭙었다.

『아버님, 얼마나 높은 사위를 맞았길래 석달 열흘 한 방안에 앉아도 여자 남자 구별을 모릅니까』

요왕이 사위를 불러들여 호통을 쳤다.

『엎드려뻗쳐라, 여자 남자 결혼을 했는데 내외법이 없으니 너는 여자냐 남자냐. 무엇이 부족하나. 내 딸이 얼굴이 나쁘냐 행실이 나쁘냐. 무엇이 소원이냐』

『이곳이 대국은 대국이라도 우리 소국만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위는 손님이라 동창고도 열고 남창고도 열고 낮도 일레 밤도 일레 잔치를 하되 소도 전(全)마리로 잡아 두일레 열나흘 계와시(거지)잔치까지 벌입니다』

『넌들 사위 손하나 대접 못하랴』

요왕국은 잔치준비로 법석인데 병란이 일어났다. 처부모가 선봉대장으로 나설 처지가 되니 진궁아기가 대신 나서서 병란을 수습했다. 요왕이 치사를 하고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진궁아기가 말했다.

『우리국에선 날 때 제석님전에 빌어 칠성전에 태어나니 세경시만국(穀), 버으리 천 가지 부술 만 가지 중에 열두 부술 흉단 줌치 내어줍서』

진궁아기는 오곡씨를 타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천지가 떠들썩하게 돌아온 진궁아기는 『요왕황제국 아기씨한테 장가들고 병난을 잠재우고 천 가지 부술(符術)을 받아 왔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서 큰소리를 쳤다.

겉이 난 하로백관은

『우리 외딸아기 똑똑하다』

하고 ‘불목당’에 자리를 주어 좌정하라고 했다.

이때부터 불목당에 ‘진궁부인’, ‘진궁아기’, ‘요왕아기’ 등 세 신위가 좌정하게 됐다. 이때에야 진궁아기가 여자라는걸 알아차린 요왕아기는 가슴에 한이 맺혔다.

그래서 이 신에 들리면 폐렴·복막염·간장염이 되고 여자는 하혈을 한다고 한다.

처음에 김씨 할머니가 ‘못동산’에 모셨으나 화재를 당하여 천제연 옆 ‘정동이케’로 갔다가 부정한 게 많아 ‘도람쥐케’로 같이 모시게 됐다.

[해설]

이 신화는 우선 재미있다. 그리고 제주 섬 여성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득한 옛날옛적부터 바다를 삶터로 살아온 제주여성의 특징이 입가에 웃음을 머금을 정도로 재미있게 그려진 신화이다.

말썽장이 제주 섬 ‘비바리’(여자아이)가 요왕 즉 바다 어딘가에 자리 잡은 어떤 나라로 쫓겨나서 성공하거나, 남장(男裝)을 한다는 화소(話素)는 제주신화에 심심찮게 등장한다. 제주 여성의 진취적이고 개척자적인 활동상이 반영된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 신화의 핵심은 제주 섬주민의 생업 뿐 아니라 특히 외래문물이 바다 저 먼 미지의 세계로부터 들어왔는데, 여성에 의하여 섬으로 유입되었음을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는 제주 섬 남성들이 대해를 건너 중국의 대륙 등을 왕래했을 거라는 추측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주 여성들도 그 못지않은 해양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탐라를 건국할 때, 바다 저 건너에서 세공주가 제주섬으로 건너왔다는 외래여성 도래(渡來)설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러 신화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섬 출신 여성이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어떤 나라에 건너가 출세하고 귀향하는 신화는 이 신화가 유일하다.

이 신화가 이제도 전해지는 지역이 서귀포 일대인 것으로 미뤄 보면, 진궁아가 요왕국 따님을 대동하고 건너온 방향은 틀림없이 동남쪽이 분명하다.

고대의 제주 섬주민들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동중국해사단항로를 넘나들었음이 눈에 선하다. 그러면 이어도가 그 항로에서 사라진 이후에 이 신화가 발상했을지, 그 이전인지는 딱히 가늠할 길이 이 신화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바닷길을 제주 섬주민은 누구나 다 훤히 꿰뚫고 있었음이 눈에 선하다.

원본에 붙은 해설을 보면 서귀포 일대의 고대 마을역사도 이 신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럼으로 아래에 그 해설을 덧붙인다.

[원본해설]

제주도 마을수호신들의 신화에는 대부분 신들이 좌정처를 옮기는 내용이 있다. 때로는 신의 내력담은 아예 없어지고 장소를 옮겨 다닌 이야기만 남기도 한다. 이런 신화는 신의 이동보다 오히려 신전(神殿)의 이동, 즉 신앙민인 주민들의 이주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들은 인간의 마을형성에 따라 옮겨 다닌다. 마을 전체가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특정 신앙민 집단의 이주로 이루어진다. 신화를 보면 주민들의 이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속에는 마을에 벌어진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반영돼 있다. 신당탄압의 경우 역사와 직결되는 게 보통인데 18세기 초에 있었던 제주목사 이형상씨의 탄압과 이로 인한 당의 이동은 당시 있었던 강력한 중앙집권화와 유교화 정책을 알 수 있다. 또 구한말의 신당탄압은

외래종교 천주교를 앞세운 외세의 도래, 이른바 ‘성교란’(성교란, 聖敎亂)과 맥을 같이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한두번 옮기는 정도에 그치는 곳도 있으나 어떤 곳은 20여 곳이나 옮겨 다닌다. 그만큼 애환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을의 당신화는 주민들의 살아 숨쉬는 역사의 장인 셈이다. 이 역사는 집권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거나 왜곡되는 각종 역사서에 비해 민중의 진솔함과 맘이 그대로 배어 있다.

호근리의 신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다. 우선 사냥하는 이야기가 나오므로 주민들의 생업이 수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는 ‘말 먹일 물’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목축이 주민들의 생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문(中文)의 신화에는 농경문화의 도래가 나타나 있다.

3-13 자청비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중명, 1997. pp.125-161.

[본문]

가을에 잎 진 나무는 봄이면 새 잎이 나고 썩은 나무 등결에도 새 순이 돋는데 김진국대감과 조정국부인은 열다섯에 결혼을 하고도 40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다.

지나가던 동개남 은중절 대사증을 잡아 사주팔자를 물어보니 대사가 말했다.

『팔자에 아들 자손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절에 와서 정성을 잘 들이면 낳을 것이고 공을 안 들이면 머리 꺾고 절에나 들어갈 팔자입니다.』

『재물은 얼마나 준비해야겠습니까.』

『소 백미 일만 석에 대 백미 일만 석, 명세(命稅)도 백 근, 강명주 물명주도 동의 석, 강명주도 동의 석(즉 한 동을 넘어야 한다는 뜻. 그러므로 물명주도 한 동 이상, 강명주도 한 동 이상)를 마련하여 석 달 열흘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자식도 그렇지만 재물도 아깝다. 절에 갈 준비를 하던 김진국대감은 명주를 저울이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반근을 덜어냈다.

석 달 열흘 정성을 들였지만 부처님의 저울대에 저울여 봤더니 반근이 모자랐다. 본디 아들을 낳을 팔자였지만 딸이 태어났다.

애가 잦아서 태어난 딸인데다 얼굴이 고우니 이름은 자청비라고 했다.

자청비가 일곱 살 나던 해에 뒷마당에 별채를 짓고 열다섯이 되도록 가뉘 길렀다.

열다섯 나는 해 여름이었다. 창밖으로 보니 하인 정술댁이 빨래를 널고 있었다.

『정술댁이 손발은 어찌 저리 고우나』

『주천강 연화(蓮花)못에 매일 빨래를 하러 다니니 자연히 고와집디다』

『나도 연화못에 가보저』

어머니 아버지 옷을 벗겨 연화못에 빨래를 하러 나갔는데 하늘나라 문왕성 문국성도령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자청비를 보았다.

장난기가 동한 문도령이 말을 탄 채로 윗물로 가서 침병거리며 물을 구쳤으나(편집자주; 휘저어 혼탁해졌으나) 자청비는 꿈쩍도 않았다.

『낭자 물이나 한 바가지 주시오』

참다못한 문도령이 자청비에게 수작을 걸자 자청비는 바가지에 물을 떠 버드나무 잎을 훑어 띄우고 문도령에게 건네줬다.

『허 얼굴은 곱다마는 마음은 얼굴과 같지 않구나. 웬 버들잎을 띄웠소』

『도련님 먼 길에 말을 타고 달려왔는데 급히 물을 먹어 채하면 약도 없습니다.⁷⁾ 천천히 마시라고 버들잎을 띄웠습니다. 어데 가는 도령입니까』

『저 아랫녘 거문선생에게 글공부하러 가는 길이요』

『우리 집에도 꼭 나 같은 남동생이 있는데 글벗이 없어 서당에 못 갔는데 같이 가기 어떻습니까』

『그러시오』

빨래를 거둔 자청비는 집으로 뛰여와 부모님에게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 여자는 글공부하면 안됩니까』

『여자자식이 무슨 글공부냐』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가 축을 읽으며 지방을 누굴 빌어 쓰오리까』

그말에는 할 말이 없어 허락하고 말았다.

남자 옷으로 차려 입은 자청비가 문도령과 같이 서당으로 내려갔다.

한 방울 같이 쓰게 되자 자청비는 두 사람 잠자리 사이에 물을 한 동이 떠다가 붓대를 그 위에 걸쳐놓았다.

『잠을 자더라도 이 물동이 건드려 붓대가 떨어지게 하는 정신이면 과거에 낙방하게 되니 정신 바짝 차리시오』

문도령은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움츠리고 잠을 자다 보니 공부를 못하고 자청비는 네 활개를 띄고 잠을 잘 자서 성적이 좋았다.

하루 이들 공부를 하노라니 글씨도 여자 글씨, 행동도 여자행동, 걸음걸이도 여자 걸음걸이여서 자청비에게서는 여자 티가 완연했다.

이상하게 여긴 거문선생이 말했다.

『김도령아 너는 가슴이 왜 그렇게 튀어 나왔느냐』

『우리 부모님 가슴은 무릎까지 늘어졌습디다』

『이리 오너라 만져보자. 남자 가슴은 뽕뽕하고 여자 가슴은 물썸물썸 하는 법이다』

자청비가 사족을 붙곤 쓰면서 가니 가슴이 뽕뽕해 남자 같았다.

거문선생이 이번에는 옷 벗고 달려보라고 했다.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와 배우고 자랄수록 옷을 더 입는데 옷벗고 달리라는 서당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속옷⁸⁾만 입고 달리기 경주를 해 보라』

서당 옆 왕대밭으로 들어간 자청비는 왕대 한 마디를 잘라내고 솔방울 두개⁹⁾를 주워 가랑이에 달아매었다. 속옷만 입고 달리기를 하니 대나무가 꺼떡꺼떡 하여 남자의 모습이 역력했다.

그래도 이상한 거문선생은 오줌싸기 경주를 시켰다. 문도령은 오줌줄기가 여덟 척반 밖에 나가지 않았다. 하문에 대통을 끼운 자청비가 선택로 힘을 주어 오줌을 갈기니 열두 척 반

7). 이 부분의 이야기는 이성계인가 왕건의 일화에도 꼭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8).배 종이적삼.

9).모든 본에 「수두리딱지(고동의 일종)」라고 나와 있으나 임의로 솔방울로 바꾼 것임.

을 나갔다.

공부에도 자청비가 낮고 씨름을 해도 자청비가 이기고 달리기를 해도 자청비가 이기자 문도령은 공부에 싫증이 났다.

삼 년째 되는 어느 날 문도령에게는 하늘나라에서 공부를 그만 두고 서수왕 서수아기에 게 장가를 들라는 전갈이 왔다.

문도령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자청비도 같이 따라 나섰다.

주천강 연화못으로 돌아왔을 때 자청비가 말했다.

『문도령아 오라. 삼년동안 공부를 하고 왔으니 클때인들 아니 쌓였으랴. 목욕이나 하고 갑시다』

『그것도 좋지』

『문도령은 글을 써도 나한테 뒤지고 씨름을 해도 나에게 지니 아랫쪽에서 목욕하시오. 나는 윗물에서 목욕하겠소』

물위로 올라간 자청비는 버드나무 잎을 뜯어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를 내어 글을 썼다.

『무심한 문도령아, 멍청한 문도령아, 삼년간 한 방에서 살아도 남자 여자 구별을 못하는구나』

버들잎을 주워 본 문도령이 그때야 자청비가 여자인 것을 알고 부리나케 쫓아갔다. 윗옷은 어깨에 걸쳐지고 양다리는 한 바지구멍에 들어갔다. 옷은 입는 등 마는 등 자청비를 쫓아갔다.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여자 옷을 입히고 부모님 몰래 집안으로 맞아들였다. 술상을 차려 마주 앉으니 한잔은 인사주, 두 잔은 대접주, 세잔은 친구주, 네 잔은 합환주, 밤이 늦도록 술을 마시고 삼년 눈 속인 사랑을 풀었다.

날이 새자 문도령은 복숭아씨 한 방울을 내주며 꽃이 피기까지는 돌아오마고 약속하고 옥황으로 길을 떠났다.

자청비는 창밖에 복숭아씨를 심었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열어 따 먹은 후에도 문도령은 돌아오지 않았다.

화사한 봄날 남(南)창을 열었더니 남의 집 종들이 나무를 해 오면서 진달래꽃·철쭉꽃을 손에 들고 오는 게 보기에 좋았다.

구경삼아 밖으로 나오는데 ‘정이어신(없는) 정수남(하인)’이 햇살 바른 짙늘(날거리)밑에 앉아 옷을 벗어 이를 잡는 것이 보였다.

『더럽고 추잡한 정수남아, 밥은 돼지같이 먹고 놀기만 하겠느냐. 다른 집 수장남(머슴)들은 산에 가서 장작도 해 오고 꽃도 따서 들고 오니 오죽 보기가 좋으냐』

정수남의 생각에는 문국성 문도령을 만나지 못하는 자청비가 원풀이를 할 데가 없어 엉뚱한 데 화풀이 하는 것 같이 보였다.

『말 아홉 마리에 소 아홉 마리, 황기도끼를 차려 주면 나도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정수남은 신산만산 한라산속 깊이 들어가 큰 팽나무가지에 소와 말을 묶어두고 그늘에 누워 코를 골며 낮잠을 잤다.

정수남이 잠을 자는 사이에 봄벌에 쪼인 소·말들이 모두 목이 말라 죽어버렸다.

걸어놓은 나무에 불을 살라 소·말고기를 올려놓고 손톱으로 껍질을 벗기며 “익었을까” 한 점, “설었을까” 한 점 고기 맛을 보다보니 소 아홉·말 아홉 마리를 다 먹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소·말가죽을 삶아지고 내려오는데 오리소(못)에서 청(靑)오리들이 노는 게 보였다.

『고운 것만 좋아하는 우리 상전님. 오로나 잡아다 드려 화를 풀자』 황기도끼를 획 잡아 던졌으나 오리는 다 날아가고 도끼만 연못 속에 빠지고 말았다.

옷을 벗어 재긴 정수남이 연못 속으로 들어가 도끼를 찾는 사이에 난데없는 도둑놈이 소·말가죽에 옷까지 모두 훔쳐가 버렸다.

침딩굴로 겨우 몸을 가린 정수남이 마을로 내려왔는데 차마 상전 앞에 나서질 못하고 장독대에 들어가 항아리 속에서 잠을 잤다.

아침에 정하남(여자 하인)이 반찬을 하려고 장독대로 왔더니 정수남이 잠자는 숨소리에 간장독의 뚜껑이 들썩들썩했다.

접이 난 정하남이 돌맹이를 들어 던지자 삼년 묵은 간장독이 와썹 부서졌다.

『상전님. 흥함이 났습니다. 간장독이 걸어 다닙니다』

자청비가 나와 봤더니 꾀뻔한 정수남이 어기적거리며 기어 나왔다.

『아이고 누추하고 더러운 놈아. 이게 무슨 꼴이냐』

『신산곶(鎭)에 나무하러 갔다가 문국성 문도령이 옥황선남선녀들과 놀이하느라 보다보니 정신이 없어 소·말 다 없어지고 이 꼴이 됐습니다.』

정수남이 얼른 둘러치자 사랑에 눈이 먼 자청비가 그만 깜박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문도령이 정말 왔더냐』

『장고치는 모습이 볼 만 합디다』

『나도 그곳에 갈 수 있느냐』

『종도 가는데 상전이 못갑니까』

능청스런 정수남은 길이 멀어 음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어 상전 뒤편으로 메밀 다섯 되에 소금 다섯 줍¹⁰⁾을 놓아 범벅을 만들고 자기 뒤편으로는 소금을 넣는 등 마는 등 음식을 만들도록 했다.

뒷날 아침 출발하려는데 정수남은 말안장을 얹으며 그 밑에 소라껍질 하나를 집어넣었다.

자청비가 말에 올라타자 말이 갑자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상전님이야 오늘 산에 가면 문도령을 만나 좋은 영화 누리겠지만 죄 없는 말이야 무슨 영화가 있겠습니까. 말머리 고사(告祀)를 지내야 성질을 죽일 것 같습니다』

닭 한 마리 잡고 밥 한 동이에 술 한 동이 재물을 마련하여 고사를 지내는데 정수남은 중얼중얼 주문을 외는 척 하며 말귀에 술을 들이 비웠다.

술이 귀에 들어가서 말이 머리를 탁탁 털자 정수남이 말했다.

『말이 이제는 그만 먹겠다고 합니다. 말이 먹다 남은 것은 종이 먹는 법입니다』

배부르게 밥을 먹고 술을 마신 정수남이 자청비를 재촉하여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으나 말은 또 펄쩍 뛰었다.

『안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타서 길 돌일 테니 상전님은 점심을 삶아지고 잠시만 따라 오십시오』

안장 밑에서 소라껍질을 빼내고 말을 탄 정수남은 휘휘 달려 먼 동산으로 먼저 갔다.

짐이라고는 생전 저보지 않은 자청비가 무거운 점심을 지고 산길을 걸으며 치마 자락은 가시나무에 걸려 찢겨지고 등은 아프고 발은 물집이 생겨 터지는 사이에 정수남은 실컷 잠

10). 또는 「되」

을 잘 잤다.

『인정사정없는 놈아, 내 말은 네가 타고 너 짐은 내가 지고 오는데 잠만 잘 수가 있느냐』

『말머리를 돌리려니 다시 성질을 부릴까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니 밥이나 먹고 가자』

짐을 푼 정수남은 소금을 잔뜩 넣은 범벅은 자청비 앞으로 갖다놓고 소금을 넣지 않고 만든 범벅은 자기가 가져가서 먹었다.

자청비는 범벅을 먹으려 했으나 너무 짜서 먹기가 힘들었다.

『정수남아 왜 따로 밥을 먹느냐. 같이 먹자』

『상전님 곁에서 밥을 먹다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부부간인 줄 압니다』

『그러면 너 먹는 밥만이라도 줘 나오』

『상전이 먹던 밥은 종이 먹지만 종이 먹던 밥은 개나 먹는 범입니다』

할 수 없이 짠 밥을 먹은 자청비는 목이 몹시 말랐다. 물을 찾아서 먹으려고 할 때마다 정수남이 못 먹게 말렸다.

『이 물은 소·말이나 먹는 물입니다』

『그 물은 먹으면 손에 손병, 발에 발병 나는 물입니다』

『저 물은 까마귀 몸 감은 물입니다』

한참 물을 찾다가 진흙탕 연못물이 나타나자 정수남이 말했다.

『이 물은 먹어도 됩니다마는 총각(總角) 죽은 물이라 옷을 다 벗고 먹어야 합니다』

윗도리·아랫도리를 훌쩍 벗은 정수남이 엎드려서 소 먹듯이 꿀떡꿀떡 물을 먹었다. 자청비도 옷을 벗고 알몸으로 엎드렸다.

그 사이에 자청비의 옷을 나뭇가지 위에 감춘 정수남이 돌맹이를 주워 자청비 앞으로 퐁당퐁당 던지며 말했다.

『상전님아, 물 아래를 봅서. 물살이 지니 얼마나 곱습니까. 이게 문국성 문도령 노닐놀이 하는 것입니다』

정수남이 돌맹이를 던지며 장난을 치자 그때서야 자청비는 속은 줄을 알았다. 자청비의 옷을 다 벗겨놓은 정수남은 못하는 짓이 없었다.

『상전님 아기씨, 은결같은 손목이나 잡아봅시다』

『나 눕는 방에 금봉채(부채)가 있으니 가서 잡아봐라. 나 손 잡는 것보다 더 좋다』

『젓통이나 만져봅시다』

『나 젓 만지느니 내 방에 연적이나¹¹⁾ 만져봐라』

『입이나 맞춰보기 어떻습니까』

『내 방에 꿀단지가 있느니라. 가서 빨아보면 나 입 맞춘 것보다 더 좋으리』

『같이 누워나 보져』

『내 방에 가 봐라. 안 자리에 능화자리, 바깥자리에 화문석, 머리맡에 한서(漢書)병풍, 발치에 족자병풍 휘휘 칭칭 둘러치고 비단이불 덮고 잤배개 베고 누우면 나와 눕는 것보다 훨씬 좋다』

자청비와 정수남이 실랑이를 하는 새에 해가 떨어졌다. 날은 어둡고 추워져서 견디기가 힘들어지자 자청비가 말했다.

『정수남아, 그냥 잘 수가 있느냐. 움막이라도 지어봐라』

11). 온단병이라는 본이 몇 개 있다.

같이 자자는 말로 알아들은 정수남은 귀가 찢어지도록 좋아하고 허겁지겁 막을 지었다. 동쪽의 나무는 서쪽으로, 서쪽의 나무는 남쪽으로, 남쪽의 나무는 북쪽으로, 북쪽의 나무는 동쪽으로 휘어 일기설기 집을 지었다.

『정이 어신 정수남아 집에 구멍이 숭숭 뚫렸구나. 종과 주인이 같이 자다가 이 구멍으로 하느님이 보면 노하지 않겠느냐. 구멍이나 막고 자자』

정수남은 부지런히 밖에 나가 억새·피를 긁어모아다 구멍을 막기 시작했다. 정수남이 밖에서 풀로 구멍을 막을 때마다 자청비는 안에서 하나씩 빼냈다. 다섯 구멍을 막으면 네 구멍을 빼고 두 구멍을 막으면 세 구멍을 뺐다. 정수남이는 막고 자청비는 빼는 사이에 밤이 다 섰다.

날이 밝도록 막다가 지친 정수남이 자청비의 피를 알아채고 길길이 날뛰었다.

『정수남아 같이 자도 좋다마는 머리에 이(鰐)나 잡고 같이 자자』

금방 기분이 좋아진 정수남은 자청비의 온 같은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누웠다. 일을 많이 해 피곤했던 정수남은 자청비가 녹장을 부리며 이를 잡아주는 척 하는 새에 잠이 들고 말았다.

자청비는 머리에서 비녀를 빼 정수남의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까지 깊이 찔렀다. 귀에서 피를 흘린 정수남이 그대로 죽고 말았다.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자청비가 부모에게 전후사정을 말하니 김진국과 조정국은 일하는 머슴을 죽인 것만 탓했다.

『기집년이 잘도 났구나. 사람을 죽이다니. 네 년은 시집가면 그만이지만 그 종은 살려두면 우리 두 늙은이 먹을 일은 해 준다』

『종만큼 일을 못하랴』

서러운 자청비는 정수남이 대신 일을 하려고 밭으로 나섰다. 하루 종일 밭을 일구고 좁씨 석 섬을 갈아 파종을 하고 왔는데 그 날은 마침 멸망(滅亡)일이였다.

『시키지 않은 일을 왜 했느냐. 멸망 일에 씨를 뿌렸으니 곡식이 썩 리가 있느냐. 모두 거둬 와라』

또 부모에게 야단을 맞은 자청비가 좁씨를 다시 거둬다가 술을 만드는데 한 방울이 부족했다. 좁씨 한 방울을 주우려고 다시 밭에 나가봤더니 개미가 물어가고 있었다.

개미에게 좁쌀을 뺏으려고 했으나 겨울양식을 마련하던 개미가 요리조리 피하며 내놓지를 않았다. 자청비가 갖고 갔던 종나무 회초리로 와삭 후려치니 개미 잔등이 부러져 항굴거렸다. (이때부터 개미들은 허리가 가늘다고 한다)

겨우 좁쌀을 채워 술을 만들었으나 이 일은 오히려 부모의 화만 돋웠다.

『어제 좁씨 석 섬을 뿌렸다가 오늘 다 주워 올 수가 있느냐. 귀신이 음 붙은 년. 집 나가서 네 명대로 살아라』

자청비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집을 쫓겨난 자청비가 발길이 닿는 대로 걷고 있으려니까 산중에서 베틀소리가 들렸다. 천태산 마귀할망의 집이었다.

혼자 사는 이 할머니는 자청비를 양녀로 맞아들였다. 천상의 신이나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고 품앗으로 살아가는 할머니였다. 자청비도 비단 짜는 일을 배워 할머니를 도왔다.

어느 날 보기 드물게 좋은 옷감이 들어왔다. 자청비가 누가 입을 옷이냐고 물어봤더니 하

늘 옥황 문국성도령이 서수왕 딸에게 장가를 갈 때 입을 옷이라는 것이다.

슬픔을 참지 못한 자청비는 눈물을 흘리며 옷감 한쪽에 「자청비」라는 이름 석자를 새겨 올려보냈다.

옥황에서 이를 받아본 문국성이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자청비를 생각해내고 허겁지겁 달려왔다.

『이 옷은 누가 만든 것이요』

『우리 수양딸이 만들었소』

『내가 줌 볼 수 있겠소』

마귀할망이 기뻐서 자청비에게 말했다.

『문도령보다 더 좋은 사윗감이 있으랴. 주안상을 봐 올 테니 그 동안 잘 대접하고 있어라』

마귀할망이 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로 내려간 사이에 참지 못한 문도령이 자청비 방 앞으로 갔다.

『자청낭자, 오랜만이요』

『누구십니까』

『문국성이요』

『문도령이 틀림없으면 문틈으로 손가락을 넣어보시오』

문국성이 문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자 자청비는 바늘로 손가락 끝을 찔러버렸다. 손끝이 찔려 피가 나자 문국성은 화를 내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¹²⁾

잠시 후 마귀할망이 돌아왔으나 문국성은 이미 가버린 다음이었다.

『자청비아, 문도령이 어데 갔느냐』

『내 방으로 왔기에 귀신인지 생인(生人)인지, 문도령인지 도적인지 몰라 바늘코로 찔렀더니 가버렸습니다』

『부모에게 왜 쫓겨났는지 알만하다. 어서 나가라, 보기 싫다』

마귀할망에게서도 쫓겨난 자청비는 머리를 쥐고 중이 되어 절로 들어갔다.

시주를 받으러 마을로 내려오는데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수심에 차 앉아있었다. 『무슨 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옥황선녀들이온데 문도령이 상사병이 들어 자청비가 먹는 물을 먹고 싶어 떠오라고 하오나 물을 찾을 수 없어 울고 있습니다』

『내가 가리켜주면 같이 데려다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연화못을 가리켜준 자청비는 선녀들을 따라 하늘위로 올라갔다.

문국성의 집 앞애가 시주를 청하자 정하님(여자 하인)이 나와 쌀을 내쳤다. 일부러 땅에 쌀을 흘린 자청비가 쌀알을 줍는 채하며 집안을 살피려니 문도령이 뒤뜰 별충당으로 가는 것이 보였다.

밤이 되자 자청비는 별충당 담 밖의 팽나무위로 올라갔다. 문국성이 달구경을 나왔다가 무심코 시구를 읊었다.

『저 달이 곱기도 곱다마는 자청비만큼 곱지는 앓구나』

12) '조선무속의 연구' p.456 에는 문답을 하지 않고 창구멍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눈을 찔려 돌아간 것으로 묘사됐다.

자청비가 댕귀를 했다.

『달아 밝은 달아. 저 달빛은 문도령도 비추고 나도 비추건마는 이 내 몸은 문도령을 모르고 문도령은 나를 모르는구나』

문도령이 나와 봤더니 나무 위에 웬 중이 앉아있었다.

『고약한 중이로고』

중을 끌어내려 행장을 검사하는데 시주자루에서 삼단 같은 머리채가 떨어졌다. 그제야 자청비임을 알아 본 문국성이 자청비를 번쩍 안아 들어 방으로 들어갔다. 병풍 뒤에 자청비를 숨겨놓은 문국성은 날마다 부모 모른 사랑을 했다.

문도령이 갑자기 밥을 많이 먹는 것을 이상히 여긴 정하님이 창구멍으로 들여다봤더니 문도령 이불 속에 한 여자가 같이 있는 게 보였다.

정하님이 마님에게 고했다.

『문도령이 요즘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방안을 봤더니 몸은 하나고 얼굴은 둘입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문도령을 불러라』

어머니에게 불러간 문국성은 자청비가 일러준 대로 말했다.

『어머니, 헨 옷이 좋습니까 새 옷이 좋습니까』

『새 옷이 보기는 좋다마는 헨 옷이 편하다』

『헨 간장이 맛 있습니까 묵은 간장이 맛 있습니까』

『묵은 간장이 맛있다』

『헨 사람이 좋습니까 새 사람이 좋습니까』

『정이 든 사람이 좋은 법이다』

『그러면 나 서수왕 딸에게 장가가지 않겠습니까』

문도령이 다른 아가씨와 정을 통하는 사실이 밝혀지자 난리가 났다. 문왕성은 며느리를 고르기 위해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마당에 넓은 구덩이를 파고 숯불을 가득 담았다. 그 위에 칼 선 다리를 놓았다. 『이 다리를 건너면 내 며느리로 삼으마』

숯불이 타올라 칼날이 벌겋게 달아오르자 서수왕 따님아기는 벌벌 떨다가

『죽어도 못하겠다』

고 주저앉았다.

칼 선 다리 앞으로 나간 자청비는 간절히 기원을 했다.

『명천(明天)같은 하늘님아, 나를 살리려거든 비를 내려주고 죄가 있으면 광풍을 불러주십시오』

자청비가 눈을 감고 칼 위로 올라서려고 하자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고 장대 같은 소낙비가 내렸다. 숯불은 꺼지고 칼날도 식었다.

자청비는 물명주 속옷에 대홍대단(비단) 검은 치마에 코쟁이 버선을 신고 칼날 위에 올라섰다. 열두 다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다리를 내려서려는데 뒤꿈치를 베이고 말았다.

아무도 몰래 치마 자락으로 피를 닦은 자청비가 문왕성 앞에 섰다.

『내 며느리가 분명하다마는 웬 날 핏내가 나느냐』

『인간세상의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부정하게 마련입니다』

(이때부터 여자들은 매달 한차례씩 달거리를 하게 됐다)

자청비 때문에 버림을 받은 서수왕 따님아기는 열이 받쳐 죽어 새가 되었다. 이때부터 절

혼식을 할 때 신부가 상을 받으면 혹시 버림받아 한이 맺힌 원혼이 있을까 하여 먼저 제물을 걷어 상 밑에 놓아두고 음식을 먹는 관습이 생겼다고 한다.

자청비가 하늘에 있는 동안에 큰 난리가 나서 문선왕이 크게 걱정을 했다. 자청비가 갑옷에 오소리 감태 모자를 쓰고 나가 하늘로 올라가며 비 소금을 뿌리자 군사들이 모두 비설비설 쓰러져 죽었다.

대승을 거두고 온 공으로 문선왕이 벼슬을 주려고 했으나 자청비는 제주 땅으로 내려가겠다고 자청했다. 꽃이 피고 오곡농사 열매열리는 것 본 지도 오래고 단풍이 붉게 물든 모습도 보고 싶었다.

자청비는 문국성과 함께 인간세상으로 내려왔다.

초막을 빌어 베를 짜며 생활을 하노라니 착하고 예쁘다는 게 소문이 나서 시정잡배들이 문국성을 질투했다. 그래서 그들은 문국성을 죽이고 자청비를 차지하기로 작당을 했다.

하루는 동네 청년 한사람이 문국성에게 마을회익에 참석하라고 기별을 했다. 이 날은 멀망일이었다. 이상한 기미를 눈치 챈 자청비가 문국성에게 절대로 술은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다.

문국성은 술을 마시는 체 하면서 모두 비워버렸다. 술좌석이 끝나 집으로 오려는데 지지도 못생긴 사내 하나가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며 술을 권했다.

『이런 사내가 속셈이 있으랴』

술을 받아마셨는데 그 속에는 독이 있었다. 문국성은 말을 타고 오다가 떨어져 죽고 말았다.

자청비는 문국성을 방안에 눕히고 날파리를 잔뜩 잡아다가 주머니에 담아 이불속에 넣어둔 후 태연히 베를 짰다.

다음날 사내 십여 명이 문국성을 찾아왔다.

『문서방 어디 갔소』

『엿저녁 술이 과해 잠잠니다』

사내들이 방문을 열어봤더니 이불속에서 부르릉 부르릉 코고는 소리가 났다.

『허 그놈 보기와 달리 장사로구나. 독주를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으니』

사내들이 혀를 찼다.

자청비는 이왕 왔으니 수제비나 먹고 가라고 권했다. 무쇠방석을 열 개 꺼내 방에 놓았는데 사내들은 무거워서 들지도 못했다. 자청비는 수제비를 쇠로 만들어 내 놓았다. 수제비를 씹어 먹으려던 사내들의 이빨이 와지끈 와지끈 부러졌다. 자청비는 수제비가운데 몇 점 넣어둔 진짜 수제비를 슬쩍 골라내 맛있게 먹었다. 질겁을 한 사내들은 모두 달아나고 말았다.

사내들을 쫓아낸 자청비는 남자 옷을 입고 서천꽃밭을 향해 말을 달렸다.

가다보니 남자 아이 둘이 부엉새 한 마리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잡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었다. 자청비는 돈을 주고 그 부엉새를 사서 화살을 꽂아 서천꽃밭 속으로 던져두었다. 꽃밭언저리를 돌며 심한 기침을 하고 말방울 소리를 내니 꽃감관이 그 소리를 들었다.

『큰 딸아가 나가 봐라』

『아무 것도 아닙니다』

큰 딸과 셋딸은 별일이 아니라고 시큰둥했는데 세째 딸은 남장을 한 자청비에게 반했다.

『웬 도령입니까』

『부엉새가 하늘 위에 높이 떠있길래 활로 쏘아 떨어뜨렸는데 꽃밭으로 떨어졌소. 새야 또 잡으면 되지만 화살은 찾았으면 좋겠소』

말젖팔아기의 말을 듣고 사라대왕이 나와 보고는 깜짝 놀랐다. 자기가 그토록 잡지 못하여 애태우던 부엉새가 한 마리 화살을 맞아 꽃밭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화급히 청해 들인 사라대왕이 말했다.

『어데 사는 누구신데 이렇게 활숨씨가 좋소』

『문왕성 문도령인데 과거보러 가는 길에 새가 보이길래 장난삼아 살을 놓았는데 제대로 맞았는지 모르겠소』

남장을 한 자청비는 자기가 문도령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요즘 들어 부엉새 두 마리가 서천꽃밭에 날아들어 살고 있는데 한 번 울 때마다 꽃들이 무더기로 시들어 가니 큰 걱정이었소. 나머지 한 마리만 더 잡아주면 세째딸을 주고 내 사위로 삼으리다』

속셈이 있는 자청비인지라 쾌히 승낙했다.

『그 대신 이 새는 약아서 인기척이 나면 꽃물을 안 먹으니 오늘밤 가족 중에 아무도 밖을 내다보지 말도록 하십시오』

『알겠소』

밤이 되자 자청비는 알몸에 흙이불을 두르고 꽃밭으로 나갔다. 이불을 펼치고 꽃 사이에 누워 기다리노라니까 자시 깨가 되어 부엉새가 한마리가 날아와 자청비의 몸 위에 앉아 배꼽을 쪼았다.

자청비는 한 손으로 부엉새를 잡아 화살로 귀를 찢어 죽이고 꽃밭에 던져두었다.

다음날 아침 꽃감관이 물었다.

『어젯밤에 어떻게 됐요』

『잠결에 부엉이 소리가 들리길래 창너머로 살 한대를 낚는데 맞았는지 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꽃밭에는 부엉이가 한 마리 살에 맞아 죽어있었다.

꽃감관이 감탄하고 서둘러 결혼식을 준비했다. 성대한 식을 올린 후 부부가 같이 서천꽃밭을 구경하러 갔다. 꽃감관 세째딸이 일러주는 대로 자청비는 환생꽃·번성꽃·악심꽃·살오를 꽃을 전부 따서 감쌌다.

결혼은 했는데 밤자리는 같이 하지 않아 꽃감관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사람이 어찌나 높은지 남녀 구별법을 모릅니다』

꽃감관이 자청비에게 웬 일인지 물어보자 자청비는

『과거보기 전에는 아낙과 자지 않기로 했다』

고 대답하고 과거를 치르고 온다고 구실을 대어 서천꽃밭을 떠났다.

용열래기(龍빛) 반쪽과 토시 한 쪽을 징표로 남겨 둔 자청비는 서천꽃밭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문국성이 죽은 자리에는 가시나무¹³⁾만 잔뜩 우거져 있었다.

가시덩굴을 걷고 뼈를 주워 모아 그 위에 살오를 꽃 뼈 오를 꽃 환생꽃을 놓고 종나무 회초리로 한번을 때리니 문국성이 부시시 일어났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에 갔다가 암장가를 들고 온 내력을 말했다.

13) '남국의 무가' 에는 한탈낭(복분자딸기)

『사라대왕 셋째 딸이 죄 없이 생과부가 되게 됐으니 서방님이 거기 가서 삼년 살면 여기서 일년도 좋고, 거기서 석달 살면 여기서 한달 살아도 좋으니 왔다갔다 하면서 사읍소서』

문국성이 서천꽃밭으로 가자 개가 쿵쿵 짖었다. 셋째 딸이 낭군이 온 줄 알고 나와봤더니 딸은 낭군의 딸인데 사람은 아니었다.

『때은 뉘시오』

『문왕성 문국성입니다』

사라대왕의 물음에 대답했으나 믿지 않았다.

『우리 사위는 그렇게 못 생기지 않았소』

『서울 가서 과거를 치르고, 부모 죽어 삼년상을 당하고, 병들어 석달 열흘을 앓았으니 살인들 안 빠지겠습니까. 정 못 믿겠으면 본매(정표)나 내주면 찾아가겠습니다』 문국성은 자청비가 일러준 대로 말했다.

문국성이 내놓은 용얼레기와 토시를 맞춰보니 꼭 맞았다. 내키진 않았지만 사위가 분명하니 맞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서천꽃밭에서 살게 된 문국성은 세월 가는 줄 몰랐다. 연 삼년을 기다려도 문국성이 돌아오지 않자 참다못한 자청비가 편지를 써서 참새 날개 죽지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

아침에 세수를 하러 나갔던 문국성은 참새가 발밑에 편지를 떨어뜨리자 그때야 정신이 났다.

『아뿔싸, 생명의 은인, 조강지처 자청비를 잊었구나』

세수도 하지 않은 채 겹결에 망건을 쓰다 보니 귀도 빠지 않고 줄도 매지 못했다. 두루마기도 한 쪽 어깨에 걸치는 등 마는 등 말을 탔는데 안장을 거꾸로 매우는 통에 말을 뒤로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청비는 머리를 빗으려다가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흐트러진 머리를 짚으로 얼추 묶는 모양만 하고 먼 올래 까지 마중을 나갔다.

이때부터 인간 세상에 급한 일이 생기면 의관정제를 하지 않아도 됐다. 가장 급한 일은 부모 죽어 초상을 당하는 때다. 이때 생긴 법으로 성복(成服)을 하기 전에는 통두건을 쓰고 두루마기는 한 쪽 어깨에만 걸치며 여(女)상제는 머리를 풀어 쥔 끈으로 묶는 관습이 생겨났다고 한다.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보니 말을 거꾸로 타고 등진 채 오고 있었다. 마음은 서천꽃밭에 있고 몸만 오는 모양새였다.

자청비는 문선왕에게 가서 역을하라고 하소연했다. 문선왕은 문국성에게 한달 중 선(先)보름은 서천꽃밭에서 보내고 후보름은 인간세상에서 자청비와 함께 지내도록 명령했다. 또 문국성과 자청비에게 오펙 씨를 주고 세경(농경)신으로 임명하여 지상으로 내려보냈다.

자청비가 오펙 씨를 타서 내려오다 보니 메밀 씨를 잊고 안 가져와 뒤늦게 받아왔다. 그래서 메밀은 다른 곡식보다 늦게 파종하게 됐다.

인간세상으로 내려와 정수남이 죽은 곳에 다다랐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살리다 남은 환생꽃을 놓고 종나무 회초리로 세 번을 후려쳤다.

『아이고, 상진님. 봄잠이라 오래도 잤습니다』

하고 정수남이 살아났다. 자청비는 되살아난 정수남을 같이 데리고 갔다.

세경땅으로 가던 중 장정 아홉이 밭을 갈고 있는 게 보였다. 배가 고프니 자청비가 정수남

을 시켜 밥을 얻어오라고 했다.

『세경신님이 밥 좀 달라고 하오』

『남 줄 밥이랑 마랑 우리 먹을 밥도 없다』

장정들이 거절하자 화가 난 자청비가 장정들의 배를 아프게 하고 소들은 미쳐 날뛰게 했다. 밭에는 잡풀들의 씨를 잔뜩 뿌려 이 밭에서는 농사가 안됐다.

또 가다 보니 늙은 노인 부부가 남의 밭을 빌어 농사를 짓고 있었다. 노인들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된다』

며 새 밥으로 먹으라고 가져왔다. 보리 볶아 별절개 된 범벅이었는데 문국성·자청비·정수남 셋이 먹어도 밥이 줄어들지 않았다. 자청비가 씨를 뿌리고 정수남이 밭을 갈았다.

『노인네 곡식은 얼마나 나면 좋겠소』

『더도 말고 검은 암소에 등이 오그라지도록 싣고 두 늙은이 잔뜩 지고 갈 만큼이면 됩니다』

이 밭에는 풍년이 들었다. 이때 노인네가 적당히 많이 나게 해 달라고 해서 곡식줄기도 성글고 심심풀이하라는 뜻에서 잡풀도 조금씩 나게 됐다.

자청비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죽은 서수왕 따님아기는 새가 되어 매해 곡식이 여물 때가 되면 이를 시기해 논·밭으로 날아들어 곡식을 쪼아 먹게 됐다.

문국성은 상(上)세경, 자청비는 중세경이 됐다. 정수남은 하세경으로 말테우리(목축신. 나중에는 「목자」라는 뜻이 됐다)가 되고 사람들은 매해 음력 7월 백중날이면 백중제를 지내 곡식과 소·말들의 풍요를 빌게 됐다.

[해설]

이 신화를 여기에 소개한 저의는 매우 단순한 데 있다. 이 신화의 내용의 일부가

중국 쪽 땅인 항저우 지방에서도 전해지고 있어서(물론 제주도에서 일컬어지는 신화와 많이 다르다. 그러나 줄거리는 거의 같다.) 고대 제주 섬주민의 동중국해사단항로를 통하여 중국 나들이를 일상적으로 했다는 점을 증거 할 만하기 때문이다.

항저우는 옛 중국의 오나라에 해당하며 양쯔강의 하류인 곡창지대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다.

제주의 신화들에는 오(동)나라로 쌀을 구하러 다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어도에 표착, 본의 아니게 거기 정착함으로써 ‘사건’이 흥미진진하게 엮어지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이 신화의 경우, ‘이야기’자체가 제주 섬주민과 항저우 주민이 공유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신화의 발상이 제주섬인지 항저우인지는 이 시점에서 규명할 길이 없고 또 그 규명에 아무 의미도 없다. 다만 신화해석상 인류공유설이 두 지역에 비슷한 신화가 발상했는지 아니면 두 지역의 주민 교류에 의해서 공유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해보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제주 섬주민과 항저우지역 주민의 직접 교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고대 제주 섬주민의 탁월한 원양항해의 능력을 검증할 뿐 더러, 동중국해사단항로를 개척하고 이용한 전력을 제시할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이어도에 대한 시원적 점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게도 되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제주에서 이 신화는 ‘세경본풀이’ 라고 하여 농사에 관한 곳에서 뿐 아니라 모든 제의(祭儀, ritual)의 핵심을 이룬다. 심지어 여름철 조밭에 벌레가 생기거나 메뚜기가 성행하는 경우에도 이 신화를 주축으로 하는 행사를 치르곤 하였다.

그리고 예전 제주사회의 여성과 관련한 관습도 엿볼 수 있는 매우 자료적인 신화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원본의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예전 제주사회에서는 여성이 “15세에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성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화 속에서 옛사람들은 15세에 결혼을 한다. 성년이 된 후 여자들은 빨래터 등지에서 사회생활을 익히게 된다. 이 신화에서도 자청비는 열다섯 살이 되던 해에 빨래터로 나가며 이곳에서 남편이 될 문도령을 만난다.

자청비가 남장을 하는 것은 이 신이 남성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신화적 장치로 보인다.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 ‘남장을 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예사다.”(본문해설 중에서)

이 신화는 무엇보다도 구전되는 과정에서 사회의 변천, 그 중에서도 사회의 사상이 가장 잘 반영된 것으로도 독보적 위치에 있다. 예컨대, 이 신화의 완성시기인 조선조의 운영사상인 유교의 성리학적 규범이 적용된 점 등이 그것이다.

제주여성의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 등도 사실대로 반영되어 있어 흥미를 배가한다.

3-14 칠성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증명, 1997. p.212.

[본문]

강남천자국 송피고을 짓너븐밭에 장설룡과 송설룡이 살았다. 열다섯에 예문예장 갖추어 혼례를 지냈는데 나이 오십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잘 아는 점쟁이에게 문점하니 절에 수록(제사)을 드릴 게 아니라 칠성단을 만들어 칠성제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닌가.

집으로 돌아온 장설룡과 송설룡은 장독대 뒤에 칠성단을 만들고 밥도 일곱 사발, 떡도 일곱 쟁반, 미녕(친)도 일곱 벌, 불도 일곱 개를 켜고 잔도 일곱 개를 올려 칠월칠석날까지 일주일간 기도를 했다.

칠석날 아침에는 북두칠성의 일곱 성군이 내려왔다. 원성군 목성군 계성군 명성군 복성군 연성군 여섯 성군은 다 내려와 상을 받았는데 넷째 동성군은 늦게 도착했다.

동성군은 재주가 좋아도 천상에서 죄를 지어 인간에 유배를 왔는데 사람의 아이들을 모아 놓고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갈 녀에 마당에 내려서서 천기운간을 집어보니 여섯 성군이 모두 강남천자국 송피고을 짓너븐밭 장씨와 송씨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게 보였다.

동성군은 아이들을 모두 일찍 돌려보내고 청색도포에 의복을 차려 입고 떠날 채비를 했다. 아이들이 모두 기뻐하여 돌아갔는데 똑똑한 수제자 하나가 몰래 숨어 동성군을 따라 왔다.

동성군이 늦게 도착해보니 여섯 성군은 모두 대접을 받고 문을 나오고 있었다. 늦게 들어간 동성군은 대접을 못 받고 술내송(떡) 두 덩어리만 주머니 속에 숨겨가지고 나왔다. 쫓아

은 수제자는 대문 앞 팽나무 위에서 동성군이 하는 양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일곱 성군이 나와서 의논을 했다.

『남의 것을 공짜로 먹으면 목에 걸리는 법이고 남의 옷을 공으로 입으면 등이 시린 법입니다. 장씨 송씨가 우리를 잘 대접했으니 어떻게 치사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천하명산 명(命)이나 길게 해 주리다』 첫째 성군이 말했다.

『난 지하복상 복이나 재겨주어야겠소.』

둘째 성군이 뒤를 이어 말했다.

세째 성군은

『생불꽃을 내어 자식을 선물하겠소.』

하고 약속했다.

네째 성군이 말했다.

『난 맨 나중에 상을 받았으니 끝에 말 하겠소』

『난 천황(하늘)으로부터 오는 액을 막아주겠소』

다섯째가 말했다.

여섯째는,

『지황(땅)으로부터 오는 액을 막아주겠소』

라고 덧붙였다.

『나는 인황(사람)으로부터 오는 액을 다 막아 주리다.』

일곱째 성군이 이었다.

마지막으로 동성군이 말했다.

『난 갈 때 저것들 봉사나 만들어 주고 가겠소.』

『아이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성군들이 필쩍 뛰었다.

『내가 생각이 있으니 나중에 알게 될 것이요』

일곱 성군은 모두 강남천자국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동성군이 다음날 제자를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는데 수제자가 말했다.

『선생님 어젯밤에 어데 갔다 오셨습니까.』

『강남천자국에 제사상 받으러 갔다 왔다.』

『상은 받으셨습니까.』

『받았다』

『늦게 가서 상은 못 받았잖습니까.』

옳은 것을 가르쳐야 할 스승이 떡을 훔친 데다 거짓말까지 했으니 안 될 일이었다. 『네놈이 따라 오지 말라고 했더니 따라 와서 다 봤구나. 껌썸한 녀석 왜 따라 왔느냐』

『선생님 가시다가 도적이냐 만날까 걱정이 돼서 따라 왔습니다』

『가서 무엇을 봤느냐』

『떡 두개를 주머니에 담고 오는 걸 봤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 옷을 입고 가서 이 떡을 돌려주고 오너라.』

수제자가 칼내송 송내송 떡 두 개를 가지고 송피고을로 가보니 장설룡의 집에는 금줄이 쳐 있었다. 금줄 아래로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하인 수장남이 나오더니 대뜸 욕부터 했다.

『식사시간이 지났으니 절인은 나가시오』

『어젯밤 제사를 지낸 것 같은데 퇴물이라도 좀 주시오』

『아무 것도 없어』

수장남과 수제자가 서로 화가 나서 말대꾸를 하다가 싸움으로 번졌다.

마당이 시끄러워지자 장설룡 내외가 나왔다.

『주인님네 뭐 잃어버린 거나 없소』

수제자가 말했다.

『술내송 칼내송을 잃었소.』

『이거나 아닙니까.』

수제자가 손 위에 떡을 두 개 꺼내놓으니 장설룡이 그것을 보고 호통을 쳤다.

『네 놈이 바로 도둑놈이구나. 이놈을 잡아라.』

고마워해야 할 주인이 오히려 화를 내니 수제자도 화가 나서 떡으로 장설룡 내외를 맞춰 버리고 도망쳤다. 떡에 눈을 맞은 장설룡 송설룡 내외는 봉사가 돼 버렸다.

이틀 후에 나라가 뒤집어 지는 병란이 일어났다. 장씨와 송씨의 씨를 멸족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군사들이 장설룡의 집으로 몰려왔다.

『이 놈들 벼슬살 때 남의 돈도 많이 털어 먹었으니 배나 밟아버리고 가자』

들어와 보니 두 내외는 봉사가 되고 몸에는 물비리·강비리 허물이 흉하게 나서 살 것 같지가 않았다.

『그냥 두어도 굶어죽겠구나』

다행히 두 내외는 목숨만은 건지게 됐다.

『우리가 정성을 잘못하여 그 죄로 봉사가 됐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은 성군님네 덕이로구나.』

내외는 고마운 마음에서 다시 칠성제를 지냈다. 이번에는 일곱 성군들이 다 약속한 대로 복을 내려줬다. 두 내외는 눈을 떴다. 송설룡 부인은 아기를 배어 삼천궁녀가 부럽지 않은 미색 딸을 낳았다.

장설룡 내외는 칠성제를 지내 얻은 아이라는 뜻에서 아이의 이름을 「칠성아기」로 지었다. 칠성아기가 일곱 살 나는 해에 장설룡 내외는 벼슬살이를 떠나야 했다. 딸이 걱정된 내외는 늦인듯 정하남(하인)에게 아기를 잘 지키면 갓다 온 후 종 문서를 없애준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다.

칠성아기는 부모의 가마를 몰래 따라가다가 산중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인적이 드문 산중이라 중들밖에 지나가지 않았다. 울며 『부모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소연을 했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절에 사는 사람이라 여자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오던 중은 칠성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짐짝에 넣어 데리고 갔는데 부모를 찾아주지는 않고 밤마다 데리고 자면서 노리개를 했다.

아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장설룡 내외는 급히 돌아왔으나 삼년이 지나도록 찾을 수 없었다.

3년째 되는 날 칠성아기가 꿈속에 현몽하여 말했다.

『내일은 중들이 시주를 받으러 올 텐데 맨 마지막에 오는 중에게 물어보면 알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날이 되니 아닌 게 아니라 중들이 찾아왔다. 세 번째 중이 왔을 때 장설룡이 물었다. 『우리 기집아이(계집애)를 3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혹 알 도리나 있겠소.』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중은 얼굴빛이 변했다.

『이 놈이 수상하구나. 잡아서 족쳐라』

중은 부리나케 도망쳐 버리고 장설룡은 마을 어귀에서 칠성아기를 찾게 됐다. 칠성아기는 배가 한 자는 나와 있었다.

『설운 아가, 어제 이리 됐느냐』

『중이 밥을 얻으면 나도 많이 주고, 못 얻으면 밥 한 술 주나마나 하다 보니 배가 이렇게 됐습니다.』

『머리는 왜 매방석 같이 헝클어졌느냐』

『중놈이란 빛이 없다보니 머리를 빗겨주지 않아 이리 됐습니다.』

칠성아기가 이리저리 둘러봤으나 아무래도 수상쩍게 생각한 장설룡 내외가 가슴을 헤쳐 보니 젖 머리가 검게 변해 아기를 뱀 것이 분명했다.

『이런 자식 찾아봐도 양반집에서는 쓸 데가 없구나』

장설룡이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니 송설룡이 말렸다. 두 내외는 야쟁이(대장장이)를 불러 무쇠상자를 만들고 칠성아기를 담아 바닷물에 띄워버렸다.

바다를 떠다니던 상자는 조천읍 함덕리 바닷가로 떠밀려 왔다. 마침 이곳에서 물질을 하던 옛개(현재의 신흥리라고 한다)의 잠수 일곱 명이 상자를 발견하고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 머리끄덩이를 매며 싸웠다.

고기 낚으러 가던 송동지영감이 잠수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뜯어 말렸다.

『상자를 열어 보고 금이 나오든 옥이 나오든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다 갈라가지고 상자는 나를 주면 담배갑으로나 쓰겠다.』

송영감이 주먹으로 상자를 세 번 치자 문이 열렸다.

상자 속에는 여덟 마리의 뱀이 혀를 뻗고거리고 있었다. 상자에 갇혀 한이 쌓인 칠성아기가 뱀으로 변신하여 일곱 쌍둥이를 낳은 것이다. 잠수들은 저마다 침을 빨고 돌아섰다.

『예구 징그러워. 뱀인 줄 알았으면 싸우지나 말 걸』

그런데 그 날부터 잠수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백가지 약을 써 봐도 낫을 길이 없었다. 하다못해 문점을 해봤다.

『손으로 주은 죄, 눈으로 본 죄, 입으로 말한 죄에 걸어졌소』

잠수들은 그제서야 뱀들을 박대한 것이 생각났다.

다시 바닷가로 간 잠수들은 뱀들을 위로하기 위해 큰 굿을 했다. 굿에 쓸 해산물을 구하려고 바다에 들어가니 얼마 전까지도 안 보이던 전복·소라가 부지기수로 잡혔다.

굿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온 사람들은 그 때부터 이 뱀신을 모시게 됐는데 날이 갈수록 재산이 불어나고 자손이 번창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도 모두 같은 신을 모시기 시작했다.

하루는 뱀들이 성안(城內, 지금의 濟州市)구경을 나섰다. 뱀들은 가락쿵물의 물 내려가는 구멍으로 산지물까지 내려왔다. 마침 이곳에 빨래하러 왔던 송대감 집 따님아기의 물구덕

(불을 끄는 물허벅을 넣고 나르는 대바구니)에 들어가 숨었다.

송대감 집 따님아기는 집에 가서 물항아리를 꺼내려다가 뱀들을 발견하고 기겁을 하고 놀랐다.

송대감 집의 부인은 이 뱀들이 보통 뱀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우리를 살리려고 온 조상(神)들이거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뒤뜰로 데려갔다. 그래서 송대감 집에서 뱀들이 살게 됐는데 그 집은 이때부터 재산이 크게 늘어나 집안이 흥했다.

칠성아기는 일곱 딸들과 의논했다.

『우리가 모두 같이 다니면 인간들이 싫어할 것이니 따로 갈라서는 게 좋겠다. 큰 딸아기야,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동헌(東軒)할망으로 가겠습니다. 도임상 받고 일만 제조(提調) 일만 관속 다 나 차집니다』

『둘째 딸 아기야,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환곡창고로 가겠습니다. 일만 백성 환곡 바치면 서창고도 일천 석, 동창고도 일천 석 쌀을 되다 남으면 다 나 차지 아닙니까.』

『셋째 딸 아기야 너는 어디로 가느냐』

『물에 물색 좋아 칠성골에 염색할망으로 가겠습니다』

『넷째 딸 아기야 너는 어디로 갈래』

『사령(使令)방으로 가겠습니다. 죄에 걸어진 사람 풀릴 때면 돈이며 뚫다리며 온갖 것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상놈은 되겠구나마는 잘 먹을 곳으로 가는구나』

『다섯째야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일만 과실 열려서 나라에 바치고 남은 건 다 차지하게 과원(果園)할망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딸들이 다 갈라서고 작은 딸 아기는 집안 뒤결의 「뱃(뱃)칠성」으로 들어오고 어머니 칠성아기는 고방(庫房)안의 「안칠성」 신이 되어 사람들의 섬김을 받게 됐다.

[해설]

이 신화는 매우 은유적으로 모든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 정확한 ‘신화 읽기’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용은 제주섬에서 직접 목격되는 바다의 해류를, 뱀은 제주섬에 흐르는 물줄기를 표현한 것임에도, 그 은유성을 간과한 채 뱀을 숭배한다는 애니미즘(animism)적 자연숭배 사상으로 더러 해석하기 때문이다.

‘장설용’이니 ‘송설용’이니 하는 이름은 고대 제주 섬주민이 동중국해사단항로를 통하여 중국을 드나들며 맞닥뜨리는 해류의 웅장한 물굽이에 중국에서 만난 이들의 성씨를 차입하여 이름을 지은 것이다.

또한 성군이라 함은 하늘의 별자리를 일컫는다. 지금처럼 해도(海圖)와 관측도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 뱃사람들에게는 대해의 원양항해에 있어서 밤 배질(navigation)에 절대적인 항로를 안내하는 나침반 구실을 해준다.

해류의 흐름이 용트림으로 인식된 인류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으며 지금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회오리바람을 이무기가 드디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른다고 하여 ‘용오름’이라고 하는

데, 이는 동서양이 동일하다.

그와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인식되어진 해류의 흐름이 제주섬에 닿아 섬주민에 의하여 은유적인 표현을 드라마틱하게 한 이면에는 농경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고대에는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비를 관장하는 존재를 용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으로 세계의 고대 유적에는 용을 형상화한 그림들이 심심찮게 나타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일대에서는 용이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이 산업화가 다양해지고 영토 확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맞물려 고유한 상징성들은 강제로 잊어버리도록 정신적인 지배 결과, 그 의미는 매우 사소하고 비천하게 전락하고 말았다.

제주 섬주민의 원시심상 깊숙이 자리 잡은 이어도만 하여도 그동안 제주섬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실체로서의 이어도를 잊어버리고 이미지로만 의식에 기록되어 전해진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뱀도 마찬가지이다. 위 신화에 등장하는 뱀들은 웅대하게 용트림하는 거창한 해류의 흐름에 비하여 제주섬의 샘이 흘러보내는 물줄기는 뱀의 몸놀림처럼 가냘프고 조용하였다. 그럼으로 1970년대 초 까지만 하더라도 산지천을 형성하던 제주성 밑 오현단 아래 자리 잡은 가라곶물이 흘러보내는 물이 뱀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물론 뱀은 농경사회에서 익충(여기에서는 의로운 벌레라는 개념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동물을 뜻한다.)으로 인식되어 칠성과 같은 신앙을 낳기도 하였다. 다 익은 곡식을 헤치는 쥐와 참새 등을 잡아먹는 뱀이야말로 농사를 부쳐 결실을 기다리는 농민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존재였던 것이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뱀신은 따로 없다. 다만 일용할 양식을 지켜주는 존재가 은유화한 것일 뿐이다. 그 본 실체는 개울물, 작은 시냇물과 같은, 농사며 일용할 식용에 필요한 물이었다.

이러한 진실은 시대적 격변에 의하여 전혀 다른 이미지로 기록되어지기도 한다.

더구나 용과 뱀에 대한 신앙을 비천하게 여기고 혐오하는 경향에 따라 이러한 신화를 다룰 때, 조심하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 신화를 해설한 원저자도 그런 일면을 참작하여 신화본문보다 앞에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제주도의 위와 같은 신화를 소개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이 신화들은 현재 살아있는 민간신앙으로서 도내 각 곳에서 행해지는 제의의 현장에서 구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화의 내용이 잘못 다뤄진다면 비난을 받음은 물론 아직 신화에 밝지 않은 선부른 구전자가 다시 인용할 경우는 원전까지 해치는 심각한 악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제주도 신화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문제, 즉 뱀신의 이야기를 다뤄야 한다. 뱀신의 이야기는 민간신앙을 탄압했던 위정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과장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본향당(本鄕堂)신화의 경우 더욱 그렇다.”

3-15 호종단(고종달이)

출처 : 고대경, 『神(신)들의 고향』, (도)중명, 1997. pp.52-63.

[본문]

옛날 탐라(耽羅)에서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쳐 날아다니는 아기장수들이 심심치 않게 태어났다.

이 소문이 점점 퍼져 나가 중국까지 흘러 들어갔다.

중국 송(宋)나라의 왕이 지리서를 펼쳐 놓고 보니 고려의 지기(地氣)가 심상치 않았다. 그 중에서도 탐라는 걸출한 인물이 많이 날 지형이었다.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중국이 위태로울 판이었다.

왕은 복주(福州)태생의 뛰어난 풍수사 호종단(胡宗旦)을 불러 탐라로 파견했다.

『조선이 배 형체라면 탐라는 닻가지 모양이다. 배라는 것이 항해하려면 닻을 거둬야 할 것인즉 탐라로 먼저 가서 지맥·물혈을 끊어라. 높은 지맥은 깎아 내리고 굽이 친 물은 터서 장부 하나 나지 못하도록 말려 버려라』

이것이 호종단이 제주로 오게 된 연유였다.

호종단의 눈은 명의(名醫)가 사람의 뱃속을 꿰뚫어 보아 병을 알 듯 땅을 들여다보면 어느 물길이 어디로 흐르는지 훤히 보이는 신안(神眼)이었다. 더욱이 그는 물혈을 찾는 커다란 개를 데리고 제주에 상륙했다.

동쪽 구좌읍 종달(終達)리 경에 상륙한 호종단은

『이곳이 어디냐』

고 물었다.

『종달리외다』

『무엄하게 내 이름을 닮아? 이곳부터 물혈을 뜨자』

호종단은 대번에 이곳 속칭 「물징거」 샘의 혈을 따버렸다. 평평 흐르던 물은 갑자기 말라버렸다. 은월봉 인근 속칭 「대머들」에서 이 물에 의지해 살던 마을 사람들은 샘이 말라버리자 해안으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종달리에서 물혈을 뜨기 시작한 그는 차츰 서쪽으로 가면서 마을마다 쓸 만한 샘물은 모두 말라버렸다. 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샘물은 없었다. 이러다가는 제주에 있는 샘물들이 모두 말라버릴 것 같았다.

표선(表善)면 토산(兎山)리에는 「거슨새미」와 「노단새미」라는 두 샘이 있었다. 같은 구멍에서 나오는 생수였으나 한 줄기는 한라산(漢拏山) 쪽으로 거슬러 흐르고 또 한 줄기는 오른쪽으로 갈라져 바다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어느 날 이 샘물 인근의 「너른 밭」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홀연히 아리따운 처녀가 나타나 간청을 했다.

『저 거슨새미 물을 떠다가 길마 밑에 숨겨 주십시오』

농부는 영문을 몰랐으나 어차피 점심을 먹으려면 물을 마셔야 할 것이었다. 늦그릇에 물을 떠다가 길마 밑에 놓고 별이 들지 않도록 우장을 씌워 두었다.

잠시 후 부리부리한 사내가 개를 앞세우고 밭으로 다가왔다.

『이 마을 거슨새미와 노단새미 물이 어디 있소』

『저 아래 가서 찾아보시오』

호종단이 물가로 내려가 찾아봤으나 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이상타. 여기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당황한 그는 지리서를 다시 꺼내 살펴보았다.

책에는 샘의 이름이 어느 새 「고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라고 바뀌어 있었다.

『고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라는 게 있소?』

『허 살다보니 별 이름 다 들겠군. 난 그런 거 모르오』

그제서야 나그네가 풍수가라는 것을 눈치 챈 농부는 탄침을 부렸다.

고부랑 나무라는 것은 소의 길마를 얘기하는 것이고 행기물이라는 것은 솟그릇에 담긴 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신통한 역술서는 농부가 물을 떠서 숨겨 놓으리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호종단은 고부랑 나무라는 것도 행기물이라는 말도 알아먹지 못했다. 신통한 그였지만 땅속만 들여다 볼 줄 알지 그릇에 담긴 물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호종단이 주의를 두리번거리는 사이에 그의 개가 물 냄새를 맡고 쿵쿵거리며 소 길마 쪽으로 다가갔다.

접이 덜컥 난 농부는,

『이 놈의 개가 내 점심을 먹으려는구나』

하고 몽둥이질을 해 개를 쫓아버렸다.

끝내 샘을 찾지 못한 호종단은,

『쓸모없는 책이로고』

하면서 지리서를 찢어 버리고 이 마을을 떠났다.

이렇게 해서 거센새마와 노단새마 물길은 끊어지지 않았다. 농부에게 물을 떠다 놓도록 부탁한 것은 두 샘의 정령(精靈)이었다.

호종단은 책을 찢어 버렸기 때문에 이후로는 물혈을 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는 이 마을 동쪽까지는 모두 샘이 말라버렸으나 이 마을 서쪽으로는 아직도 샘물이 많이 난다고 한다.

호종단의 탐혈은 여기에서 그쳤으나 이때 제주도의 물혈은 많이 끊어버렸다.

제주시 병문천 인근의 두천(斗泉)은 그 모양이 말과 같이 생겼다 해서 「말샘」이라고 했다. 이 물을 마시면 능히 1백보를 날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가물면 물이 맑고 비가 오려 할 때에는 금기(金氣)가 뜬다고 한다. 그가 그 영기(靈氣)를 눌러 버려 없어졌다고 한다.

그는 또한 떠놓은 물을 가지고 가다가 한림(翰林)읍 협재(挾才)리 앞바다에서 주머니 끈이 떨어져 쏟아졌다고 한다.

또 제주시 산지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려다가 물에 풍덩 빠져버렸다. 그래서 산지천(山地泉)의 물은 아직도 팔팔 쏟아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종말이는 제주에서 물혈을 떠보았으나 가지고 돌아가질 못했다. 모두 제주도에서 떨어뜨리고 말았다.

섬전역이 호종단의 서슬에 질려있을 때 탐라에서는 유일하게 덕을 본 사람이 있었다.

호종단이 토산(兔山)리를 떠나 남원(南元)읍 의귀(衣貴)리 경에 들어섰을 때였다. 넓은 들판에서 말뚝을 चु는 두 부부를 만났다. 말뚝은 당시 난방용으로 불을 땔으며 타다 남은 재는 메밀이나 발벼의 거름으로 쓰면 곡식이 잘 되었다.

정의(旌義) 별판을 해매느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던 호종단은 이 농부들에게 식사를 청했다.

『여보, 뭐 먹을 것 좀 없소』

『찬밥이라도 좋다면 있소이다』

마음씨 착한 두 부부는 자신들이 먹을 점심을 내주었다. 보리밥에 물을 훌훌 말아 배불리 먹은 호종단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몹쓸 짓을 하며 다니던 그였지만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두 부부를 보아하니 행색이 초라하고 영관 잘 살기에는 그른 인상이었다.

보답을 해 줘야겠다고 생각한 호종단은,

『노부모가 있을 듯 한데 좋은 묘 자리나 보아 두었소?』

하고 넌지시 물어봤다.

『묘 자리는 무어. 살 집도 제대로 없는 데요』

농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좋은 산 자리나 있으면 봐 달라』

고 부탁했다.

땅에 못을 박은 호종단은,

『이것을 가만히 밟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발을 떼지 말라』

고 일러두었다.

호종단이 먼 오름으로 가서 용맥(龍脈, 지맥)을 밟아오기 시작했다. 나그네가 한참동안을 오지 않는데다 발바닥이 간지러워 오기 시작하자 농부는 슬그머니 발을 땀다.

그 순간 비둘기 한마리가 발바닥에서 푸드득 뛰쳐나와 날아가 버렸다.

농부는 아차, 하고 화급히 발을 질끈 밟았으나 때는 늦었다.

호종단이 돌아와

『어찌 된 일이요?』

하고 물었다.

『발이 뜨거워서 할 수 없이 잠깐 들었더니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 갔소』

혀를 찬 호종단은

『할 수 없오. 아직 지기(地氣)가 남아있으니 여기에 산을 쓰고 비둘기가 날아간 곳에는 집을 지으시오』

『가난한 사람이 새 집 지을 처지가 되오?』

『아따, 거 큰 콧가시나무 자르지 말고 그 위에 초막이나 얹고 살면 될 거 아니오』

터를 잡아준 호종단은 농부에게 길을 물어보고는 서쪽으로 떠났다.

농부는 호종단이 가르쳐 준대로 이곳 속칭 「반디기왓(밭)」에 집을 짓고 살았다.

이때 호종단이 찾아 준 혈은 마혈(馬穴)이었다.

이 혈은 제주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혈중의 하나인데 이 덕분에 제주에서는 말들이 크게 잘된다고 한다. 이후 조선조(朝鮮朝)에는 섬 전역에 국마장(國馬場)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곳에 터 잡은 농부의 집에 그 해에 비루먹은 말 한 마리가 찾아와 기웃거렸다.¹⁴⁾ 불쌍히 생각해 길러줬더니 해마다 새끼를 낳아서 한 마리가 두 마리, 두 마리가 네 마리, 여덟

14). 탐라문헌집 등 관계문헌에 의하면 김만일은 좋은 말은 일부러 귀를 찢거나 몸에 상처를 내어 정발을 피하고 종마로 썼다고 한다. 이 비루먹은 말의 이야기는 그 내력이 신화화한 것으로 보인다.

마리가 됐다.

농부가 하는 일은 모두 재산으로 연결됐다. 방목하다 잃어버린 말은 해가 지나면 다른 말 열 마리, 백 마리를 이끌고 돌아왔다.

말로 인해 크게 부자가 된 이 농부는 경주(慶州) 김(金)씨의 선조라고 전해진다.

후세인 김만일(金萬鎰)은 수천 마리의 말을 기르게 됐으며 왜적이 침입하여 7년 전쟁이 한창이던 1594년에는 조정에 말 5백 필을 헌납하여 헌마공신(獻馬功臣)이 된다. 그는 이후 해마다 말을 바쳐 목사보다 더 높은 계급의 감목관(監牧官)직을 제수 받아 대대로 세습하였다.

농부의 가문에 말들이 견잡을 수 없이 불어나던 당시 다른 주민들은

『감목관집의 말때, 말때!』

하는 감탄사를 연발해 그 후에도 말이 많은 것을 보면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서쪽으로 간 호종단은 안덕(安德)면 사계(沙溪)리 산방산(山房山)에 이르렀다.

평지에 볼썽 솟은 산방산의 모습은 장대한 남자의 기상 그것이었다. 산 밑에는 거대한 용이 머리를 내놓고 있어 물결에 따라 거품을 일으키며 산방산을 이끌고 중국을 향하여 사계 앞바다의 형제섬 너머까지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다.

호종단이 중국에서 올 때부터 염두에 되던 왕후지지(王侯之地)가 틀림없었다. 이 형세를 그대로 두면 왕후장상이 태어나 천하를 주름잡을 게 뻔했다.

용이 목을 빼기를 기다린 호종단은 잔등을 힘껏 꿇었다. 꿇은 자국에서는 벌건 피가 솟구쳤다. 사정없이 내리 꿇노라니 꿈틀거리던 용이 조용해졌으며 흘러내린 피는 주변 땅을 벌겍게 적셨다.

혈이 꿇긴 용머리는 산방산을 끌고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는 왕도 큰 장수도 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또 용이 채 나가기 전에 혈을 꿇었기 때문에 화순항(和順港)도 크지 못해 지금의 규모밖에 되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산방산 아래는 용머리와 잔등이 잘린 것 같은 용의 모양이 남아있다.

[해설]

이 신화도 설문대, 자청비 신화와 더불어 제주 섬주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신화일 정도로 유명하다.

얼핏 봐서는 이 신화가 이어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신화는 이어도로 상징되는 동중국해를 둘러싼 고대사회의 패권다툼이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신화에 제주섬 나라가 외부와의 치열한 패권다툼이 있었음을 호종단(제주 사람들은 ‘고종달이’라고 한다.)으로 대별되는 외부세력과 ‘고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이라고 은유화된 물자리 하나를 들어 제주 섬주민을 대치시켜 표현하고 있다.

어쨌든, 중국 땅에서 제주섬의 기운을 떠버리려고 들어온 풍수사의 행적은 동중국해사단 항로의 존재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제주 섬주민이 일상적으로 중국을 드나들 듯 중국 양쯔강 일대의 주민들도 제주섬으로 항해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신화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호종단은 중국으로 돌아가다가 한라산신의 일

격으로 주장되고 만다. 이는 호종단으로 상징되는 중국인에게 있어 동중국해사단항로는 무척 힘든 뱃길이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호종단을 주장시킨다는 상징적 표현은,

“모든 외세의 침략에도 제주의 정신은 살아남았으며 그 정기는 중국이나 고려 못지않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삼성신이나 한라산신과 관련 있는 점, 또 다른 신화들과 마찬가지로 ‘사서(史書)’로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의 전승’이라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원본의 해설)는 의미이다.

이어도는 지상에서 사라졌어도 제주 섬주민의 의식에 섬으로 바다 한가운데 아직도 솟아 있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부연하면, 호종단은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다. 그에 대하여 원본 해설을 아래 인용하였다.

“호종단은 주민들 간에 ‘고종달’로도 불리는 인물로서 고려 때 실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 속의 농부는 경주(慶州) 김(金)씨의 선조라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전래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주 김씨 가문에서는 자신들의 입도조(入島祖)는 조선 태종(朝鮮 太宗) 2년(1402년)께에 제주에 왔다고 말하고 있다.

호종단은 고려 중기의 인물이므로 신화의 시기와 맞지 않는다. 결국 이 이야기는 김씨 가문의 말이 크게 번창하자 호종단의 이야기와 뒤늦게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高麗史) 등에 의하면 호종단은 고려 예종(高麗 睿宗)때 인물로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낭사(郎舍)에서 사관(史官)직인 종5품 기거랑(起居郎)·기거사인(起居舍人)직을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거랑이나 기거사인이 맡은 일은 주로 간쟁이었다.

호종단은 원래 송(宋)나라의 복주(福州)태생으로 중국 절강성에 있다가 상선을 타고 고려에 귀화했는데 예종(睿宗)의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호종단은 이야기에 나타나듯 송나라에서 파견된 게 아니라 고려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이며 파견 시기는 예종의 재위기간인 1105년에서 1122년 어간인 것으로 보인다.

예종은 재위 중 윤관(尹瓘)을 파견해 북쪽의 여진족을 경략해 9성을 함도록 했던 인물로서 호종단을 탐라로 파견했던 것은 그의 남방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제주가 고려의 군이 된 것은 숙종(肅宗)10년인 1105년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문헌상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중앙관현은 최척경(崔陟卿)으로 1161년에 파견됐다. 그러므로 호종단의 임무는 정치적인 복속이전에 정신적인 사전정지작업이었을 것이다.

호종단이 실제로 많은 혈을 끓였는지 아닌지는 증명하기 힘들되 이러한 소문이 퍼지기만 했어도 주민들은 한 풀 기가 꺾이어 『우리는 이제 지방에 불과하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또 호종단이 차귀도(遮歸島) 앞바다에서 주장됐다고 하나 실제로는 잘 살았다고 하므로 호종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의식이 강한 도민들이 나중에 지어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신화는 최단시간에 발상에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제주 섬주민의 진정한 자존을 표현한 신화에도 이어도를 구심점으로 그려졌던 동중국해사단항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 소리(민요)

□ 간접자료 29수

- 4-1 오돌또기 13수
- 4-2 갈치 낚는 소리 3수
- 4-3 서우젓 소리 5수
- 4-4 테우 젓는 소리 1수
- 4-5 염불소리 1수
- 4-6 성주 내는 소리 1수
- 4-8 이어도 놀래 5수

4-1 오돌또기

[해설]

오돌또기 계열의 제주소리를 이어도를 증거 할 만 한 자료로 선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어도에 대한 존재 의식의 근거를 제주 섬주민이 그 해역을 항해에서 간접 규명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관련학계에서는 이어도를 구심점으로 한 그 주변 수역의 항로를 '동중국해사단항로' 하나로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 본토의 고대항로 표시일 뿐, 베트남을 위시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등지로 넘나들던 항로는 아직 확실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동중국해사단항로 만으로도 베트남 등지로의 항로를 설명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한다면, 장보고의 해상무역의 외지 중요 지역 중의 하나로 베트남의 호이안을 꼽는다. 이 교역 무역로를 뚫을 때 제주 섬주민 중에 바닷길에 밝은 이를 뱃사람으로 채용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베트남의 중부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도시 호이안에는 제주 섬의 한 사나이의 족적이 남아 있다.

오돌또기 소리의 전설에 의하면, 김복수라는 젊은이가 무역선을 타고 안남(베트남의 옛 이름 중의 하나) 호이안에 갔다가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 혼인하여 정착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일본의 상선이 정박한 것을 보고 문득 제주 섬 고향이 그리워졌다.

그가 일본의 상선만 보고도 제주섬을 그리워하게 된 이유는, 일본상선이 호이안을 오가려면 반드시 제주섬을 거쳐 이어도를 지나는 항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일본으로 귀향하는 상선을 타면 제주섬에 가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잠시 고향 제주섬에 다녀올 요량으로 가족들과 잠시 이별하고 일본상선을 얻어 탔다.

고향 제주섬에 무사히 와 닿았으나 호이안으로 돌아갈 배를 탈 기회가 좀체로 주어지지 않았다. 호이안에 두고 온 아내며 아이들이 눈에 어려 하루하루를 그리움으로 살아야만 하였다. 호이안 가족이 그리울 때마다 절율이오름(송악산)에 올라가 멀리 호이안으로 눈을 돌리고 울고 또 울며 읊조렸다.

이어도 까지만 가면(여도 당실)
가족이 있는 곳을 갈 수 있으면만

이 오돌또기는 이후 가사에 제주도의 특징적인 풍물 등 면면이 소개되기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제주의 빼어난 자연경관인 '영주십경'을 노래하는 등 귀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이 소리는 이후에 남녀 간의 그리움을 담아 널리 불려졌다. 더구나 육지부로 전해져 경서도 지방에 이르면 독특한 음색을 지니게 되어 '경서도 민요' 중의 한가지로 자리 매김 되기에 이른다.

김복수가 그 이후 호이안으로 돌아갔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베트남 중부에 이르는 또 하나의 '이어도 항로'를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한 뱃사람의 처절한 그리움 속에도 또 하나의 이어도는 숨어 있는 것이다.

4-1-1 오돌또기

출처 :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1963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2001 재발간.p.222

오돌또기 저기 춘향 나안데
달도 밝고 너가 머리로 갈꺼나
둥그대 당실 둥그대 당실
여도 당실 원즈 머리로
달도 밝고 너가 머리로 갈이거나

[표준어 역]

오돌또기 저기(這妓) 춘향(春香) 낳았네
달도 밝고 네가 첫째로 갈 것이냐
둥기대(童妓大) 당실(堂室) 둥기대(童妓大) 당실(堂室)
너도 당실(堂室) 원자(圓者) 머리로 얹어서
달도 밝고 네가 첫째로 갈 것이냐

4-1-2 저기 춘양 논다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上』, 일조각, 1965.
『제주도민요연구』, 민속원, 2002 재발간. p.328

오돌또기 저기 춘양 논다
돌도 붉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돌도 붉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4-1-3 연자 버리고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上』, 일조각, 1965
『제주도민요연구』, 민속원, 2002 재발간. p.328

한로산 허리엔 시러미 익은 송 만 송
서귀포 헤너는 바당에 든 송 만 송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당실 연자 버리고
돌도 붉고 내가 머리로 갈이거나

4-1-4 등그대 당실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上』, 일조각, 1965
『제주도민요연구』, 민속원, 2002 재발간. pp.328-329

제주야 한로산 고사리 맛도 좋고 좋고
산지야 축항 곳 뱃고동 소리도 좋고 좋고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돌도 붉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4-1-5 해 돌는 귀경도 좋고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上』, 일조각, 1965
『제주도민요연구』, 민속원, 2002 재발간. p.329

성산포 일출봉 해 뜰는 귀경도 좋고 좋고
성네야 사라봉 해지는 귀경도 좋고 좋고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돌도 붉고 내가 머리로 같이거나

4-1-6 초신을 신어근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上』, 일조각. 1965
『제주도민요연구』, 민속원. 2002 재발간. p.329

가름는 가곡 말름은 말았지
초신을 신어근 씨집 가랜 말이우파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돌도 붉고 내가 머리로 같이거나

4-1-7 청사초룽에 불 붉혀 들곡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上』, 일조각. 1965
재발간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민속원. 2002. p.329

청사초룽에 불 붉혀 들곡
춘양의 방으로 좇아나 같이거나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돌도 붉고 내가 머리로 같이거나

4-1-8 여도 당실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52

오돌또기 저기 춘향이 나온다
달도 밝고 재가 머리로 같까나
등기대 당실 등기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바리고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까나

칠 폭 팔 폭은 여덟폭 치매
갈고 덮으난 복반이 남았네
등기대 당실 등기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바리고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까나

돈 닷돈 보고서 삼밭 되 들었더니
물맹지 단속곳 다 찢어져구나
등기대 당실 등기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바리고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까나

한로산 중허리엔 눈이 가뜩 쌓여도
너하고 나하는 봄철이로구나
등기대 당실 등기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바리고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까나

4-1-9 서귀포 해녀들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329

오돌뜰기 저기 저냥 논다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까나

하로산 허리에 시로미 든 송 만 송
서귀포 해녀들 바다에 든 송 만 송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머리고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이거나

하로산 허리에 시로미 든 송 만 송
서귀포 해녀들 바다에 든 송 만 송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머리고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까나
청천은 하늘에 존 별도 많고

요내야 가슴에 존 수심도 많도다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머리고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까나
하로산 허리에 시로미 든 송 만 송
서귀포 해녀들 바다에 든 송 만 송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머리고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까나

4-1-10 머리로 갈까나

출처 : 한기홍, “조천민요의 특이성”, 민요학회, 『민요론집』 제3호,
제주문화. 1994. p.396

오돌또기 저기 춘향이 나온다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까나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까나

칠 폭 팔 폭은 요듭 폭 치매
풀고 더끄난 복판이 남앗소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까나

돈 닷돈 받고요 삼밭되 들었더니
물맹지 단속옷 다 찢어졌구나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제가머리로 갈까나

4-1-11 한라산 중허리엔

출처 : 김영돈, 『제주의 민요』, 신아문화사. p.208
한기홍, “조천민요의 특이성”, 민요학회, 『민요론집』 제3호,
제주문화. 1994. pp.396-397

오돌또기 저기 춘향이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한릿산 중허리엔 시로미 든 송 만 송
서귀포 해녀덜은 바다에 든 송 만 송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4-1-12 이야도 당실

출처 : 김영돈, 『제주의 민요』, 신아문화사. p.208

한기홍, “조천민요의 특이성”, 민요학회, 『민요론집』 제3호.

제주문화. 1994. p.397

오돌또기 저기 춘향이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이야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성산일출 사봉낙조 제주시 항구는 산포조어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4-1-13 바람만 불면은

출처 : 김영돈 · 현용준, 『한국구비문학대계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83. p.1038.

한기홍, “조천민요의 특이성”, 민요학회, 『민요론집』 제3호. 제주문화. 1994. p.397

오돌또기 저기 춘향 보아라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거나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거나

한릿산 중허리엔 높이 뜬 구름도
바람만 불면은 간곳이나 없구나
등그대 당실 등그대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제가 머리로 갈거나

4-2 갈치 낚는 소리

[해설]

갈치는 아열대성 바다에 서식하는 어류이다.

오랜 옛날부터 제주의 어부들은 여름철이면 제주섬 연안에서부터 이어도에 이르는 먼 원해에 이르기까지 갈치를 낚았다.

갈치 낚는 소리는 사설이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 사설에 이어도 주변 수역 등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나타난다.

“강남 바둑 강갈치야” 라고 할 때, “강남서 돌아온 궤기(고기)야” 등의 ‘강남’은 강남 바다 즉 동중국해를 일컫고 있다.

또한 “지피 갓자 진버덩이” 라는 말은 깊이 갈치가 물속으로 내리 가 뵈자 ‘진버덩이’ 라고 하여 직역하면 ‘기다란 암반지대’ 라는 표현이지만 강남바다의 암반지대는 물밑의 이어도를 표현한 것이다.

예전 1980년 대 초까지 목선에 의하여 이어도해역에서 갈치와 옥도미를 낚던 제주어부들은 곧잘 이어도를 ‘진버덩이’, ‘왕석바탕이’ 등으로 표현하곤 하였다.

따라서 이 소리들을 음미할 때에 갈치 낚는 어부들이 이어도항로 상의 바다를 제주섬 주변 바다와 마찬가지로 개념의 바다밭으로 인식했음을 안다면 더욱 그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4-2-1 강남 바둑 강갈치야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32

사설 ; 아, 이거 오닐은 원 갈치가 씨원치 안할라나 원, 어째서 원 물지를 아니 흐네, 아이고, 놀래나 혼 꼭지 불러보자.

강남 바둑(바다) 강갈치야
나 술은 썩은 삼 술이여
흔번 물영 쟁곳 덩겨 보라
지피 가면 진버덩이
얏치 가면 얏버덩이 물영 가라

쉐미 짐좌수 칫 왕뎃그르 굴이
파작흔 주제가 오랑
이 술 저 술에 우두둑 우두둑 물어 보라
지피 갓자 상거리로 마흔닷 발
중거리로 쉰흔닷 발
초거리로 스물닷 발
이리 가도 아니 물고

저리 가도 아니 무네
흔 번 지피나 주어 보자
지피 갓자 진버텨이

사설 ; 어,어. 요놈의 즈석 얼씬얼씬 흥단 물었구나. 요만 흥난 죽어지는 걸 경 야실야실해
였구나. 아이고 좋다! 물어 보난 좋지.

니도 밧작 나도 밧작
둥기여 보게 둥기여 보자

4-2-2 강남서 돌아온 꿩기야

출처: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115

하이고 갈치는 아니 물고 에~
물도 썰여 지고 꿩기도 아니 물고
강남서 돌아온 꿩기야, 갈치는 족박 아구리 닳은 갈치야
이영 들러근 요 니깍 들어 가거들라그네 에이야~
종갓종갓 물어 당기는 에이에 쌍알 술 물게 시리 해여 도라
요놈의 갈치야 해에야~ 어딜 가서 아니 무느냐
하~ 허리는 늘쑥하고 보기는 좋고 해뜩해뜩흔 갈치야 어딜 가서 아니 오느냐

사설 ; 어이차! 엇다. 하나 물었다, 물었다! 땡기라!

4-2-3 강남 바당에 놀던 갈치떼야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130

강남 바당에 강갈치야
가다나 쟁곳 오다나 쟁곳
나 뉘신 보난 멍개낭 술이로구나
나 술은 검은 썩은 침줄이 뉘는 구나

요리저리 다니다가
나 뉘시 곳에 도낭에 에이에 걸려만 지라
강남 바당에 강갈치가 돌아 왔네

오늘 저녁 날새기 전에 도랑에
요 바구리로 훑나만 나까지어시며는
이리 가도 강갈치
저리 가도 강갈치만 어
때 짓어 들어나 오라

강남 바당에 놀던 갈치때야
오늘 저녁이랑 나하고
벗을 삼아그네 놀아나 보자
요리저리 노는 것도
대장부의 늠이로구나

4-3 서우젓소리

[해설]

원래 이 소리는 ①바다에서 누가 세상을 떠났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혹은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가족 중의 누군가가 그러한 경우를 당하여 트라우마를 입고 정신질환을 앓을 때, 이를 치유할 목적으로 치러지는 의례인 ‘추는 굿’ 등에서 카타르시스를 위하여 징, 장고, 북, 팽가리 등 타악기를 동원한 춤사위와 더불어 불려진다. ② 두 번째, 떨치후리기, 듬북채취 등 대다수의 군중을 동원한 연안바다의 노동현장에서 정말로 흥미진진한 가사를 곁들여 역동적으로 불려진다.

어떤 경우에 노래 불려지던 그 사설을 잘 음미해보면 제주섬 주변의 수역 뿐 아니라 동중국해와 그보다 아래 쪽 태평양의 길목에 이르는 바다에 대하여, 그리고 제주 선박의 발진사 등을 유추해보고도 남을 만한 배 종류가 나열된다. 그에다 그물 등 어로도구 또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 소리의 사설에 나타난 이어도 해역, 선박 발달사, 어로도구들 그리고 그를 이용하며 살아온 제주 섬주민의 삶이 많은 우리의 해양문명의 발달사를 엮어내고 있다.

4-3-1 아아양 어어야

출처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1083-1084

떴구나 떴구나 화룡선 떴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떴네 떴네 화룡선 떴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뗏네 뗏네 호매선 뗏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뗏네 뗏네 뜬뜬 바당 조기선 뗏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뗏네 뗏네 화룡선 뗏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진도바당 새우선 뗏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뗏네 뗏네 호매선 뗏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뗏네 뗏네 연락선이 뗏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뗏네 뗏네 동목선이 뗏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뗏네 뗏네 군대환이 뗏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뗏네 뗏네 한로산이 뗏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뗏네 뗏네 태포산이 뗏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뗏구나 뗏구나 제주 한로산이 뗏구나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저 바당으로 배놓고 갈까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제주 한로산은 경치도 좋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뗏네 뗏네 한로산이 뗏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바당에 텃구나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텃구나 텃구나 조기선이 텃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텃구나 텃구나 죄주섬이 텃네
아아양 어어야 어어요

4-3-2 이어 차 소리에

출처 : 현용준 ·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1174-1176

떴다떴다 호매선 떴다
아~아아야 에~에에요

둥둥 뜨는 저 군함아
아~아아야 에~에에요

호 좁은 바다에 영화를 치니
아~아아야 에~에에요

내가슴도 올랑들랑 하는다
아~아아야 에~에에요

이어차 소리에 배올라온다
아~아아야 에~에에요
잘잘가는 춤나무배여
아~아아야 에~에에요
술술가는 술나무배여
여~아아아 야~에에에요

우리야 배는 잘도나 간다
아~아아야 에~에에요

놈의 배는 못도나 간다
아~아아야 에~에에요

이물에는 이 사공아
아~아아야 에~에에요

고물에는 고 사공아
아~아아야 에~에에요

화장아이야 허릿되 밋되
물 때 점점 늦엄더라
아~아아야 에~에에요

요 네상작 뿌러나 지면
아~아아야 에~에에요

가시나무 씨졌더라
아~아아야 에~에에요

요 벤드레 꿇어나 지면
아~아아야 에~에에요

인천항구 덕판목이 씨졌더냐
아~아아야 에~에에요

요 네 발판 느려나 지면
아~아아야 에~에에요

배니다가 씨져선가
아~아아야 에~에에요

여기야 소리에 넘어 간다
아~아아야 에~에에요

우리 배 선왕님은 수덕 좋고 영급 좋아
아~아아야 에~에에요

우리 배에 요왕 일월
아~아아야 에~에에요

뒷발을 놀리고 거들을 치네
아~아아야 에~에에요

갈치와당애 갈복름 낫네
아~아아야 에~에에요

맹지와당애 실복름 낫네

아~아아야 에~에에요

동외와당에 쌀물 나네
아~아아야 에~에에요

서외와당에 들물 나네
아~아아야 에~에에요

저스라 저어라 저스라 저어라
아~아아야 에~에에요

우리 배는 수덕도 좋고나 영급도 좋다
아~아아야 에~에에요

요 물 아래 은과 금이 줄졌저
아~아아야 에~에에요

내 숨이 쏴라 지면 못 할로다
아~아아야 에~에에요

안여밧여 곱은여로
아~아아야 에~에에요

물건 좋은 여 끝으로
아~아아야 에~에에요

어서나 져장 나가나 보자
아~아아야 에~에에요

해천영업 내운 놈아
아~아아야 에~에에요

어텔 가고 아녀 오나
아~아아야 에~에에요

천리 가도 원수로고나
아~아아야 에~에에요
만리 가도 원수로고나
아~아아야 에~에에요

여기야 도야 산이로고나
아~아아야 에~에에요

응 소리랑 팔도나 강산 유람 흐라
아~아아야 에~에에요

요 나이사 땃 나이리
아~아아야 에~에에요

요 네 일성 츠마나 진정 버칠 손가
아~아아야 에~에에요

물도 싸민 여울이 난다
아~아아야 에~에에요

낭도 싸민 ㄱ루가 난다
아~아아야 에~에에요

그만 흐난 외단 보난 앞명에 오랏저
아~아아야 에~에에요

4-3-3 물엔 가난 용궁에 서낭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p.74-75

어양어여 어야 뒤여 어기나 뒤여 삼사나 뒤여
아~아아양 어~어양어요

풍년 왔구나 풍년왔 구나 농쟁이와당에 돈 풍년 왔구나
아~아아양 어~어양어요

산엔 가난 산신대왕 물엔 가난 용궁에 서낭
아~아아양 어~어양어요
이물에랑 이 사공아 고물에라근 고 사공이여
아~아아양 어~어양어요

허릿대 밋되 화장아야 물 때 점점이 늦어나 간다
아~아아야 어~어양어요

4-3-4 여기여 차 소리로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p.225-227

여기여차 소리로 사가 넘어 가는구나
아~아양 어~양 어~요

이물에는 이 사공아 고물에는 고 사공아
아~아양 어~양 어~요

허릿대 밋디 화장아야 물 때나 점점 맞춰는가
아~아양 어~양 어~요

일출은 성산봉에 해 뜨는 구경도 좋구나 좋다
아~아양 어~양 어~요

제주시에 사라봉에 해지는 구경도 좋구나 좋다
아~아양 어~양 어~요

홀어머니 돌 뜯 것은 내가 맞일 친구로구나
아~아양 어~양 어~요

돌 뜨는 등산에 돌이나 뜯건 보거나 좋고
아~아양 어~양 어~요

햇어머니 돌 뜯 것은 내가 맞일 친구로다
아~아양 어~양 어~요

멩지바당 실바름 불고 선두 사공 노름일세
아~아양 어~양 어~요

구물이사 천 코라도 배릿배가 으뽀일세
아~아양 어~양 어~요

미늘 좋은 흥낙시로 가는 퀘기랑 콩질 결명
아~아양 어~양 어~요
오는 퀘기 놀깁 결명 혼 물간씩 잡아 줘서
아~아양 어~양 어~요

솔물 나면 동의와당 광덕 한더레 집의 집성
아~아양 어~양 어~요

들물 날면 서의와당 광인 한더레 집의 집성
아~아양 어~양 어~요

여귀역 지역 서말 서천 저 용신에 바랑 간다
아~아양 어~양 어~요

서른닷 발 닛 덩겨 놓고 열닷 발은 돛을 달고
아~아양 어~양 어~요

칠산 바당 조기 잡으레 술렁술렁 배 띄와 놓고
아~아양 어~양 어~요

술이나 안주며 많이 실코 월궁허이다 벗을 삼아
아~아양 어~양 어~요

우리나 적군 그만 허면 흘 만큼이 등맞앗구나
아~아양 어~양 어~요

오동통통 발동기는 세양 기계로 놀건마는
아~아양 어~양 어~요

저 바당에 군대환은 기계기속으로 놀아 간다
아~아양 어~양 어~요

옛날옛적 호매선 탈 땀 삼뚫받이 불 켜구나
아~아양 어~양 어~요

칠산 바당 조기 잡아당 우리 적군덜 술안주 하고
아~아양 어~양 어~요

술이나 안주며 많이 실코 월궁허이다 벗을 삼아
아~아양 어~양 어~요

4-3-5 서우젓 소리가 넘고 간다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p.267-268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엥 에헤에요

어여 차 뒤어 여 차
서우젓 소리가 넘고 간다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엥 에헤에요

칠성판을 등에 지고
혼백상을 머리에 잉잉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엥 에헤에요

시퍼렁 혼 저 바다를
건너어야 가실 적의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엥 에헤에요

어느야 누구가
나를 도와나 주실 거냐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엥 에헤에요

일월 7튼 서낭님이
앞을 삼아 가는 구나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엥 에헤에요

치를 잡아 가실 적의
서낭일월이 앞을 삼아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엥 에헤에요
보기 좋은 여 꽃덜로
그물 가게나 흥여 줍서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엥 에헤에요

저 바다를 배질 홀 적의
서낭일월을 앞 삼으고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앵 에헤에요

한배한내 선원들이
열두 동무를 거느리어

아하앙아하아야 에헤앵에헤에요

무췌솔에 [아이고좋다]
요 선원들을 앞세우고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앵 에헤에요

서낭일월 힘을 믿어
돈을 벌라고 나가는다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앵 에헤에요

앞발로 바다를 헤친
뒷발로 허우치명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앵 에헤에요

용궁서낭 앞 삼고
고기잡이를 나가는다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앵 에헤에요

하늘은 보면 어디 곳디도
비바람은 쳐드는데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앵 에헤에요

믿어 가는 서낭일월
우리 열두 동무를 살라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앵 에헤에요

고개고개 넘어 오는
문둥 놀을 자치면서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엥 에헤에요

불쌍하신 우리 어부
살려나 주옵소서

아하앙아 하아야 에헤엥 에헤에요

4-4 터우(테우) 젓는 소리 1수

[해설]

터우, 테우는 뗏목 혹은 떼배의 제주어(濟州語) 표기이다.

선박의 발달사로 보면 큰 원목 한 그루를 이용하는 1단계에서 파피루스, 나무 여러 주를 엮는 2단계에 속하는 원시성을 벗어나지 못한 배이다.

하지만 테우는 해양문명사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 섬주민의 역사를 논할 만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앞서 ‘남선비’ 신화에서 본 바, 제주사람들은 제주의 질 좋은 구상나무 등으로 떼배를 만들어 타고 동중국해사단항로를 항해하였을 뿐 아니라 고려시대에 이르면 육지에 창건하는 절을 짓는데 쓸 목재를 싣고 넘나들었다. 또한 지금도 자리돔을 그물로 뜰 때, 보리밭의 밀거름으로 쓸 마미조의 일종인 ‘뚝북’을 채취할 때도 이 배를 이용한다.

이 소리를 이어도 규명 간접자료로 제시한 것도 고대 제주 섬주민은 뗏목 한 주를 띄우고도 거뜬히 이어도항로를 넘나들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만치 제주 섬주민에게는 이어도 일대의 해역이 생활터전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된 노동, 지루한 기다림을 요구하는 떼배의 운항을 가벼이 하려는 목적에서 노래하는 가운데도 제주 섬주민의 해양문명사가 반추되고, 이어도가 두둥실 떠오른다.

4-4-1 어기야 디야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113

어기야 디야 허어~허어~

우리 터위는 등도 납짝 배도 납짝 네착 만 혼질혼질
폴심으로 물결 존덜로 거슬좌그네

우리 온평리는 자리 거리레 옛동산 훑앙 가고

어여 차 디여 차 어여 차 디야 차

어어어~자리여 촌지 흥젠 하민 땀이 무큰무큰 나게 막막 짓어

어으어~뜨름아~

어기야 디야 어허~

흔저 아니 가며는 물 때가 늦어지며는 자리도 못 거린다

물때 맞춰 그네 흔저 가게 었은 힘을 다 내영 짓어 보라 어~

어기야 디야 잘도 간다 어 잘도 간다

우리 배는 힘만 이시면 아~ 잘도 넘어 뜨름아

우리 터배 나무는 수정은 땃 개나 훑나 두 개 열두 개를 부청

고망 똥랑 나무 박아 놓아그네 뇌 귀는 노를 흥영

새끼 당딱 잡아 무경 틀어 노며는 저 바당에 강 띄왕 엉가도 아무 일 없구나

그만 흥면 옛동산 자리 작업 홀만 훑다 어~

어기야 디야 어여차 디여차 잘 올라 간다

우리 배는 통나무 댜데 대풍이 부나 소풍이 부나 침몰 관계는 걱정도 었고

우리 배는 터위선 재수가 좋고 어~ 옛동산에 가고 보니

자리는 밀망 뿔룩뿔룩 솟아 올르니 흔저 가그네 자리 그물 드리침

흔저 거령 오라그네 박새기로 흥여그네 흔 뉘 두 뉘 풀멍

흔저 돈 모두와 그네 쓸 사례 가꼭 하게

어기야 디여차 디여차 아이고 잘도 올라 간다 물을 바짝 썰고!

4-5 염불소리

[해설]

이 소리에서 이어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사설에 이어도는 커녕 바다 이름 하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설을 들여다보면, ‘강릉 경포대’가 아닌 ‘강남 청포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의식적인 행위에서 원시심상은 반영되게 마련이다. 사설에 드러난 강남 청포대가 강릉 경포대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런데 왜 강남 청포대라고 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면 창의적 해답을 얻을 것이다. 제주 섬 주민의 DNA에는 제주섬에서 출발하여 이어도를 지나

중국의 양쯔강 하류, 혹은 베트남 등 강남이라고 일컫던 지역을 드나들던 경험을 인지하고 있어서, 즉흥적으로 노랫말을 엮어내는 현장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토록 대를 이어 무의식 세계에 이미지된 어떤 형상을 끄집어내는 가운데 아직도 제주 섬주민의 의식세계에 내재된 이어도의 실물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어도 항로를 무수히 건넌 제주섬 선주민은 분명 한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이어도에서 일상을 살았을 것이다.

4-5-1 강남 청포대 달맞이 가자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p.169-170

모릴러라 돌 돌아 온데 강남으 청포대 달맞이 가자
아허어어야 어허이요로 아허어어야 모리로다

무정세월 가지를 따라 아까운 청춘이 늙어가네
아허어어야 어허이요로 아허어어야 모리로다

인생일장 춘몽인데 놀기도 하면서 살아 보자
아허어어야 어허이요로 아허어어야 모리로다

가자가자 어서 가자 일수 건너서 병노 가자
아허어어야 어허이요로 아허어어야 모리로다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따라 아까운 청춘덜 늙어가네
아허어어야 어허이요로 아허어어야 모리로다

모릴러라 돌 돌아 온데 강남으 청포대 달맞이 가자
아허어어야 어허이요로 아허어어야 모리로다

저 산 천지가 널다고 하웨 이 내 몸 부칠 곳 한 곳도 없네
아허어어야 어허이요로 아허어어야 모리로다

모릴러라 돌 돌아 온데 강남으 청포대 달맞이 가자
아허어어야 어허이요로 아허어어야 모리로다

4-6 성주 내는 소리

[해설]

이 소리는 집을 다 짓고 나서 치르는 의례 중에 불러진다. 그 현장은 정말로 장중하면 서도 역동적이어서 새집의 견고함을 증명하고 그 집에서 살아갈 앞날이 튼실하리라는 믿음을 안겨주기에 넉넉하다.

이 소리의 사실에 등장하는 ‘영등 산’에 주목하기 바란다. 영등은 제주어의 발상을 따라 해석해 보면, 이어도를 뜻하기도 한다.

제주어의 특징이 줄임꼴에 있는데, 이어도 출신, 혹은 이어도로부터 온 등을 표현할 때 ‘여돛’, ‘영등’ 등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위의 관련 신화 등에서도 봤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어도가 제주 섬주민의 의식에 매우 살기 좋은 곳으로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도의 산 즉 ‘영등 산’에서 베어다 집을 지으면 그토록 좋을 것이라는 예단을 하고 있음이 이 소리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자, 흥겹게 덕이 듬뿍 벤 이어도의 산에서 집을 지을 나무를 베어 이어도항로를 지나오는 고대 섬주민의 생활상을 상상하기 바란다.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도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상인가!

4-6-1 영등 산에 덕들 남 베자

출처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pp.269-270

영등 산에 덕들 남 베자
영등 산에 덕들 남 베자

이 집 지어 삼 년만의
영등 산에 덕들 남 베자

아털은 나면 효잘 낳고
영등 산에 덕들 남 베자
딸은 나면 열녀로다
영등 산에 덕들 남 베자

말은 길러 영마 뒹고
영등 산에 덕들 남 베자
소는 길러 황소 뒹고
영등 산에 덕들 남 베자

앞 이망에는 청사초롱
영등 산에 덕들 남 베자
뒷데망에는 흑사초롱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나무 비고 넘고 가자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마래로 들어 가면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곶은 낭도 찍고 가자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천장널판도 찍고 가자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문 앞장어도 비고 가자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마랫널도야 찍고 가자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부억으로는 들어가면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화장 밑에도 찍고 가자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뒤 문 앞장도 찍고 가자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요 살래도 찍고 가자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바갯으로 넘어 가면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집 서리도 찍고 가자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지동도 비고 가자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앞지방 뒷지방 비고 가자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이 나무 저 나무 다 비여당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집을 지어 봄시다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이 집 지어 어느 짝이고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짝을 팔라 봄시다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나무 수정은 다 비였수다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덕들 나무가 꺾입니다
영등 산에 덕들 남 배자

4-7 이어도 놀래

[해설]

아래 두 소리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어도항로를 절절하게 규명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아볼 만한 사실로 되어 있다.

동중국해사단항로 즉 이어도항로를 항해할 목적으로 제주섬을 출발하려거든 먼저 바다의 일기를 살펴라는 교훈적인 노래이기도 하다.

또한 길을 떠날 바에는 망설임 없이 떠나나고 결단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다보면 날개에 내려앉은 이슬에도 깃이 젖어 날아갈 수 없다는 표현은 옛날이나 이제나 결단성이 제때에 갈길을 가는 즉 항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격언으로도 들을 만하다.

이러한 교훈적인 노랫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리 이어도항로에 익숙한 제주 섬주민일지라도 그 뱃길은 만만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대해를 항해함은 날씨와 노련한 바닷길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바닷길을 정확하게 배질할 뱃사공의 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어도항로는 제주 섬주민의 해양정복 사례의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4-7-1 강남 바당

출처 :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재발간. p.91

강남 바당 비 지여 오건
제주 바당 배 놓지 말라
맹지 바당 썰빚롬 불엉
넋이 부미 돌아나 오게

[표준어 역]

강남(江南)바다에 바가 올 듯 하건
제주(濟州)바다에 배 띄우지 말라
명주 바다에 실바람 불어서
넋이 부모 돌아 오시게

- 부미 : 부모(父母)
- 멩지 : 명주(明紬)
- 쉼보롬 : 실바람(細風)

4-7-2 강남서도

출처 :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재발간. p.118

강남서도 드러 온 새야
일본서도 드러 온 새야
오늘 가져 널 가져 훗는
청대 섶에 이슬이 지언
날개 젖언 못 놀암 서라

[표준어 역]

강남(江南)서도 들어 온 새야
일본(日本)서도 들어 온 새야
오늘 간다 내일 간다더니
청대 앞에 찬 이슬이 내려서
날개가 젖어서 못 날더라

- 청대섶 : 靑竹葉
- 날개 : 날개

4-7-3 강남 가도

출처 :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재발간. p.306

강남 가도 삼 년에 온다
서울 가도 삼 년에 온다

황천 질은 조반 날 질이라도
흔 번 가난 을 줄 몰라라 혼다

[표준어 역]

강남(江南) 가도 삼 년이면 온다
서울 가도 삼 년이면 온다
황천(黃泉)길은 하루아침 길이면서도
한 번 가서는 을 줄 모르더라

- 조반날 : 잠깐 사이, 하루 아침 사이

4-7-4 바당 절

출처 :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재발간. p.320

바당 절이 울어도 근심
갓디 절이 울어도 근심
나 오라방 물 우에 놓안
병이 어심 근심이더라

[표준어 역]

먼 바다 절(파도, 물굽이)이 울어도 근심
물 갓 절이 울어도 근심
내 오빠 물 우에 띄워 보내고
병이나 없을까 근심이더라

- 갓 : 갓, 가(邊)

4-7-5 데국 가도

출처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上』, 일조각. 1965
『제주도민요연구』, 민속원. 2002재발간. p.87

데국 가도 삼 년에 온다
세양 가도 삼 년에 온다
팔 년 풍진 가신 님은
어느 제민 돌아나 오리

5. 속담

제주 섬주민들에게 대물림 되는 바다에 관한 풍부한 지식이 내포된 속담은 참으로 많다. 이미 채록되어 기록된 문헌으로 마을지(誌)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한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사전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자료가 고재환교수의 『제주속담사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자료만을 인용하였다. 이는 그 문헌만으로도 제주 섬주민의 해양생활(문명)사 측면에서 인지된 바다에 대한 지식의 축적 및 사용 한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고재환교수의 각 속담마다 붙인 해설이 그 이해를 돕는 데 지름길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원본에 약간의 첨언을 하였다. 예를 들면, 표준어의 밑줄을 ‘들물’로 표기한 경우, ‘들물(밑물)’의 표기가 그 예이다.

또한 맞춤법에 의하여 다소 원본의 원문을 수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개인’을 갯으로 표기한 것이 그 한 예이다.

속담에는 따로 해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에서 거론한 바, 고재환교수의 해제가 붙어 있어 이해를 높이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5-1 구월 초조곰 불민 벼제기 각씨 남죽(배수기) 들렁(런) 춤춘다.

- 구월 초조곰 맑으면 어부 마누라 죽것개 들고 춤춘다.

해설 : 조류에 따라 간만의 차이를 드러내는 무수기는 한 달에 두 번 교체된다. 그들 무수기 중 매월 음력 8일과 23일에는 간만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조곰에 해당한다. 어부들은 가을철로 접어들면 어획을 위한 활동이 배가된다. 특히 9월 첫 조곰인 8일째에 날씨가 맑으면 계속 맑은 날이 이어지므로 고기잡이가 순조로워진다. 그렇게 되면 가을철 풍어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니, 어부의 아내는 수익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죽것개를 들고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한다는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48

5-2 켈긴 들물 때 나끄곡, 물질을 썰(썰)물 때 하라.

- 고기는 밑물 때 낚으고, 물질을 썰물 때 하라.

해설 : 조류의 이동은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부가 고기를 낚을 때는 밑물이 시작한 후에 낚아야 잘 잡히고, 잠수가 해산물을 채취할 때는 썰물을 이용해야 멀리 헤엄쳐 나갈 수 있고 수심이 얕아지니 물질이 수월해진다. 그래서 어부와 잠수들은 밑물 때와 썰물 때를 잘 헤아려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51

5-3 ㄹ술(실·을) 그르(크르)에 가도 엇(웃)은(인) 양속(석) 바다에 가만 샘나.

- 가을 그루에 가도 없는 양식 바다에 가면 있다.

해설 : 곡식 한 알이 아쉬운 때는 가을걷이를 다해 버린 밭에 가서 베어낸 곡식 그루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 있으면 주우라고 돌아다녀도 헛수고로 끝나기 일쑤이다. 그러나 바닷가에 나가면 해초류나 게 고동 등 먹을 것을 채취할수가 있다. 그래서 옛분들은 천정에 가도 못 먹는 양식, 바다에 가면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바다를 식품의 보고로 여겼던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65

5-4 곱수(세)기 들러쥬민 놀 분다.

- 돌고래 뛰놀면 풍랑이 인다.

해설 : 돌고래는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동물로서 해변 가까이 다가드는 경우가 흔치않다. 그들이 어쩌다 해안 가까이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 물위로 몸체를 솟구치며 보라는 듯이 헤엄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현상을 지켜보아 온 어부나 잠수들에 의하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은 대개 날씨가 꺾어져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파도가 높게 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68

5-5 날 우치쟁(젠) 흥민 질 올린다.

- 날씨 꺾어지려 하면 물결이 올렁인다.

해설 : 바닷물의 울동과 날씨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파도가 올렁거리기 시작하면 어업이나 배를 부리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 해상 활동이 순탄치 못할 것임을 감지케 된다. 아무리 청명한 날이라도 물결 움직이는 소리가 평상시보다 크게 올렁이면 비바람이 치는 곳은 날씨로 변할 징조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지금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실로 믿고 있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84

5-6 다섯물 넘영(언) 아홉물 ㄹ진 물살 쟈다.

- 다섯무날 넘어서 아홉무날까지는 물살 세다.

해설 : 바다의 조수에 의해 생기는 간만의 차이인 무수기를 헤아리는 날씨는 지역에 따

라 하루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 중에 다섯무날은 매월 음력 14일과 29일, 아홉무날은 3일과 18일이다. 이두 무수기 사이인 14일에서 18일까지 5일 간, 29일에서 3일까지 4일 간은 썰물과 들물로 인한 조수의 흐름이 거세어 간만의 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부와 잠수들은 바로 이 시기의 물살을 잘 활용할 줄 모르면, 고기잡이와 잠수질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래서 먼 바다로 배를 띄우거나 헤엄쳐갈 때는 썰물을 이용하고, 물으로 돌아올 때는 밀물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화된 상식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110

5-7 들물 땀 줌자꼭, 쌀(쌀)물 땀 바당에 든다.

- 밀물 때는 잠자고, 썰물 때는 바다에 든다.

해설 : 수익성이 높은 전복류는 깊은 바다 속에 자맥질해 들어가야 채취해 낼 수 있다. 이때 잠수는 조류를 이용하게 되는데, 깊은 바다를 향해 멀리 헤엄쳐가기 위해서는 썰물 때라야 한다. 그래야 힘을 덜드리고 목적지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물이 들어 있는 만조 때는 헤엄쳐 나가기가 여간 힘에 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인 작업장에 도착하더라도 헤엄쳐 가는데 힘을 다 소모시켜 버린 데다가 수심마저 깊어 자맥질해 들어갈 엄두를 못 내 기 때문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141

5-8 달 밝은 땀 께기 잘 안 묻다.

- 달 밝은 때는 고기 잘 묻지 않는다.

해설 : 어부들은 달 밝은 밤에는 고기를 낚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것을 꺼린다. 왜냐하면 달빛이 없는 어두운 밤이라야 배에 불을 밝히면 고기들이 그 불빛 가까이 모여들어 드리운 낚시나 그물에 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 밝은 밤을 피해 낚배를 띄워 밤낚시에 임했던 것이다.

출처: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144

5-9 돌 뜨기 반 든 물, 돌 지기 반 든 물.

- 달 뜰 무렵 반은 든 물, 달 질 무렵 반은 든 물.

해설 : 바다의 조류는 달의 인력에 의해 좌우된다. 어부들의 말에 따르면 달이 뜰 무렵과 질 무렵에는 썩던 물이 다시 들기 시작해서 반쯤은 들어온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어부들과 잠수들에게 있어서 달의 운행은 조류를 헤아리는 척도가 되므로, 항상 달과 조류의 상관성을 중시했던 것이다. 지금도 바다를 무대로 생활하는 어촌의 사람들은 양력보다 음력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류의 흐름인 무수기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146

5-10 땅에 ㄴ뎡 들민 바당에도 ㄴ뎡 든다.

- 땅에 가뎡이 들면 바다에도 가뎡이 든다.

해설 : 잠수들의 말에 따르면 물에 가뎡이 들어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할 때는 바닷속에 있는 해초류도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한다. 땅과 물, 즉 육지와 바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 기후의 영향을 같이 받는다는 말이다. 실제로 육지에 풍년이 든 해는 바다에도 풍년이 들어 해산물이 풍요로운 것으로 돼 있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147

5-11 물 *가불 때 사을은 물에 안 든다.

- 물 가불 때는 물에 안 든다.

* 가불 때 : 한물이 가버린 때인데, 여기서는 썰물 때가 지나버린 만조 상태의 음력 매월 8일과 23일을 중심으로 3일간은 일컬음.

해설 : 잠수들이 물질은 주로 썰물과 들물(밀물)이 교차되는 무수기 때에 이뤄진다. 간만의 차이가 없는 때는 조금을 전후한 3일간인데, 이때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장에 수심이 깊을 뿐만이 아니라,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서 멀리 헤엄쳐 나가고 들어올 수가 없으므로 물질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썰물과 밀물이 없는 만조 때는 물질을 하러 바다에 들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176

5-12 물도 싸민 여을(흘)이 나곡, 낭도 싸민 ㄴ를이 난다.

- 물도 썬면 여가 드러나고, 나무도 썬면 가루가 난다.

해설 : 바닷물이 썬면 물 속에 잠겨 있던 바위가 바다 위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나무는 톱으로 썬면 톱밥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듯 이 세상의 만물은 각각 운행의 이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어떤 변화의 요인이 작용하면 그에 따르는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177

5-13 물도 싸민 여을(홀)이 난다.

- 물도 썬면 여가 드러난다.

해설 : 바다 속에 있는 바위가 물이 든 만조 때는 물에 감춰진다. 또 썰물이 돼서 물이 빠져나가면 바닷물에 감춰졌던 것이 물위로 솟아오른다. 이 현상은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인 동시에 순환의 이법이다. 무엇이든 변화의 요인이 작용하면 필연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177

5-14 물 썬(쑈) 땀 나비좁자당(단) 물 들어사 바당에 든다.

- 물 썬 때는 나비잡자다가 물 들어야 바다에 든다.

해설 : 잠수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썰물을 이용해야 수확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데도 썰물 때는 태평스럽게 낮잠만 흐드러지게 자다가 물질하기가 어려운 밀물 때가 돼서야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둔함과 게으름에 결과이다. 그것은 기회와 시기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허둥대는 뜬실치 못한 삶의 모습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178

5-15 바당 속이 맑으면 날 좋곡, 어둡으면 날 궂나.

- 바다 속이 맑으면 날씨가 좋고, 어두우면 날씨가 나쁘다.

해설 : 잠수속담의 하나인데, 잠수가 바다 속에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물 속이 맑을 적이 있고 어두울 적이 있다. 맑을 때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어두울 때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잠수는 바다의 생태를 통해서 기상학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비했던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198

5-16 바당 울곡 산 가깝게 보이민 날 우친다.

- 바다가 울고 산 가깝게 보이면 비 온다.

해설 : 바다의 울동은 기상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맑게 갠 날이지만 그 물결 울렁이는 소리가 유달라지면 날씨가 궂어질 징조로 안다. 산인 경우도 때로 몹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자연현상에 의존해서 기상 관계를 감지하던 옛분들은 비가 내릴 징후로 여겼던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200

5-17 뱃질, 애깃질.

- 뱃길, 아깃길.

해설 : 제주도는 자급자족으로 주민의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으니, 모자란 생활필수품은 육지부에서 들여와야 한다. 당시는 천상 배를 이용해서 왕래해야 하므로 험한 풍파를 만나 침몰하는 날이면 수중고혼의 되거나 낮은 곳에 표류해서 고향을 등지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불운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목숨을 건 뱃길을, 마치 애를 낳는 순간의 산모가 겪는 위태움과 같은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로 여겼던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217

5-18 *부날은 어(뽕)제기 칼즈록만 둥군(근)다.

- 부날은 어부 칼자루만 둥군다.

* 부날 : 물이 잘 안 썬는 (밀물 시기인) 한조금 다음 날의 무수기를 일컫는 말.

해설 : 조류에 따라 생기는 썰물과 밀물의 정도와 차이를 드러내는 무수기에 ‘부날’이 있다. 이 ‘부날’은 지역에 따라 하루의 차이는 있지만 한조금 다음날인 매월 음력 9일과 24일 계인데, 물이 썬지 않는 날이다. 고기는 조류의 이동이 있을 때 잘 물고, 조류의 이동이 없는 때는 잘 물지 않는다. 그래서 썰물과 밀물이 교차되지 않는 ‘부날’에는 고기가 안 잡히므로 어부는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게 되니, 어선에는 고기잡을 때 쓰는 칼만 나뒀군다는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p.225-226

5-19 바람 세 쟁(젠) 흐민 구쟁기 즈그뭇이 달라부튼다.

- 바람 세차게 불려고 하면 소라 딱 달라붙는다.

해설 : 물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같이 바다 속의 생물도 기후의 변화에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소라인 경우 날씨가 좋을 때는 돌과 바위틈에 가볍게 달라붙어 있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려고 할 때는 평상시와 달리 세게 딱 달라붙는다는 것이다. 지상에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바다 속에도 바람기가 거세어 힘차게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휩쓸려서 제 자리에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235

5-20 바람 세쟁(쟁) 흐민 미 오그(고)라든다.

- 바람 세차게 불려고 하면 해삼 오그라든다.

해설 : 바람이 세차게 불려면 바다 속에서부터 그 증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한 예로 잠수들의 말에 따르면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물에서보다 바다 속에서 먼저 불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때 바다 밑에 몸을 길게 늘리고 꾸물거리던 해삼도 돌변할 기상변화에 화를 입지 않으려고 긴장해서 그 몸을 오그라뜨리고 대응 태세를 갖춘다고 한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235

5-21 벼(어)제기 사을 썰민 강알 굽어본다.

- 어부 사흘 날씨가 세면 사타구니 굽어본다.

해설 : 어부는 날씨가 좋아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다. 사흘이나 일기가 나빠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으면 답답도 하거니와 식사 때 반찬이 떨어졌으니 고기 생각이 간절하다. 그래서 한다는 짓이 제 사타구니에 달려있는 생식기를 쳐다봄으로써 고기 생각을 달랠 정도로 어장에 못 나가 안달이 난다는 말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236

5-22 벼(어)제기 사을 일긴 안다.

- 어부 사흘 날씨는 안다.

해설 :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공이나 어부는 기상 관계를 잘 안다. 바다생활의 경험에 의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징상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당일은 물론이고 적어도 삼일간의 날씨는 미리 예측을 하는 기상예보관의 구실을 한다. 현재도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어부들은 파도소리나 바다 생물들의 생태를 보고 날씨 관계를 알아차리고 대비하는 것이 예사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236

5-23 산 뛰는 건 웅매, 여 뛰는 건 배.

- 산 뛰는 것은 웅매, 여 뛰는 것은 배.

해설 : 산에서 방목 중인 말들과 산야를 누비는 야생마들은 거칠 것 없이 맘껏 산에서 뛰논다. 그들 중에도 수컷인 웅매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서 거칠 것이 없다. 그에

못지 않게 잠수들을 싣고 바다 위를 넘나드는 배 역시 망망대해를 질주하다가 보면 바다 속에 잠긴 위험한 압초인 여도 홀쩍 뛰어넘는 모험을 마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249

5-24 상고지 사민 날 들른다.

- 무지개 서면 날씨 갠다.

해설 : 무지개는 거의가 비가 대은 다음 햇벌이 비칠 때 나타난다. 일단 무지개가 생겼다는 것은 비구름이 걷히고 햇벌이 지상에 비친다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불투명한 점도 있지만, 날씨가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지금처럼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대가 없었던 당시는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기후관계를 예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254

5-25 셋바람 불면 날 우친다.

- 셋바람 불면 비 온다.

해설 : 셋바람인 동풍이 불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돼 있다. 옛날 농어촌에서는 기상관계를 예측할 때 바람의 방향이나 구름의 상태를 보고 판단한다. 지금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셋바람이 불면 날씨가 변동이 생길 징조로 알고 젖어서 안 될 물건을 미리 간수하는 습관이 있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259

5-26 셋바람 불쟁(젠) 호민 물알로 먼저 분다.

- 셋바람 불려고 하면 물아래서 먼저 분다.

해설 : 셋바람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다. 그 바람이 불려고 하면, 바다 밑에서 먼저 불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잠수들의 말에 따르면 셋바람이 불려고 할 때는 바다 속으로 자맥질해서 들어가는 순간 물밑에는 이미 바람결이 동쪽에서부터 밀려 들고 있는 것을 피부로 직접 실감케 된다고 한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260

5-27 서물날은 물알로도 바람 분다.

- 서무날은 물밑으로도 바람 분다.

해설 : '서물'은 바다의 썰물과 밀물의 정도를 헤아리는 무수기의 명칭이다. 지역에 따라 하루의 차이가 있는데, 매월 음력 11일·12일과 26일·27일께가 '서무날'이다. 이때는 물이 잘 썩지 않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날씨가 좋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 물질을 하는 잠수들은 이 '서무날'에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바다속에 들어가면 물 속에도 음산해지고 바람결이 밀려드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고 한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263

5-28 서물사리 비 온다.

- 서무사리 비 온다.

해설 : '서물'은 매월 음력 11일이나 12일, 26일이나 27일, 보름 간격으로 두 번씩 반복되는 무수기를 일컫는 명칭이다. 이때가 되면 날씨가 일반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어촌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류의 현상인 무수기에 따라서 일기의 변화를 예측해냈던 옛분들의 기상관의 하나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263

5-29 *영등할망 청치메 입영(언) 들어오민 날 좋곡, 우장 썩(썩) 들어오민 날 우치곡, 무지개 입영(언) 들어오민 흙곡, 몸썰(썰)민 바람 분다.

- 영등할머니 청치마 입어서 들어오면 날 좋고, 우장을 썩서 들어오면 비 내리고, 누비옷을 입고 들어오면 흙고, 사나우면 바람 분다.

* 영등할망 :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간 들어와서 머무는 것으로 돼 있는 영등신(靈登神)인데, 비바람을 관장하는 여신.

해설 : 제주도의 민간 신앙 중에 하나가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영등신인 '영등할망'이 들어와서 머무는 시기로 돼 있다. 이 기간은 어부와 잠수들이 사는 어촌을 중심으로 그 해의 어잡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영등굿'을 하는 등 무속의례가 행해진다. 특히 이 기간의 날씨를 통해서 영등신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감지했던 것이다. 날씨가 맑게 개인 날이 이어지면 청치마를 입고 온 것으로 알았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자주 내리면 우장을 썩고 온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또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두툼한 누비옷을 입고 온 것으로 여겼고, 바람이 유난히 불어대는 날씨가 많으면 사나운 성질을 지닌 '영등할망'이 들어온 때문으로 생각했던 데서 비롯된 말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352

5-30 *와(웨)살 때 물알은 감태 삼어도 무지러지멍 쫓어간다.

- 와살 때 물밑은 감태 잡아도 무지러지면서 끌어간다.

* 와(웨)살 : 썰물과 밀물의 차가 심할 때 나타나는 조류의 흐름이 거센 물살

해설 : 바다는 조류의 흐름에 따른 간만의 차이가 심할 때일수록 물살이 거세어지는데, 그 현상을 ‘와(웨)살’이라 한다. 이때는 잠수가 물질하기 위해 바다 밑에 들어가면 그 세찬 물살에 끌려가고 만다. 즉 아무리 끌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단단한 해초인 감태를 붙잡아도 무지러지면서 끌려가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잠수들은 ‘와살’이 진행되는 동안은 잠수질이 불가능하므로 물에 들지 않는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360

5-31 웨곰수(세)기 뒤편 큰개기 따른다.

- 외돌고래 뒤편은 큰고기 따른다.

해설 : 북제주군 연평면의 속칭인 ‘소섬(牛島)’의 어부와 잠수들에게 두루 통용됐던 해양 속담의 하나이다. 돌고래는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이 상례이지만, 이따금 한 마리만 다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그 뒤에 커다란 고기인 상어가 뒤쫓아 다니기 쉬움으로,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잠수들은 작업을 하다가도 돌고래가 외톨로 있으면, 그 곳을 서둘러 피하는 것으로 돼있다. 여기서 상어를 ‘큰고기’라고 한 것은 경외감을 드러내는 대상에 대한 직설적인 것을 금기시하는 우회적 표현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p.367-368

5-32 절 올민 날 쟈다.

- 물결 올면 날씨 거세다.

해설 : 자연 현상에 의해 날씨 관계를 예측했던 어부나 잠수들은 물결의 소리를 예민하게 감지해낸다. 특히 동이 트는 새벽녘이나 초저녁의 울렁이는 파도의 울동에서 예사 때와 다른 낱새가 나타나면 일기가 나빠질 징조로 생각한다. 그런 때는 거의가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돼 있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396

5-33 조금엔 꿩이 잘 안 묻다.

- 조금에는 고기 잘 안 묻다.

해설 : 조금은 물이 제일 안 썬는 무수기인데, 매월 음력 8일과 23이다. 물이 안 썬다는 것은 조수에 의한 간만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 때는 묘하게도 고기를 낚기 위해 미끼를 썬 낚시를 드리워도 고기가 잘 묻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밀물과 썰물이 교체로 조류의 흐름이 있을 때라야 물 속에도 생기가 돌아 고기들도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먹이를 찾기 때문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406

5-34 쥘(쥘)이 느리는 배랑 타지 말라.

- 쥐가 내리는 배는 타지 마라.

해설 : 쥐들은 날씨의 변화를 감지하는 천부적인 감각을 타고 낳는다고 한다. 태풍이 치려면 배 안에 있던 쥐들이 물으로 내려 버리는 것으로 돼 있다. 그것을 보고 배를 부리는 사람은 물론이고 배를 타려고 하던 손님들도 뱃길의 날씨가 순조롭지 못할 징조로 알고 출항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쥐가 내려 버리는 배는 타기를 꺼렸던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p.414-415

5-35 잠녀(수) 애긴 사흘이민 골체에 눅저 똥(똥) 물질 혼다.

- 잠녀 아기는 사흘이면 삼태기에 눅혀 두고 물질한다.

해설 : 옛날 잠녀는 어린애를 낳은 다음 사흘이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예사이다. 그러자면 그 어린애도 강보에 싸서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와 함께 삼태기에 담아두고 바닷가로 나와야 하니, 어린애는 삼태기 속에 눅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생계 해결이 어려웠으므로, 몸을 돌볼 여유가 없이 물질을 해야 하는 강인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잠녀라는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437

5-36 잠녀(수) 애기 낳(난) 사흘이민 물에 든다.

- 잠녀는 아기 낳고 사흘이면 물에 든다.

해설 : 여인네가 어린애를 낳고 삼일이면 몸조리를 잘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도 물질

을 해야 생계를 해결하는 잠녀는 출산 후 삼일이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작업을 해야 한다. 그만큼 잠녀의 생활은 박해서 몸을 사리지 않는 억척스러움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438

- 5-37 초요드렛쨌기엔 물찌가 살아오곡, 수무이틀 쨌기엔 물찌가 죽어간다.
- 초여드레 조금에는 무수기가 살아오고, 스무이틀 조금에는 무수기가 죽어간다.

해설 : 잠수들의 말에 의하면 꼭 같은 무수기에도 조류의 흐름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매월 음력 초여드레 조금의 무수기는 그 조류가 살아나는 기운을 느낄 수가 있고, 스무 이틀 조금의 무수기는 그 조류의 흐름이 낱새가 약해서 죽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같은 무수기의 조류도 그 시기에 따라 흐름의 기세가 달리 드러난다는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447

- 5-38 초정월 우치민 보(어)제기가 운다.
- 초정월 비 오면 어부가 운다.

해설 : 정월 달은 한 해의 시작인 동시에, 그 해의 길흉을 암시하는 달로 여기기 일쑤이다. 그 결과 그 해 첫 달인 정월에 비가 연이어 내리는 날이 많다는 것은, 곧 한 해 동안 굶은 날씨가 많을 징조로 알고 어부들은 울상일 수밖에 없다. 굶은 날이 많아질수록 어장에 나가 고기를 잡을 날이 줄어들게 돼서 수익이 줄어드니 생계가 곤란해진다. 그래서 운다고 한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448

- 5-39 초하를(르·루) 보름 우치민 서보름 우친다.
- 초하루 보름 비오면 선보름 비 온다.

해설 : 옛 분들의 기상관의 하나는 그 달로 들어섰을 때 초하룻날에 비가 내리거나 보름날에 비가 내리면, 그 후부터 보름간은 빗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하룻날 비가 내리면 보름날 동안 이어지기 쉽고, 또 보름날 비가 내리면 그믐날까지 굶은 날씨가 이어진다는 말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448

5-40 친정이 가도 못 얻은 저녁ㄱ슴(심) 바당에 가민 얻나.

- 친정에 가도 못 얻은 저녁거리 바다에 가면 얻는다.

해설 : 식생활이 어려웠던 당시는 체면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 나선다. 여자의 입장에서 끼니거리가 없으면 친정에 찾아가기 마련인데, 친정이라고 여유가 없으니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바다에 가면 해산물을 조금이라도 채취할 수 있으니, 친정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449

5-41 칠팔월 양두센 *짐녕 사름 애기 생길 브름인다.

- 칠팔월 셋바람은 김녕 사람 아기 생길 바람이다.

* 짐녕 :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해설 : 셋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온다. 대개 이 바람이 불면 아무리 고기가 잘 잡히는 칠팔월이지만, 날씨가 궂어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고 집에 묵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어장에 나가서 작업에 시달려야 하니, 부부간에 잠자리를 같이 할 시간 여유가 없다. 특히 제주도에서 '김녕'이란 곳은 멀리 떼가 많이 몰려 들고 고기가 잘 잡히는 어촌으로 유명했는데, 남자인 경우는 대부분 어업에 종사했던 점을 생각하면 실감이 가는 말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451

5-42 태풍은 농스(서)엔 해롭곡, 바당엔 이롭나.

- 태풍은 농사에는 해롭고, 바다에는 이롭다.

해설 : 태풍은 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천적에 해당한다. 그 태풍이 한 번 휘몰아치고 나면 풍년을 앞에 두고도 삼시간에 흉년으로 바뀌놓고 만다. 그러나 바다의 생태계에는 오히려 신선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 태풍이 불어 바다 밑을 뒤흔들고 나야 낚은 찌꺼기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먹이가 형성돼서 해양생물의 자라는데 이롭기 때문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462

5-43 태풍 치쟁(젠) 호민 배엿쟁(쟁)이 다 느린다.

- 태풍 치려면 배의 쥐(가) 다 (땅으로) 내린다.

해설 : 야생류의 짐승들은 기상 변화를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쥐인 경우는 큰 태풍이 불려면, 배안에 숨어 지내다가도 물으로 내려서 피한다고 한다. 그것을 보고 출항을 하려던 선원들은 날씨가 심상치 않을 징조로 알고 항해를 주저하게 된다. 무시하고 그냥 배를 띄웠다가는 풍랑을 만나 표물의 위기를 맞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462

5-44 파도 세 쟁(젠) 호민 머 오그(고)라들곡, 구쟁긴 즈그뭇이 달라부튼다.

- 파도 세려면 해삼은 오그라들고, 소라는 꼭 달라붙는다.

해설 : 바닷생물인 해삼과 소라는 물 속에 살지만, 기상 관계에 예민하게 대응한다. 태풍과 같은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려고 하면, 그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킨다. 해삼인 경우는 길쭉한 몸통이 오므라들어 작아지고, 소라도 평시에는 돌에 가볍게 달라붙지만, 바람이 거세지려고 하면, 그 달라붙는 힘이 강하게 된다. 왜냐하면 바람은 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피해를 입지 않고 견뎌내기 위한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463

5-45 혼물 아래 칼 받앙(안) 든다.

- 혼물 아래 칼 받치고 든다.

해설 : 바닷물의 썩고 드는 간만의 정도가 나타나는 날짜에 따라 무수기의 이름이 붙여진다. ‘혼물’은 매월 음력 10일과 25일째인데, 이때부터는 물이 썩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잠수들이 물질하기에는 적합치가 않다. 왜냐하면 해산물을 채취할 작업장에 수심이 깊어서 힘이 부치기 때문이다. 그것을 무릅쓰고 물에 들어갈 경우는 전복이나 소라를 떼어낼 때 쓰는 도구인 ‘비창’을 거머쥔 손을 가슴팍에 받치고 숨을 멈춘 채 썩근덕거리며 물 밑으로 자맥질해 들어 가야 한다. 바로 그럴 때의 고충이 크다는 것이다.

출처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pp.481-482

III. 결론

제주민의 구전문학에 기록되어진 이어도를 추적함으로써 생생한 삶의 터전으로서 주변 해역 및 원양 항해의 루트로 개척되어진 해양생활사를 뚜렷이 부각시키게 될 것이며 아울러 이어도에 대한 제주 섬 주민의 본향지향적 원시심상의 근원을 증거하는 단초를 얻게 될 근거를 본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에 이어도의 역사가 일조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인용 · 참고 문헌

- * 다카하시토오루[高橋亨], “民謠에 나타난 濟州女性-이허도(離虛島)전설-”
『朝鮮』 212號 昭和 8年(1933년)
- 『제주도의 옛 紀錄-1878~1940년』, 제주시 우당도서관 편. 1997.
- * 고대경, 『神신들의 故郷』, (도)증명, 1997.
- * 고은, 『제주도-그 전체상의 발견』, 일지사. 1976.
-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 *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 (상). 일조각. 1965.
- *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1959.
- *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노래에 드러난 갈등양상과 현실인식”, 민요학회, 『민요론집』 제2호. 민속원. 1993
-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2』 제주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 현용준,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9-1』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 한기홍, “조천민요의 특이성”, 민요학회, 『민요론집』 제3호. 제주문화. 1994
- * 홍정표,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 1963 초판,
『제주도민요해설』, 제주문화. 2001 재발간.
- * MBC(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라디오국. 1992

인터넷 검색

*윤복현, 2011. 11.1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696385>)

자체평가의견서

제주민의 인지적 기록물인 구전문학에서 전해지는 이어도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본문을 탐구함으로써 이어도에 대한 제주 선주민의 실효적 지배의 역사를 추적하는 증거로 제시하고자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이어도의 인문학 분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시리즈 발간 사업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①기존의 구전자료를 채록한 문건을 중심으로 소리(민요)와 서사문학(설화, 신화) 작품을 수집, ②이어도에 대하여 직접 언급된 자료를 직접 자료, 제주 선주민의 동중국해 및 주변 수역 이용 상황이 나타난 자료를 간접 자료로 분류, ③ 특징과 형성과정을 인문학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민의 의식에 구체화되어 구비문학의 형식으로 표출된 정서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논리적으로 해설하였다. 결론적으로 직접자료 및 간접자료를 통하여 제주 선주민이 이어도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인지에 의하여 이미지가 확고하게 형성된 점을 볼 수 있었다. 다만 구전문학의 전승 특성상 채록 시점에서 시간의 범위가 넓지 않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그렇더라도 소리(민요) 및 서사문학 전반에 걸쳐 주된 원형, 즉 이어도에 대한 이미지는 그대로 보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이어도를 연구하는 인문학 분야 기초자료로써 이어도 연구회가 지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단행본(시리즈)으로 출간, 이 분야의 연구 및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시행한 이어도 연구회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시행한 이어도 연구회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2011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위탁연구사업 최종결과보고서 II

발간등록번호 : 11-1611234-000196-01

발행일 : 2011년 12월 12일

발행처 : (사)이어도연구회
